

공공기관연구 13-02

공공기관 부채의 성격과 원인 분석

2013. 12.

연구진

연구책임자

허경선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진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문창오 공공기관연구센터 회계사

김은선 공공기관연구센터 회계사

김소현 공공기관연구센터 회계사

윤주윤 공공기관연구센터 회계사

김준현 공공기관연구센터 회계사

송신형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정아름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공공기관 부채정보 공개의 목적과 범위

- 공공기관 부채관리의 핵심은 정부 3.0에 입각, 상세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감시 시스템의 강화
 - 공공기관의 부채의 현황과 추이, 증가 속도와 성격, 발생 원인에 대한 상세 정보와 분석내용을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
 - 현재의 공개정보에 비해 더 여러 해의 정보, 더욱 상세한 정보, 이해를 돕는 분석을 포함한 정보 제공이 필요
- (정보공개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부채규모, 증가속도, 자본잠식 상태 등을 기준으로 12개 공공기관을 우선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최근 15년간을 집중분석

12개 우선 분석 대상 기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 두 기관은 업무수행이 부채를 자연 발생시키는 구조라 다른 기관의 부채와 차별화되거나 부채총량 공개원칙에 따라 우선 분석대상 기관에 선정(분석 시에는 별도 처리)

- 위 12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412.3조원으로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 493.4조원의 83.6%이며 최근 5년간 부채 증가분의 92.3%를 차지(2012년 말 기준)

〈요약표 1〉 12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중

(단위: 조원)

구분	2007년(K)	2008년(K)	2009년(K)	2010년(I)	2011년(I)	2012년(I)	5년간 증가폭
부채규모 상위 12개 기관 (비중)	186.9 (75.0%)	227.7 (78.5%)	267.4 (79.4%)	324.4 (81.7%)	378.7 (82.5%)	412.3 (83.6%)	225.5 (92.3%)
공공기관 전체	249.2	290.0	336.8	397.0	459.0	493.4	2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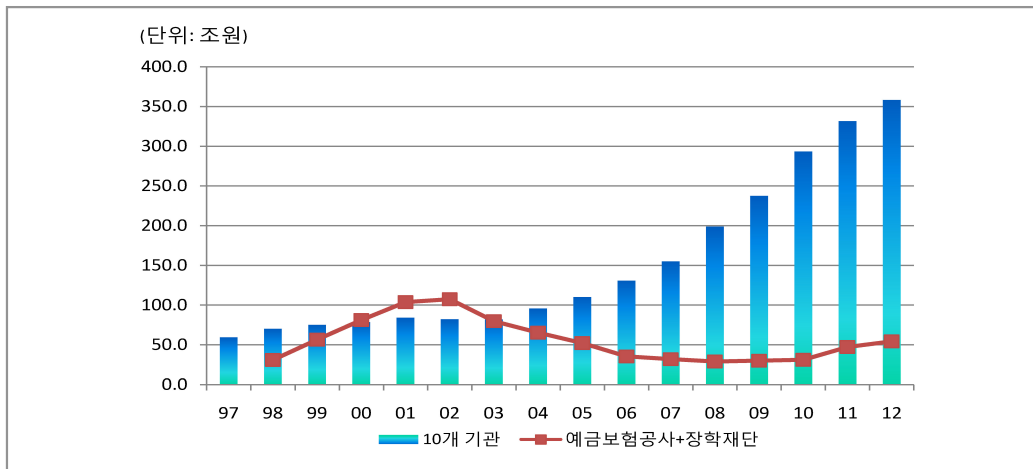
주: (K)는 K-GAAP을 적용한 회계처리 수치이며, (I)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공기업의 경우 동 기준을 적용한 회계수치임

2. 12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와 추이

□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1997년 59.4조원에서 2012년 412.3조원으로 15년간 352.9조원 증가

-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15년간 298.7조원 증가
 - 예금보험공사 부채는 2003년 이후 상환되고 있으나 국채 전환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국민부담 경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장기추세를 볼 때에는 별도 구분 필요
 - 장학재단은 2009년에 설립되었고 부채 성격이 다르므로 역시 별도 구분 필요

[요약그림 1] 과거 15년간 부채규모(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 별도 구분)



- **부채비율** :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차츰 낮아지다가 200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 245.3%임

〈요약표 2〉 과거 15년간 10개 기관 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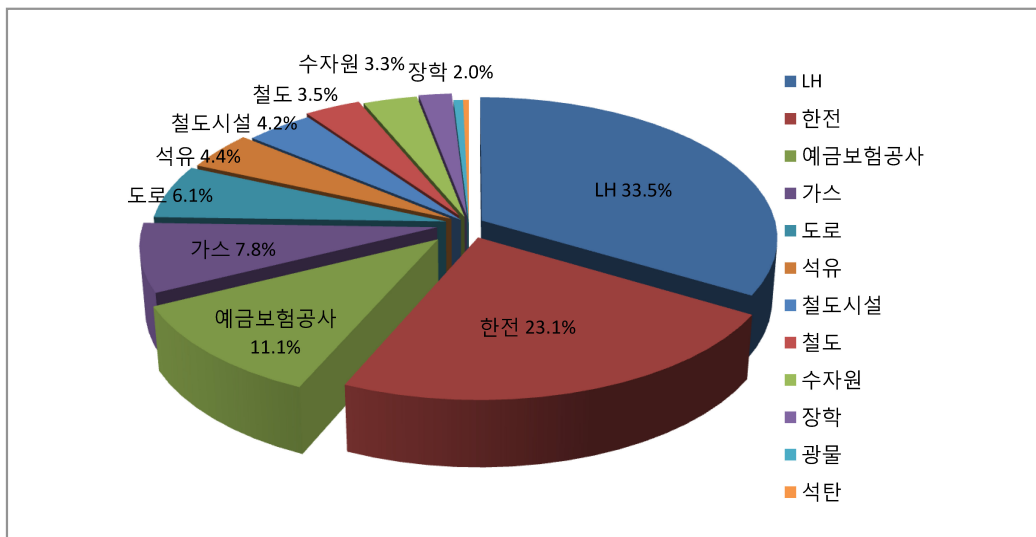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1997년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부채	59.4	78.4	81.9	130.8	237.4	358.1
부채비율	170.7	124.7	103.4	108.8	171.8	245.3

주: 예금보험공사(무자본특수법인)와 장학재단(금융형)의 경우 기관 특성상 부채비율이 의미가 없으므로 분석 제외

- **기관별 부채규모**: LH공사(33.5%, 138.1조원)와 한국전력공사(23.1%, 95.1조원)가 12개 기관 부채의 56.6%를 차지(2012년 기준)
 - 예금보험공사(11.1%, 45.9조원), 가스(7.8%, 32.3조원), 도로(6.1%, 25.3조원), 석유(4.4%, 18.0조원), 철도시설(4.2%, 17.3조원), 철도공사(3.5%, 14.3조원), 수자원(3.3%, 13.8조원), 장학재단(2.0%, 8.4조원), 광물(0.6%, 2.4조원), 석탄공사(0.4%, 1.5조원) 순

[요약그림 2] 12개 기관별 부채규모(2012년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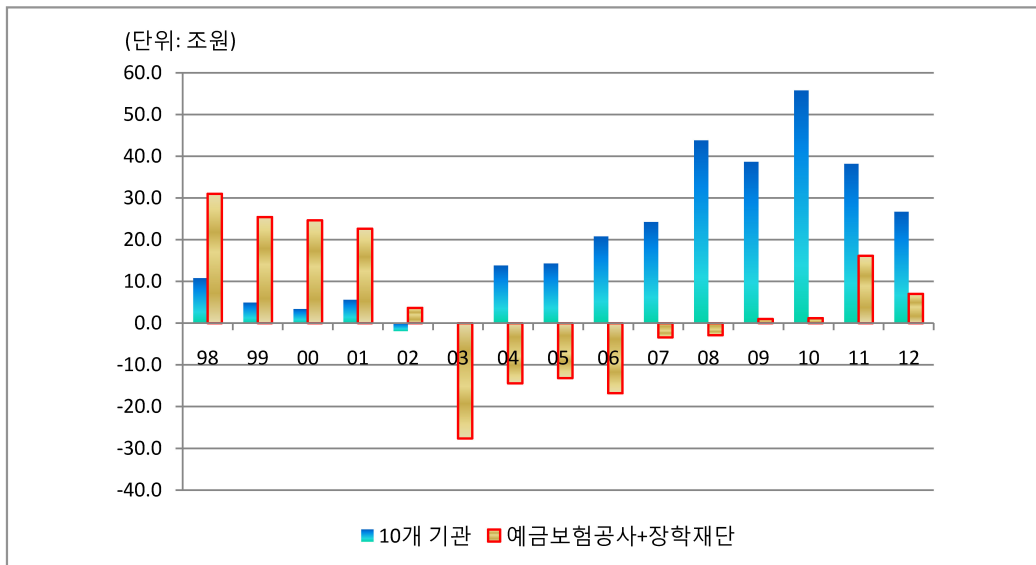


3. 부채의 증가 속도

□ 증가속도: 2004년 이후 증가세가 시작하여 2008년에 급증

- 12개 기관의 2008~2012년 동안 증가액(225.5조원)은 2012년 말 부채규모(412.3조원)의 54.7%
- 10개 기관(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제외): 1997~2003년까지 부채는 22.6조원 증가(연평균 3.8조원)하였으나, 2004~2012년 동안 부채는 276.2조원(연평균 30.7조원, 매년 17.8%) 증가
-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 경제위기 직후(1998~2001년) 급증했으나 만기상환과 국채전환으로 감소하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다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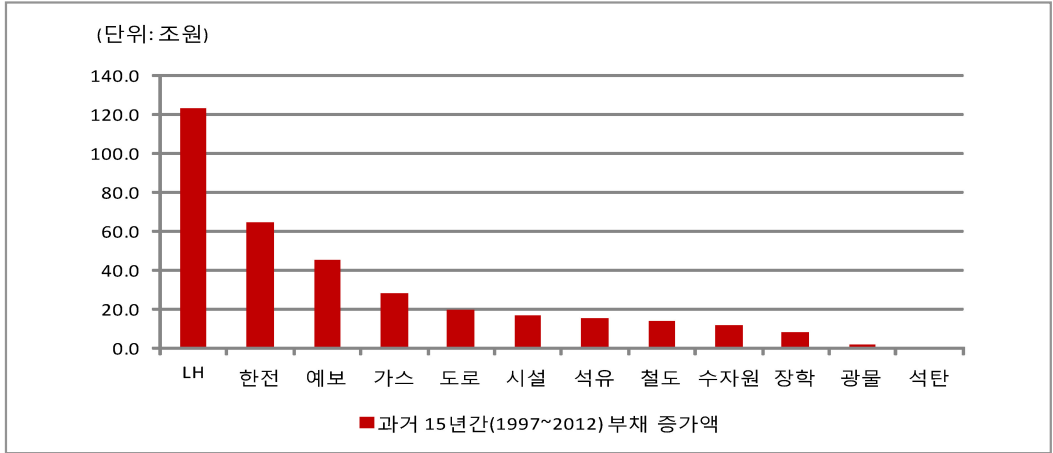
[요약그림 3] 12개 기관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 기관별 증가폭: 과거 15년간(1997~2012년) 기관별로 부채 증가액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가장 크게 증가

- 한국토지주택공사(123.4조원), 한국전력공사(64.7조원), 예금보험공사(45.9조원), 한국가스공사(28.5조원), 한국도로공사(19.7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17.3조원), 한국석유공사(15.9조원), 한국철도공사(14.3조원)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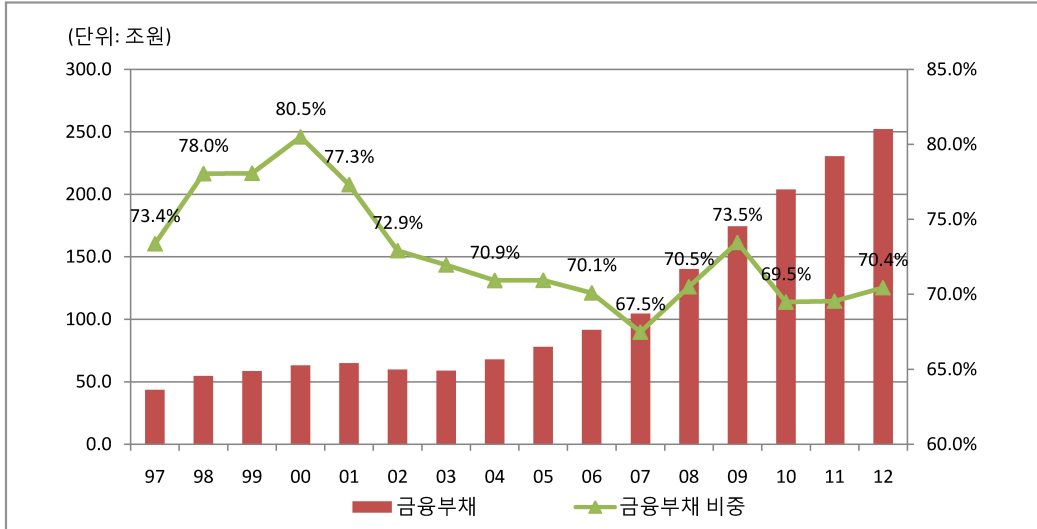
[요약그림 4] 12개 기관의 과거 15년간 기관별 부채 증가액(1997~2012년)



4. 부채의 성격

-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에 대한 부채의 성격을 분석
 -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의 경우 다른 10개 기관과는 업종이 상이하야 다른 기관과 동일한 재무비율로 분석함에 따른 실익이 없으므로 제외
 - 10개 기관의 부채(358.1조원)는 12개 기관 부채(412.3조원)의 86.8%이며 295개 전 공공기관 부채(493.4조원)의 72.6%에 해당
- 금융부채(이자부담 부채): 10개 기관의 금융부채 비중은 70.4%(2012년 기준)
 - 금융부채의 비중은 경제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와 2008년 이후에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기간에는 대체로 70% 수준을 유지

[요약그림 5] 10개 기관의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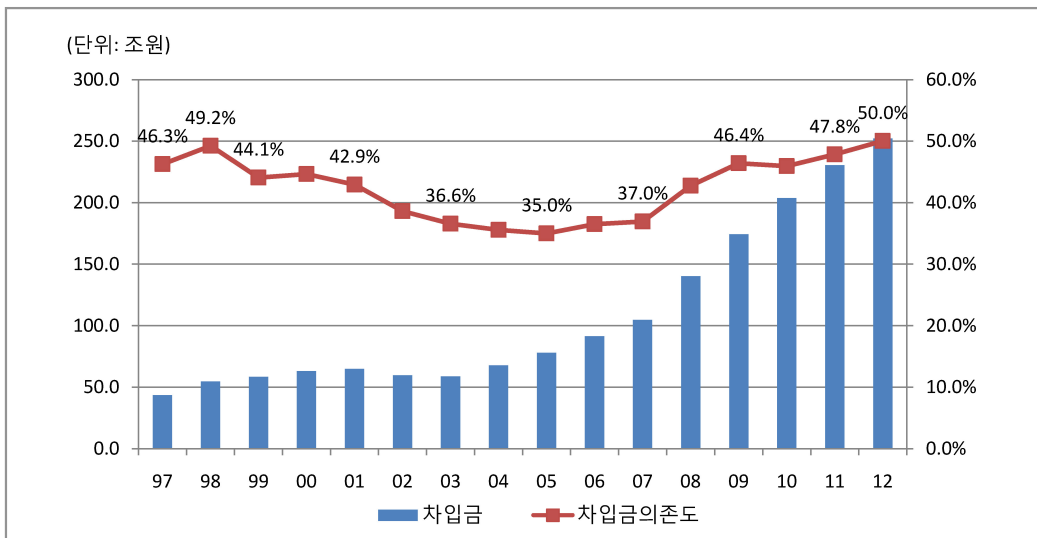
주: 금융부채는 부채로 인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로 사채, 차입금 등이 해당되며, 비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충당부채 등 금융부채 이외의 부채임

□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 10개 기관 모두가 30% 초과(평균 50.0%)

(차입금의존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 주의를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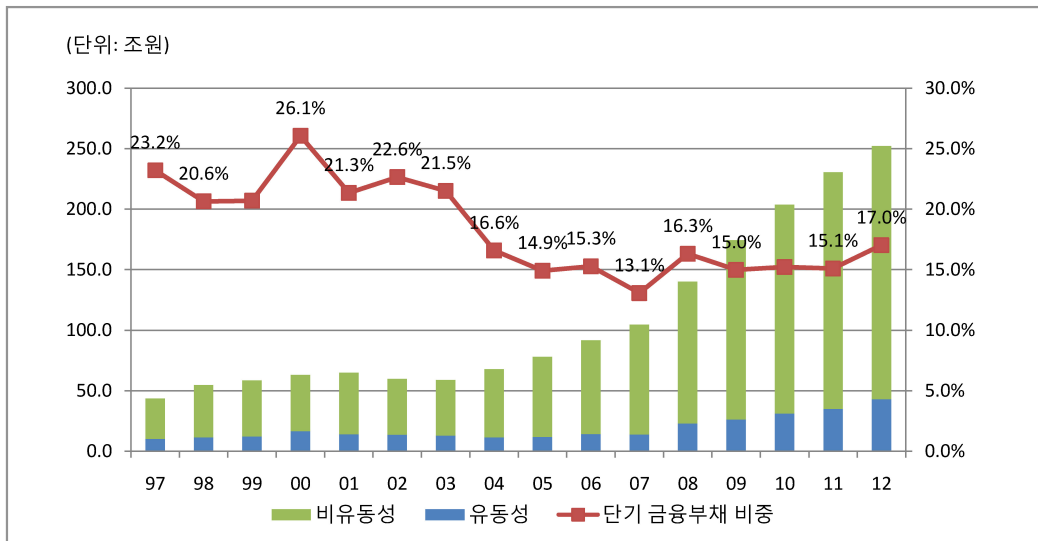
○ 2007년에는 30% 초과 기관이 7개였으나 2008년 이후 급증

[요약그림 6] 10개 기관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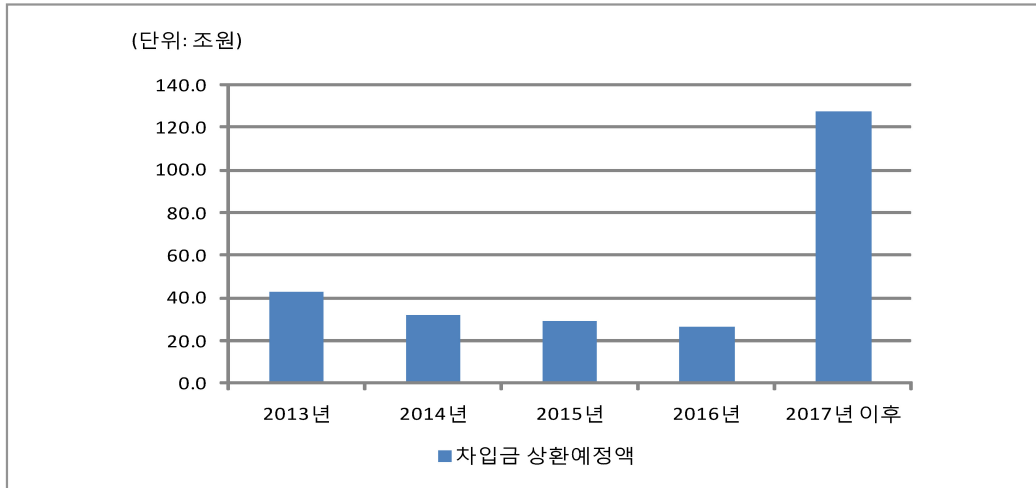
- 단기 금융부채(만기 1년 이내의 부채) 비중: 2008년 이후 소폭 상승 추세
- 단기 금융부채 비율이 특히 높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로서 금융부채 중 1년 이내 유동성 부채가 70%를 초과

[요약그림 7] 10개 기관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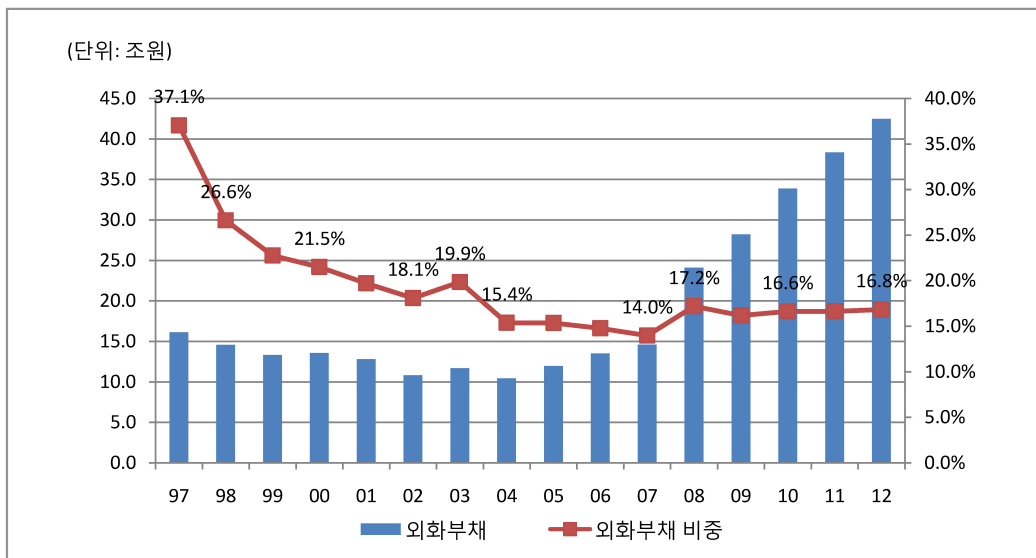
- 금융부채 상환계획: 2013년에 상환할 금융부채는 42.8조원(16.6%)이고 2017년 이후에는 127.3조원(49.3%)을 상환할 계획
- 3년 이내 만기 도래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은 석탄공사(99.9%), 광물공사(89.9%), 석유공사(51.7%), 가스공사(48.5%), 토지주택공사(40.4%) 순

[요약그림 8] 10개 기관의 차입금 상환계획



- 외화부채 비중: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8년 이후 증가하여 16%대를 유지
- 동 비율이 특히 높은 기관은 석유공사(97.3%)와 광물자원공사(79.3%)

[요약그림 9] 10개 기관의 연도별 외화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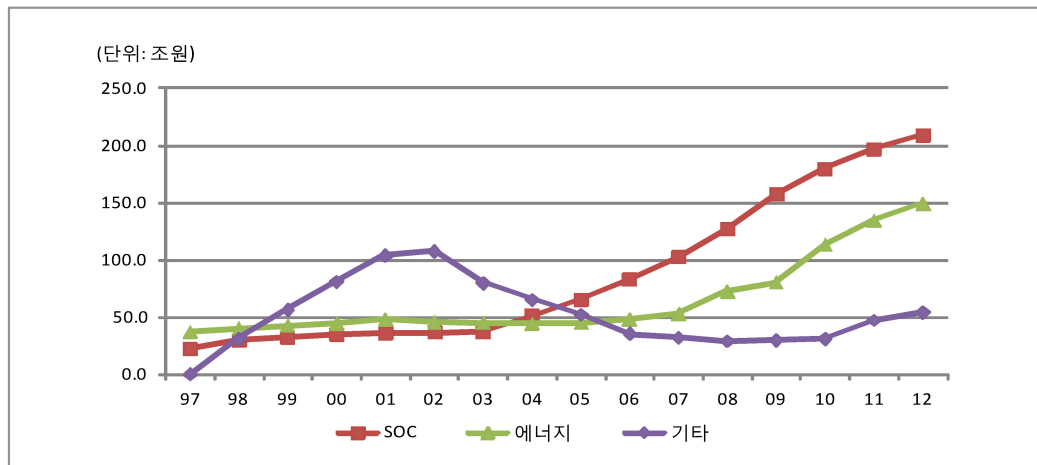


5. 부채의 발생 원인 분석

가. 기능단위별 원인 분석

- 12개 공공기관의 기능단위별(SOC, 에너지, 기타) 분류: SOC 공공기관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한 반면 에너지 공공기관은 2008년 이후 급증
 - SOC 공공기관: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 에너지 공공기관: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 기타 기관: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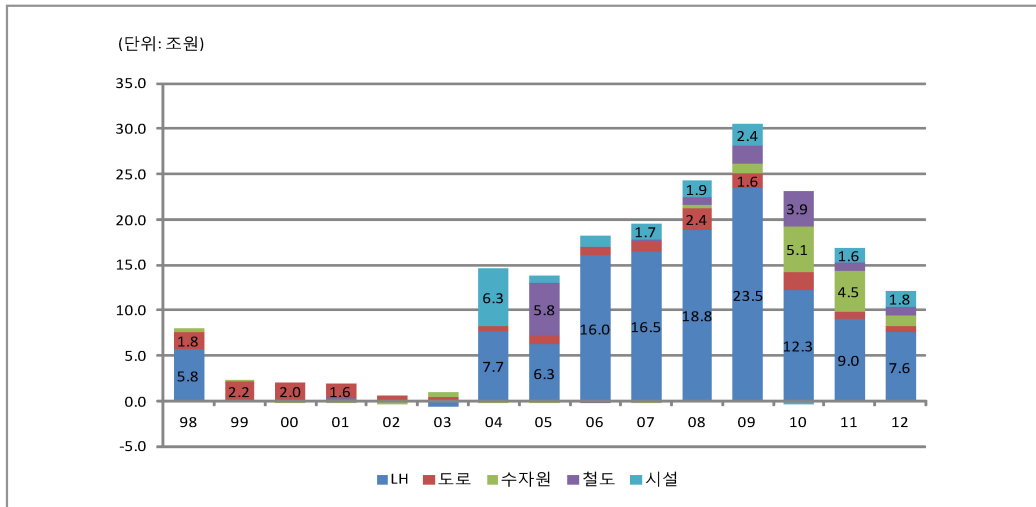
[요약그림 10] 10개 기관의 기능단위별 부채규모의 추이



- SOC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폭: 2004년부터 증가세 시작
 -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 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시 및 혁신도시 개발로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증가속도 가속
 - 철도시설공단: 2004년 설립된 이후 경부고속철도 건설투자로 2007년까지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건설투자 및 이자비용으로 부채 증가 지속
 - 철도공사: 2005년 출범한 이후 매년 4천~7천억에 달하는 영업적자로 인해 부채 누증

- 한국수자원공사: 2008년 이후 4대강 살리기 및 경인 아라뱃길 사업 수행에 따른 부채 증가액이 9.2조원
- 도로공사: 1998년 이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투자비를 확대한 결과 부채 급증

[요약그림 11] SOC 공공기관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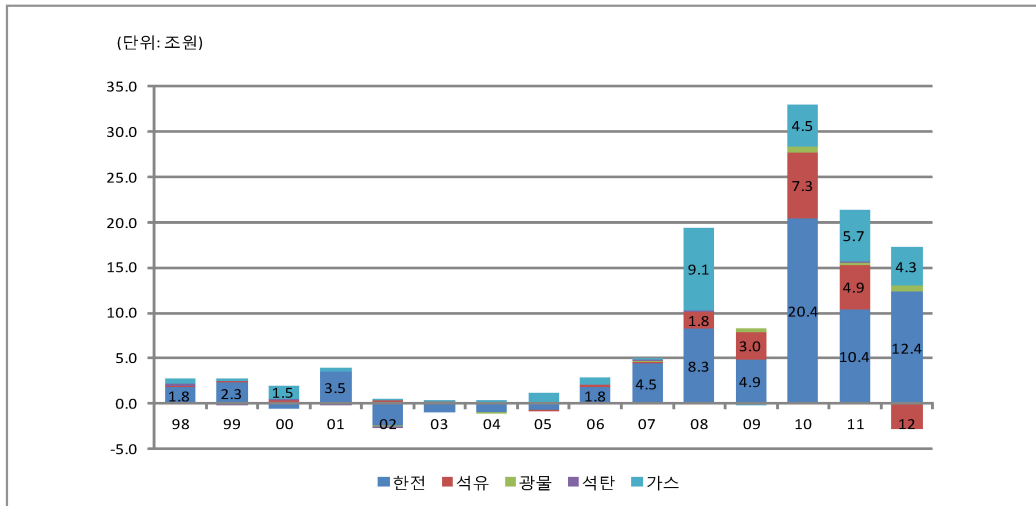


주: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는 각각 2004년, 2005년에 설립

- 에너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폭: 2007년 이후 증가속도가 급격히 빨라짐
 - 2008년 이후 부채 증가는 한전(56.4조원), 가스공사(23.5조원), 석유공사(14.3조원), 광물공사(1.9조원), 석탄공사(0.2조원) 순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한국전력공사: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등 설비투자비로 인한 부족자금과 전기요금 억제로 인한 영업적자가 주요 원인
 - 원가회수율: 77.7%('08년) → 91.5%('09) → 90.2%('10) → 87.4%('11) → 88.4%('12)
 - 한국석유공사: 해외 석유개발기업의 합병 및 자산인수를 위한 외화 차입
 - 한국가스공사: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미수금(5.5조원),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6.2조원) 및 IFRS 도입에 따른 추가 부채인식 등
 - 한국광물자원공사: 2008년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사명을 변경하고 자원개발을 위한 직접 투자에 나서면서 외화 부채를 중심으로 부채 증가

- 대한석탄공사: 민간기업 대비 높은 영업비용으로 인한 구조적인 적자구조로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

[요약그림 12] 에너지 공공기관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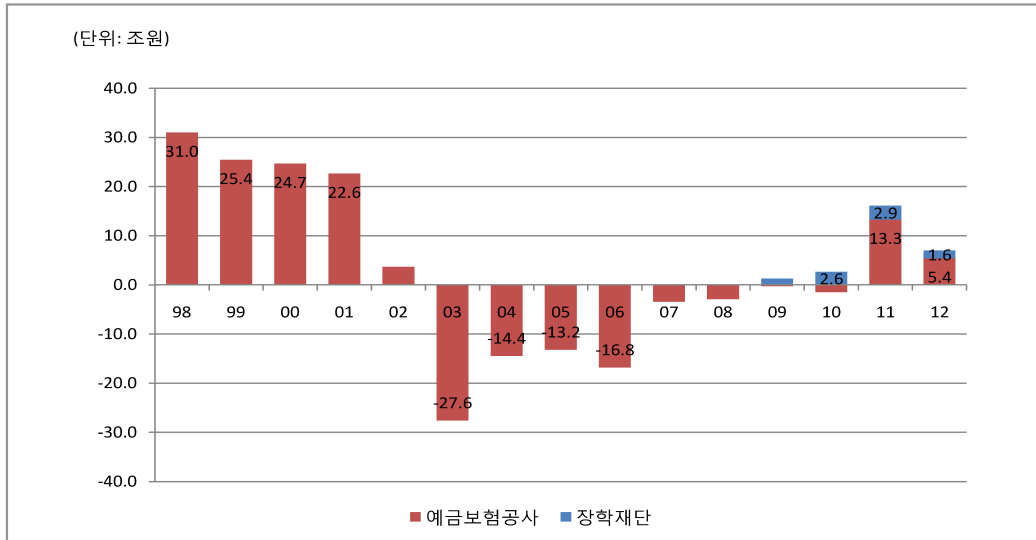


주: 2012년 석유공사는 원화 강제로 외화부채의 원화표시액이 감소함

□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의 부채

- 예금보험공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예금보험기금채권(이하 예보채) 발행으로 부채가 급증하였으나 2007년까지 대부분 만기 도래하고 국가채무로 전환되어 부채 감소
 - 2008~2012년에는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예보채가 추가 발행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부채가 증가
- 한국장학재단: 2009년 설립되어 학자금 대출재원을 위한 8.4조원의 부채 발생

[요약그림 13]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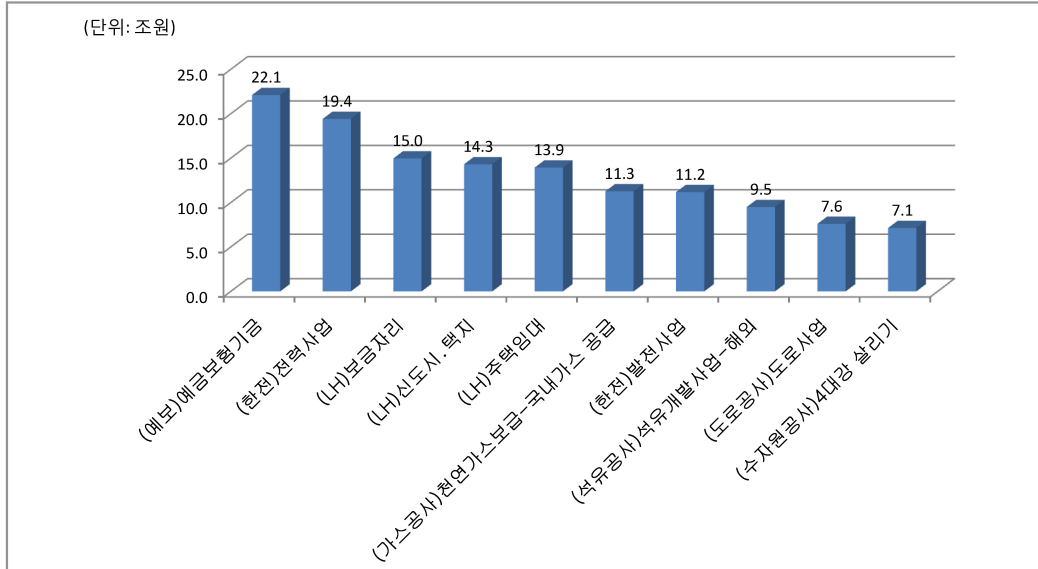
□ 주요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추정

- 주요 사업별 자금흐름을 기준으로 차입금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금융부채 증감액을 산출하였으며 사업 간 공통비 등의 배분시 일정한 가정을 전제하여 도출
- 자금흐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K-IFRS 도입 시 회계기준 적용 차이의 효과 등으로 인한 금융부채 순증감액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회계상 금융부채 순증감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12개 공공기관 금융부채 증가(167.3조원)의 대부분(78.5%)은 아래의 10개 사업에서 발생(131.4조원)

-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사업(22.1조원),
-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사업(19.4조원) 및 발전자회사의 발전사업(11.2조원)
- LH공사의 보금자리사업(15.0조원), 신도시·택지사업(14.3조), 주택임대사업(13.9조원)
- 가스공사의 국내천연가스 공급사업(11.3조원)
- 석유공사의 해외 석유개발사업(9.5조원)
- 도로공사의 도로사업(7.6조원)
-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7.1조)

[요약그림 14] 12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사업별 금융부채 발생액 상위 10개 사업('08~'12 합계액)



주: 한전의 전력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 관련 시설투자가 포함되며 한전의 발전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주)를 포함한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들이 시행하는 신규 발전소 건설 및 보수가 포함되어 있음

〈요약표 3〉 12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단위: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한국토지 주택공사	보증자리	13,505	18,693	39,905	42,880	34,663	149,646
	산업단지 등	-6,620	1,070	14,714	9,975	8,865	28,004
	주택임대	41,543	46,685	622	12,510	38,027	139,387
	세종·혁신도시	19,960	6,489	13,001	237	-12,135	27,552
	신도시·택지	29,285	64,626	50,371	-3,692	2,511	143,101
	기타	44,127	61,685	-24,223	-8,373	-7,586	65,630
	소계	141,800	199,248	94,390	53,537	64,345	553,320
한국 전력공사	전력사업	43,258	23,894	33,653	39,457	53,899	194,161
	발전사업	28,155	20,860	4,347	30,667	27,728	111,757
	해외사업	1,639	7,136	10,368	-17	15	19,141
	기타	2,050	89	7,208	-4,232	-1,421	3,694
	소계	75,102	51,979	55,576	65,875	80,221	328,753

〈요약표 3〉의 계속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한국 석유공사	석유개발사업 - 국내	640	-29	-396	-763	262	-286
	석유개발사업 - 해외	10,054	30,438	27,881	26,262	329	94,965
	민간 용자사업	2,293	-1,424	-	-	-	869
	비축사업	-	-	-	-	-	-
	기타 - 환율효과	-	-	-1,763	902	-6,968	-7,828
	소계	12,987	28,985	25,723	26,401	-6,377	87,720
한국 도로공사	도로사업	27,910	15,763	16,216	10,258	5,875	76,022
	부대사업	-762	-728	424	-1,043	-518	-2,627
	소계	27,148	15,035	16,640	9,215	5,357	73,395
한국광물 자원공사	투자사업	1,251	2,718	3,730	2,339	5,700	15,738
	용자사업	689	21	1,770	-2,952	-	-472
	소계	1,940	2,739	5,500	-613	5,700	15,266
대한 석탄공사	무연탄생산판매	2,028	-817	192	1,103	101	2,607
한국 가스공사	천연가스보급 - 국내가스 공급	67,851	4,083	5,000	23,379	12,333	112,646
	천연가스보급 - 국내도입용 해외가스전 지분투자	-1,280	-781	-673	13,228	19,568	30,061
	요금비규제- 해외자원 개발	989	1,629	6,068	7,863	10,685	27,234
	기타 해외사업	462	151	-3	-68	105	646
	소계	68,022	5,081	10,392	44,401	42,691	170,587
한국 수자원 공사	수자원	1,306	-2,655	-3,688	-4,639	-4,423	-14,099
	단지	839	4,080	7,966	5,461	2,190	20,536
	경인 아라뱃길	-	5,266	9,783	7,123	-1,796	20,376
	4대강 살리기	-	1,175	30,723	31,456	8,011	71,365
	수익 및 부대사업	1,854	1,746	2,216	2,984	971	9,771
	소계	3,999	9,612	47,000	42,385	4,953	107,949

〈요약표 3〉의 계속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한국철도 공사	운송사업	9,478	4,485	9,684	7,049	10,120	40,816
	수탁사업	688	-583	435	-458	460	542
	인천공항철도인수	-	12,057	562	354	101	13,074
	수익및부대사업	-971	-1,276	-1,283	-1,764	-1,471	-6,765
	소계	9,195	14,683	9,398	5,181	9,210	47,667
한국철도 시설공단	1단계경부고속철도	2,372	3,248	3,678	2,775	2,241	14,314
	2단계경부고속철도	10,965	7,578	7,746	1,252	-2,567	24,974
	호남고속철도	0	2,267	6,848	10,502	9,425	29,042
	수도권고속철도	0	0	0	26	3,256	3,282
	경의선 선(先)투자	0	3,000	-1,550	-950	-500	0
	소계	13,337	16,093	16,722	13,605	11,855	71,612
한국장학 재단	일반학자금 대출	-	12,500	16,900	12,000	3,500	44,900
	든든학자금 대출	-	-	8,200	9,300	12,100	29,600
	소계	-	12,500	25,100	21,300	15,600	74,500
예금보험 공사	예금보험기금	-2,364	-80	-664	104,210	119,921	221,023
	예보채상환기금	-26,003	-8,046	-6,959	-30,266	-9,810	-81,084
	소계	-28,367	-8,126	-7,623	73,944	110,111	139,939
12개 공공기관 합계		321,858	342,614	295,109	354,319	342,838	1,673,315

주: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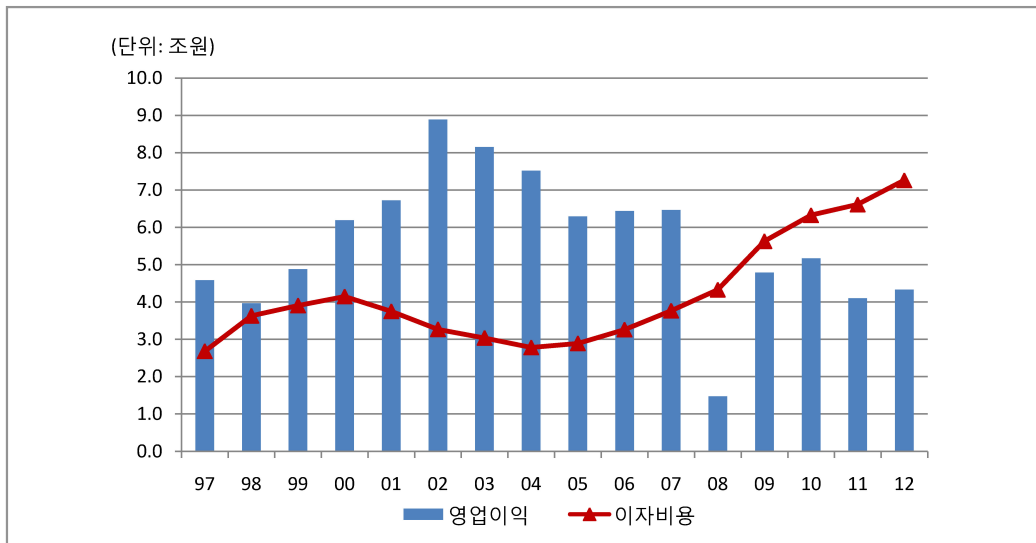
6. 부채의 상환능력

□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공공기관의 영업이익 합계(4.3조원)로는 이들 기관의 이자비용(7.3조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2012년 기준)

○ 10개 공공기관의 영업이익은 200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 하락 추세로서 2008년부터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낮은 수준

- 이자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¹⁾: 1배 미만인 기관은 5개
 - 석탄공사, 철도공사, 한전은 영업적자로 이자보상배율이 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철도시설공단과 광물자원공사²⁾는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으로 낮은 수준

[요약그림 15] 10개 기관의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연도별 추이



주: 2002~2004년 중 영업이익이 높은 것은 낮은 유가 등에 기인

- **원금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차입금/EBITDA배율**³⁾: 차입금/EBITDA 배율이 7.5배 이상인 기관은 7개 기관이며 음(-)의 EBITDA 발생기관도 2개(석탄공사, 광물공사)
 - 차입금/EBITDA배율이 7.5배 이상이면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능력이 약하여 원금상환위험이 높아짐을 의미
 - 영업현금으로 금융부채 원리금을 상환하려면 차입금 증가율보다 더 많이 EBITDA

1) 이자보상배율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기관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이자비용)을 어느 정도나 부담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통상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전부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잠재적인 부실 위험이 있다고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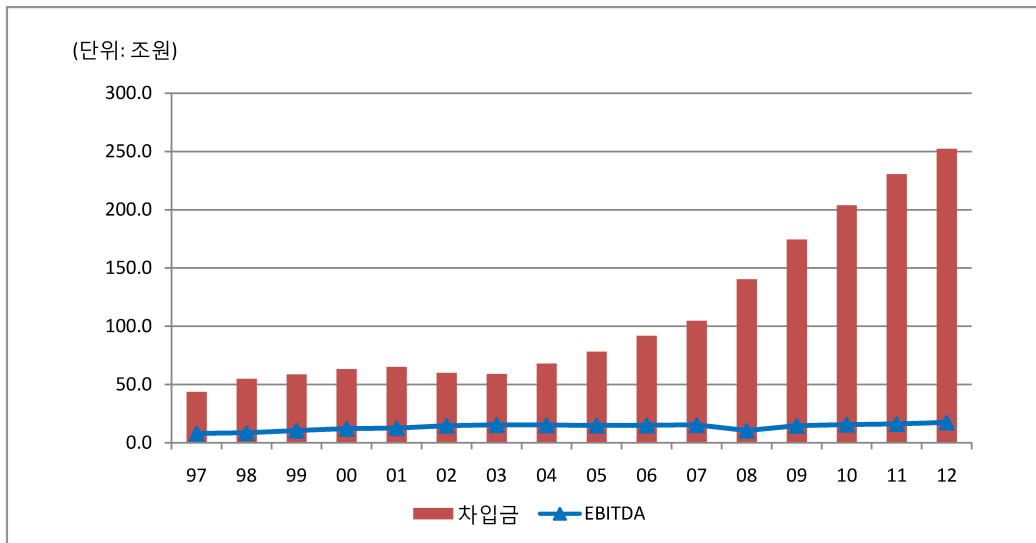
2)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매출원가로 처리한 이자비용을 보정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매출원가 이자비용)/(이자비용+매출원가 이자비용)을 산정함

3) EBITDA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약자로서 영업현금흐름을 나타냄

가 증가해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위 배율이 상승

- EBITDA는 일정하나 차입금이 2008년 이후 급증하여 원금상환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요약그림 16] 10개 기관의 차입금과 EBITDA의 연도별 추이



7. 부채 대응방안

가. 부채 감축을 위한 공공기관과 정부의 역할

- 공공기관 부채의 배경은 공공요금 사업과 비공공요금 사업으로 분류하여 설명 가능
 - 공공요금 사업: 낮은 공공요금과 공공기관의 높은 원가에 기인하나 책임 비중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움
 - ▶ 향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원가정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
 - 비공공요금 사업: 사업이 기관의 책임하에 자발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정부 요청에 의해 타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밝히는 것 역시 매우 어려움

- 향후 이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사업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별 구분회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역할: 방만경영 해소

- 공공요금 사업: 원가 절감에 더욱 노력할 필요(높은 원가는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서 경영평가를 통한 원가 절감 압력은 있으나 기관이 원가 절감할 유인은 없는 구조)가 있음
 - 재료비 비중이 높은 기관: 가스, 한전
 -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관: 코레일, 수자원, 도로공사

총괄원가 방식: 공공요금 원가가 상승하면 이를 맞추도록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

총괄원가 = 적정원가(인건비+재료비+판관비+기타 경비 등) + 적정투자보수

- 비공공요금사업: 과잉투자과 방만한 사업비 방지를 위해 의사결정과 모니터링 시스템 효율화
 - 조직과 예산이 확대되는 편익이 있어 공공기관의 과잉투자 유인 상존
- 방만경영은 부채의 모든 원인에 숨어 있는 요인으로서 민간기업 대비 경쟁과 효율화 노력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
 - 특히 공공요금 사업의 방만경영은 그대로 원가를 상승시켜 부채로 남겨나 요금을 인상시켜 직접적인 국민부담으로 귀착

□ 정부의 역할

- 공공요금 사업: 공공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보상률 검증 기능을 강화하여 적정한 요금수준 유지
 - 원가보상률('12): 전기 88.4%, 가스 86.3%, 수도 82.6%, 도로 81.0%, 철도 78.8%
- 정부정책 사업: 필요한 사업일 경우 그 재원을 공공기관의 부채에 의존하기보다는 공공기관 자체수입이나 재정투입을 통해 수행

〈요약표 4〉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유형 \ 역할	공공요금 사업	비공공요금 사업
정부	적정한 공공요금 수준 유지	공공기관 부채에 의한 재원조달 지양
공공기관	재료비와 기타경비 효율화	과잉투자 방지를 위한 의사결정시스템 투명화 방만한 사업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방만경영 해소	

나. 공공기관 부채대책

□ 부채정보 공개

- 의미 있는 부채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사업별 구분회계가 정착될 필요
- 향후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 절차 필요

□ 공공요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가검증

- 향후 공공요금 사업의 원가를 검증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원가를 절감토록 하는 유인동기를 마련할 필요
- 철저한 구분회계를 통해 사업별 영업 및 부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
- 이상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

□ 주요 부채 유발사업에 대한 사업조정 필요

- 현행 사업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정도로는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사업조정 검토가 필요

사업조정* 검토대상 사업

보급자리사업, 임대주택, 혁신도시(이상 LH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석유, 가스, 광물자원공사), 무연탄생산판매사업(석탄공사)
 단지사업, 4대강 살리기, 경인 아라뱃길(이상 수자원공사),
 도로사업(도로공사), 철도운송사업(코레일)

* 사업조정: 사업추진방식의 근본변경, 사업규모 대폭축소, 마켓테스트 등을 통한 사업중단 등

- 향후 사업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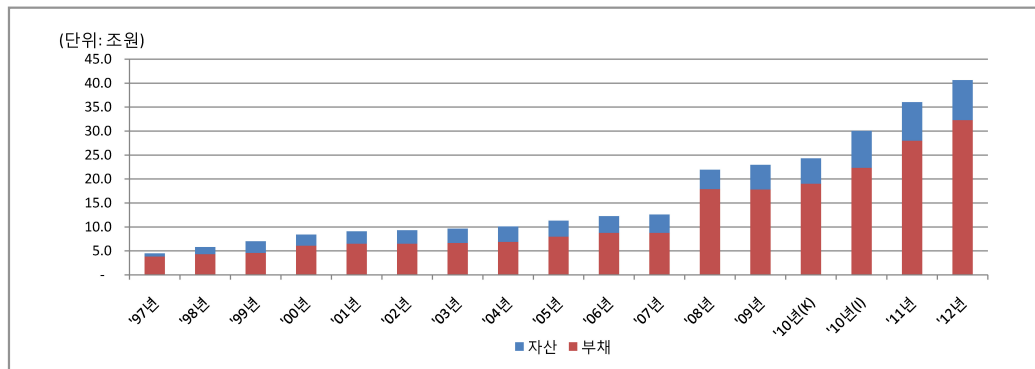
□ 부채관리체계 강화

- 부채 모니터링과 관리 강화: 공공기관 부채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관별 위험도를 파악하여 자구노력 등을 통해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할 필요
 - 기관별 부채위험도에 따라 부채 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각 기관이 이에 따라 중장기재무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그 이행을 기관장에 대한 인사와 경영평가에 연계할 필요
- 주무부처 책임 강화: 소관 공공기관 부채의 위험도를 주무부처의 평가에 포함시키는 등 주무부처의 역할을 강화
- 전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청)의 부채를 종합 관리하는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
 - 공공기관의 부채를 국가채무와 같은 차원에서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

8. 부채위험대상 12개 기관별 부채 현황

가. 한국가스공사

[요약그림 17]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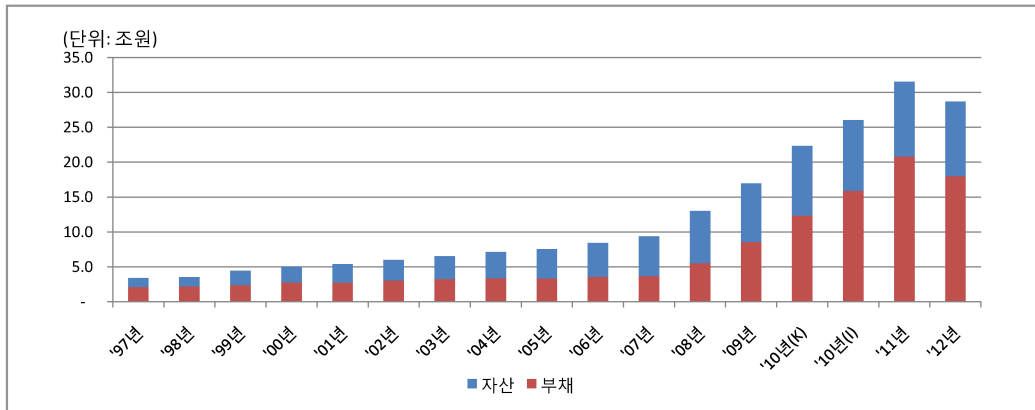
- 한국가스공사의 자산은 1997년 4.5조원에서 2012년 40.6조원으로 806%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부채는 3.8조원에서 32.3조원으로 749% 증가하였음
 - 부채규모는 과거 15년간 매년 평균 15.3%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8~2012년간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함
 - 부채비율은 최근 부채규모 증가에 따라 상당히 높아져서 2012년 말 기준 385.4%를 나타냄

- 부채 증가 속도는 최근 5개년(2008~2012년) 동안 두드러지게 상승하였음
 - 2008~2012년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29.8%씩 총 268.9%에 달할 정도로 부채 증가 속도가 두드러지게 높았음
 - 2008년도에 부채 증가가 현저히 크며, 이후 부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다가 2011년 및 2012년에 부채 증가 규모가 각각 5.7조원, 4.3조원으로 다시 커짐

- 이는 주로 2008년도의 원료비 연동제 유보금 급증, 2008년 이후 국내천연가스 공급 확대사업 추진 및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한 해외투자 자금 소요 등에 기인함

나. 한국석유공사

[요약그림 18]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7~'12)



- 한국석유공사 자산은 1997년 3.4조원에서 2012년 28.7조원으로 740%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부채는 2.1조원에서 18.0조원으로 763% 증가하였음
 - 부채규모는 과거 15년간 매년 평균 15.4%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8~2012년간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함
 - 부채비율은 최근 부채규모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말 기준 부채 비율은 167.5%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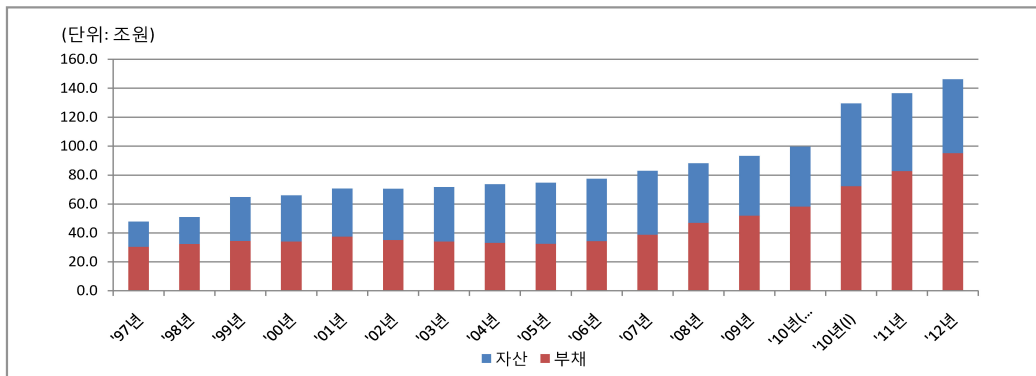
- 부채 증가 속도는 최근 5개년(2008년~2012년) 동안 두드러지게 상승하였음
 - 2008~2012년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37.3%씩 총 388.3%에 달할 정도로 부채 증가 속도가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그 결과 동 기간 동안 부채비율이 103%p가량 상승하였음

- 이는 주로 2008년도 이후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 추진에 따라 해외 석유개발사업 투자가 급증하여 이에 따른 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다. 한국전력공사(발전자회사 포함)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전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왔기 때문에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1997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해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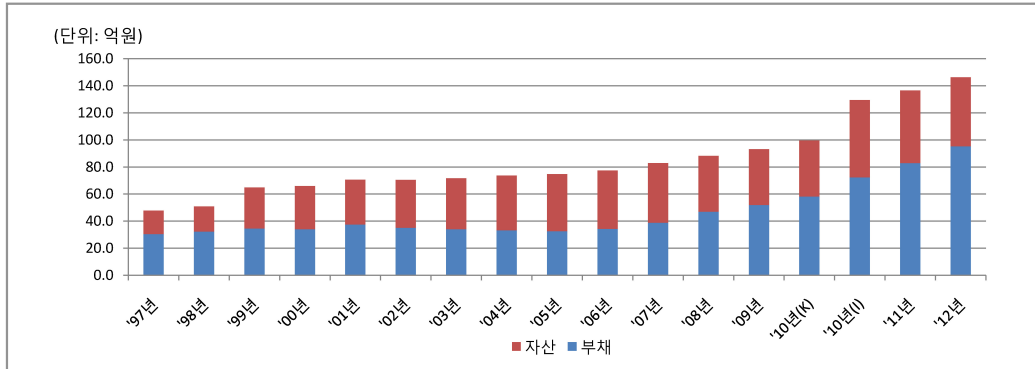
[요약그림 19] 한국전력공사(연결기준)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7~'12)



- 연결재무제표상 한국전력공사의 자산은 최근 15년 동안 98.4조원(47.8조원→146.2조원)증가하여 205.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동 기간 동안 부채는 64.8조원(30.3조원→95.1조원)증가하여 213.9%의 증가율을 보임
 - 부채규모는 2007년까지 대체적으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5년(2008~2012년)간 56.4조원 증가하여 15년간 부채 증가액의 87%를 차지함
 - 부채비율은 1997년 173.8%에서 2007년 87.3%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2년 186.2%로 급증함
- 최근 5년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자산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짐
 - 2008~2012년 자산은 총 76.2% 증가한 반면, 부채는 총 146.0% 증가하여 부채 증가 속도가 두드러지게 높았음
- 금융부채는 최근 5년간 급증은 국제유가 인상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과 전기요금 규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의 신규 발전소 건설 소요자금으로 설명할 수 있음
 - 한국전력공사는 2008년 이후 5년 연속 영업손실(개별(별도)재무제표기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수익성의 악화로 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하고 이자상환능력 및 원금상환능력이 크게 감소함

라. 대한석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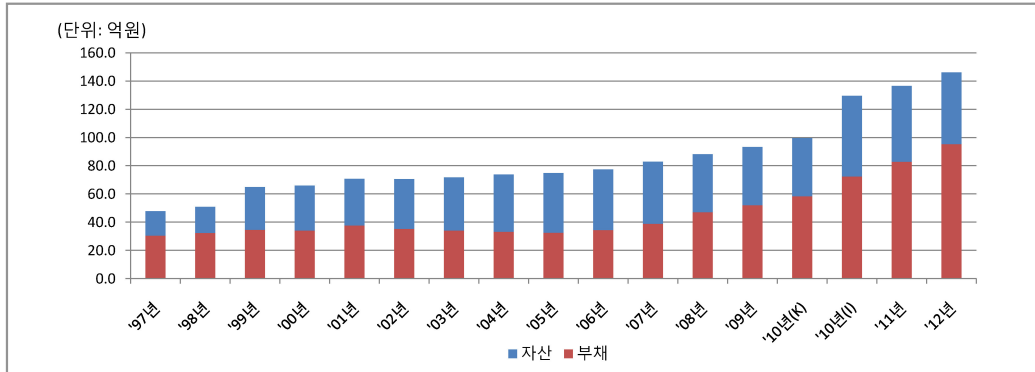
[요약그림 20]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7~'12)



- 대한석탄공사는 자본이 음(-)의 값을 가지는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부채비율은 자산 대비 부채로 분석함
- 대한석탄공사 부채는 최근 15년간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1997년 7,277억원에서 2012년 1조 4,702억원으로 102% 증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997년 123%에서 2012년 217%로 94%p 증가
 - 대한석탄공사는 자본잠식상태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기업으로, 1997년부터 자산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으나 부채규모는 1997년에 비해 2012년 두 배가량 증가
 - 2012년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부채가 자산의 2배를 초과
- 민간 대비 높은 인건비, 탄광 심부화로 인한 원가 상승, 생산량 감축 및 정부지원금 축소로 인한 영업 손실의 부족분을 외부에서 조달함에 따라 금융부채 증가
 - 2008~2012년 생산량 감축으로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함

마. 한국광물자원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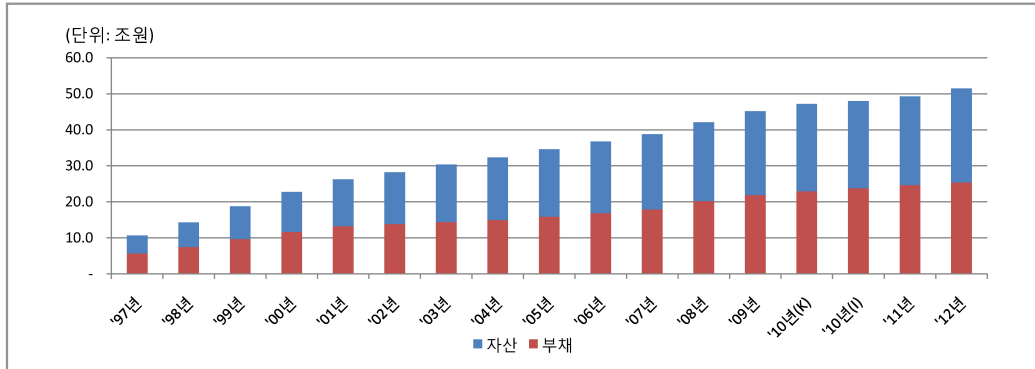
[요약그림 21]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7~'12)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산은 1997년 4,622억원에서 2012년 3조 7,188억원으로 약 700% 대폭 증가하였고, 부채 역시 1997년 3,206억원에서 2012년 2조 3,766억원으로 약 640% 증가함
 - 2008년 공사법 개정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증액되고 해외투자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 이후 자산 및 부채가 대폭 증가함
- 부채비율은 1997년 226%에서 점차 하락하여 2006년에는 88.3%였으나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12년에는 177.1%에 이름
- 최근 5년(2008~2012년) 동안 부채가 두드러지게 증가함
 - 1998~2002년 112억원의 부채가 증가하였고, 2003~2007년 1,023억원의 부채가 증가함
 - 2008~2012년 사이 약 2조원의 부채가 증가하였고, 447%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해외광산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필요 재원 마련에 있어 정부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여 부채가 증가함

바. 한국도로공사

[요약그림 22] 한국도로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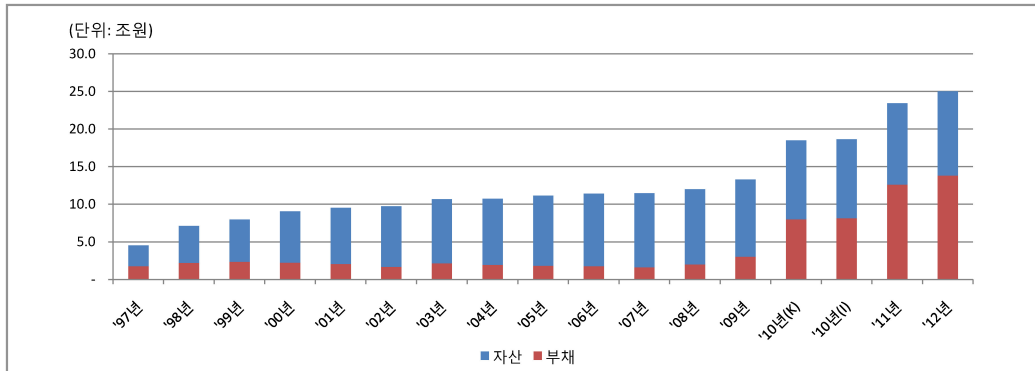
- 한국도로공사의 자산은 최근 15년 동안 40.8조원(10.7조원→51.5조원) 증가하여 381.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동 기간 동안 부채는 19.7조원(5.6조원→25.3조원) 증가하여 350.6% 증가율을 보임
 - 자산규모는 매년 평균 10.7%씩 증가하였으며, 부채규모는 매년 평균 10.2%씩 지속적으로 증가
 - 2005년 이후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도에 자산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에 비해 다소 높아짐
 - 부채비율은 1997년 110.9%에서 2007년 85.1%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2년 97.1%로 다시 증가

- 부채 증가 속도는 1997~2002년 및 1908~2012년 동안 두드러지게 상승하였음
 - 1997~2002년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20.1%씩 증가하여 부채 증가 속도가 두드러짐. 2008~2012년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4.7%씩 증가하였음

- 부채의 93.8%가 금융부채이며, 금융부채 규모 증가는 고속도로 건설투자를 위한 사채 발행 금액 증가에 기인

사. 한국수자원공사

[요약그림 23]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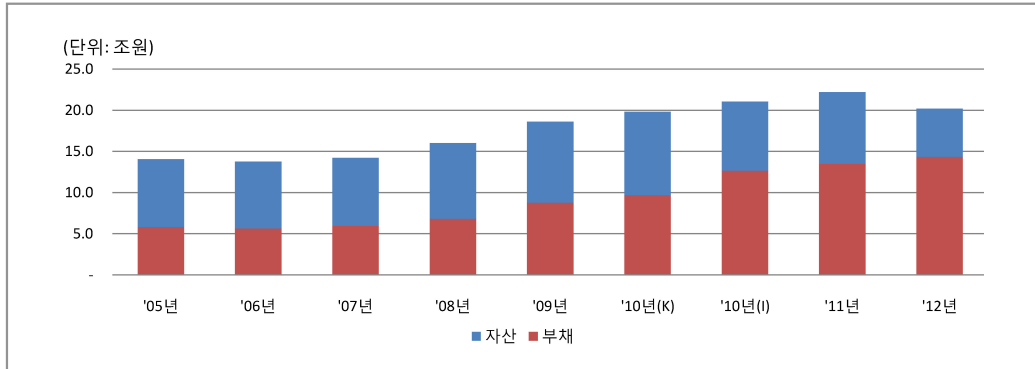
- 한국수자원공사 자산은 1997년 4.5조원에서 2012년 25.0조원으로 451.1%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997년 1.8조원에서 2012년 13.8조원으로 687.4% 증가
 - 부채규모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9~2010년간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함
 - 부채비율은 1997년 62.4%에서 2007년 16.0%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2년 122.6%로 다시 증가

- 부채 증가 속도는 최근 5개년(2008~2012년) 동안 두드러지게 상승하였음
 - 2008~2012년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62.4%씩 증가

- 이는 주로 2009년 시작된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기인함

아. 한국철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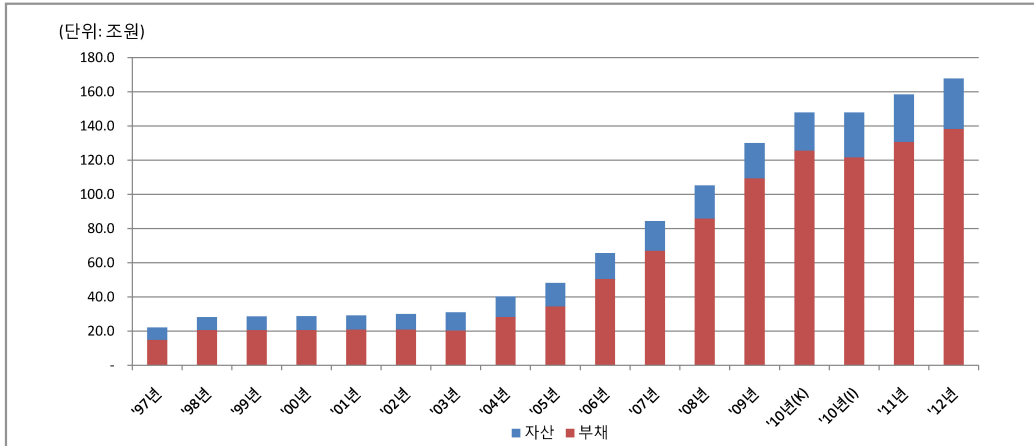
[요약그림 24] 한국철도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05~'12)



- 한국철도공사 부채는 공사가 출범한 2005년 약 5.8조원에서 2012년 14.3조원으로 146.6% 증가하였음
 - 부채규모는 과거 8년간 매년 평균 19.4%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9~2012년 사이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함
 - 2010년 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변경되어 자회사 부채 포함 및 회계기준 변경 효과로 인해 증가
 - 부채비율은 2005년 70.3%에서 2009년까지 88.8%로 완만히 증가하다가 2012년 244.2%로 급속히 증가
 - 2012년 용산역세권 토지매각 미수금의 대손충당금(2.7조원) 설정으로 증가
- 부채 증가 속도는 최근 3개년(2010~2012년) 동안 큰 폭으로 상승했음
 - 2010~2012년 사이 부채 증가율은 총 63.6%로 부채 증가 속도가 높았으며, 그 결과 동 기간 동안 부채비율 역시 155.4%p가량 상승하였음
- 이는 주로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운영적자 충당, K-IFRS 도입으로 계열사 부채 포함, 고속철도 운영을 위한 신규차량 구입 등을 위한 자금 소요에 기인함
 - 2007년부터 매해 수천억원대의 적자가 발생
 - 인천공항철도 지분인수 대금으로 금융부채가 증가

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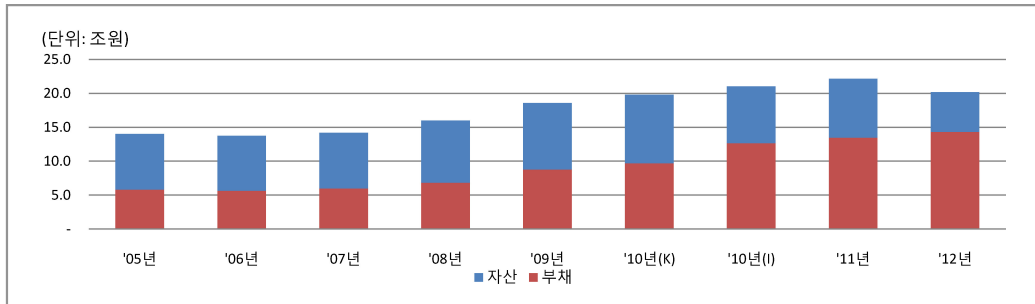
[요약그림 25]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7~'12)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통합하여 설립
 - 통합 이전의 자료는 각 기관의 자료를 합산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은 1997년 22.16조원에서 2012년 167.76조원으로 657.0% 증가 하였으며, 부채는 1997년 14.72조원에서 2012년 138.12조원으로 838.3% 증가
 - 부채규모는 과거 15년간 연평균 17.2%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3~2007년간 부채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함
 - 특히 2005~2006년 자산과 부채규모 모두 두드러지게 증가함
 - 부채비율은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통합이 유보된 200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2년 46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부채 증가 속도는 2003~2007년 동안 두드러지게 상승하였음
 - 2003~2007년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27.4%씩 증가하여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결과 동 기간 동안 부채비율이 155%가량 상승하였음
- 이는 임대주택의 대규모 건설 및 운영, 세종시 이전 및 혁신도시 관련으로 인하여 부채규모 증가 속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추진으로 인하여 꾸준히 부채규모가 증가함

차. 한국철도시설공단

[요약그림 26]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0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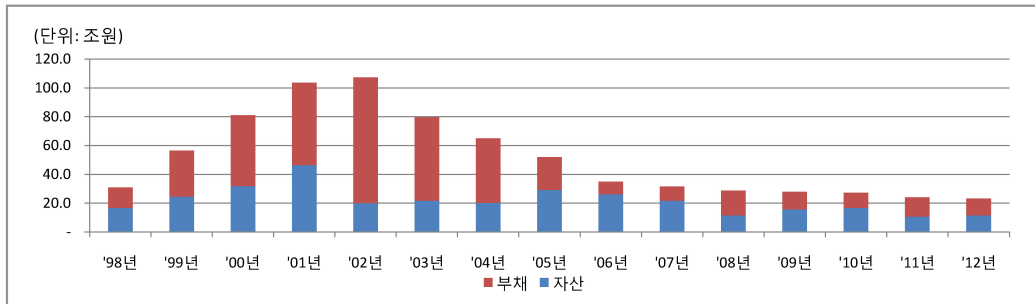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는 1992년부터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있던 한국고속철도 공단과 일반 및 광역철도 건설을 하는 철도청 건설부문을 통합하여 출범한 2004년 6.3조원에서 2012년 17.3조원으로 154%가량 증가하였음
 - 부채규모는 과거 8년간 매년 평균 1.2조원씩 증가하였으며, 공단의 사업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부채규모가 증가한 것이 특징임
 - 부채비율은 2004년 40.7%에서 2007년까지 감소하다 다시 반등해 2012년 87.9%로 증가하였음⁴⁾
- 기관의 총부채액은 2007~2009년 사이 두드러지게 상승하였음
 -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부채는 5.9조원가량이 늘었으며, 동 기간 부채 증가율은 72.0%였음⁵⁾
- 이는 주로 경부1·2 및 호남고속철도 등의 건설수요 증가에 따른 건설사업 확대에 의한 자금 소요에 기인함

4) 개정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서 기본재산으로 분류한 정부출연금과 선수금으로 분류한 공사 부담금을 취득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계정 재분류함에 따라 자산 약 20조원, 부채 약 3조원, 자본 약 20조원이 감소되었으므로 소급적용 시 실질적 부채비율 증가효과는 9년간 8.5% 수준

5) 2010년 회계정책 변경으로 유동부채 중 선수금 항목 3.15조원이 차감되어 해당기간 실 부채 증가액은 3.1조원에 그쳤으며 부채증가율은 35.8%임

카. 예금보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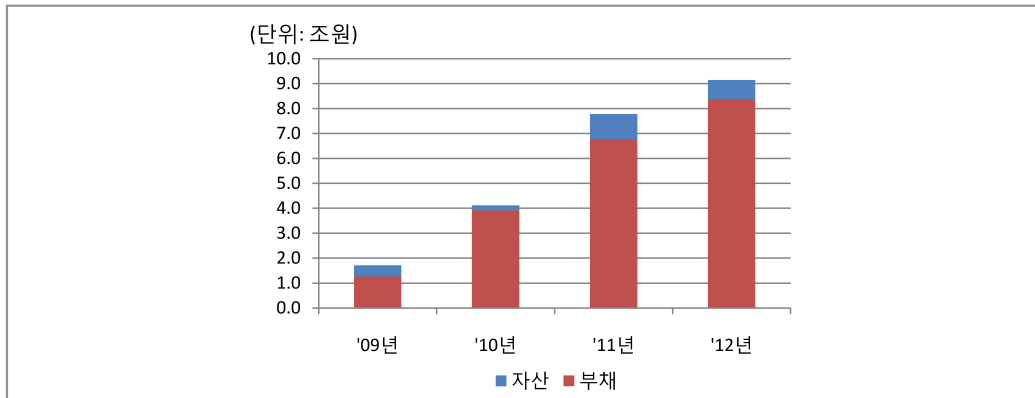
[요약그림 27] 예금보험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8~'12)



- 예금보험공사 부채는 1998년 31.0조원에서 2012년 45.9조원으로 48.1%가 증가
 - 기관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부채비율이 의미가 없으며, 2012년 자산·부채비율은 1998년보다 14.6% 감소한 172.9%임
-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은 사채 조달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임
- 기관은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예보채 상환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금의 목적이 상이하고 기금별로 구분 계리하도록 법상 명시되어 있음
 - 예금보험기금은 2013~2007년까지는 평균부채금액이 0.3조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2011년 이후 2개 연도에 걸쳐 대규모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진행함에 따라 2012년 부채 금액은 22.7조원으로 크게 증가
 - 예보채 상환기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구조조정 추진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2002년 107.3조원까지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국채 전환 및 만기 상환에 따라 2007년까지 31.5조원으로 부채 감소. 2027년 상환 완료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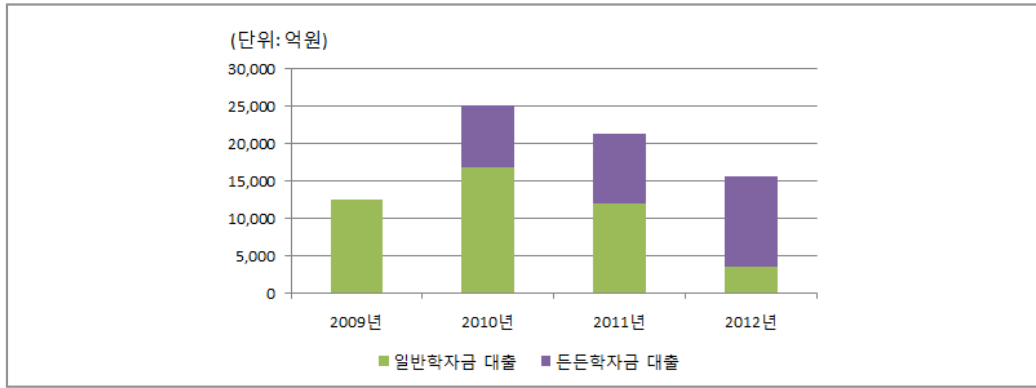
타. 한국장학재단

[요약그림 28] 한국장학재단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09~'12)



-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도에 설립된 기관
- 한국장학재단의 2012년 자산은 9.1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부채는 8.4조원으로 증가
 - 2012년 자산·부채비율은 91.6%로 자산과 부채규모가 유사한 수준
- 기관은 금융업 종사기관으로 특성상 대출 증가에 따라 재단채를 발행하므로 부채 증가가 불가피함
 - 재단채를 발행하여 대출업무를 실행하는 금융업 종사기관으로 대출 증가에 따라 사채 증가가 수반됨
- 부채 증가액은 학자금 대출재원 마련을 위해 연평균 2.4조원씩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부터 기존 대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순부채 증가액은 다소 감소
 - 평균 부채 증가율은 102.5%로 설립 이후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요약그림 29] 한국장학재단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목 차

I. 서론	49
II. 12개 공공기관 부채의 성격 및 원인 분석	51
1. 12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	52
2. 부채의 증가 속도	54
3. 부채의 성격	56
가. 부채의 구성과 안전성	56
나. 외화부채 비중	62
4.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63
가. 부채 발생 주요 원인	63
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66
5.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70
가. 이자 상환능력	70
나. 원금 상환능력	72
III. 12개 기관별 부채 세부 현황	74
1. 한국가스공사	74
가. 부채의 규모	75
나. 부채의 증가 속도	76
다. 부채의 성격	77

라.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81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85
바. 총평	86
2. 한국석유공사	87
가. 부채의 규모	88
나. 부채의 증가 속도	89
다. 부채의 성격	90
라.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94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98
바. 총평	99
3. 한국전력공사(발전자회사 포함)	100
가. 부채의 규모	101
나. 부채의 증가 속도	102
다. 부채의 성격	103
라.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108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112
바. 총평	114
4. 대한석탄공사	115
가. 부채의 규모	116
나. 부채의 증가 속도	117
다. 부채의 성격	118
라.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121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123
바. 총평	125
5. 한국광물자원공사	126
가. 부채의 규모	127
나. 부채의 증가 속도	128

다. 부채의 성격.....	129
라.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132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135
바. 총평.....	137
6. 한국도로공사.....	138
가. 부채의 규모.....	139
나. 부채의 증가 속도.....	140
다. 부채의 성격.....	141
라.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144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148
바. 총평.....	149
7. 한국수자원공사.....	151
가. 부채의 규모.....	152
나. 부채의 증가 속도.....	153
다. 부채의 성격.....	154
라.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157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160
바. 총평.....	162
8. 한국철도공사.....	163
가. 부채의 규모.....	164
나. 부채의 증가 속도.....	164
다. 부채의 성격.....	166
라.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169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175
바. 총평.....	176
9. 한국토지주택공사.....	178
가. 부채의 규모.....	179

나. 부채의 증가 속도	180
다. 부채의 성격	181
라.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184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188
바. 총평	189
10. 한국철도시설공단	190
가. 부채의 규모	191
나. 부채의 증가 속도	192
다. 부채의 성격	193
라.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198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202
바. 총평	203
11. 예금보험공사	205
가. 부채의 규모	208
나. 부채의 증가 속도	210
다. 부채의 성격	212
라. 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219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222
바. 총평	223
12. 한국장학재단	225
가. 부채의 규모	226
나. 부채의 증가 속도	227
다. 부채의 성격	228
라.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231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233
바. 총평	235

IV. 시사점 및 제언.....	236
1. 부채감축을 위한 공공기관과 정부의 역할.....	236
2. 공공기관 부채대책.....	237
부록.....	239
부록 1.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 및 과거 추이 분석.....	239
부록 2. 기관 사업 구분 및 사업별 자금 추정 근거.....	243

표목차

〈표 II-1〉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중	51
〈표 II-2〉 과거 15년간 10개 기관 부채비율 추이	53
〈표 II-3〉 10개 기관의 금융부채 비중별 해당 기관 수	57
〈표 II-4〉 10개 기관의 차입금의존도 비율별 해당 기관 수	59
〈표 II-5〉 10개 기관의 단기 금융부채 비율별 해당 기관 수	60
〈표 II-6〉 10개 기관의 금융부채의 연도별 상환계획	61
〈표 II-7〉 10개 기관의 외화부채 비중별 해당 기관 수	62
〈표 II-8〉 12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68
〈표 II-9〉 이자보상배율 구간에 따른 기관 수	71
〈표 II-10〉 차입금/EBITDA 배율 구간에 따른 기관 수	73
〈표 III-1〉 한국가스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79
〈표 III-2〉 한국가스공사의 주요 연도별 금융부채 증가 사유	82
〈표 III-3〉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83
〈표 III-4〉 한국석유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93
〈표 III-5〉 한국석유공사의 주요 연도별 금융부채 증가 사유	95
〈표 III-6〉 한국석유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96
〈표 III-7〉 한국전력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106
〈표 III-8〉 한국전력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110
〈표 III-9〉 대한석탄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120
〈표 III-10〉 대한석탄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123
〈표 III-11〉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131
〈표 III-12〉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정부출자액 대비 해외 투자액	133

〈표 III-13〉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134
〈표 III-14〉 한국도로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143
〈표 III-15〉 한국도로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146
〈표 III-16〉 한국수자원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156
〈표 III-17〉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순증가액	159
〈표 III-18〉 한국철도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168
〈표 III-19〉 한국철도공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170
〈표 III-20〉 철도요금 원가의 영업비용과 인건비	172
〈표 III-21〉 한국철도공사의 주요 부채증감지표	172
〈표 III-22〉 한국철도공사의 K-IFRS 전환효과 및 계열사부채	173
〈표 III-23〉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별 부채 증가액	173
〈표 III-2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183
〈표 III-25〉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순증가액	186
〈표 III-26〉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회계정책 소급적용 시 부채 증가효과	193
〈표 III-27〉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197
〈표 III-28〉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 발생 주요 원인	198
〈표 III-29〉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선로사용료를 통한 이자 상환능력 추이	200
〈표 III-30〉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201
〈표 III-31〉 예금보험기금 금융부채 상환계획	216
〈표 III-32〉 예보채상환기금 금융부채 상환계획	217
〈표 III-33〉 예금보험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221
〈표 III-34〉 한국장학재단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230
〈표 III-35〉 한국장학재단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232
〈표 IV-1〉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237
〈부표 1〉 공공기관 전체 부채규모	239

그림목차

[그림 II-1] 과거 15년간 부채규모(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 별도 구분).....	52
[그림 II-2] 12개 기관별 부채규모(2012년 말).....	54
[그림 II-3] 12개 공공기관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55
[그림 II-4] 12개 기관의 과거 15년간 기관별 부채 증가액(1997~2012년).....	55
[그림 II-5] 10개 기관의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비중.....	57
[그림 II-6] 10개 기관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58
[그림 II-7] 10개 기관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60
[그림 II-8] 10개 기관의 차입금 상환계획.....	61
[그림 II-9] 10개 기관의 연도별 외화 금융부채 비중.....	62
[그림 II-10] 10개 기관의 기능단위별 부채규모의 추이.....	63
[그림 II-11] SOC 공공기관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64
[그림 II-12] 에너지 공공기관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65
[그림 II-13]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66
[그림 II-14] 12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사업별 금융부채 발생액 상위 10개 사업 (2008~2012년 합계액).....	67
[그림 II-15]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연도별 추이.....	70
[그림 II-16] 10개 기관의 차입금과 EBITDA의 연도별 추이.....	72
[그림 III-1]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7~'12).....	74
[그림 III-2]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75
[그림 III-3]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76
[그림 III-4]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비중.....	77
[그림 III-5]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78

[그림 III-6]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79
[그림 III-7]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외화 금융부채 비중.....	80
[그림 III-8]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금융부채 증감액과 관련 주요 지표.....	81
[그림 III-9] 한국가스공사의 최근 연도별 가스 요금 관련 지표.....	81
[그림 III-10]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주요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	84
[그림 III-11]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85
[그림 III-12]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차입금 대 EBITDA 배율.....	86
[그림 III-13] 한국석유공사의 연도 말 자산 및 부채 잔액('97~'12).....	87
[그림 III-14]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88
[그림 III-15]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89
[그림 III-16]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비중.....	90
[그림 III-17]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91
[그림 III-18]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92
[그림 III-19]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외화 금융부채 비중.....	93
[그림 III-20]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금융부채 증감액과 관련 주요 지표.....	94
[그림 III-21]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주요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	96
[그림 III-22]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98
[그림 III-23]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차입금 대 EBITDA 배율.....	98
[그림 III-24]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7~'12).....	100
[그림 III-25]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101
[그림 III-26]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102
[그림 III-27]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비중.....	103
[그림 III-28]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104
[그림 III-29]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105
[그림 III-30]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107
[그림 III-31]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외화 금융부채 비중.....	107
[그림 III-32] 한국전력공사의 주요 지표와 금융부채 증감액.....	108
[그림 III-33] 한국전력공사의 국제 유가와 금융부채 증감(참고).....	110

[그림 III-34] 한국전력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111
[그림 III-35]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112
[그림 III-36]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차입금 대 EBITDA 배율	113
[그림 III-37]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7~'12)	115
[그림 III-38]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116
[그림 III-39]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부채 증감액	117
[그림 III-40]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118
[그림 III-41]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119
[그림 III-42]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119
[그림 III-43] 대한석탄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120
[그림 III-44]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금융부채 증감액과 주요 지표1	121
[그림 III-45]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금융부채 증감액과 주요 지표2	122
[그림 III-46]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124
[그림 III-47]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금융부채 및 EBITDA	124
[그림 III-48]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7~'12)	126
[그림 III-49]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127
[그림 III-50]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부채 증감액	128
[그림 III-51]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129
[그림 III-52]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130
[그림 III-53]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130
[그림 III-54]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131
[그림 III-55]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외화 금융부채 비중	132
[그림 III-56]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금융부채 증감액과 주요 지표	132
[그림 III-57]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134
[그림 III-58]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135
[그림 III-59]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금융부채 및 EBITDA	136
[그림 III-60] 한국도로공사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97~'12)	138
[그림 III-61] 한국도로공사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139

[그림 III-62] 한국도로공사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140
[그림 III-63] 한국도로공사의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비중	141
[그림 III-64] 한국도로공사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142
[그림 III-65] 한국도로공사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142
[그림 III-66] 한국도로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143
[그림 III-67] 한국도로공사의 연도별 외화 금융부채 비중	144
[그림 III-68] 한국도로공사의 건설투자비와 금융부채	144
[그림 III-69]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및 원가보상비율과 금융부채	146
[그림 III-70] 한국도로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147
[그림 III-71] 한국도로공사의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148
[그림 III-72] 한국도로공사의 연도별 차입금 대 EBITDA 배율	149
[그림 III-73]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7~'12)	151
[그림 III-74]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152
[그림 III-75]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153
[그림 III-76]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비중	154
[그림 III-77]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155
[그림 III-78]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155
[그림 III-79] 한국수자원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156
[그림 III-80]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도별 외화 금융부채 비중	157
[그림 III-81]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도별 금융부채 누계액과 주요 지표	157
[그림 III-82]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159
[그림 III-83]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160
[그림 III-84]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도별 차입금 대 EBITDA 배율	161
[그림 III-85] 한국철도공사의 주요 연도 말 자산 및 부채 잔액	163
[그림 III-86] 한국철도공사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164
[그림 III-87] 한국철도공사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164
[그림 III-88] 한국철도공사의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비중	166
[그림 III-89] 한국철도공사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167

[그림 Ⅲ-90] 한국철도공사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168
[그림 Ⅲ-91] 한국철도공사의 연도별 외화 금융부채 비중.....	169
[그림 Ⅲ-92] 한국철도공사의 총수입 대비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170
[그림 Ⅲ-93] 한국철도공사의 PSO 보상률 현황	171
[그림 Ⅲ-94]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174
[그림 Ⅲ-95] 한국철도공사의 연도별 영업이익 및 이자비용.....	175
[그림 Ⅲ-96] 한국철도공사의 연도별 차입금 대 EBITDA 배율.....	176
[그림 Ⅲ-9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7~'12).....	178
[그림 Ⅲ-98]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179
[그림 Ⅲ-99]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180
[그림 Ⅲ-10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비중.....	181
[그림 Ⅲ-10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182
[그림 Ⅲ-10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182
[그림 Ⅲ-10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183
[그림 Ⅲ-10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외화 금융부채 비중.....	184
[그림 Ⅲ-105]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금융부채 누계액과 주요 지표(1).....	184
[그림 Ⅲ-10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금융부채 누계액과 주요 지표(2).....	185
[그림 Ⅲ-10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187
[그림 Ⅲ-108]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188
[그림 Ⅲ-109]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차입금 대 EBITDA 배율.....	188
[그림 Ⅲ-110]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주요 연도 말 자산 및 부채 잔액.....	190
[그림 Ⅲ-111]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191
[그림 Ⅲ-112]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192
[그림 Ⅲ-113]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부채구성 내역 - 금융부채 비중	193
[그림 Ⅲ-114]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회계정책 변경효과를 2004년까지 소급적용 시 금융부채 비중	194
[그림 Ⅲ-115]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195
[그림 Ⅲ-116]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회계기준 소급적용 시 차입금의존도.....	195

[그림 Ⅲ-117]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196
[그림 Ⅲ-118]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외화부채 비중	197
[그림 Ⅲ-119]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 발생 주요 원인	199
[그림 Ⅲ-120]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선로사용료를 통한 이자 상환능력 추이	200
[그림 Ⅲ-121]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201
[그림 Ⅲ-122]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202
[그림 Ⅲ-123]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차입금 대 EBITDA 배율	203
[그림 Ⅲ-124] 예금보험공사(기관통합)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8~'12)	205
[그림 Ⅲ-125] 예금보험기금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8~'12)	206
[그림 Ⅲ-12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8~'12)	207
[그림 Ⅲ-127]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208
[그림 Ⅲ-128]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209
[그림 Ⅲ-129] 예금보험기금 연도별 부채 증감액	210
[그림 Ⅲ-130] 예보채상환기금 연도별 부채 증감액	211
[그림 Ⅲ-131] 예금보험기금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비중	212
[그림 Ⅲ-132] 예보채상환기금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비중	213
[그림 Ⅲ-133] 예금보험기금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213
[그림 Ⅲ-134] 예보채상환기금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214
[그림 Ⅲ-135] 예금보험기금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215
[그림 Ⅲ-136] 예보채상환기금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216
[그림 Ⅲ-137] 예금보험기금 금융부채 상환계획	217
[그림 Ⅲ-138] 예보채상환기금 금융부채 상환계획	218
[그림 Ⅲ-139] 예보채 상환기금 연도별 외화 금융부채 비중	218
[그림 Ⅲ-140] 예금보험기금의 구조조정대상 저축은행 지원과 금융부채	219
[그림 Ⅲ-141] 예보채상환기금의 상환기금 회수와 금융부채	220
[그림 Ⅲ-142] 예금보험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221
[그림 Ⅲ-143] 예금보험기금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222
[그림 Ⅲ-144] 예금보험기금 연도별 차입금 대 EBITDA 배율	223

[그림 Ⅲ-145] 한국장학재단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09~'12).....	225
[그림 Ⅲ-146] 한국장학재단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226
[그림 Ⅲ-147] 한국장학재단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227
[그림 Ⅲ-148] 한국장학재단의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228
[그림 Ⅲ-149] 한국장학재단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229
[그림 Ⅲ-150] 한국장학재단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229
[그림 Ⅲ-151] 한국장학재단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230
[그림 Ⅲ-152]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실행과 금융부채.....	231
[그림 Ⅲ-153] 한국장학재단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233
[그림 Ⅲ-154] 한국장학재단의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233
[그림 Ⅲ-155] 한국장학재단의 연도별 차입금 대 EBITDA 배율.....	234
[부도 1] 공공기관 전체(유형별)의 연도 말 부채규모.....	240
[부도 2]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 증가액.....	241
[부도 3]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증가액 추이.....	242

I. 서론

-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7년 말 249.2조원에서 2012년 말 493.4조원으로 최근 5년간 244.2조원 증가하였으며 2013년 말에는 5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
 -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0년부터 국가채무 규모를 능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국가채무의 1.1배 수준에 달함
 - 2012년 말 국가채무는 443.1조원임

- 부채의 규모뿐만 아니라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도 매우 빠르며,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부채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음
 - 공공기관의 부채는 결국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 부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됨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국가 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 과제를 시행 중이며,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정부 3.0에 입각하여 부채의 상세한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감시 시스템의 강화임
 -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과 규모의 추이, 증가 속도와 성격, 발생 원인에 대한 상세한 분석 정보를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
 - 국민이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부채의 규모가 지나치게 증가하거나 부채의 성격이 악화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감독을 수행

-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295개 중에서 부채규모, 부채 증가 속도, 자본잠식 상태 등을 고려하여 12개의 공공기관을 부채위험기관으로 선정하여 최근 15년간의 부채 추이와 발생

원인에 대하여 집중적인 분석을 실시함

- 12개의 부채 위험기관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9개 공기업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의 3개 준정부기관이 포함됨
- 공공기관의 부채는 일부 기관에 집중되어 있음. 2012년 말 기준으로 12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3.6%에 해당하며 최근 5년간 부채 증가분의 92.3%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기관 부채의 거의 대부분을 대표하고 있음
- 1997~2012년 사이의 15년 동안의 상세 재무정보를 수집하여 부채의 성격과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이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의 위험 정도와 공공기관 부채 대응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음. 또한 원인별 분석을 통해 부채 발생원인별 대처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본 연구에 사용된 부채 관련 재무데이터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되었으며 부채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사업별 부채 발생액 산정은 기관의 자체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함

- 본 연구의 부채 관련 데이터는 배포된 공통양식에 각 기관이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으며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중의 정확성 검증과정이 이루어짐
- 부채 발생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12개 기관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추가자료 수집이 실시됨
- 부채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분회계를 통해 데이터를 산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현재 구분회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기관은 2개 (한국토지주택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도로 매우 적음
- 본 연구에 포함된 사업별 부채발생액은 각 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론과 가정, 기준은 부록에 첨부하여 방법론상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Ⅱ. 12개 공공기관 부채의 성격 및 원인 분석

- 부채위험기관은 부채규모, 부채 증가 속도, 자본잠식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12개 기관을 선정함
 - 공기업(9개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연결자회사인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포함)
 - 준정부기관(3개 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 부채위험기관에 해당하는 12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493.4조원)의 83.6%(412.3조원)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부채를 설명하기 위한 대표 기관으로 선정함
 - 최근 5년간(2007~2012년) 상위 12개 기관의 부채는 225.5조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공기관 전체 부채 증가액 244.2조원의 92.3% 수준임

〈표 Ⅱ-1〉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중

(단위: 억원, %)

구분	2007년(K)	2008년(K)	2009년(K)	2010년(I)	2011년(I)	2012년(I)	5년간 증감
증장기재무관리 계획 제출대상 41개 기관(비중)	2,343,020 (94.0)	2,736,045 (94.3)	3,191,513 (94.8)	3,791,820 (95.5)	4,393,077 (95.7)	4,729,042 (95.8)	2,386,022 (97.7)
부채위험기관 12개 기관(비중)	1,868,645 (75.0)	2,277,496 (78.5)	2,673,825 (79.4)	3,243,519 (81.7)	3,786,763 (82.5)	4,123,418 (83.6)	2,254,773 (92.3)
공공기관 전체	2,492,061	2,899,966	3,368,054	3,969,747	4,589,976	4,933,812	2,441,750

주: 1. (K)는 K-Gaap을 적용한 회계처리 수치이며, (I)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공기업의 경우 동 기준을 적용한 회계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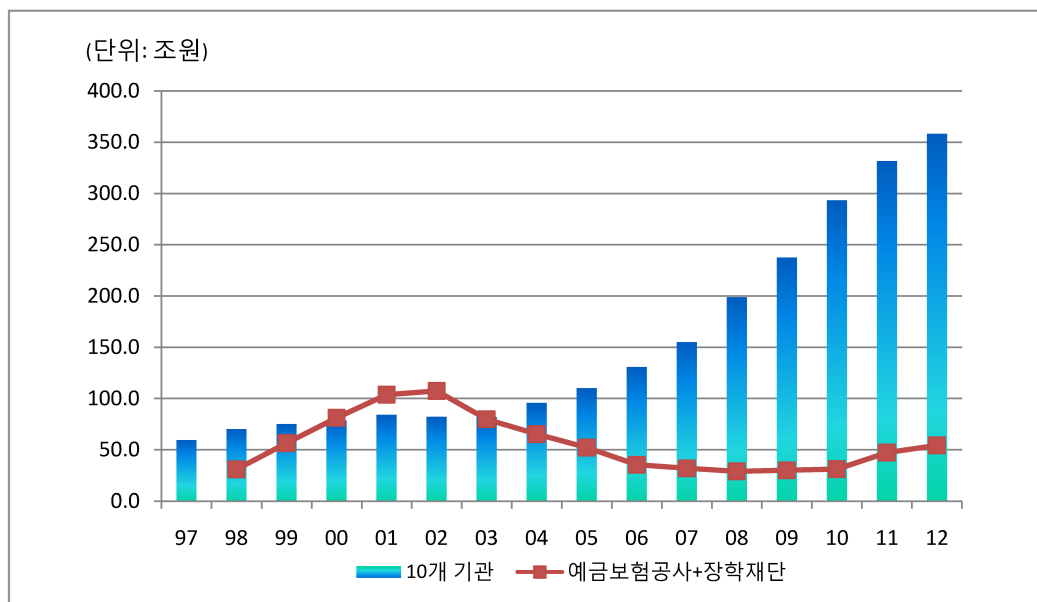
2.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K-IFRS와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2009년 이전 수치를 연결기준으로 분석함

- 부채위험기관에 해당되는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규모와 부채 증가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공공기관 부채 증가원인을 파악하고자 함

1. 12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

-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1997년 59.4조원에서 2012년 412.3조원으로 15년간 352.9조원 증가
- 10개 기관(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을 제외)의 부채규모는 15년간 298.7조원 증가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의 부채규모는 54.3조원 증가함
- 예금보험공사 부채는 2003년 이후 감소되고 있으나 국채전환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국민부담 경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부채의 감소와는 달리 장기추세로 볼 때에는 별도 구분 필요
 - 장학재단은 2009년에 설립되었고 부채 성격이 다르므로 역시 별도 구분 필요

[그림 II-1] 과거 15년간 부채규모(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 별도 구분)



- 10개 공공기관(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 제외)의 부채규모는 1997년 59.4조원에서 2012년 358.1조원으로 15년간 298.7조원(연평균 19.9조원, 매년 12.7%씩) 증가함
 - 1997년 이후 2003년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2004년 이후 부채규모가 급속히 늘어가는 추세임
 - 최근 5년간 부채 증가액은 203.1조원(연평균 40.6조원)으로 2012년 말 부채 358.1조원의 56.7%를 차지

-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의 부채는 2002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03년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장학재단 설립(2009년) 이전 1998~2008년 부채 추이는 모두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것이며 특히 1998년 경제위기 이후 4년간 증가세가 두드러짐

-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차츰 낮아졌으나 200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 현재 245.3%임
 - 부채비율(부채/자본)은 타인자본의 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
 - 통상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가면 재무위험이 높은 것으로 봄

〈표 II-2〉 과거 15년간 10개 기관 부채비율 추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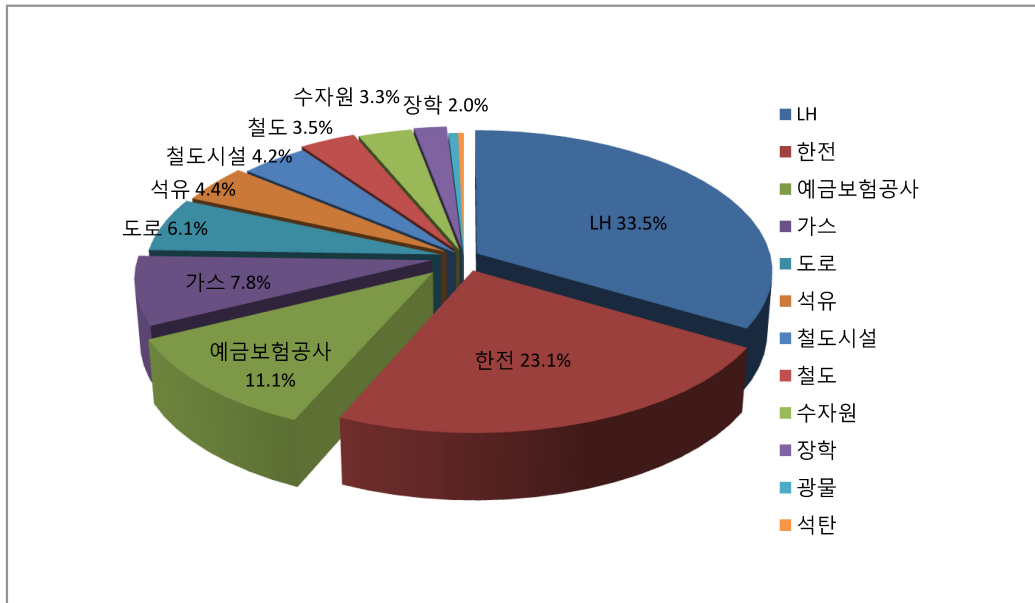
구분	1997년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부채	59.4	78.4	81.9	130.8	237.4	358.1
부채비율	170.7	124.7	103.4	108.8	171.8	245.3

주: 예금보험공사(무자본특수법인)와 장학재단(금융형)의 경우 기관 특성상 부채비율이 의미가 없으므로 분석 제외

- 2012년 기준 12개 기관별 부채규모를 보면 LH공사(33.5%, 138.1조원)와 한국전력공사(23.1%, 95.1조원)가 12개 기관 부채의 56.6%를 차지할 정도로 큼
 - 다음으로 예금보험공사(11.1%, 45.9조원), 가스공사(7.8%, 32.3조원), 도로공사(6.1%, 25.3조원), 석유공사(4.4%, 18.0조원), 철도시설공사(4.2%, 17.3조원), 철도공사(3.5%, 14.3조원), 수자원공사(3.3%, 13.8조원), 장학재단(2.0%, 8.4조원), 광물공사(0.6%, 2.4조원), 석

탄공사(0.4%, 1.5조원)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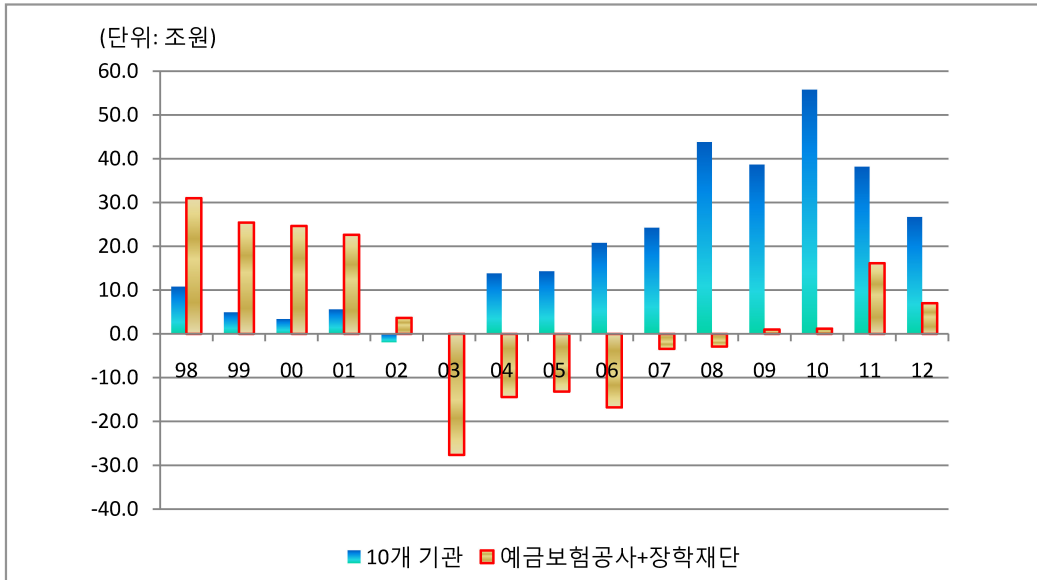
[그림 II-2] 12개 기관별 부채규모(2012년 말)



2. 부채의 증가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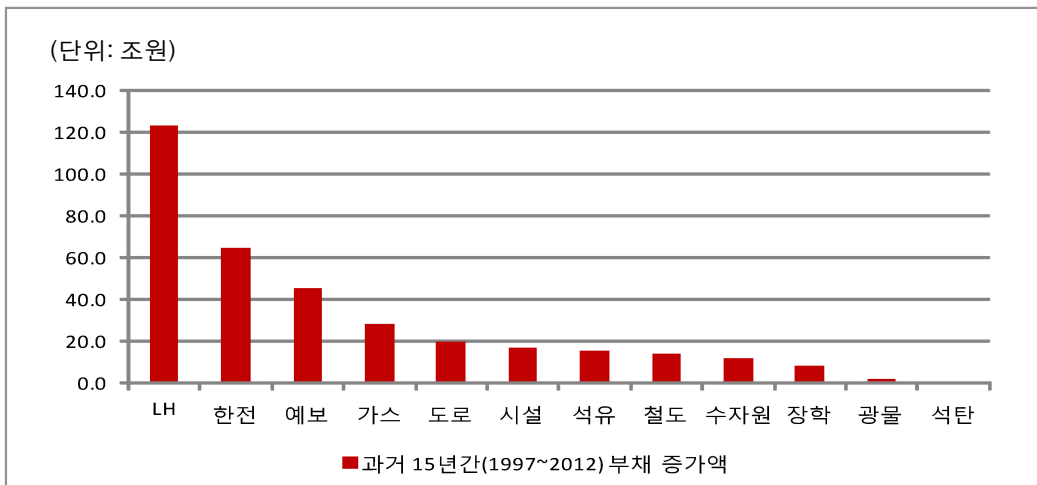
- 12개 공공기관의 경우 2004년 이후 부채의 증가세가 시작하여 2007년 이후에 급증함
 - 200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2001년 이전에는 예금보험공사의 부채 증가가 크며, 2007년 이후에는 10개 기관(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 제외)의 부채 증가속도가 큼
 - 10개 기관(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 제외)의 경우 1998~2003년까지 부채는 22.6조원 증가(연평균 3.8조원, 매년 3.8%)하였으나, 2004~2012년 동안 부채는 276.2조원(연평균 30.7조원, 매년 17.8%) 증가함
 -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위기 직후(1998~2001년) 부채가 급증했으나 예보채의 만기상환과 국채전환으로 감소하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함

[그림 II-3] 12개 공공기관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 과거 15년간(1997~2012년) 기관별로 부채 증가액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가장 크게 증가
 - 한국토지주택공사(123.4조원), 한국전력공사(64.7조원), 예금보험공사(45.9조원), 한국가스공사(28.5조원), 한국도로공사(19.7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17.3조원), 한국석유공사(15.9조원), 한국철도공사(14.3조원)의 순임

[그림 II-4] 12개 기관의 과거 15년간 기관별 부채 증가액(1997~2012년)



3. 부채의 성격

-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에 대한 부채의 성격을 분석함
 -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의 경우 다른 10개 기관과는 업종이 상이하여 다른 기관과 동일한 재무비율로 분석함에 따른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함
 - 10개 기관의 부채(358.1조원)는 12개 기관 부채(412.3조원)의 86.8%이며 295개 전 공공기관 부채(493.4조원)의 72.6%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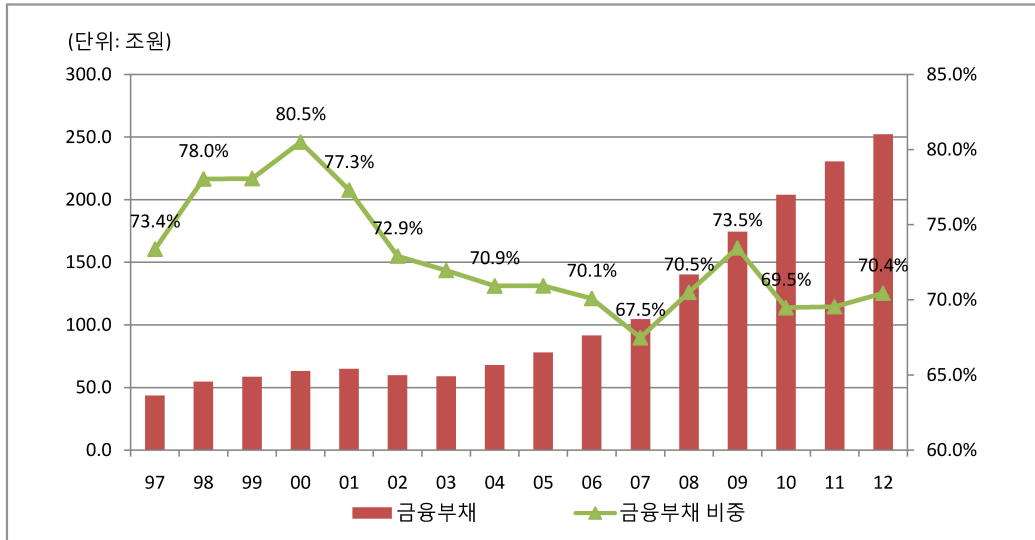
가. 부채의 구성과 안전성

1) 금융부채 비중⁶⁾

- 10개 기관의 부채(358.1조원) 중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70.4% (252.2조원)임
 - 전체 부채 중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내외 경제위기가 고조되었던 1998년 이후 및 2008년 이후에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기간에는 대체로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6) 금융부채는 부채로 인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로 사채, 차입금 등이 해당되며 금융부채 비중은 금융부채를 총부채로 나눈 비율임. 부채규모가 큰 기관이 금융부채 비중이 높을 경우 기관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의미함

[그림 II-5] 10개 기관의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비중



- 기관별로 볼 때 전체 부채 중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초과하는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와 대한석탄공사임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도 금융부채 비중이 80% 초과 90% 이하로 높은 편임

<표 II-3> 10개 기관의 금융부채 비중별 해당 기관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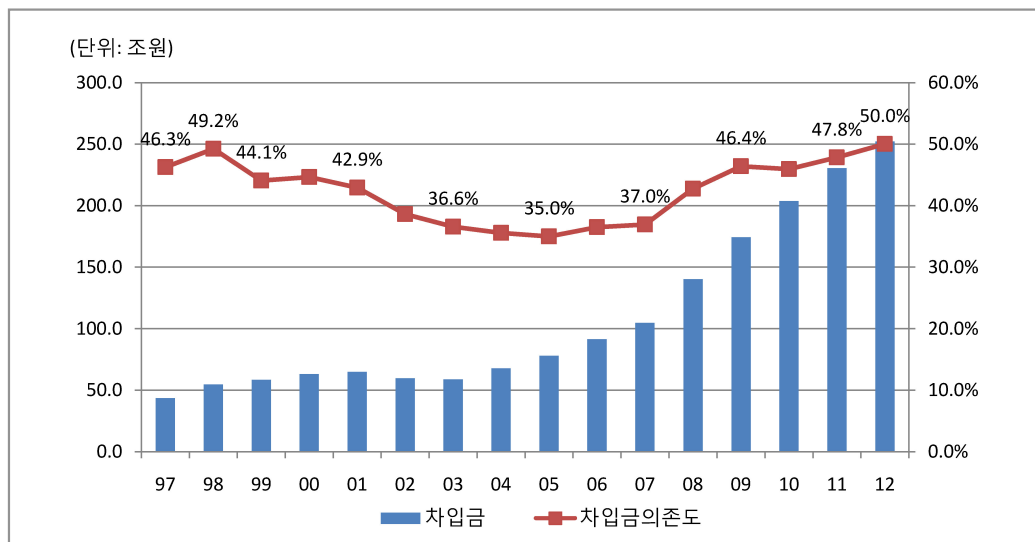
구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50% 초과 60% 이하	-	-	1	1
60% 초과 70% 이하	2	3	2	2
70% 초과 80% 이하	2	-	1	1
80% 초과 90% 이하	2 (도로, 가스)	1 (가스)	4 (철도, 철도시설, 가스, 석유)	4 (철도, 철도시설, 광물, 수자원)
90% 초과	2 (석유, 광물)	4 (도로, 석탄, 석유, 광물)	2 (도로, 석탄)	2 (도로, 석탄)
합계	8	8	10	10

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각각 2005년 및 2004년에 설립되었으므로 1997년과 2002년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됨

2) 차입금의존도⁷⁾

- 2005년까지 차입금의존도는 35% 수준까지 점차 하락하고 있었으나, 2007년 이후 차입금의 규모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차입금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임
- 2012년 기준 10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252.2조원이며 10개 기관의 총부채 대비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차입금의존도는 50.0%에 달함

[그림 II-6] 10개 기관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의존도가 30%를 초과하는 기관 수는 2007년까지 7개 기관에서 2012년에는 10개 기관까지 늘어남
- 차입금의존도는 통상 30%를 초과하는 경우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는 판단기준으로 사용됨

7) 차입금의존도는 금융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자산 취득/유지에 소요되는 재원 중 얼마만큼을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로 충당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표 II-4〉 10개 기관의 차입금의존도 비율별 해당 기관 수

(단위: 개)

구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10% 이하	-	-	1	-
10% 초과 20% 이하	-	1	-	-
20% 초과 30% 이하	1	-	2	-
30% 초과 40% 이하	-	1 (한전)	3 (광물, 철도, 석유)	2 (석유, 한전)
40% 초과 50% 이하	3 (한전, 도로, LH)	3 (석유, 도로, LH)	2 (도로, LH)	2 (수자원, 도로)
50% 초과	4 (석탄, 광물, 석유, 가스)	3 (석탄, 광물, 가스)	2 (석탄, 가스)	6 (석탄, 철도시설, 가스, 철도, LH, 광물)
합계	8	8	10	10

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각각 2005년 및 2004년에 설립되었으므로 1997년과 2002년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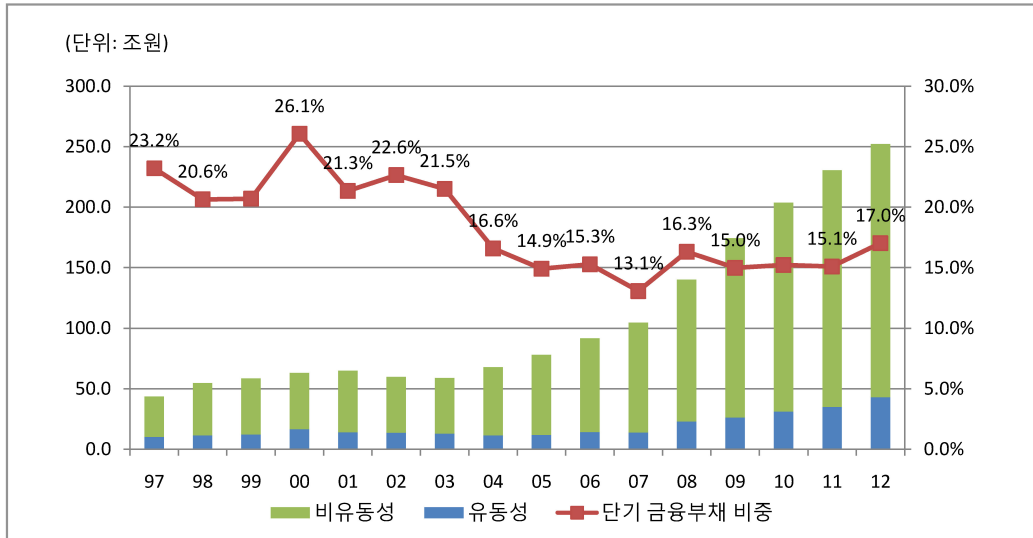
3) 단기 금융부채 비중⁸⁾

□ 단기 금융부채의 비중은 2007년까지 계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8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 단기 금융부채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전체 금융부채 중 만기 1년 이내의 금융부채가 많아지므로 가중평균 만기가 줄어들을 의미하며, 이는 금융부채 규모가 일정할 경우 단기 금융부채의 비중이 높을수록 단기 상환압력이 커짐을 의미함

8) 단기 금융부채 비중은 전체 금융부채 중 만기 1년 내 도래 채무 등의 유동성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그림 II-7] 10개 기관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 단기 금융부채 비율이 특히 높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로서 금융부채 중 1년 이내 유동성 부채가 70%를 초과하고 있음

○ 단기 금융부채 비율이 20% 초과 40% 미만인 기관 수는 2002년까지 3개 기관에서 2007년 이후 2개 기관으로 줄어들음

〈표 II-5〉 10개 기관의 단기 금융부채 비율별 해당 기관 수

(단위: 개)

구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10% 이하	3	2	4	-
10% 초과 20% 이하	1	2	3	7
20% 초과 30% 이하	1 (한전)	3 (LH, 한전, 가스)	2 (한전, 가스)	2 (광물, 가스)
30% 초과 40% 이하	2 (LH)	-	-	-
40% 초과 70% 이하	-	-	-	-
70% 초과	1 (석탄)	1 (석탄)	1 (석탄)	1 (석탄)
합계	8	8	10	10

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각각 2005년, 2004년에 설립되었으므로 1997년과 2002년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됨

4)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기/장기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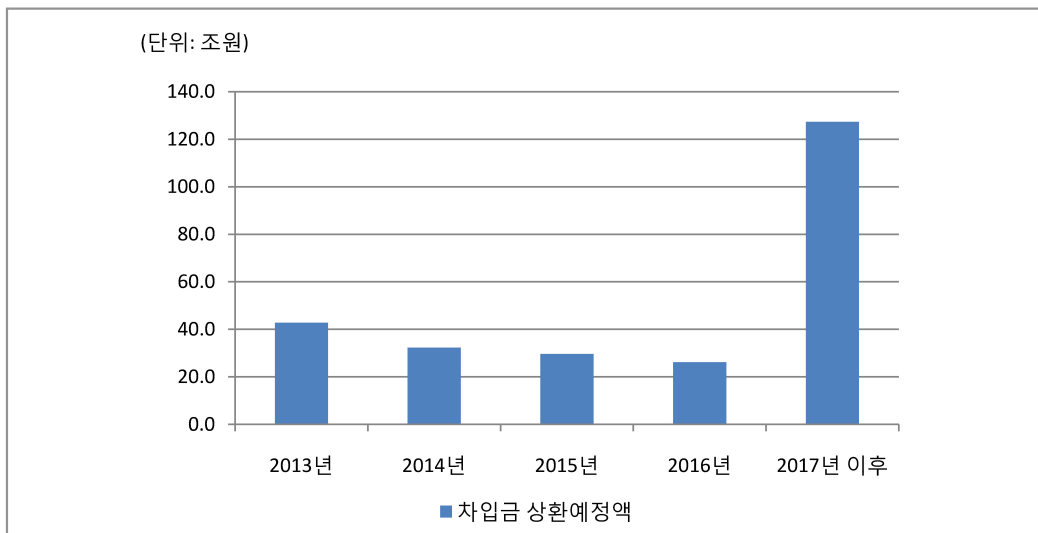
〈표 II-6〉 10개 기관의 금융부채의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계
금융부채						
- 차입금	186,065	48,095	33,477	26,274	349,681	643,592
- 사 채	241,984	274,319	262,270	235,512	923,351	1,937,436
합계	428,049	322,414	295,747	261,786	1,273,032	2,581,028

- 2013년 이후 상환예정인 금융부채는 사채 74.9%, 차입금 25.1%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에 상환할 금융부채는 42.8조원(16.6%)이고 2017년 이후에 127.3조원(49.3%)을 상환할 계획임
- 전체 금융부채에서 3년 이내 만기 도래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99.9%), 한국광물자원공사(89.9%), 한국석유공사(51.7%), 한국가스공사(48.5%), 한국토지주택공사(40.4%)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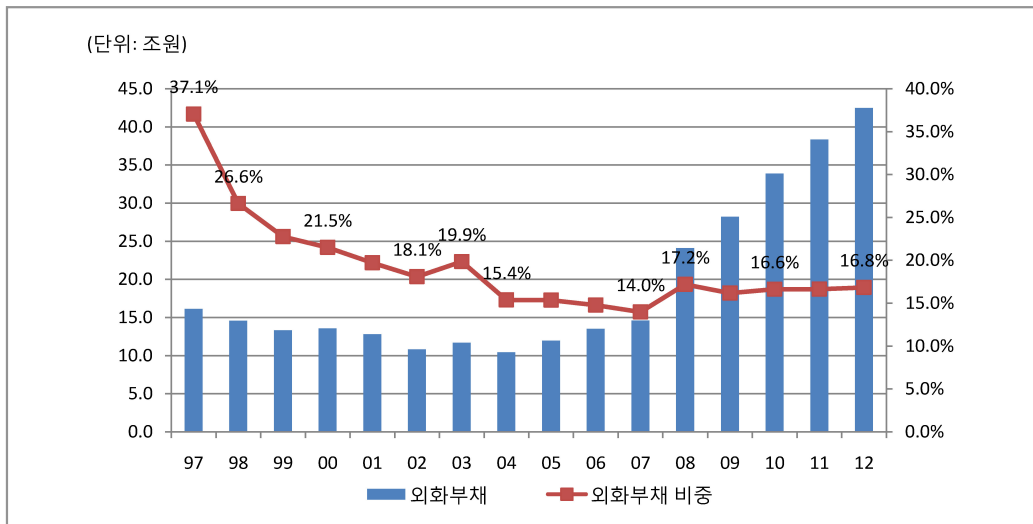
[그림 II-8] 10개 기관의 차입금 상환계획



주: 연도별 차입금 및 사채 상환금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고려되지 않은 금액이며, 또한 금융리스 부채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금융부채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나. 외화부채 비중

[그림 II-9] 10개 기관의 연도별 외화 금융부채 비중



□ 외화 금융부채 비중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09년 이후 금융부채 중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대를 유지하고 있음

○ 외화부채 비율이 특히 높은 기관은 한국석유공사(97.3%)와 한국광물자원공사 (79.3%)임

<표 II-7> 10개 기관의 외화부채 비중별 해당 기관 수

(단위: 개)

구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 이하	4	4	5	6
20% 초과 40% 이하	3 (석유, 가스, 수자원)	3 (한전, 석유, 수자원)	2 (한전, 철도)	2 (가스, 한전)
40% 초과 60% 이하	-	1 (광물)	3 (석유, 광물, 수자원)	-
60% 초과 80% 이하	1 (한전)	-	-	1 (광물)
80% 초과	-	-	-	1 (석유)
합계	8	8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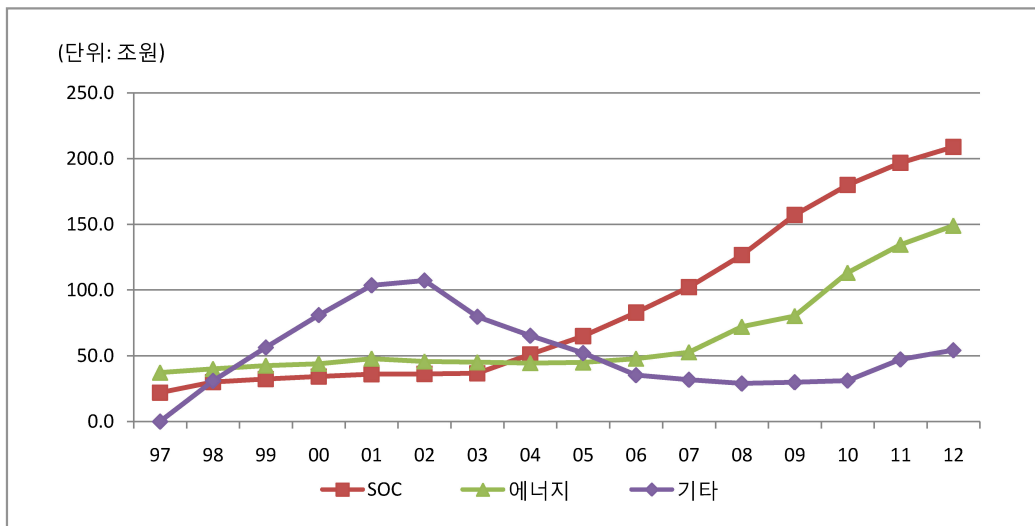
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각각 2005년, 2004년에 설립되었으므로 1997년과 2002년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됨

4.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가. 부채 발생 주요 원인

- 12개 공공기관을 기능단위별(SOC, 에너지, 기타)로 구분하면 SOC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에너지 공공기관 순임
- SOC 공공기관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한 반면 에너지 공공기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채가 증가함
 - SOC 공공기관(5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에너지 공공기관(5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 기타 공공기관(2개):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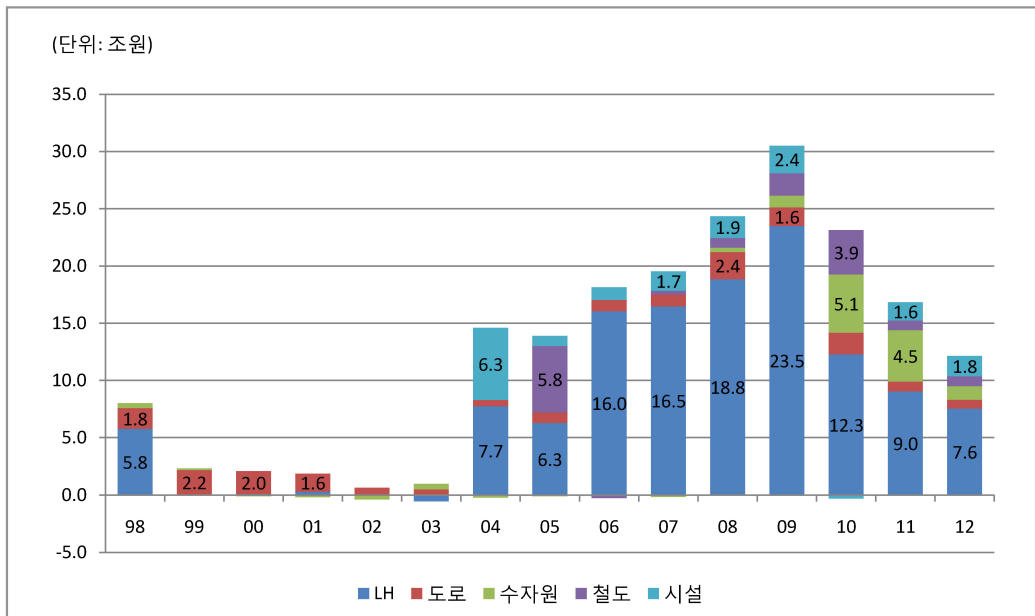
[그림 II-10] 10개 기관의 기능단위별 부채규모의 추이



- SOC 공공기관의 경우 연도별 부채 증가액은 2004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말 부채규모는 208.9조원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66.1%, 138.1조원), 한국도로공사(12.1%, 25.3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8.3%, 17.3조원)의 순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큼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3~2007년 사이 신도시 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시 및 혁신도시 개발로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2008부터는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부채 증가 속도가 가속화됨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4년 설립된 이후 경부고속철도 건설투자로 2007년까지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설투자 및 이자비용 조달 등으로 부채 증가가 지속됨
-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 출범한 이후 매년 4천억~7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2008년 이후 4대강 살리기 및 경인 아라뱃길 사업 수행에 따른 부채증가가 9.2조원임
-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투자비를 확대한 이후 부채가 급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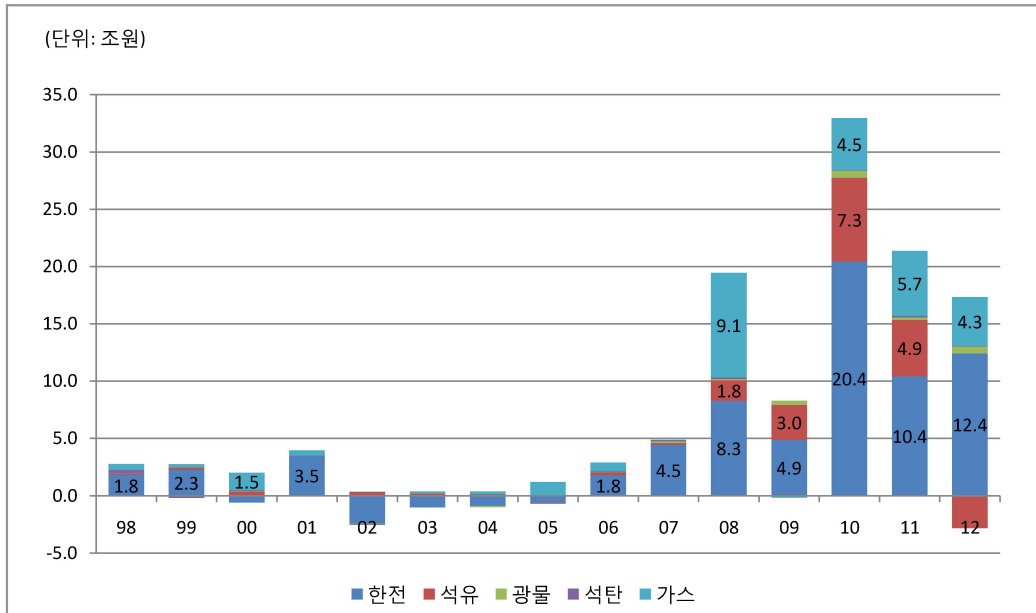
[그림 II-11] SOC 공공기관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주: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는 각각 2004년, 2005년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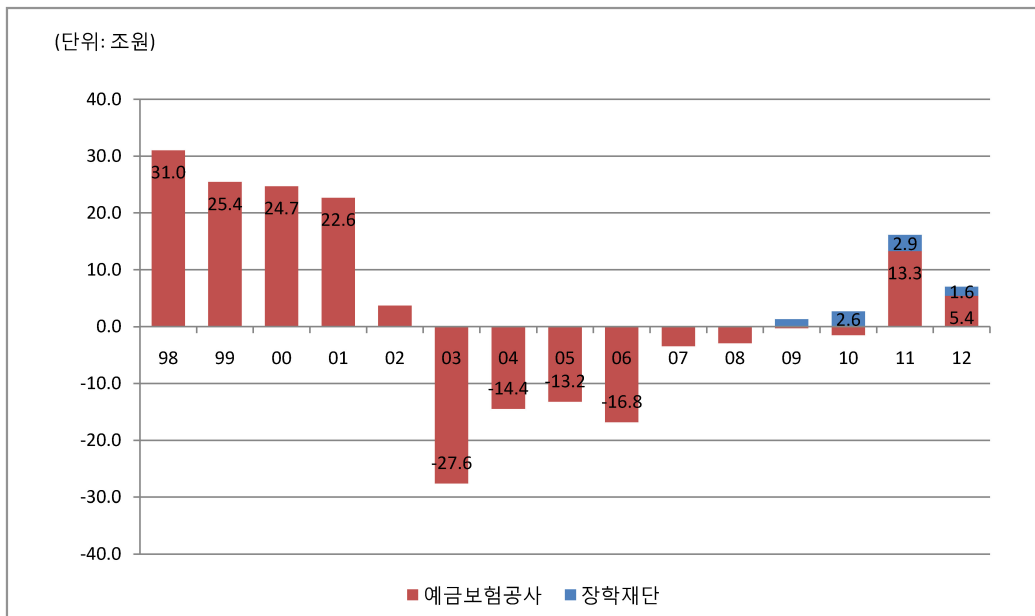
-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우 연도별 부채 증가액은 2007년 이후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2012년 말 부채규모는 149.2조원이며, 한국전력공사(63.7%, 95.1조원), 한국가스공사(21.6%, 32.3조원), 한국석유공사(12.1%, 18.0조원)의 순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큼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등 설비투자로 인한 부족자금 차입과 전기요금 억제로 인한 영업적자가 주요 원인임
 - 월가보상률: 77.7%(2008) → 91.57%(2009) → 90.2%(2010) → 87.3%(2011) → 88.4%(2012)
-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해외 석유개발기업의 합병 및 자산인수를 위해 외부차입을 늘린 원인이 가장 큼
-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가 장기간 유보됨에 따라 2008~2012년에 미수금 증가와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에 따른 자금 차입 및 IFRS 도입에 따른 추가 부채인식 등이 주요 원인임
- 대한석탄공사: 민간기업 대비 높은 영업비용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1997년 이후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계속됨

[그림 II-12] 에너지 공공기관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의 경우 1998~2002년에 부채는 107.4조원 증가하였으나 2003~2007년 75.5조원 감소하였으며 2010년 이후 다시 부채가 증가함
-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예보채가 발행되어 부채가 급증하였으나 2007년까지 대부분의 만기가 도래하였고 국가채무로 전환되어 부채가 감소함 - 2011~2012년에는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예보채가 추가 발행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부채가 증가함
-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설립되어 학자금 대출재원을 위한 8.4조원의 부채 발생

[그림 II-13]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 주요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의 추정
 - 주요 사업별 자금흐름을 기준으로 차입금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금융부채 증가액을 산출하였으며 사업 간 공통비 등의 배부 시 일정한 가정을 전제하여 도출함
 - 이러한 방법은 자금흐름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므로 K-IFRS 도입 시 회계기준 적용 차이의 효과 등으로 인한 금융부채 순증감액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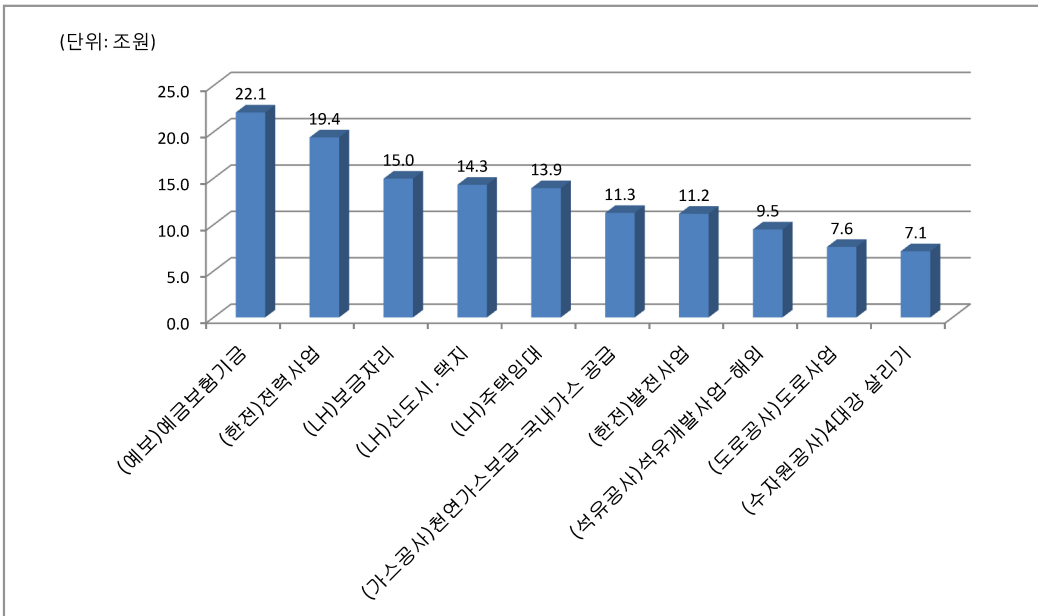
- 이로 인해 회계상 금융부채 순증감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각 기관이 적용한 금융부채 순증감액을 파악하는 데 적용한 가정(〈부록〉 참조)이 달라질 경우 주요 사업별 금융부채의 증감액은 도출된 금액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최근 5년간 12개 공공기관 금융부채 증가(167.3조원)의 대부분(78.5%)은 아래의 10개 사업에서 발생(131.4조원)

-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사업(22.1조원),
-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사업(19.4조원) 및 발전자회사의 발전사업(11.2조원)
- LH공사의 보금자리사업(15.0조원), 신도시·택지사업(14.3조), 주택임대사업(13.9조원)
- 가스공사의 국내천연가스 공급사업(11.3조원)
- 석유공사의 해외 석유개발사업(9.5조원)
- 도로공사의 도로사업(7.6조원)
-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7.1조원)

[그림 II-14] 12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사업별 금융부채 발생액 상위 10개 사업(2008~2012년 합계액)



주: 한전의 전력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 관련 시설투자가 포함되며 한전의 발전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주)를 포함한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들이 시행하는 신규 발전소 건설 및 보수가 포함되어 있음

□ 12개 기관의 주요 사업별 자금흐름을 기준으로 금융부채 증가액을 추정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II-8〉 12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단위: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한국토지 주택공사	보금자리	13,505	18,693	39,905	42,880	34,663	149,646
	산업단지 등	-6,620	1,070	14,714	9,975	8,865	28,004
	주택임대	41,543	46,685	622	12,510	38,027	139,387
	세종·혁신도시	19,960	6,489	13,001	237	-12,135	27,552
	신도시·택지	29,285	64,626	50,371	-3,692	2,511	143,101
	기타	44,127	61,685	-24,223	-8,373	-7,586	65,630
	소계	141,800	199,248	94,390	53,537	64,345	553,320
한국 전력공사	전력사업	43,258	23,894	33,653	39,457	53,899	194,161
	발전사업	28,155	20,860	4,347	30,667	27,728	111,757
	해외사업	1,639	7,136	10,368	-17	15	19,141
	기타	2,050	89	7,208	-4,232	-1,421	3,694
	소계	75,102	51,979	55,576	65,875	80,221	328,753
한국 석유공사	석유개발사업 - 국내	640	-29	-396	-763	262	-286
	석유개발사업 - 해외	10,054	30,438	27,881	26,262	329	94,965
	민간 용자사업	2,293	-1,424	-	-	-	869
	비축사업	-	-	-	-	-	-
	기타 - 환율효과	-	-	-1,763	902	-6,968	-7,828
	소계	12,987	28,985	25,723	26,401	-6,377	87,720
한국 도로공사	도로사업	27,910	15,763	16,216	10,258	5,875	76,022
	부대사업	-762	-728	424	-1,043	-518	-2,627
	소계	27,148	15,035	16,640	9,215	5,357	73,395
한국광물 자원공사	투자사업	1,251	2,718	3,730	2,339	5,700	15,738
	용자사업	689	21	1,770	-2,952	-	-472
	소계	1,940	2,739	5,500	-613	5,700	15,266
대한 석탄공사	무연탄생산판매	2,028	-817	192	1,103	101	2,607

〈표 II-8〉의 계속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한국 가스공사	천연가스보급-국내 가스 공급	67,851	4,083	5,000	23,379	12,333	112,646
	천연가스보급-국내 도입용 해외가스전 지분투자	-1,280	-781	-673	13,228	19,568	30,061
	요금비규제- 해외자원 개발	989	1,629	6,068	7,863	10,685	27,234
	기타 해외사업	462	151	-3	-68	105	646
	소계	68,022	5,081	10,392	44,401	42,691	170,587
한국 수자원 공사	수자원	1,306	-2,655	-3,688	-4,639	-4,423	-14,099
	단지	839	4,080	7,966	5,461	2,190	20,536
	경인 아라뱃길	-	5,266	9,783	7,123	-1,796	20,376
	4대강 살리기	-	1,175	30,723	31,456	8,011	71,365
	수익 및 부대사업	1,854	1,746	2,216	2,984	971	9,771
	소계	3,999	9,612	47,000	42,385	4,953	107,949
한국철도 공사	운송사업	9,478	4,485	9,684	7,049	10,120	40,816
	수탁사업	688	-583	435	-458	460	542
	인천공항철도 인수	-	12,057	562	354	101	13,074
	수익 및 부대사업	-971	-1,276	-1,283	-1,764	-1,471	-6,765
	소계	9,195	14,683	9,398	5,181	9,210	47,667
한국철도 시설공단	1단계경부고속철도	2,372	3,248	3,678	2,775	2,241	14,314
	2단계경부고속철도	10,965	7,578	7,746	1,252	-2,567	24,974
	호남고속철도	0	2,267	6,848	10,502	9,425	29,042
	수도권고속철도	0	0	0	26	3,256	3,282
	경의선 선(先)투자	0	3,000	-1,550	-950	-500	0
	소계	13,337	16,093	16,722	13,605	11,855	71,612
한국장학 재단	일반학자금 대출	-	12,500	16,900	12,000	3,500	44,900
	든든학자금 대출	-	-	8,200	9,300	12,100	29,600
	소계	-	12,500	25,100	21,300	15,600	74,500

〈표 II-8〉의 계속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예금보험 공사	예금보험기금	-2,364	-80	-664	104,210	119,921	221,023
	예보채상환기금	-26,003	-8,046	-6,959	-30,266	-9,810	-81,084
	소계	-28,367	-8,126	-7,623	73,944	110,111	139,939
12개 공공기관 합계		321,858	342,614	295,109	354,319	342,838	1,673,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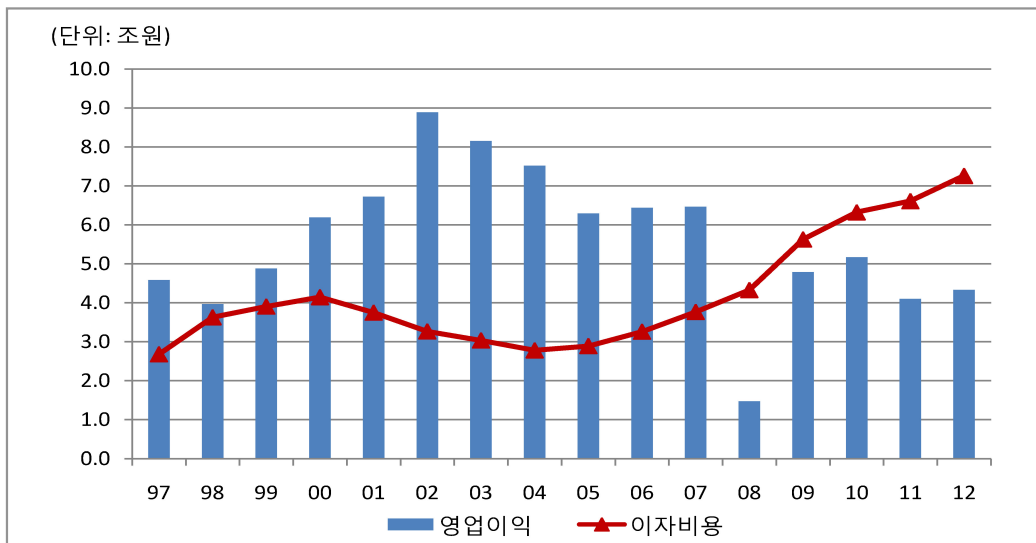
주: 위 자료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상세한 구분회계 작업이 완료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본 자료 작성을 위해 사용된 상세한 방법과 기준은 〈부록2. 기관 사업 구분 및 사업별 자금 추정 근거〉 참조

5.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공공기관의 영업이익 합계(4.3조원)로는 이들 기관의 이자비용(7.3조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임(2012년 기준)
- 10개 공공기관의 영업이익은 200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 하락 추세로서 2008년부터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낮은 수준

가. 이자 상환능력

[그림 II-15]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연도별 추이



- 10개 공공기관이 금융부채를 보유함에 따라 매년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2004년 2.8조원에서 차츰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2년에 7.3조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영업이익(4.3조원)보다 3조원이 더 많음
 - 10개 공공기관이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2002년까지 상승 추세에 있었으나 2003년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2년 기준 영업이익은 연간 4.3조원 수준임(2008년 외환위기 당시 일시적인 하락이 있었음)
- 이자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⁹⁾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기관은 5개임
 -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이자보상배율이 음(-)임
 - 영업적자가 발생한 기관 수는 2007년 2개 기관이었으나 2012년 4개 기관으로 두 배나 증가함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¹⁰⁾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으로 낮은 수준임

〈표 II-9〉 이자보상배율 구간에 따른 기관 수

(단위: 개)

구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5배 이상	1	1	2	-
3배 이상 5배 미만	1	2	-	1
1배 이상 3배 미만	4	4	4	4
0배 이상 1배 미만	1 (광물)	-	2 (철도시설, 도로)	2 (철도시설, 광물)
영업손실	1 (광물)	1 (석탄)	2 (석탄, 철도)	3 (석탄, 철도, 한전)
합계	8	8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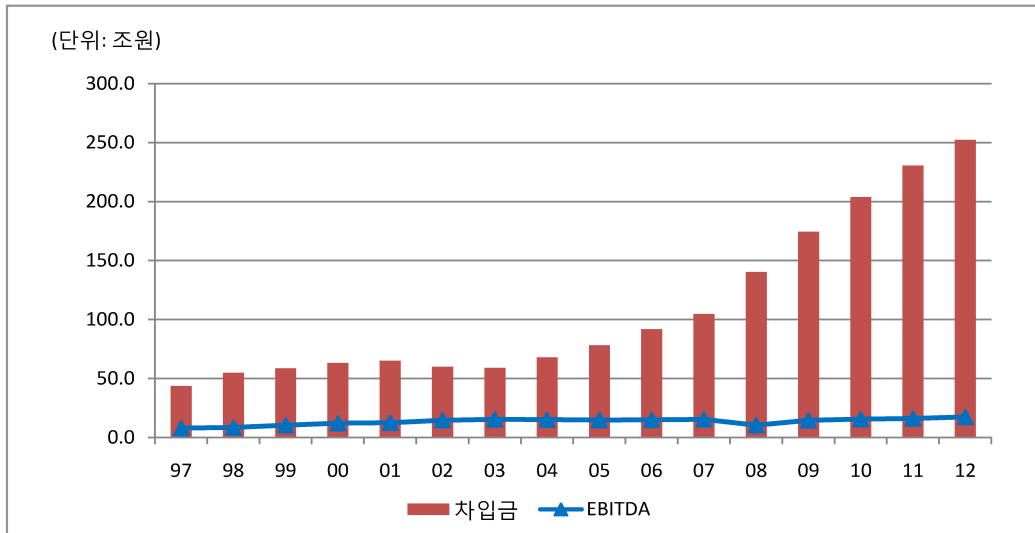
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각각 2005년, 2004년에 설립되었으므로 1997년과 2002년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됨

9) 이자보상배율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기관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이자비용)을 어느 정도나 부담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임. 통상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전부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잠재적인 부실 위험이 있다고 평가됨

10)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매출원가로 처리한 이자비용을 보정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매출원가 이자비용)/(이자비용+매출원가 이자비용)을 산정함

나. 원금 상환능력

[그림 II-16] 10개 기관의 차입금과 EBITDA의 연도별 추이



- 금융부채는 2004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상환하기 위한 영업현금 흐름인 EBITDA는 매년 일정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임
 - 1997년 43.6조원이던 10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2012년 252.2조원까지 5.8배 증가하였으나, 동일 기간 동안 EBITDA는 7.9조원에서 17.4조원으로 2.2배만큼만 증가함
 - 영업현금으로 금융부채 원리금을 상환하려면 차입금 증가 속도보다 더 빨리 EBITDA가 증가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원금 상환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원금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차입금/EBITDA배율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차입금/EBITDA배율이 7.5배 이상인 기관은 7개 기관이며 음(-)의 EBITDA¹¹⁾가 발생하는 기관도 2개임
 - 차입금/EBITDA배율이 7.5배 이상인 기관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11) 음(-)의 EBITDA는 영업활동에서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을 통해서도 차입금 상환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차입금/EBITDA배율의 분석이 의미가 없음

〈표 II-10〉 차입금/EBITDA 배율 구간에 따른 기관 수

(단위: 개)

구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0배 초과 2배 이하	-	1	1	-
2배 초과 5배 이하	4	2	3	1
5배 초과 7.5배 이하	2	1	2	-
7.5배 초과 20배 이하	1 (가스)	2 (석유, LH)	2 (철도시설, LH, 도로)	4 (수자원, 가스, 도로, 한전)
20배 초과	1 (석유)	2 (광물, 석유)	2 (철도시설, 광물)	3 (철도, 철도시설, LH)
음(-)의 EBITDA	2 (석탄, 광물)	1 (석탄)	2 (석탄, 철도)	2 (석탄, 광물)
합계	8	8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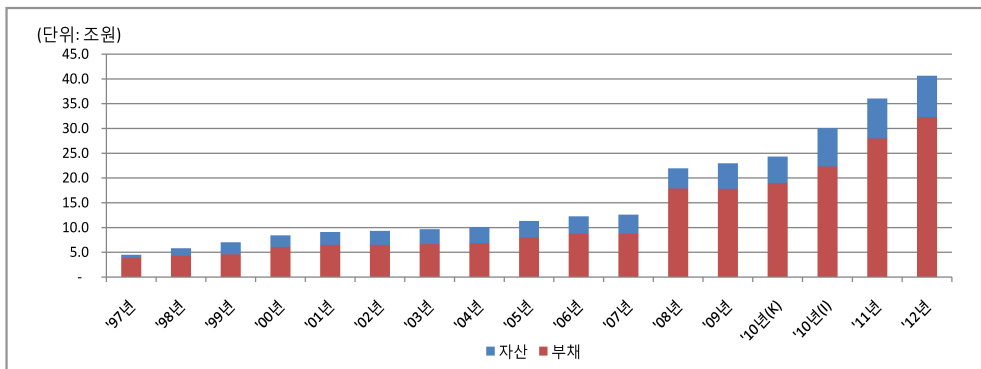
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각각 2005년, 2004년에 설립되었으므로 1997년과 2002년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됨

Ⅲ. 12개 기관별 부채 세부 현황

1. 한국가스공사

* 아래 한국가스공사 재무자료는 기본적으로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른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기간에는 K-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단, 2010년도는 비교목적상 K-GAAP 및 K-IFRS에 의한 수치를 모두 표시하였음

[그림 Ⅲ-1]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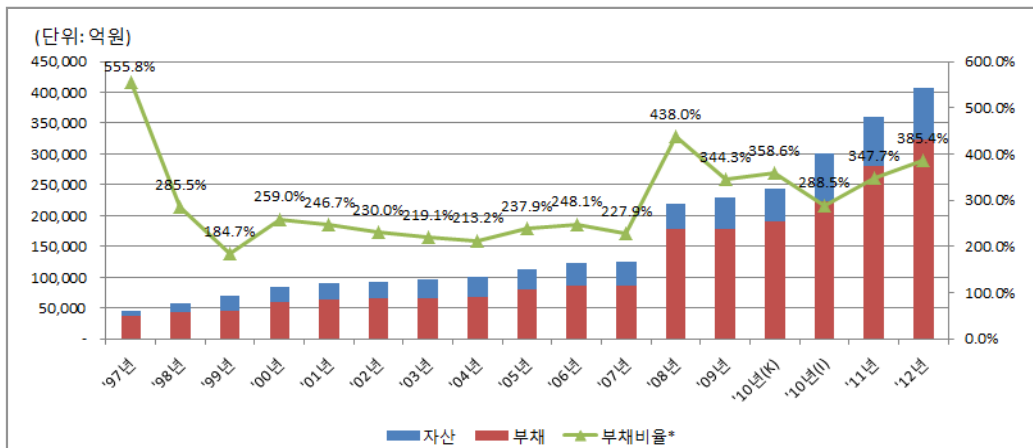


- 한국가스공사의 자산은 1997년 4.5조원에서 2012년 40.6조원으로 806%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부채는 3.8조원에서 32.3조원으로 749% 증가하였음
- 부채규모는 과거 15년간 매년 평균 15.3%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8~2012년간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함
- 부채비율은 최근 부채규모 증가에 따라 상당히 높아져서 2012년 말 기준 385.4%를 나타냄

- 부채 증가 속도는 최근 5개년(2008~2012년) 동안 두드러지게 상승하였음
 - 2008~2012년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29.8%씩 총 268.9%에 달할 정도로 부채 증가 속도가 두드러지게 높았음
 - 2008년도에 부채 증가가 현저히 크며, 이후 부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다가 2011년 및 2012년에 부채 증가 규모가 각각 5.7조원, 4.3조원으로 다시 커짐
- 이는 주로 2008년도의 원료비 연동제 유보금 급증, 2008년 이후 국내천연가스 공급 확대사업 추진 및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한 해외투자 자금 소요 등에 기인함

가. 부채의 규모

[그림 Ⅲ-2]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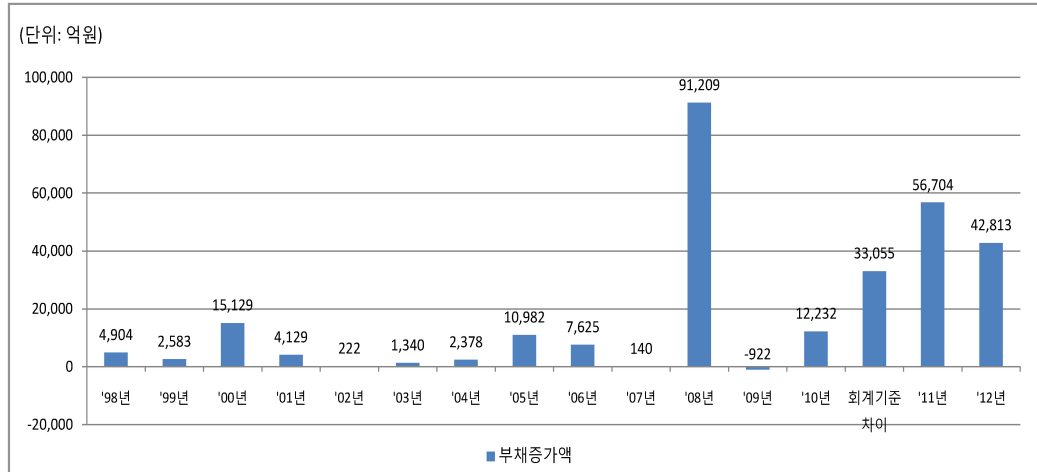


- 2012년 총부채규모는 32조 3천억원으로 1997년 3조 8천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1997년 555.8%에서 2007년 227.9%로 급감한 뒤 2008년도 이후 증가 추세임
- 1997년도의 높은 부채비율은 IMF 외환위기에 따른 비정상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것임
 - 당시 환율 급등으로 원료도입 원가가 급상승하여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자기자본은 감소하고 자금 차입 부담이 증가하여 당시 부채비율이 556%로 높게 나타남

- 1998년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6,940억원)이 자본에 편입됨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감소한 뒤 지속적으로 200% 초반대를 유지하였음
- 부채 증가액 중 상당 부분은 2008년 이후 증가분이며, 특히 2008년도 증가액이 매우 큼
 - 2008년 유가 및 환율 급등에도 불구하고 원로비 연동제가 유보됨에 따라 미수금이 커지고, 재고자산 등 운전자금이 대폭 증가하여 부채 부담이 급증하고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210%p)하였음
 - 2009년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로 인한 자본 증가로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94%p)하였으나, 이후 천연가스 보급 확대사업에 따른 국내설비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투자 증가로 인해 부채비율이 상승하였음

나. 부채의 증가 속도

[그림 Ⅲ-3]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 1998~2002년 동안에는 주로 국내 설비투자 증가로 인해 부채가 약 2조 7천억원 증가하였으며, 2000년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채 증가 속도가 완만함
 - 인천·평택생산기지 확장 및 통영생산기지 건설에 따른 생산설비 투자 증가, 주배관 건설 등 공급시설 투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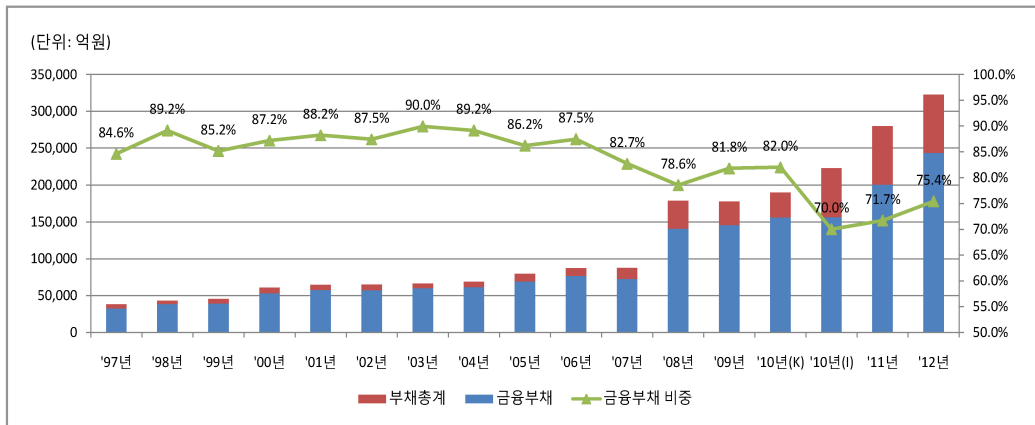
- 2003~2007년 동안에는 부채가 약 2조 2천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2005~2006년 동안 부채 증가율이 다소 상승한 것 이외에는 부채 증가 속도가 낮은 편임
 - 국내 건설투자비 총당 및 YLNG 등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차입금 및 사채 증가
- 2008년도에 부채 증가가 가장 급속하게 발생했으며, 이후 부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다가 2011년, 2012년에 부채 증가액이 각각 5조 7천억원, 4조 3천억원으로 다시 커짐
 - 연동제 유보에 따른 미수금 증가 및 해외자원개발 투자 급증, 기타 금융리스부채 증가 및 국내 설비투자 증가 등이 더해져서 부채 증가 속도가 높아짐

다. 부채의 성격

1) 부채의 구성과 안전성

가) 금융부채 비중

[그림 Ⅲ-4]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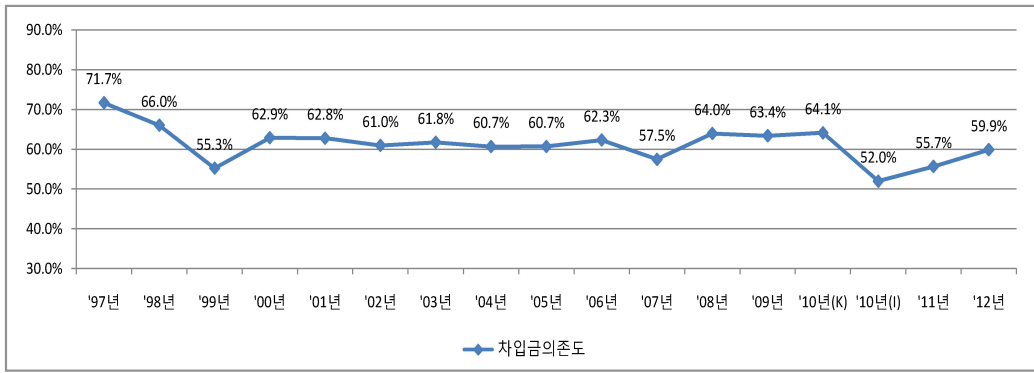


- 기관의 금융부채 비중은 2010년 이전까지는 80~90%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으나, 2010년 K-IFRS 적용으로 금융부채 비중이 70%까지 하락한 뒤 2011~2012년 동안 다소 증가하는 추세임
 - 2008년도 LNG 수송선 4척의 금융리스 적용으로 리스부채가 약 1조 588억원 발생하는 등 기타 부채 증가로 인해 금융부채 비중이 78.6%로 하락함

- 2010년에는 K-IFRS 적용에 따라 금융리스부채가 추가 인식되고 (LNG수송선 18척에 대한 리스부채 2조 3천억원 증가), 자산재평가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가 약 5,450억원 증가함에 따라 기타 부채 부분이 증가하여 금융부채 비중이 낮아짐

나) 차입금의존도(금융부채/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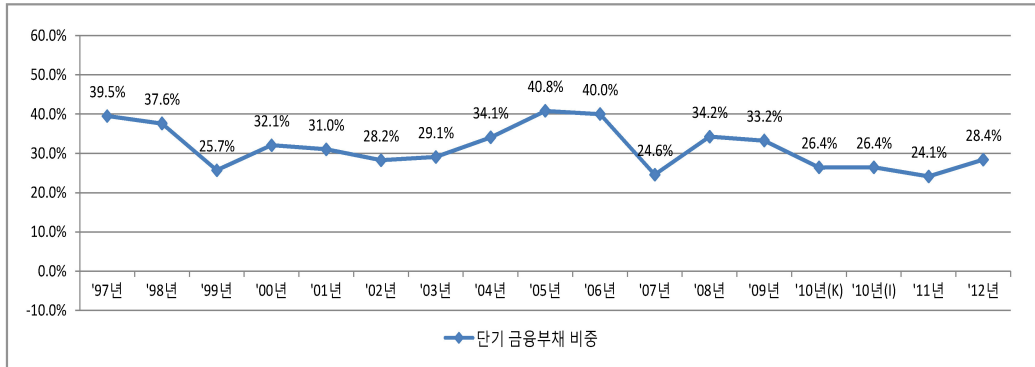
[그림 Ⅲ-5]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 기관의 차입금의존도는 2010년 이전에는 대략 60~70%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다가 2010년 K-IFRS 적용에 따라 52%까지 하락한 뒤 2012년 59.9%로 소폭 상승하였음
- 상기 가)항의 금융부채 비중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K-IFRS 적용 이후 기타 부채 금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투자자산 등의 자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차입금의존도가 낮아짐
- 2011년 이후 금융부채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차입금의존도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 추세를 보임

다) 단기 금융부채 비중

[그림 Ⅲ-6]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 기관의 단기 금융부채 비중은 1997년 39.5% 수준에서 다소 하락하여 2012년 28.4%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큰 등락은 없는 편임

○ 2012년 말 현재 기관의 금융부채 중 차입금은 장기차입금에 비해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더 높으나, 금융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채는 만기가 평균 6~7년 수준인 중·장기성 사채로 주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전반적인 단기 금융부채 비중은 크게 높지 않은 선에서 유지되고 있음

라)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기/장기 부채

<표 Ⅲ-1> 한국가스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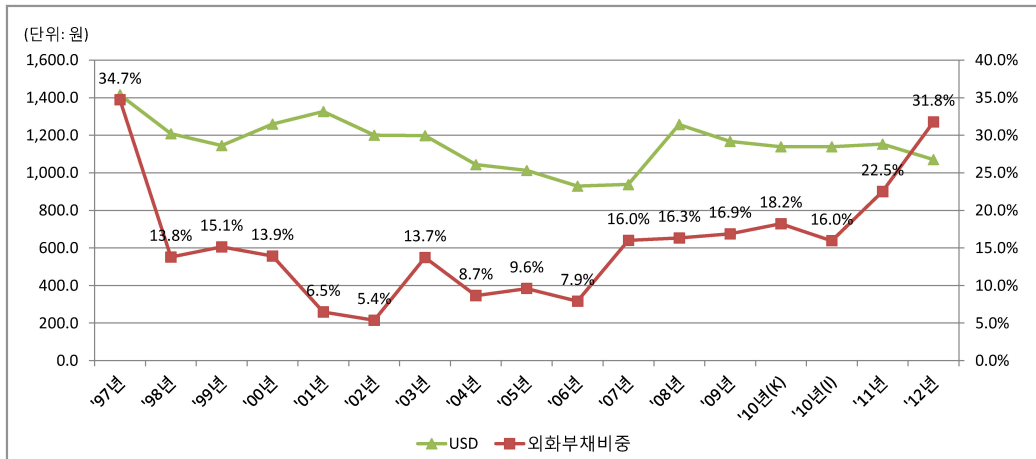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계
금융부채						
- 차입금	47,371	1,017	872	626	1,578	51,464
- 사 채	21,702	21,738	25,459	21,817	101,660	192,375
합계	69,072	22,755	26,331	22,443	103,238	243,839

주: 위의 연도별 차입금 및 사채 상환금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 등이 고려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2012년 말 금융부채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2012년 말 금융부채 잔액 약 24조 3천억원 중 28.3%가 만기 도래에 따라 2013년도에 상환될 예정이며, 약 42.3%는 2017년 이후에 상환될 예정임
- 사채의 경우 만기 5년 이상의 채권이 상당수이므로 2017년 이후 상환될 사채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함
- 상기 부채 중 대략 75%가량은 새로운 차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상환할 예정이며, 그 외는 자체수익 발생분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할 계획임

2) 외화부채 비율

[그림 Ⅲ-7]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외화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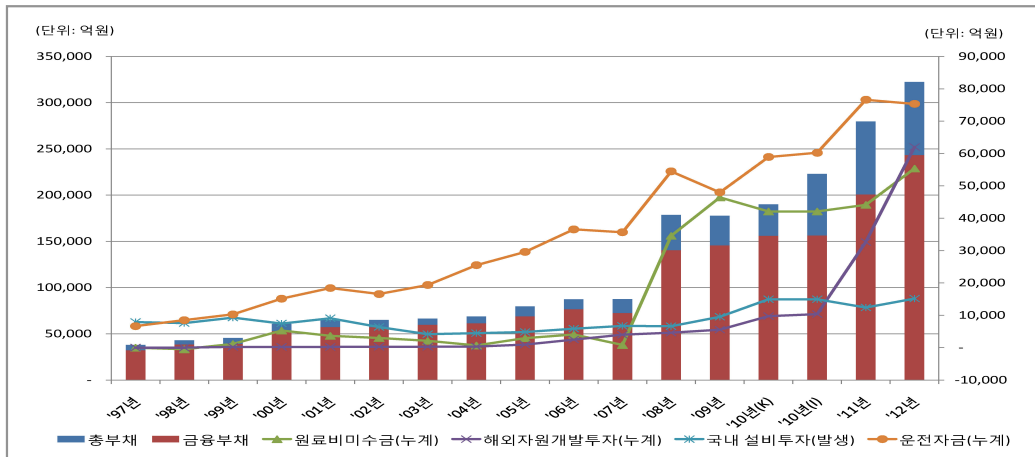


- 기관의 외화 금융부채비율은 1997년 IMF 위기 당시 34.7%로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난 뒤 낮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2007년부터 증가하여 2012년 말 31.8%로 높아짐
- 조달 금리 절감 및 차입선 다변화 등을 위해 외화 자금 조달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2007년 이후 외화 금융부채 비중이 증가함
- 2010년 이후 해외 투자금액이 급증하면서 해외 차입 규모가 커짐. 이로 인해 2010년을 기점으로 외화 부채 비중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음
- 외화 부채는 미국달러화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여러가지 통화로 구성되어 있음

라.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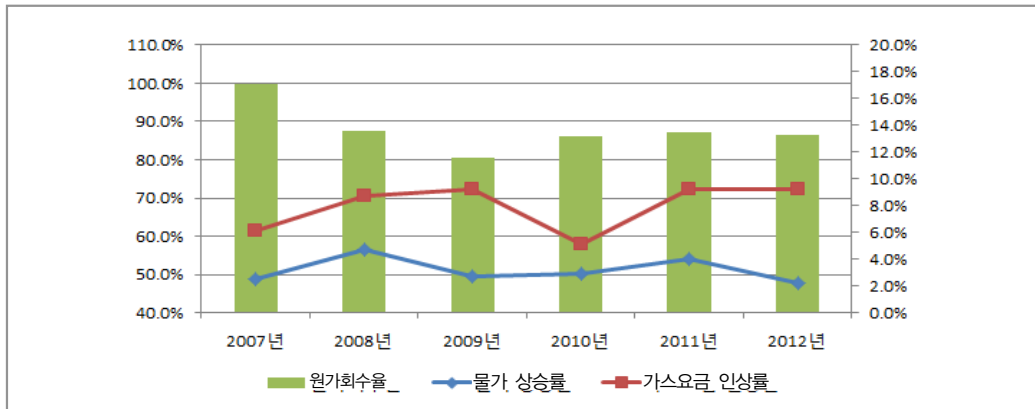
1) 부채 발생 주요 원인

[그림 Ⅲ-8]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금융부채 증감액과 관련 주요 지표



- 기관 금융부채 증가의 대부분은 2008년도 이후에 발생하였으며, 주로 천연가스 보급 확대 사업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천연가스 원료 도입가격 상승 및 연동제 미수금 증가, 해외자원개발 투자 및 기타 운전자금 증가 등에 기인함
- 원료비 미수금은 2008년도부터 급증하여 2012년 기준 약 5조 5천억원으로서, 금융부채 총액 대비 약 23%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였음

[그림 Ⅲ-9] 한국가스공사의 최근 연도별 가스 요금 관련 지표



- 2008년도 환율 급등 등으로 인해 원료 도입원가가 급증하였으나, 가스요금 인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원가회수율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음
- 천연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사업에 따라 국내 생산 및 공급 설비투자가 증가하였으며(2008년 이후 약 5조 8천억원), 천연가스 공급이 확대되면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등의 운전자금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금융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침
-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는 2011년부터 급증하는 추세임(2012년 말 기준 약 6조 2천억원 투자)
 - 자원개발사업은 탐사 및 개발단계에서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며 생산단계 진입까지의 기간이 긴 관계로, 본격적 수익 창출 이전 초기 단계에서의 금융부채 증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남
- 금융부채 증가가 특히 두드러진 연도(2008년, 2011년 및 2012년)의 주요 금융부채 증가 사유는 아래와 같음

〈표 Ⅲ-2〉 한국가스공사의 주요 연도별 금융부채 증가 사유

구분	주요 금융부채 증가 사유
2008년	-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미수금 증가(사채 3조 6,347억원 및 장기차입금 1,393억원 증가) - 요금인상 지연에 따른 운영자금 등 단기차입금 2조 8,212억원 증가
2011년	- 해외자원개발 투자 증가(2조 2천억원) 및 국내 설비투자과 재고자산 등 운전자금 증가로 차입금 및 사채 4조 5천억원 증가 등
2012년	- 해외자원개발 투자 증가(2조 9천억원) 및 국내 공급시설 투자 증가 등

2) 사업별 금융부채¹²⁾ 증가액¹³⁾

〈표 III-3〉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단위: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년간 누계
천연가스 보급 - 국내가스 공급	67,851	4,083	5,000	23,379	12,333	112,646
천연가스 보급 - 국내도입용 해외가스전 지분투자	-1,280	-781	-673	13,228	19,568	30,062
요금비규제 - 해외자원 개발	989	1,629	6,068	7,863	10,685	27,234
기타 해외 사업	462	151	-3	-68	105	647
금융부채 순증가 합계	68,022	5,082	10,392	44,402	42,691	170,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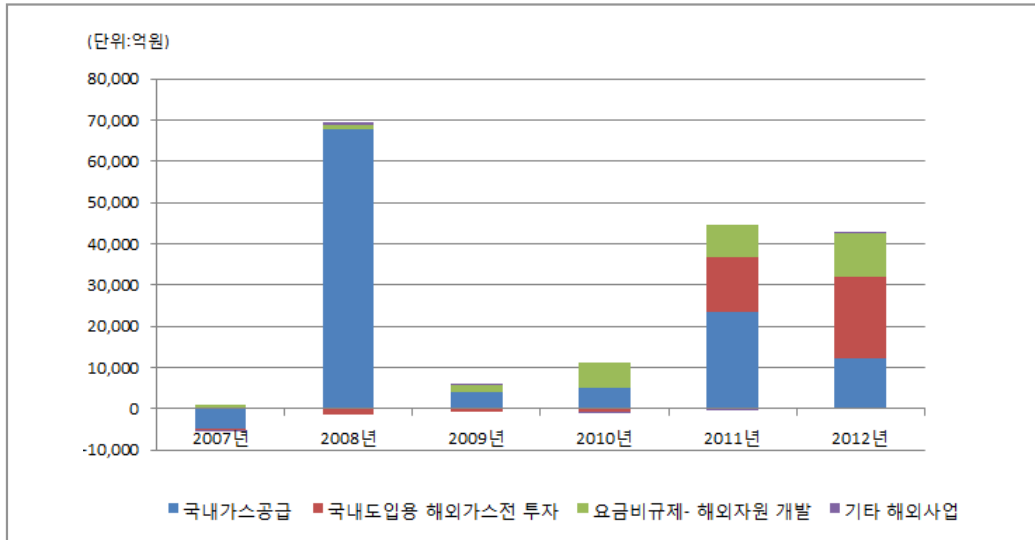
12)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은 기관이 각 사업별 자금유입 및 자금유출 규모를 기준으로 [부록 2]에서와 같은 일정한 가정하에 추정하였으므로 실제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산출되는 금융부채 증가액과 다를 수 있음

13)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은 추정 및 분석 편의상 최근 5개년 모두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반면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금액 검토 시 2011년 및 2012년의 경우 K-IFRS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였음(2010년의 경우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모두 표시). 이에 따라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 및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증감액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

(단위: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K+I)	2011년	2012년	누계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증감액(A)	68,022	5,082	10,733	44,420	42,682	170,939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 계(B)	68,022	5,082	10,392	44,402	42,691	170,589
차이(A-B)	0	0	341	18	-9	350

[그림 Ⅲ-10]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주요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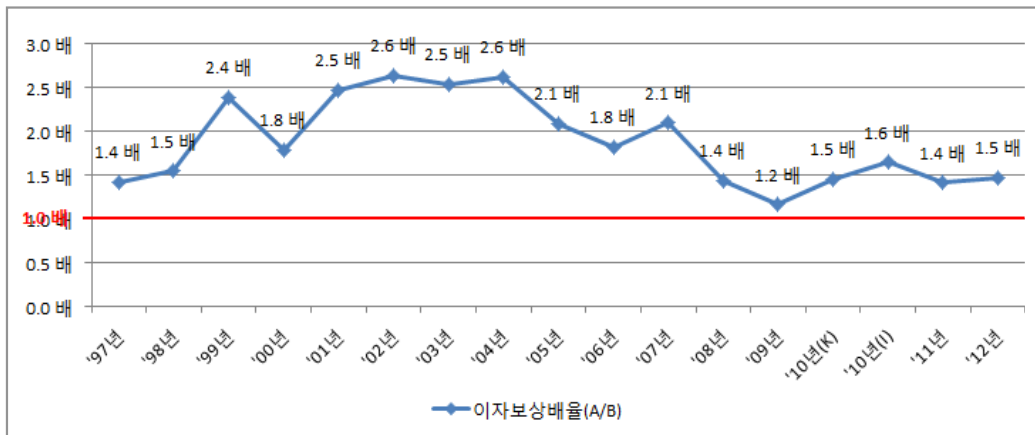
- 기관의 사업은 천연가스 보급 관련 국내 가스공급 및 국내 도입용 해외가스전 지분투자, 요금비규제-해외자원개발, 기타 해외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내 천연가스공급 사업에서의 재무성과는 해외 가스 원료 도입 가격 및 가스 공공요금 인상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됨. 동 사업 부문에서의 금융부채 증가는 상기 1)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8년도 환율 상승 및 연동제 유보 미수금 증가, 천연가스 보급확대 사업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및 운전자금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함
 - 국내 도입용 해외가스전 지분투자사업은 천연가스 장기 도입 계약과 연계하여 해외 프로젝트의 지분에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비용은 요금으로 보전받으며, 해외 광구 개발을 통해 획득한 천연가스를 직접 도입하여 원료 도입의 장기적인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임. 대부분 개발 단계에 있고 일부 생산 단계에 있는 광구도 포함되어 있음. 2011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및 장기 도입 계약이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금융부채 또한 증가함
 - 요금비규제-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가스 도입과 연계없이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단독·공동운영 및 지분투자를 통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판매수익을 획득하는 구조임. 동 사업 또한 2011년 이후 투자액이 급증하면서 관련 금융부채가 증가하게 됨
 - 기타 해외사업은 석유·가스의 생산 이후 후속단계(수송·정제, 판매)와 관련된 사

업으로서, 해외 중하류 사업의 지분 투자 및 기술자문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동 사업의 비중은 크지 아니하며 연도별 사업규모가 크게 변동되지 않은 관계로 관련 금융부채 증감 또한 크지 아니함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1) 이자 상환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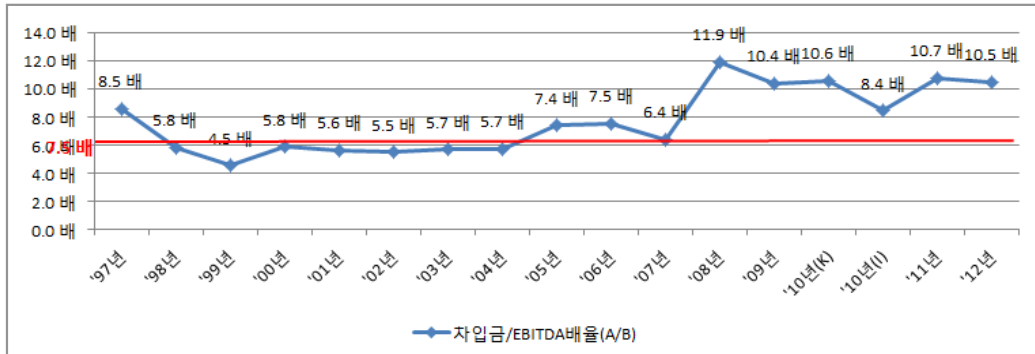
[그림 Ⅲ-11]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 기관의 이자보상배율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 1.4배에서 2.5배에 이르기까지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하락 기조로 돌아서 2012년 1.48배까지 하락함
- 2003~2012년 기간 동안 영업이익은 약 2배가량 증가하였으나, 2008년 이후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자 부담 정도가 커지면서 이자비용이 약 3.5배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이 악화됨
- 전반적으로 모든 연도별로 이자보상배율이 1을 상회하고 있어 이자부담 능력 면에서 부실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2) 원금 상환능력

[그림 Ⅲ-12]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차입금 대 EBITDA 배율



- 기관의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은 2008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2년 약 10.5배로 비교기준점 7.5배를 넘어서고 있음
- 기관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설비투자 증가로 감가상각비 또한 증가하므로 EBITDA 자체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08년 이후 해외투자 및 원료비 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해 부채 부담이 급증하면서 EBITDA 증가를 상회하면서 동 배율이 상승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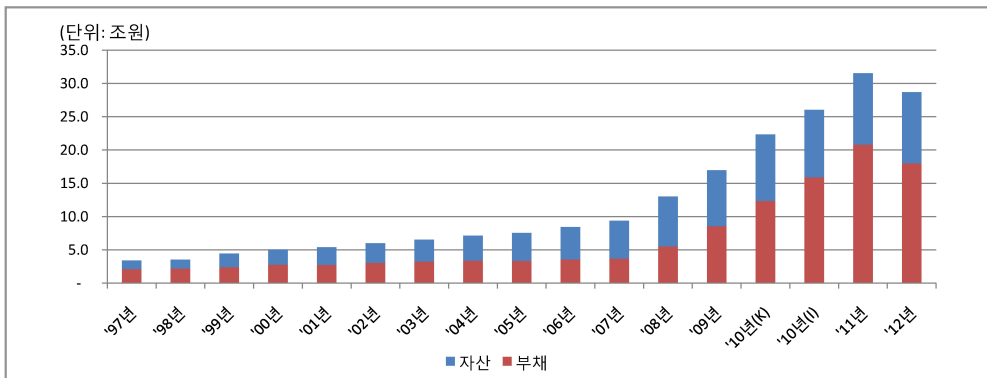
바. 총평

- 기관의 부채는 2007년도까지는 증가 규모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나, 2008년 들어 급증한 이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어, 부채비율도 2007년 227.9%에서 2012년 385.4%로 악화되었음
- 이러한 기관의 최근 부채규모 급증은 2008년도 이후 원료비 연동제 미수금 급증 및 국내 설비투자 증가, 2011년 및 2012년도에 해외자원개발 투자 증대에 따른 외부 차입 증가에 주로 기인함
- 최근의 부채규모 증가에 따라 각종 부채비중, 차입금의존도, 원금 및 이자 상환능력 지표 등의 재무비율 추세는 다소 악화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이자보상배율이나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은 비교기준점과 큰 차이를 보이는 상태는 아님
- 부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도입단가를 낮추기 위한 공사의 유인을 강화할 필요

2. 한국석유공사

* 아래 한국석유공사 재무자료는 기본적으로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른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기간에는 K-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단, 2010년도는 비교목적상 K-GAAP 및 K-IFRS에 의한 수치를 모두 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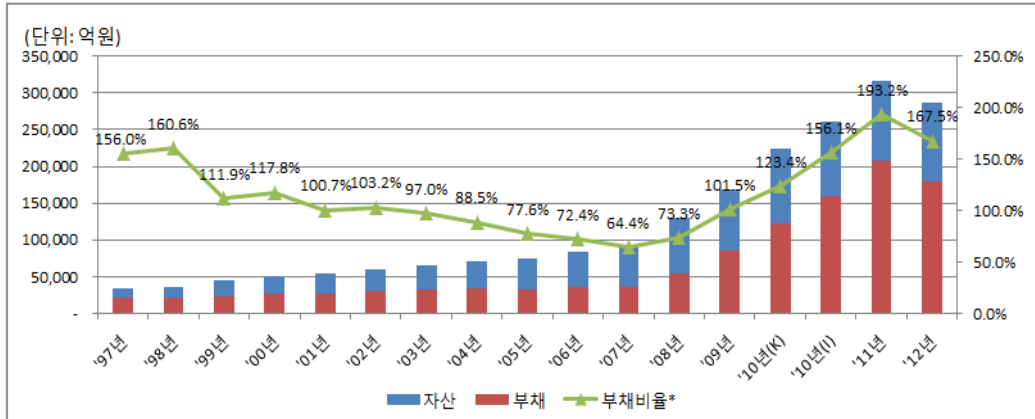
[그림 Ⅲ-13] 한국석유공사의 연도 말 자산 및 부채 잔액('97~'12)



- 한국석유공사 자산은 1997년 3.4조원에서 2012년 28.7조원으로 740%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부채는 2.1조원에서 18.0조원으로 763% 증가하였음
 - 부채규모는 과거 15년간 매년 평균 15.4%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8~2012년간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함
 - 부채비율은 최근 부채규모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167.5%를 나타냄
- 부채 증가 속도는 최근 5개년(2008~2012년) 동안 두드러지게 상승하였음
 - 2008~2012년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37.3%에 달할 정도로 부채 증가 속도가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그 결과 동 기간 동안 부채비율이 103%p가량 상승하였음
- 이는 주로 2008년도 이후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 추진에 따라 해외 석유개발사업 투자가 급증하여 이에 따른 자금 소요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가. 부채의 규모

[그림 Ⅲ-14]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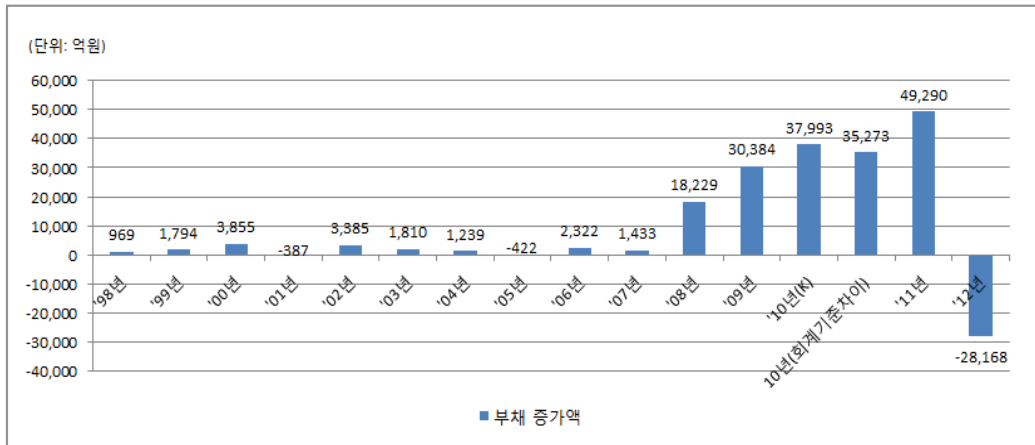


- 2012년도 말 부채규모는 18조원으로 1997년 2조 1천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8년 이후의 부채 증가가 두드러짐
 - 특히 2009~2011년 동안 부채 총액은 각각 3조원, 3조 8천억원(K-GAAP) 및 4조 9천억원씩 증가하여 전체 기간 부채 증가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함
 - 2012년도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 유동화 등의 노력 및 환율 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부채규모가 다소 감소하였음

- 부채비율은 1997년 156.0%에서 급감하여 2007년 64.4%에 이르렀으나 2008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임
 - 자산규모 또한 최근 5개년 동안의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1997년 3조 4천억원에서 2012년 28조 7천억원까지 크게 증가하였음
 - 동 기간 동안의 부채 증가율은 자산 증가율을 다소 상회하여 부채 비율이 2012년 167.5%로 상승함

나. 부채의 증가 속도

[그림 III-15]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 1998~2007년 동안에는 연도별 부채 증가 규모 및 속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며, 주로 용자사업 및 비축유 사업 등 기관의 석유개발사업 이외의 분야에서 부채가 일부 증가함
 - 용자사업을 위한 장기차입금, 비축유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금, 매출채권의 유동화에 따른 자산유동화채무, 석유생산광구 복구충당금 발생 등의 사유로 동 기간 중 부채는 1조 6천억원가량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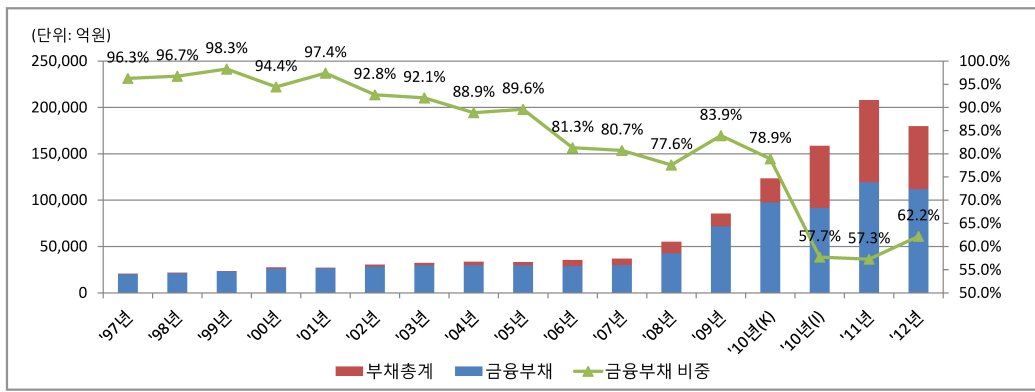
- 2008년도 이후 부채 증가 속도가 급속히 높아져 2008~2012년 동안 총 14조 3천억원에 달해 이전 10년간의 부채 증가액 1조 6천억원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2008년 이후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 추진에 따라 해외 석유개발기업 M&A 및 자산인수를 위한 외부 차입이 크게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함
 - 주요 M&A 실적
 - (2008년) Ankor 898백만달러, (2009년) Savia Peru 646백만달러, Harvest 2,716백만달러, (2010년) DANA 2,996백만달러, (2011년) Eagle Ford 1,550백만달러 등

다. 부채의 성격

1) 부채의 구성과 안전성

가)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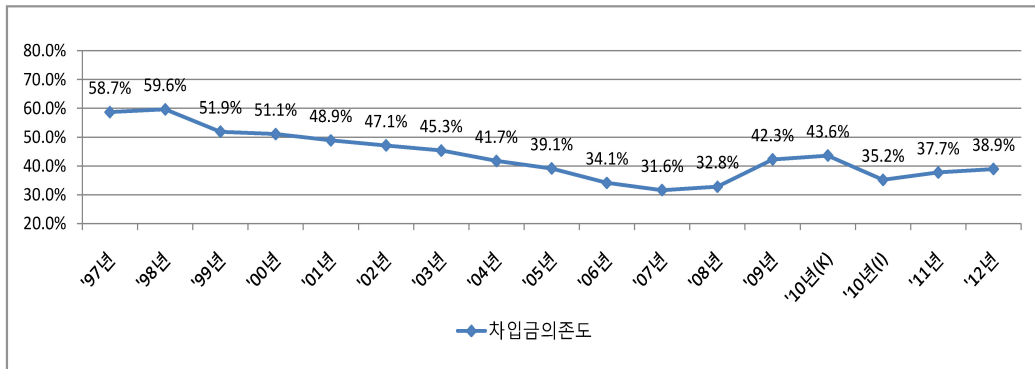
[그림 Ⅲ-16]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비중



- 기관의 금융부채 비중은 2010년 이전까지는 80~9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어 왔으나, 2010년 K-IFRS 도입 이후 크게 감소하였음
- 이는 주로 금융부채 이외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동 기타 부채는 2008년 이전까지는 1조원 미만이었으나, 이후 증가세가 빨라져 2012년 말 6조 8천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특히 2010년에는 K-IFRS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영국 현지법인(DANA)의 이연법인세부채 증가가 장부에 반영되면서 비금융부채 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금융부채 비중이 크게 감소함
- 매입채무 및 각종 충당부채(복구, 사후처리, 정화비용 등)와 같은 기타 비금융부채의 증가 또한 금융부채 비중 감소에 영향을 미침

나) 차입금의존도(금융부채/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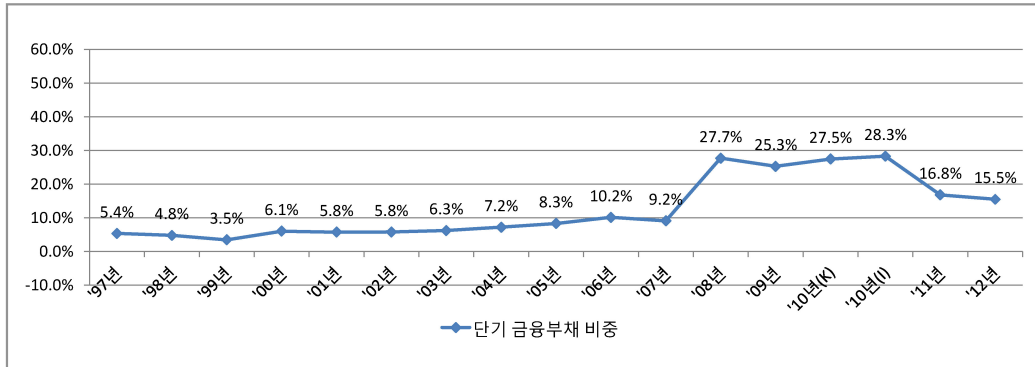
[그림 Ⅲ-17]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 기관의 차입금의존도는 1997년 약 60% 수준에서 꾸준히 하락하다가 2008~2010년 사이에 일부 증가하였으며, 2010년 K-IFRS 도입 이후 다시 하락한 뒤 2012년 38.9%로 소폭 상승하였음
 - 2008년도 이전에는 금융부채 증가율이 높지 않은 가운데 사업의 지속적 확대로 자산규모가 계속 증대되어 차입금의존도가 하락 추세를 보였음
 - 2008년 이후에는 해외투자에 따른 금융부채의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다만, 2010년 K-IFRS 도입의 효과로 금융부채 이외의 부채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산 대비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관계로 차입금의존도가 감소하게 됨

다) 단기 금융부채 비중

[그림 Ⅲ-18]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 기관의 단기 금융부채 비중은 1997년 5.4%에서 다소 증가하여 2012년 15.5%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단기 금융부채 비중은 16.6% 수준임
- 2008년 이후에는 신규 생산광구 매입 및 M&A 등 유전개발사업의 확대에 따라 전반적으로 신규차입 및 유동부채가 증가하여 단기 금융부채 비중이 상승하였으나, 최근에는 차입금 만기구조의 장기화에 따라 동 비중이 다소 하락하는 추세임
- 2012년 말 현재 기관의 금융부채의 상당수는 사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채 발행의 대부분은 만기가 평균 5년 수준인 중·장기성 사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기 금융부채의 대부분은 장기 채무의 만기 도래에 따라 유동성 대체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전반적인 유동부채 비중은 크게 높지 않은 선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유동성이 대체되는 금액 규모에 따라 유동부채 비율이 다소 증감하는 구조임

라)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기/장기 부채

〈표 Ⅲ-4〉 한국석유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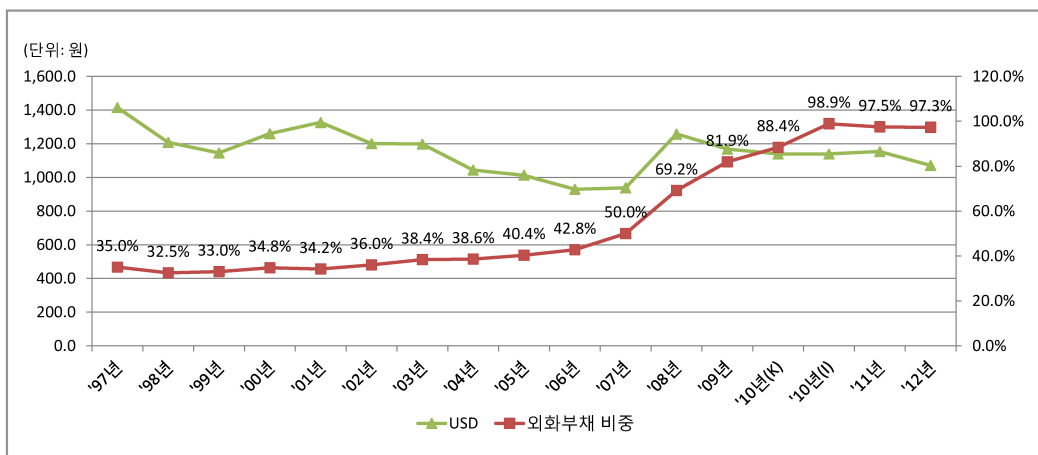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계
금융부채						
- 차입금	3,122	4,224	5,269	0	5,374	17,988
- 사 채	14,268	25,484	12,721	19,673	21,941	94,088
합계	17,389	29,708	17,990	19,673	27,315	112,075

주: 위의 연도별 차입금 및 사채 상환금액은 현재가치 할인차금 등이 고려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2012년 말 금융부채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2012년 말 금융부채 잔액 약 11조 2천억원 중 약 15.5%가 만기 도래에 따라 2013년도에 상환될 예정이며, 약 24.4%는 2017년 이후에 상환될 예정임
- 사채의 경우 만기 5년 이상의 채권이 상당수인 관계로 2017년 이후 상환될 사채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함
- 상기 부채 중 약 90%가량은 새로운 차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상환할 예정이며, 그 외는 자체수익 발생액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할 계획임

2) 외화부채 비율

[그림 Ⅲ-19]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외화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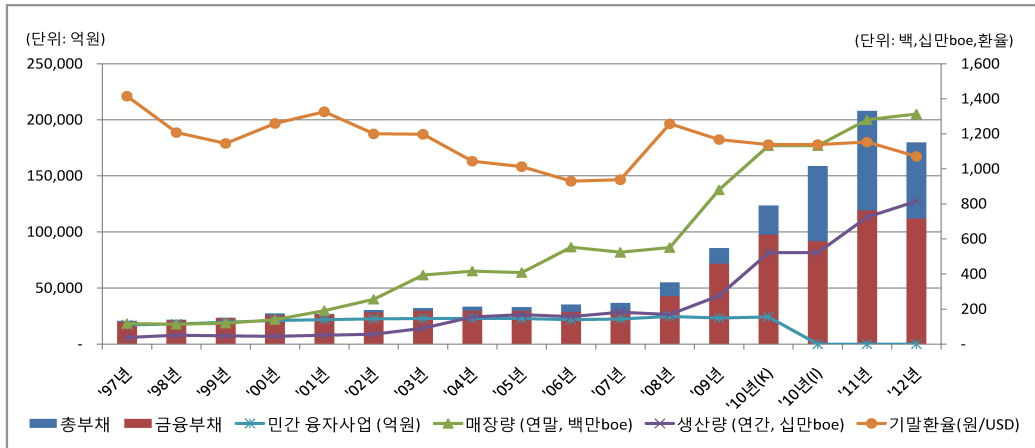


- 기관의 외화부채 비중은 2008년 이전에는 50% 미만을 유지했으나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2년 말 기준 97.3%로 해외 이자부담부채 비중보다 더 높은 수준임
- 2008년 이전의 경우 조달금리 절감 및 외환 리스크 관리 등의 목적상 국내에서 외화 채권을 발행하고 일정 수준의 외화부채를 유지해 왔음
- 2008년경부터 해외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현지 차입이 크게 증가하여 외화부채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
- 2012년의 경우 전년 대비 환율이 감소한 관계로 원화표시 외화부채의 장부가액이 낮아져 외화부채 비율이 정체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
- 외화부채의 대부분은 미국달러화로 구성되며 일부 캐나다달러화가 포함됨

라.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1) 부채 발생 주요 원인

[그림 Ⅲ-20]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금융부채 증감액과 관련 주요 지표



- 기관 부채 증가의 대부분은 2008년도 이후에 발생하였으며, 주로 해외 석유개발사업 확대에 의한 차입금 증가에 기인함
- 기관의 해외 투자회사들이 보유한 생산 광구의 자원 매장량 및 생산량 지표들은 2008년 이후 뚜렷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동 기간 동안 기관의 해외자원 개발 투자규모가 급증하였음을 나타냄

- 자원개발사업은 탐사 및 개발단계에서 자금이 많이 소요되며 생산단계로 진입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격적 수익 창출 이전 투자 초기 단계에서의 금융부채 증가가 상당히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그 외 민간 용자사업 관련 차입금 및 환율 효과 또한 금융부채 증감에 영향을 미침
 - 민간 용자사업은 민간의 석유개발사업 투자 장려를 위한 정부 용자사업 대행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기관 자체의 부채와 구별되어 2010년 K-IFRS 적용 이후에는 장부에서 제외됨으로써 2010년 이후 부채규모 감소효과를 가져옴
 - 기관은 2010년 K-IFRS 적용 이후 미국달러를 기능통화로 사용하고 있어 기말 환율에 따른 부채 원화환산금액 변동 가능성이 커짐. 2012년 말 원화 부채금액 감소는 전년 대비 환율 하락으로 인한 영향이 상당함
- 금융부채 증가가 두드러진 최근 연도별 주요 금융부채 증가 사유는 아래와 같음

〈표 Ⅲ-5〉 한국석유공사의 주요 연도별 금융부채 증가 사유

구분	주요 금융부채 증가 사유
2008년	- 미국 Ankor사 자산 인수 등 외부차입 1조 694억원, 용자사업용 차입 증가 등 7,535억원 등
2009년	- 캐나다 HOC사 및 카작 Sumbe사 M&A를 위한 외부차입 증가 등 3조 384억원
2010년	- 영국 DANA사 M&A 등을 위한 외부차입 증가 4조 3,206억원, 용자사업용 차입금 감소 2조 4,287억원
2011년	- 카작 Altius사 M&A 및 미국 Eagle Ford 자산인수 등 신규자산의 매입 재원 조달을 위한 외부차입 증가 2조 7,559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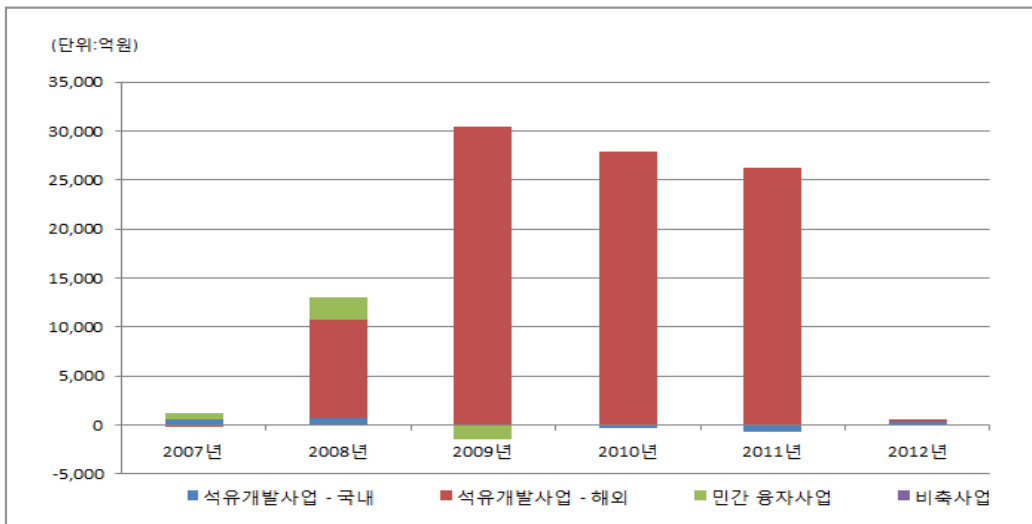
2) 사업별 금융부채¹⁴⁾ 증가액¹⁵⁾

〈표 Ⅲ-6〉 한국석유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단위: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년간 누계
석유개발사업 - 국내	640	-29	-396	-763	262	-286
석유개발사업 - 해외	10,054	30,438	27,881	26,262	329	94,964
민간 용자사업	2,293	-1,424	0	0	0	869
비축사업	0	0	0	0	0	0
기타 - 환율효과	0	0	-1,763	902	-6,968	-7,829
금융부채 순증가 합계	12,987	28,985	25,723	26,401	-6,377	87,719

〔그림 Ⅲ-21〕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주요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



14)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은 기관이 각 사업별 자금유입 및 자금유출 규모를 기준으로 [부록 2]에서와 같은 일정한 가정하에 추정하였으므로 실제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산출되는 금융부채 증가액과 다를 수 있음

15)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은 추정 및 분석 편의상 최근 5개년 모두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반면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금액 검토 시 2011년 및 2012년의 경우 K-IFRS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였음(2010년의 경우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모두 표시). 이에 따라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 및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증감액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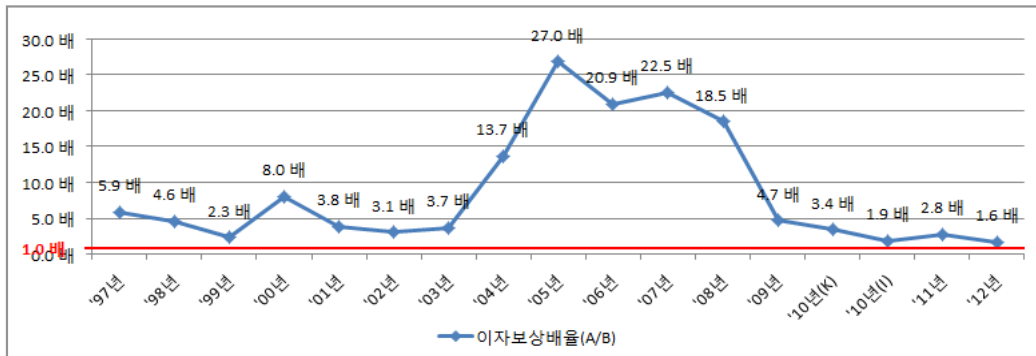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K+I)	2011년	2012년	누계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증감액(A)	12,987	28,985	19,850	27,559	-7,277	82,104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 계(B)	12,987	28,985	25,723	26,401	-6,377	87,719
차이(A-B)	0	0	-5,873	1,158	-900	-5,615

- 기관의 사업은 주로 국내 및 해외 석유개발사업, 민간 용자사업, 비축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내 석유개발사업은 석유자원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대륙붕 광구에서 석유탐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동해-1가스전에서 가스 및 원유 일부를 생산하고 있음. 다만 부존자원량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이에 따라 동 사업으로 인한 부채 증감규모는 미미한 편임
 - 해외 석유개발사업은 석유의 안정적인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 유전개발에 투자하여 석유 및 가스 자원의 탐사, 개발, 생산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2008년 이후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 시행에 따라 급속도로 사업규모가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상기 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해외 M&A 투자 등이 진행되면서 그 자금 소요로 인해 외부 차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됨
 - 민간 용자사업은 일종의 정부 용자사업 대행으로서 실질적인 기관의 현금흐름과는 무관하며 2010년 K-IFRS 적용 이후 장부에서 제외된 관계로 기관의 금융부채 증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 비축사업은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저장시설 확충 및 상시 석유비축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이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보전 받으므로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융부채가 발생하지 아니함
 - 기타 환율효과는 2010년 K-IFRS 적용 이후 사용중인 기능통화(USD)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원화 표시 부채 금액이 증감하는 효과를 의미함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1) 이자 상환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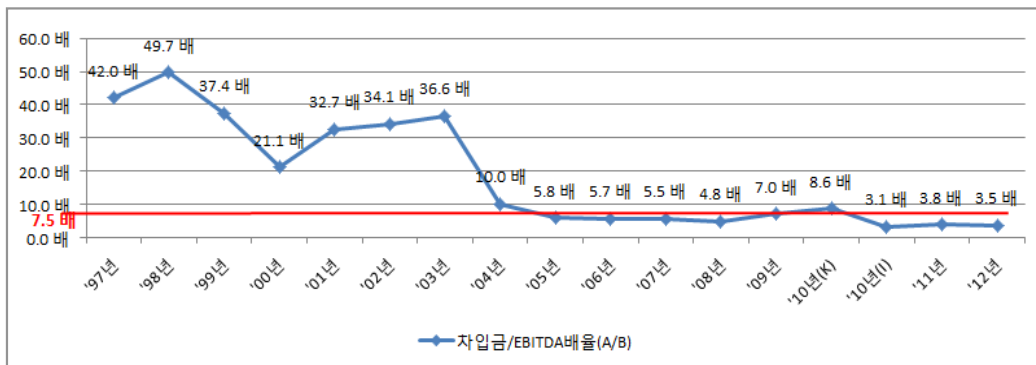
[그림 Ⅲ-22]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 기관의 이자보상배율은 1997~2002년까지는 약 3~8배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3~2005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뒤 2012년 1.64배까지 하락함
- 최근 들어 기관의 영업이익 성장은 정체되는 반면 차입금 등의 증가로 인해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2008~2012년 동안 이자보상배율이 급격히 하락하게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연도별로 이자보상배율이 1을 상회하고 있어 이자 상환능력 면에서 부실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2) 원금 상환능력

[그림 Ⅲ-23]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차입금 대 EBITDA 배율



- 기관의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은 2004년 이전까지는 20배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 약 3.5배로서 비교기준점 7.5배를 하회하고 있음
 - 기관의 사업 확장에 따라 영업이익 규모가 증가하고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감가상각비 또한 크게 증가하면서 EBITDA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반면, 이자부담부채 증가 속도는 EBITDA 증가 추이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관계로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은 하락해 왔음
 - 다만, 2008년 이후 해외투자로 인한 부채 증가가 본격화되면서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이 다소 상승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K-IFRS 적용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상 해외자회사들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되면서 EBITDA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이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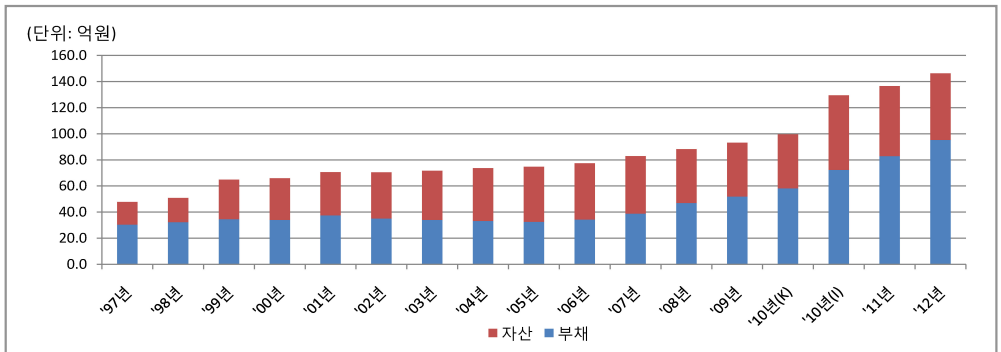
바. 총평

- 기관의 부채규모는 2007년도까지는 증가 정도가 낮은 수준이고 부채비율도 64.4%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2008년 이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 부채비율이 167.5%에 달할 정도로 이르렀음
- 이러한 최근 5개년간의 부채규모 급증은 대부분 해외 석유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투자 자금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외부 차입 증가에 기인함. 해외 투자사업은 초기에 자금 소요가 큰 반면 그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투자 프로젝트의 성패에 따라 기관의 재무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변동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 최근의 부채규모 증가에 따라 각종 부채 비중, 차입금의존도 등의 재무구조 비율이 다소 악화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원금 및 이자 상환능력 지표 등 전반적인 재무상태는 크게 위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해외 개발사업의 추진속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3. 한국전력공사(발전자회사 포함)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전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왔기 때문에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1997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발전사업부문이 6개의 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로 분할된 2001년부터 발전 6개사가 연결대상종속회사로 편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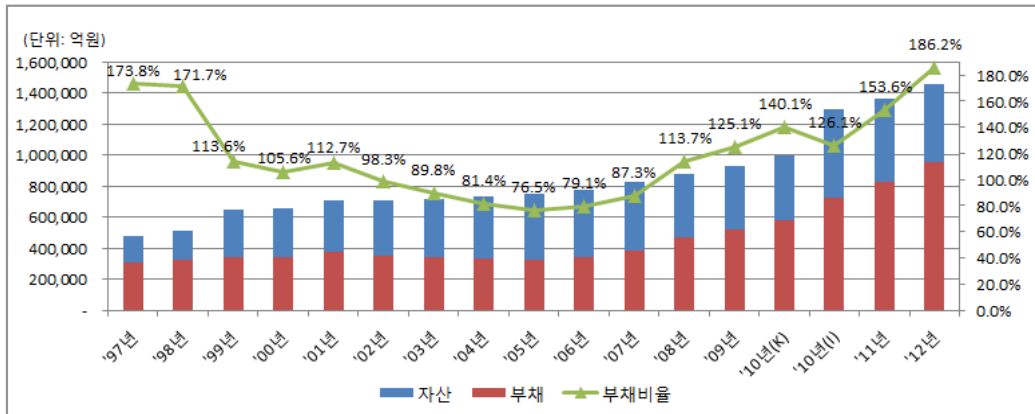
[그림 Ⅲ-24]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7~'12)



- 연결재무제표상 한국전력공사의 자산은 최근 15년 동안 98.4조원(47.8조원→146.2조원) 증가하여 205.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동 기간 동안 부채는 64.8조원(30.3조원→95.1조원)증가하여 213.9%의 증가율을 보임
 - 부채규모는 2007년까지 대체적으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5년(2008~2012년)간 56.4조원 증가하여 15년간 부채 증가액의 87%를 차지함
 - 부채비율은 1997년 173.8%에서 2007년 87.3%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2년 186.2%로 급증함
- 최근 5년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자산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짐
 - 2008~2012년 자산은 총 76.2% 증가한 반면, 부채는 총 146.0% 증가하여 부채 증가 속도가 두드러지게 높았음
- 최근 5년간 부채의 급증은 국제 유가 인상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과 전기요금 규제, 발전 자회사의 신규 발전소 건설 소요자금으로 설명할 수 있음

가. 부채의 규모

[그림 Ⅲ-25]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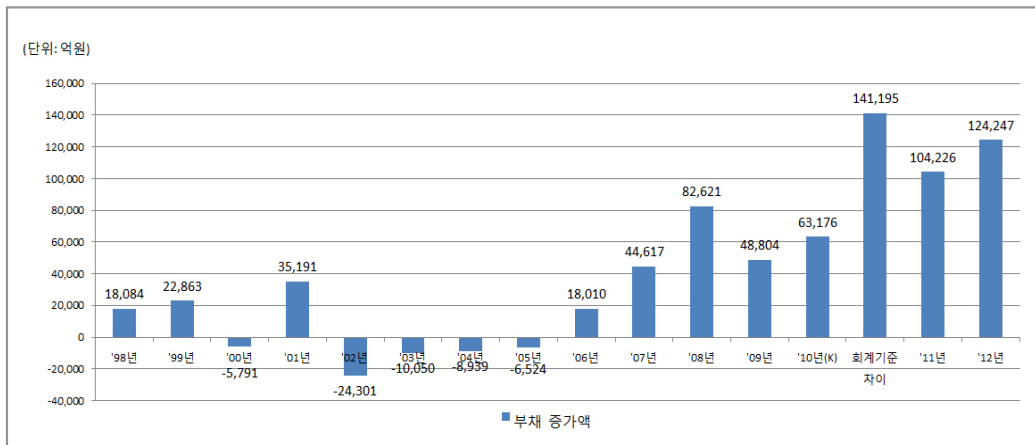


- 2012년 부채규모는 95조 1천억원으로 1997년 30조 3천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1999년 급격히 감소한 이후, 큰 변동이 없다가 2008년 113.7%로 급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1999년은 자산 재평가 영향으로 자본이 9조원 증가하였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급감함
- 1999년 발표된 산업자원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발전사업부문을 6개의 자회사로 분할하였으나, 분할된 발전자회사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분할에 따른 영향은 없음
 - 2001년 4월 2일(분할등기일)자로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사업부문을 6개의 자회사로 물적분할하고 전력판매 및 송·배전사업만 담당하게 됨
- 2008년 부채비율이 급증한 후 2010년 140.1%까지 증가하였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으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2년 186.2%를 기록함
 - 2008년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는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대부분의 회사가 매출총손실 계상)되었고, 이로 인해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과 운영자금 부족분을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하면서 부채비율 및 규모가 38조 7천억원(2007)에서 46조 9천억원(2008)으로 급증함

- 2010년의 경우 K-IFRS 도입으로 인해 부채가 14조 1천억원 증가한 반면,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재평가 등으로 인해 자산이 30조원 증가하였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K-IFRS 도입 전 대비 14%p 감소함
- 2012년의 경우 부채비율이 186.2%로 2011년 대비 32.6%p(12조 4천억원) 상승하였으며,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낮은 전기요금 원가회수율(88.4%)과 더불어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채 증가에 기인함
 -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 원전 사후처리비용 단가 인상에 따른 원전사후처리 복구충당부채 증가(4조 5천억원)와 신규 원전건설(신고리 3,4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따른 금융부채 증가로 2011년 대비 5조 4천억원(19조 2천억원('11)→24조 6천억원('12)) 부채가 증가함

나. 부채의 증가 속도

[그림 Ⅲ-26]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 1998~2007년까지는 대체적으로 부채에 큰 변동이 없었음
 - 국제 연료가격도 안정적이었고, 연도별 투자규모에도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부채는 1997년 말 30조 3천억원에서 2007년 말 38조 7천억원으로 8조 4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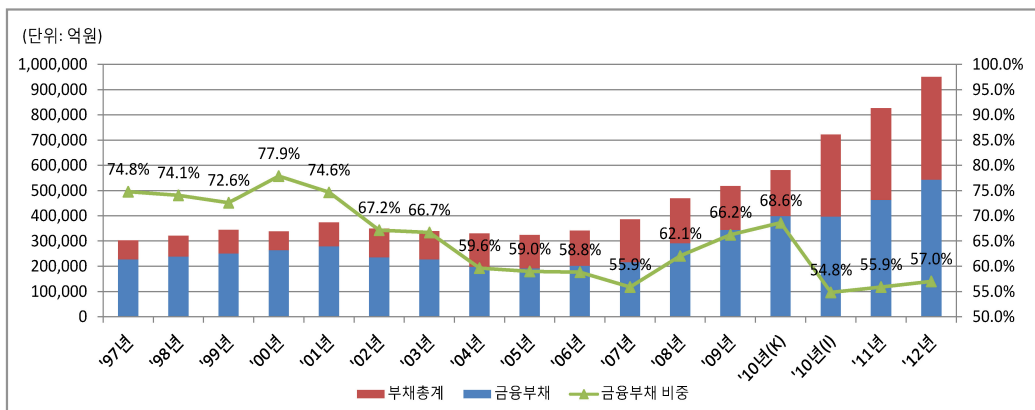
- 2008~2012년 사이 부채 증가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2008년 이후 국제 연료가격의 급등과 발전연료가격의 상승이 주요 원인이며, 이외에 2010년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 변경의 영향으로 부채가 증가하였음
- 2008~2012년 사이 부채 증가액은 56.4조원으로, 15년간 부채 증가액의 87%를 차지함
- 2008~2012년 사이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평균 87%였으며, 따라서 동 기간 동안 지출된 투자비 62조 8천억원의 상당 부분을 외부 조달함으로써 차입금이 급증함
- K-IFRS 도입으로 인해 공사부담금 6조 4천억원, PPA(전력수급계약) 1조 4천억원, 재평가 이연법인세 등 14조 1천억원을 추가로 부채로 계상함

다. 부채의 성격

1) 부채의 구성과 안전성

가) 금융부채 비중

[그림 Ⅲ-27]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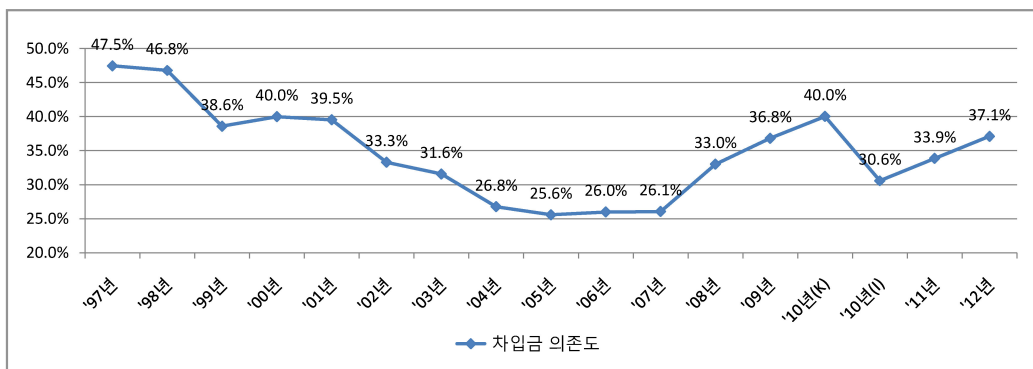


- 금융부채 비중은 2007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68.6%였으며, 2010년 K-IFRS 도입에 따른 비금융부채 증가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함

- K-IFRS 도입 이전의 부채 증가는 2007년 말 38조 7천억원에서 2010년 말 58조 1천억원으로 19조 4천억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금융부채가 18조 3천억원으로 94.3%를 차지함
 - 즉, 2008년 이후의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외부차입이 급증하였고, 발전자회사 또한 시설투자 부족분을 외부에서 조달함에 따라 부채 증가의 대부분을 금융부채 증가가 차지함
- 2010년에는 K-IFRS 도입으로 자산에서 차감하던 공사부담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자산재평가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가 증가하면서 비금융부채 부분이 증가하여 금융부채 비중이 낮아짐

나) 차입금의존도(금융부채/자산)

[그림 Ⅲ-28]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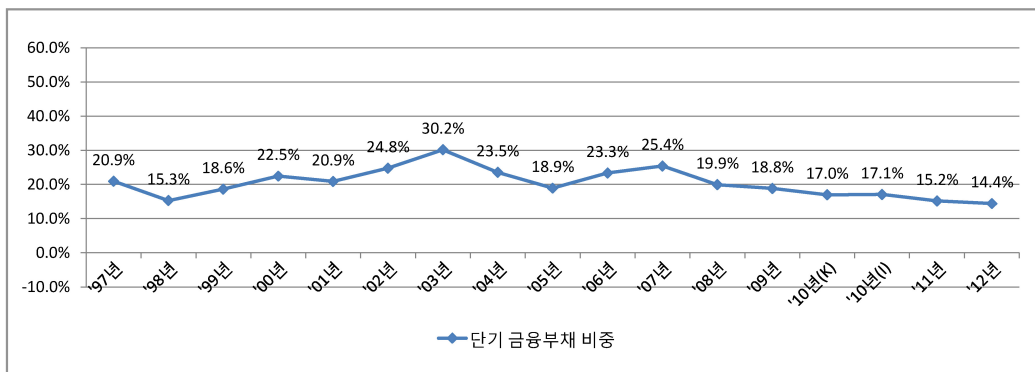


- 차입금의존도는 2007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함
 - 2008년도의 경우 유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 한국전력공사 및 대부분의 발전자회사가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을 외부차입으로 조달함에 따라 2007년 대비 자산은 5조 3천억원 증가한 반면, 금융부채는 7조 5천억원 증가하여 차입금의존도가 상승함
 - 한국전력공사는 수익성 악화로 인해 2008년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운영자금 및 이자비용까지 외부에서 조달하면서 차입금의존도가 점점 커졌음

- K-IFRS 도입 영향으로 2010년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자산재평가 등으로 자산 장부가액이 증가하면서 차입금의존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짐
 - 한국전력공사의 외부차입 증가와 더불어 신규 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으로 충당하지 못함에 따라 대부분의 발전자회사에서 2011년과 2012년에 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함

다) 단기 금융부채 비중

[그림 Ⅲ-29]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 단기 금융부채 비중은 200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지만, 2007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는 차입금보다는 회사채(보통 만기 3년 이상) 발행을 위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기 금융부채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

라)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기/장기 부채

〈표 Ⅲ-7〉 한국전력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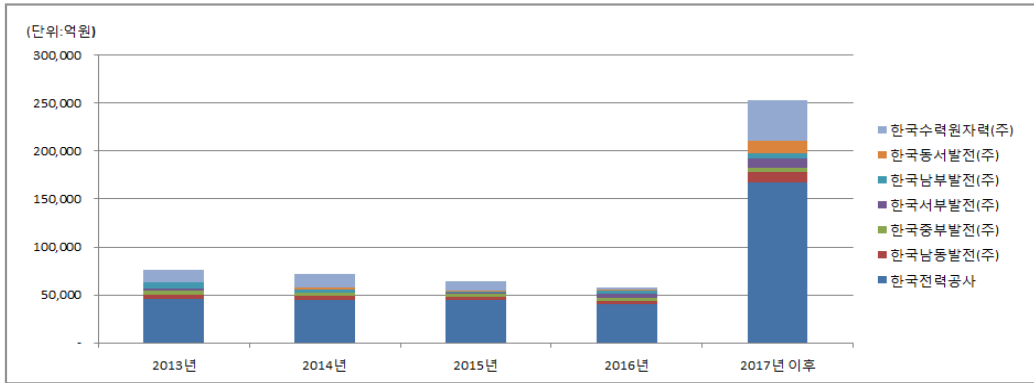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소계	기타	합계
금융부채								
- 차입금	21,657	8,634	4,235	3,560	20,756	58,842	10,287	69,129
- 사 채	54,804	63,393	59,535	53,763	232,760	464,255	△2	464,253
합계	76,461	72,027	63,770	57,323	253,516	523,097	10,285	533,382

- 주: 1. 위의 연도별 차입금 및 사채 상환금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고려되지 않은 금액이며, 또한 금융리스 부채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2012년 말 금융부채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 6개사의 2012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금융부채의 상환계획상 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소계를 구하고 연결재무제표 기준상 상환금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기타'에서 조정함

- 상환될 금융부채 중 87%가 사채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상환계획에 따르면 25조 4천억원(약 47.5%)은 2017년 이후에, 7조 6천억원은 2013년에 상환될 예정임
 - 사채 만기가 보통 3년 또는 5년 이상이기 때문에 2017년 이후 상환될 금액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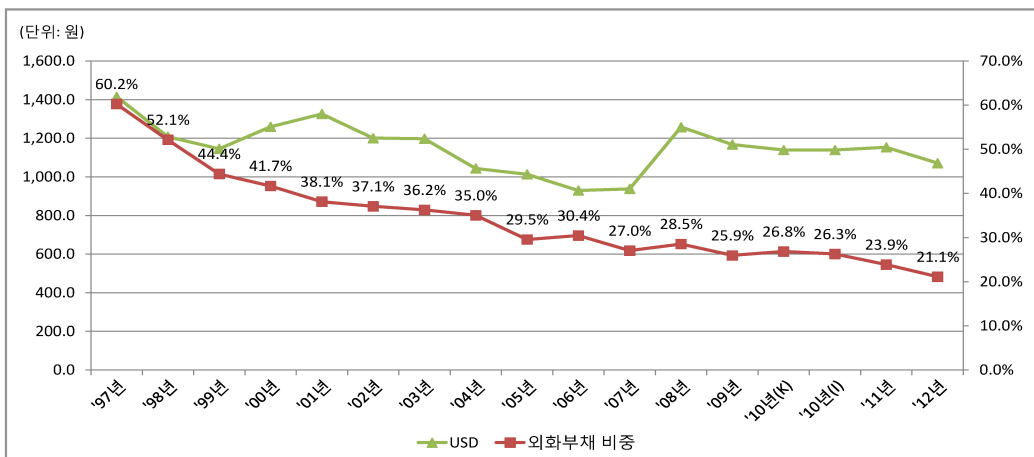
-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상환예정금액을 단순합산한 52조 3천억원 중 한국전력공사의 상환 예정 금액은 34조 3천억원으로 약 65.6%를 차지하며, 그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 차입금은 전액 장기차입금으로 대부분 한국정책금융공사 시설자금 차입 또는 외환은행 중장기 기업어음(CP)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채 중 원화사채는 전력채로서 전체 사채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외화사채의 경우 대부분 달러로 구성되어 있음(만기는 3년 이상)

[그림 Ⅲ-30]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2) 외화부채 비중

[그림 Ⅲ-31]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외화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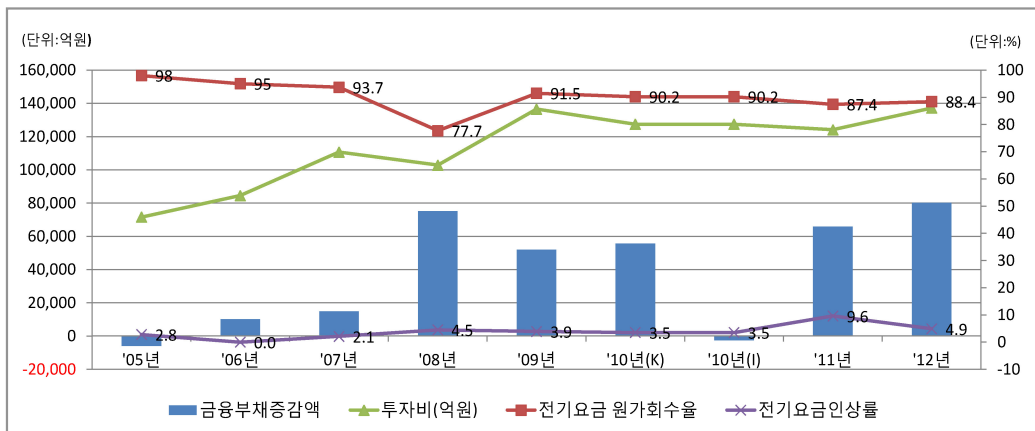
- 금융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외화부채 감소가 외화부채 비중 감소의 주원인으로 파악됨
- 해외와 국내 조달금리 차이 축소 및 국내 자금시장 조달여건 개선으로 환리스크 노출위험이 없는 국내 원화사채(전력채) 발행이 증가함
 - 한국전력공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금융부채는 1997년 22조 3천억원에서 2012년 34조 2천억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화 금융부채는 13조 3천억원에서 3조 4천억원으로 감소함

라.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1) 부채 발생 주요 원인

- 금융부채는 최근 5년간 특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가,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및 인상을 그리고 투자비로 설명할 수 있음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발전연료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규제로 연료가 인상분이 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5년 연속 적자가 발생됨에 따라 송변전 설비투자 및 이자 상환을 위해 외부차입을 하면서 금융부채가 증가함
 -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2011년 도입되었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적용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경우 사업 특성상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투자 및 보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투자비(발전, 송변전, 배전, 통신, 업무설비 투자비를 포함)도 부채 증가 원인의 주요 지표 중 하나가 됨
 - 특히 발전자회사의 경우 도입연료비 단가보다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판매단가가 높기 때문에(2008년 제외) 재료비는 매출로 대부분 충당이 가능하지만, 신규 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은 자체수입으로 충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차입이 증가함

[그림 Ⅲ-32] 한국전력공사의 주요 지표와 금융부채 증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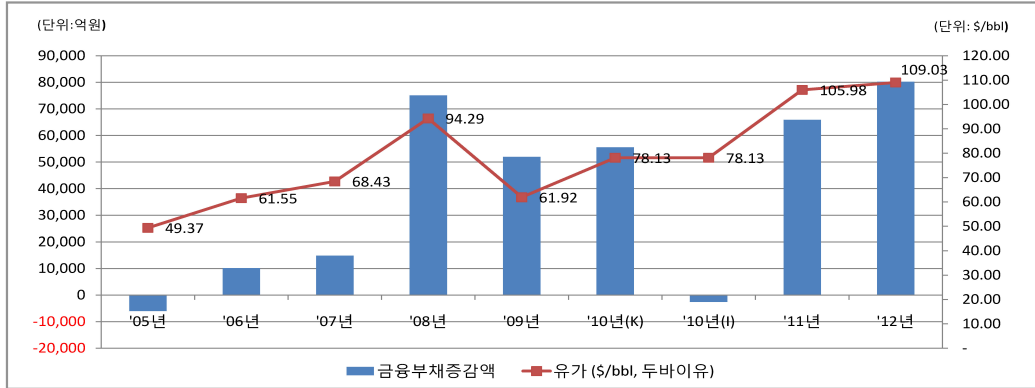


- 2006년 이후 금융부채 증가액의 약 60%는 한국전력공사의 금융부채 증가에 기인하며, 한국전력공사의 금융부채는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에 크게 의존함
 - 2008년의 경우 국제 유가(두바이 유가: 2007년 대비 38% 상승) 및 환율(2007년 대비 19% 상승) 상승으로 발전사의 LNG, BC유 등 연료 도입가격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4.5%밖에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회수율이 77.7%로 크게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들의 외부자금 조달이 크게 증가함
 - 2011년 또한 두바이 유가가 2010년 대비 35.6% 상승하였으나, 전기요금 인상이 9.6%로 2008년보다 높았기 때문에 금융부채의 증가 폭은 200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음
 - 두바이유 평균 유가(USD,배럴): ('10) 78.13→('11) 105.98

- 2005년 이후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사가 투자비로 지출한 총금액은 약 89조 5천억원이며, 이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2%, 32.8%로 대부분을 차지함

- 2009년 투자비 증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 건설투자로 인한 것이며, 2010년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투자는 감소했지만, 발전자회사들의 신규 발전소 건설이 증가했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최근 5년간 발전자회사들의 주요 발전소 건설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1,2,3,4호기, 신월성 1,2호기, 신울진 1,2호기 등 건설
 -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 3,4,5,6호기, 여수 1호기 화력발전소 등 건설
 - 한국중부발전: 인천복합 2,3호기, 신보령 1,2호기, 세종시열병합발전소 등 건설
 - 한국서부발전: 태안 9,10호기, 평택 2단계 건설, 군산복합발전소 등 건설
 - 한국남부발전: 하동7,8호기 및 영월 복합 화력발전소 등 건설
 - 한국동서발전: 당진 9,10호기 건설 및 울산4 복합 화력발전소 등 건설

[그림 Ⅲ-33] 한국전력공사의 국제 유가와 금융부채 증감(참고)



2) 사업별 금융부채¹⁶⁾ 증가액¹⁷⁾

〈표 Ⅲ-8〉 한국전력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단위: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년간 누계	
한국전력 공사	전력사업	43,258	23,894	33,653	39,457	53,899	194,161
	해외사업	644	6,064	10,049	△3,112	△1,376	12,269
소계(a)		43,902	29,958	43,702	36,345	52,523	206,430
발전 사회사	발전사업	28,155	20,860	4,347	30,667	27,728	111,757
	해외사업	995	1,072	319	3,095	1,391	6,872
소계(b)		29,150	21,932	4,666	33,762	29,119	118,629
기타 ¹⁾ (c)		2,050	89	7,208	△4,232	△1,421	3,694
금융부채 순증가 합계 (a)+(b)+(c)		75,102	51,979	55,576	65,875	80,221	328,753

주: 1) 사업별 부채증감액은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사회사들의 별도(개별)재무제표 기준 금융부채 증감액을 단순합산하였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융부채 순증가 합계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기타'에서 조정함

16)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은 기관이 각 사업별 자금유입 및 자금유출 규모를 기준으로 [부록 2]에서와 같은 일정한 가정하에 추정하였으므로 실제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산출되는 금융부채 증가액과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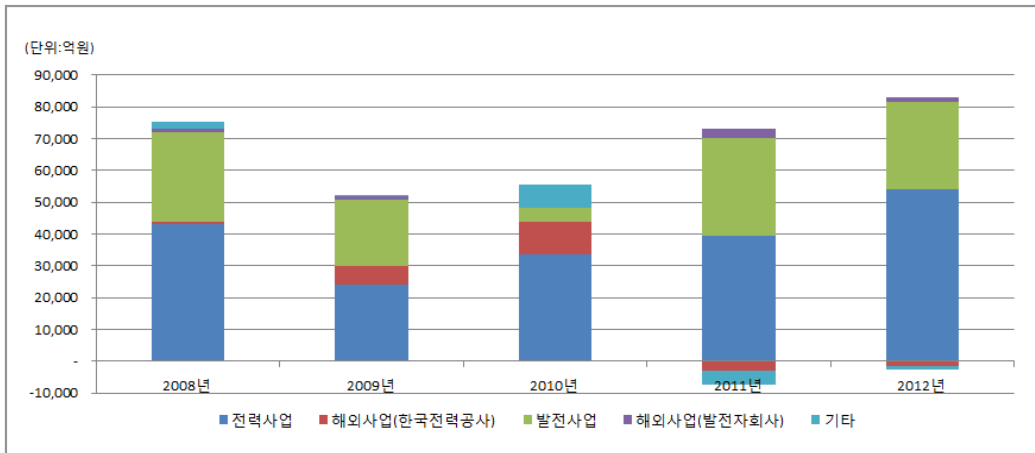
17) 연도별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은 연결재무제표상 금융부채 순증가액과 일치하며, 다만 2010년은 K-IFRS 적용으로 인한 금융부채 감소액 2,598억원 만큼 차이가 발생함

(단위: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재무제표상 금융부채증감액 (A)	75,102	51,979	52,978	65,875	80,221	326,155
사업별 금융부채증감액 (B)	75,102	51,979	55,576	65,875	80,221	328,753
차이 (A-B)	-	-	(2,598)	-	-	(2,598)

-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의 사업은 크게 전력사업, 발전사업, 해외사업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은 요금규제를 받는 전력사업과 해외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력사업에는 요금규제로 인한 부채 증가와 국내 전력설비 투자로 인한 부채 증가가 포함되어 있음
 - 발전자회사의 경우 발전사업(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등)과 해외사업으로 사업을 분류할 수 있음

[그림 Ⅲ-34] 한국전력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 최근 5년 동안 한국전력공사의 금융부채 증가액은 총 20조 6천억원이며, 이 중 전력사업에서 발생한 부채가 19조 4천억원으로 총금융부채 증가액의 대부분을(94.2%)을 차지함
 - 구분회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요금규제에 의한 부채 증가액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낮았던 2008년, 2011년, 2012년에 전력사업으로 인한 금융부채 금액이 큰 것을 토대로 정부의 요금규제에 따라 전력사업으로 인한 부채금액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해 해외사업(화력·신재생 발전사업과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사업에 따른 부채 증가는 1조 2천억원으로 전체 부채 증가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임

- 2010년의 경우 호주 바이롱 광산 출자(약 2,700억원), 인도네시아 바얀리소스사 지분 인수(약 6,100억원) 등으로 인해 해외사업 관련 부채가 다른 해에 비해 크게 나타남

□ 발전자회사들의 금융 부채는 최근 5년 동안 11조 9천억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94.1%인 11조 2천억원은 발전사업에서 발생함

○ 보통 발전자회사들의 부채는 발전소 건설 전에 증가했다가 준공 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8년, 2011년, 2012년에 부채 증가가 두드러짐

- 2008년엔 대부분의 발전자회사가 수익성 악화로 매출총손실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시설투자 자금을 차입에 의존하면서 발전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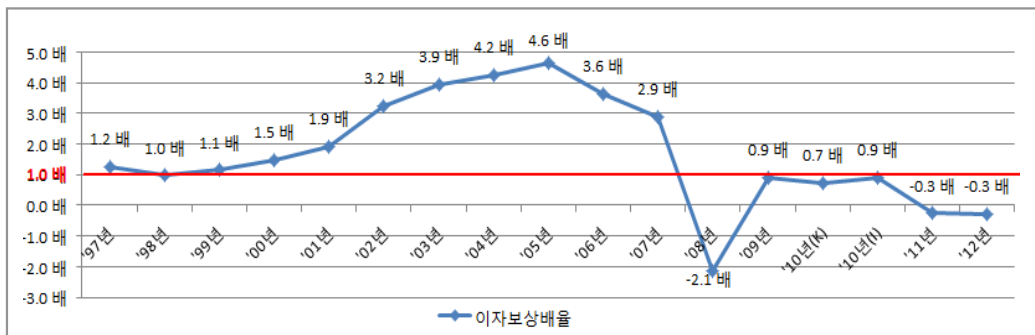
- 신규 발전소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에는 모든 발전자회사들의 발전사업 관련 금융부채가 증가함

○ 2011년 발전자회사가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된 후 해외투자가 증가하였고 투자에 비해 회수는 미미한 편이지만 아직까지 전체 금융부채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크지 않음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1) 이자 상환능력

[그림 Ⅲ-35]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주: 이자비용(자본화된 금액포함)에는 금융부채 이외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포함됨

□ 이자보상배율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영업손실을 기록한 2008년, 2011년, 2012년은 이자보상배율이 음(-)의 값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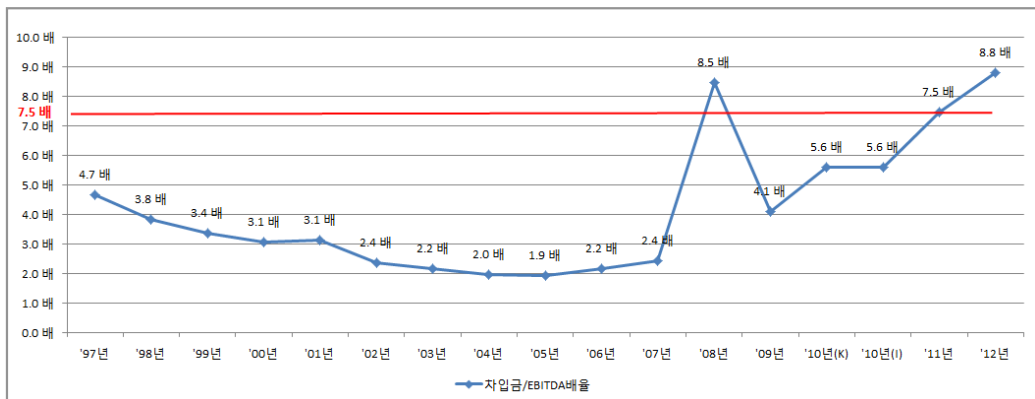
○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자회사로부터 대부분의 전력을 구입하고 있으며, 따라서 발전자회사의 매출 증가는 한국전력공사의 매출원가 증가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 이후 한국전력공사가 5년 연속 영업손실(별도 재무제표)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2010년은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을 기록함

- 2008년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발전자회사에서 영업손실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을 계상함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08년부터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하락으로 매년 영업손실(별도재무제표)을 계상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차입 증가로 인해 이자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비용 충당을 위한 추가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임

2) 원금 상환능력

[그림 Ⅲ-36]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차입금 대 EBITDA 배율



□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은 점차 감소하다가 2008년 8.5배로 크게 증가한 후 2009년에 4.1배로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에는 비교기준점인 7.5배를 초과한 8.8배를 기록함

○ 2008년에는 2007년과 감가상각비는 거의 비슷하게 계상되었지만, 영업손실이 2조

8천억원 발생하고, 금융부채가 7조 5천억원 감소하면서 차입금 상환능력이 크게 감소함

- 2011년과 2012년에는 영업손실이 각각 6,850억원, 8,179억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차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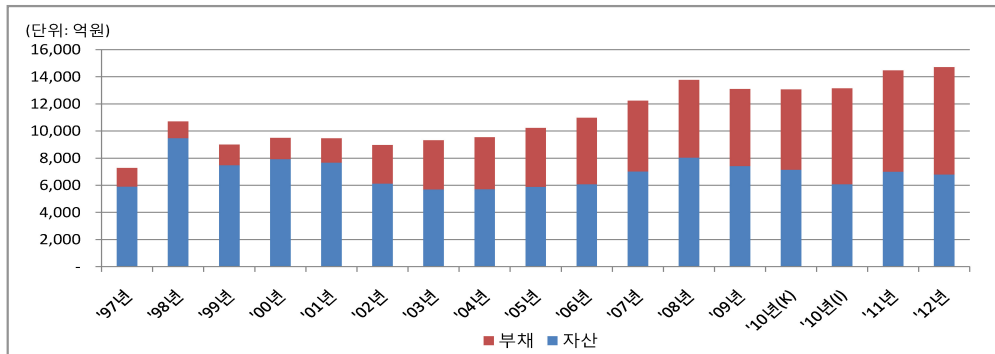
바. 총평

-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과거 15년간 64조 8천억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증가액이 56조 4천억원으로 총부채 증가액의 87%를 차지함
- 최근 5년간의 부채 증가액 중 금융부채 증가액이 32조 6천억원(약 57.8%)으로, 부채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하고 이자상환능력 및 원금상환능력이 크게 감소함
 - 2012년 이자보상배율이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차입금 대 EBITDA 배율 또한 8.8배를 기록함
- 금융부채가 증가한 주원인은 낮은 전기요금 원가회수율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손실 증가 및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이 발전소 건설로 인한 부족자금을 외 부차입으로 조달했기 때문으로 파악됨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철저한 원가검증과 함께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현실화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또한 국내외 투자사업 관리강화, 원가절감, 경영 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 증가 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대한석탄공사

* 아래 대한석탄공사 재무자료는 기본적으로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른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기간에는 K-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단, 2010년도는 비교목적상 K-GAAP 및 K-IFRS에 의한 수치를 모두 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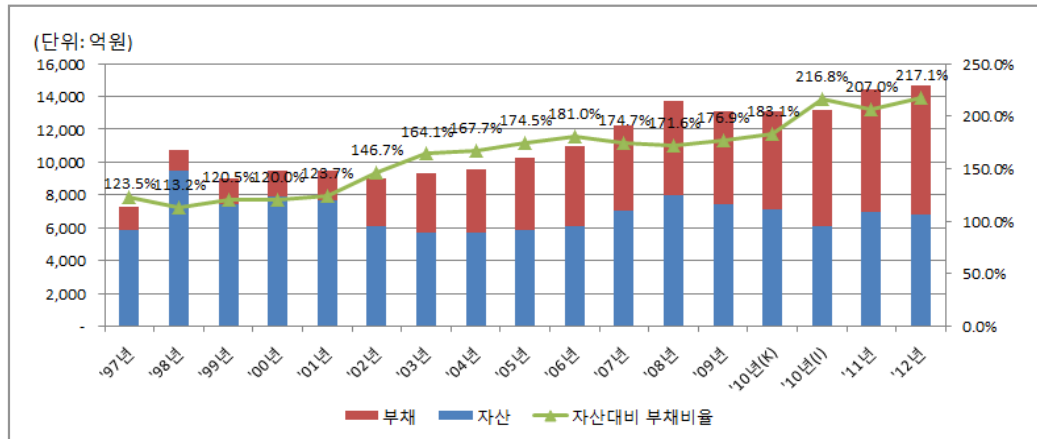
[그림 Ⅲ-37]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7~'12)



- 대한석탄공사는 자본이 음(-)의 값을 가지는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부채비율은 자산 대비 부채로 분석함
- 대한석탄공사 부채는 최근 15년간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1997년 7,277억원에서 2012년 1조 4,702억원으로 102% 증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997년 123%에서 2012년 217%로 94p% 증가
 - 대한석탄공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으로, 1997년부터 자산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으나 부채규모는 1997년에 비해 2012년 두 배 가량 증가
 - 2012년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부채가 자산의 2배를 초과
- 민간 대비 높은 인건비, 탄광 심부화로 인한 원가 상승, 생산량 감축 및 정부지원금 축소로 인한 영업손실의 부족분을 외부에서 조달함에 따라 금융부채 증가
 - 2008~2012년 생산량 감축으로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함

가. 부채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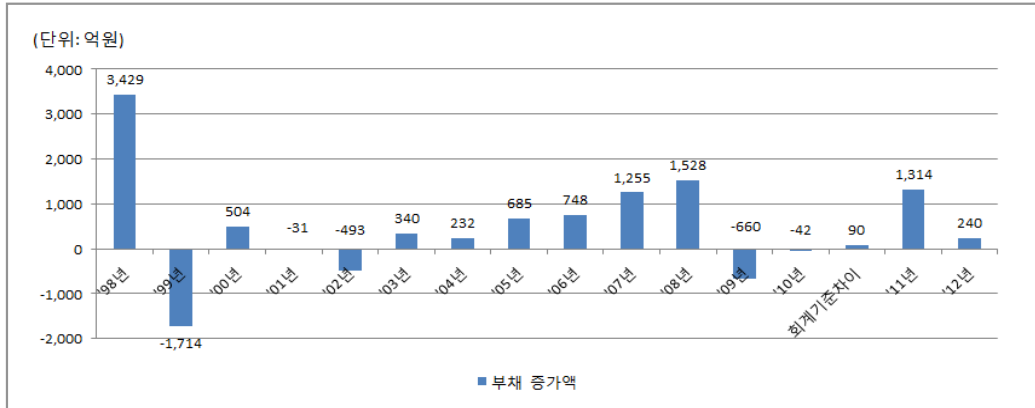
[그림 III-38]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 2012년 부채규모는 1조 4,702억 원으로 200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 잠시 감소하다 다시 증가 추세임
 -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리 상승으로 금융비용이 급증하였고, 유동자금의 확보를 위해 외부차입 및 영업 손실 등이 부채규모 증가 요인임
 - 2010년 생산량 축소로 무연탄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가격안정지원금 폐지 등으로 부채규모 증가
- 최근 15년 동안 자산은 크게 변동이 없는 데 비해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자산에 비해 부채의 증가가 커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상승 추세임
- 1997년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23%로 최근 15년 동안 꾸준히 상승함
 - K-IFRS 도입 이후에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00%가 넘었고, 이는 자산의 2배가 넘는 부채가 있음을 의미함

나. 부채의 증가 속도

[그림 Ⅲ-39]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부채 증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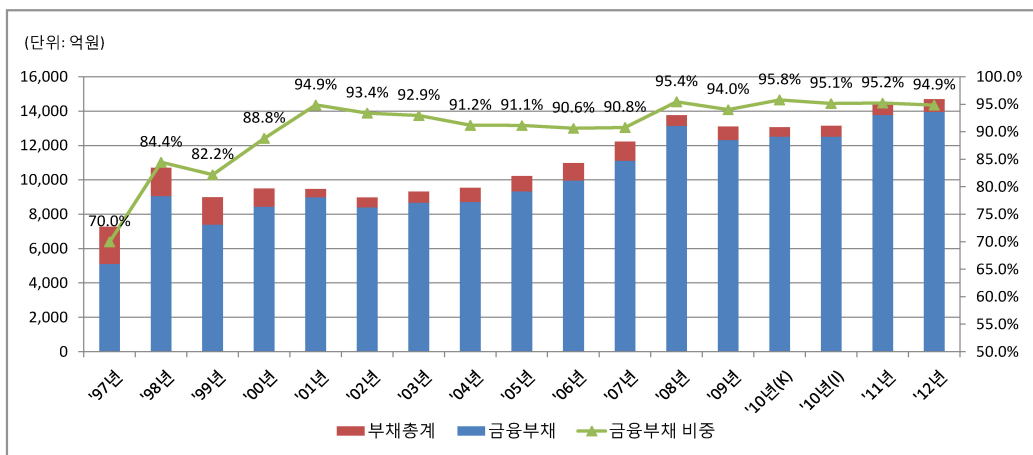
- 1997~2002년 정부지원금이 축소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부채가 증가
 - 1998년 IMF 사태로 인하여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함
 - 1999년 IMF 사태 진정에 따른 금리 정상화로 유동성 금융자산을 축소하여 부채 감소
- 2002~2008년 석탄판매가 인상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이루어졌고, 당기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채규모 역시 증가 추세임
- 2008~2009년 인력 조정 영향으로 원가가 하락하여 당기손실이 감소하였고, 전년 대비 부채가 잠시 감소함
 - 2009년 서브프라임 사태 진정에 따른 금리 정상화로 유동금융자산을 축소하여 부채 감소
- 2009~2012년 생산량 감축 및 지원금 폐지, 전력수도로 인상 등으로 매출액 감소와 영업손실이 발생함으로써 부채가 증가함

다. 부채의 성격

1) 부채의 구성과 안전성

가)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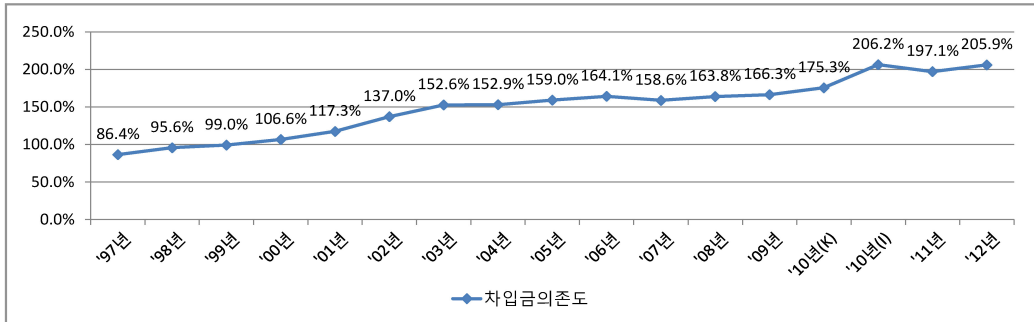
[그림 Ⅲ-40]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 대한석탄공사의 금융부채 비중은 2001년 이전은 70~80%였으나, 2001년 이후는 90%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 2012년 금융부채 비중은 94.9%로 최근 5년 동안 약 9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 생산량이 감축되고, 정부지원금 축소 및 전력수도로 인상 등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의 부족분을 외부에서 조달함에 따라 금융부채 증가

나) 차입금의존도(금융부채/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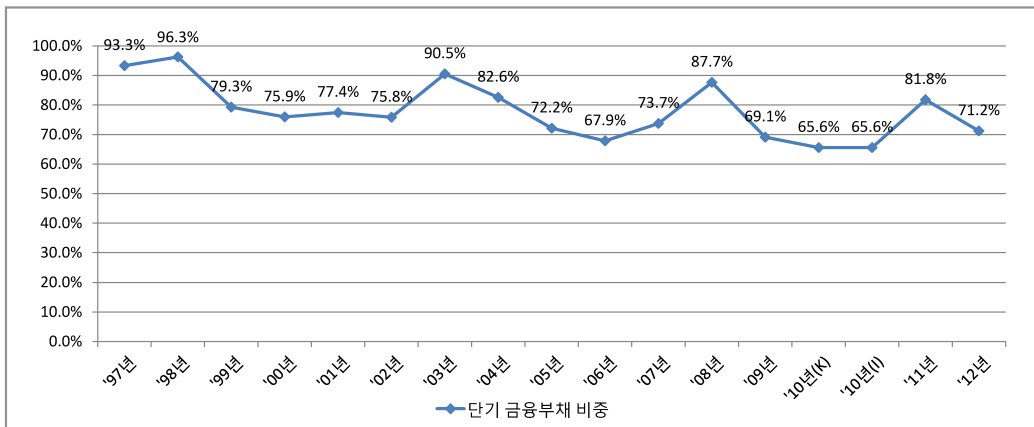
[그림 Ⅲ-41]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 대한석탄공사의 차입금의존도는 최근 15년 동안 꾸준히 상승함
 - 2000년부터 100%를 넘었고, 2012년 205.9%로 차입금의존도가 매우 높음
- 계속되는 영업손실로 인하여 차입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로 차입금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다) 단기 금융부채 비중

[그림 Ⅲ-42]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 기관의 단기 금융부채 비중은 1997년 93.3%이고, 2012년은 71.2%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2008년과 2011년은 장기부채가 유동성부채로 전환됨에 따라 비율이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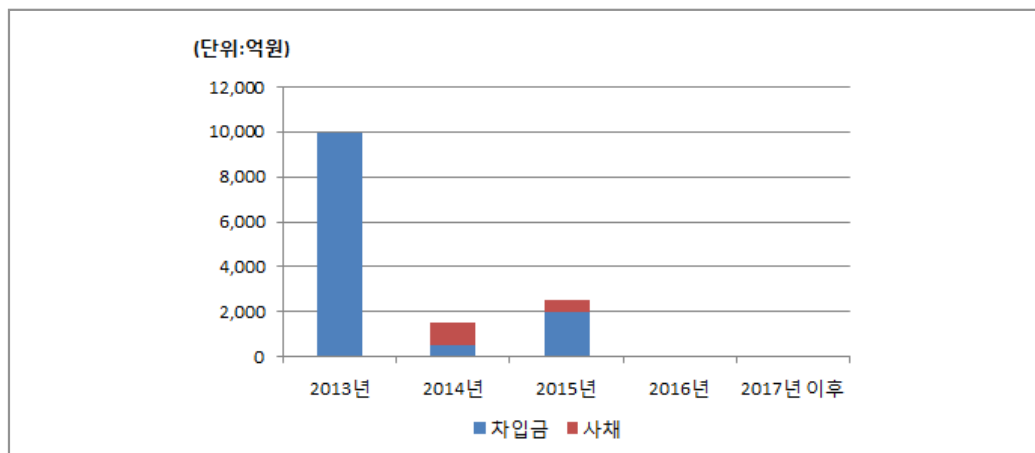
라)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기/장기부채

〈표 Ⅲ-9〉 대한석탄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계
금융부채						
- 차입금	9,935	501	2,001	1	9	12,447
- 사 채	0	1,000	500	0	0	1,500
합계	9,935	1,501	2,501	1	9	13,947

[그림 Ⅲ-43] 대한석탄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 대한석탄공사의 총금융부채 상환 예정금액이 1조 3,947억 원으로 89%가 차입금이며, 11%는 사채로 구성되어 있음

□ 금융부채 만기 도래에 따라 금융부채의 약 71.2%가 2013년에 상환될 예정이며, 금융부채의 대부분이 2015년까지 상환될 예정임

○ 상기 부채의 100%를 차입을 통해 상환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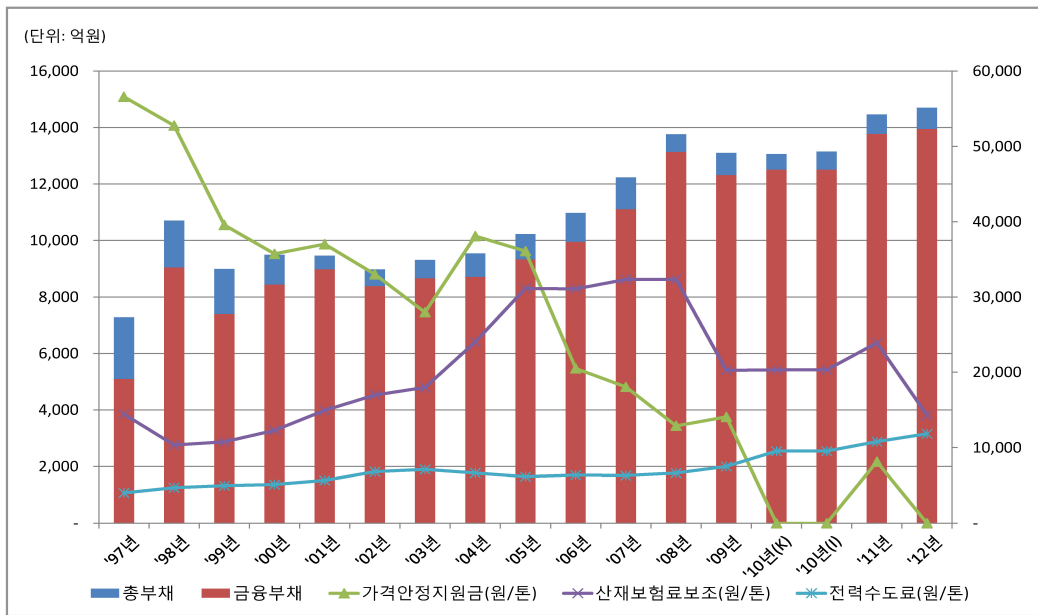
2) 외화부채 비중

- 대한석탄공사는 최근 15년 동안 외화부채가 존재하지 않아 분석을 생략함
 - 부채의 100%가 원화부채로 구성되어 있음

라.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1) 부채 발생 주요 원인

[그림 Ⅲ-44]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금융부채 증감액과 주요 지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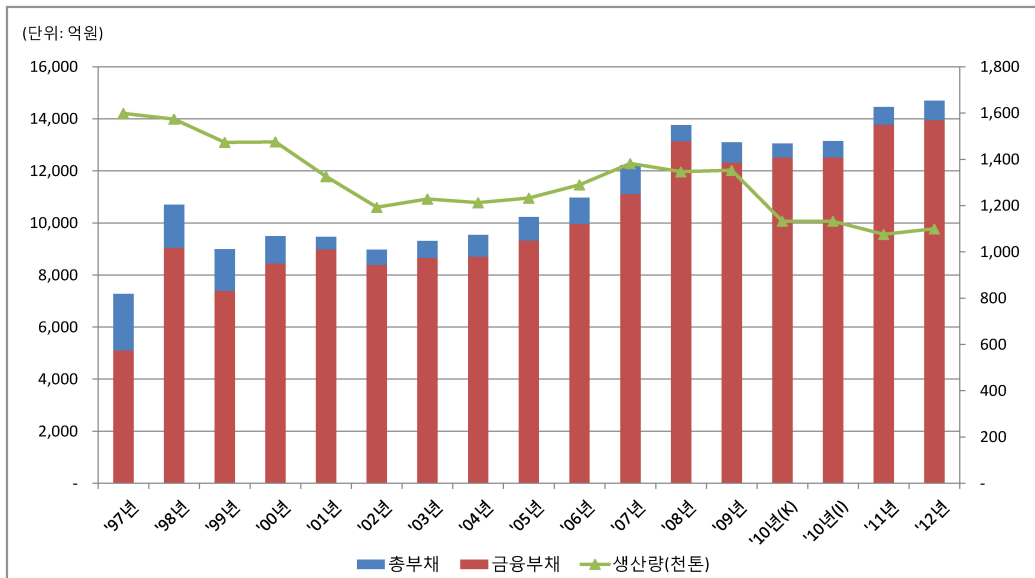


- 대한석탄공사는 크게 석탄 생산량과 정부지원금, 전력수도료가 부채증가 주요 지표임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정부가 석탄 판매가격을 고시하여 통제함으로써 원가 부족분을 보전하였으나 석탄 가격 현실화를 통한 시장기능 회복과 G20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계획에 따라 지원금 축소로 부채가 증가함
 - 생산 가능한 탄광에 대한 가격안정 지원금¹⁸⁾이 점점 줄어들면서 부채는 증가함

1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정부가 가격고시하고, 판매가격과 원가의 차이를 지원금으로 보전

- 석탄의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지원금이 1997년부터 꾸준히 축소되다 2009년 사실상 폐지
 - 원가 상승의 부담을 완화해 주던 석탄산업의 산재보험료 보조가 2008년부터 감소하면서 부채가 증가
 - 산재보험료 보조율이 2010년 80%에서 2012년 50%로 감소했으며 2020년 석탄 및 연탄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철폐할 계획임
- 전력·수도료 등의 상승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증가하였고, 그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외부차입이 증가
- 석탄생산 작업장이 깊어짐에 따라 갱도 유지, 지하수 배수, 운반 등의 장비 이용이 증가하면서 고정비 비중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영업손실이 증가함

[그림 Ⅲ-45]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금융부채 증감액과 주요 지표2



-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1989년)의 석탄생산량 감축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부채 역시 증가함
- 전국 석탄 소비량이 1997년 3,769천톤에서 2012년 2,424천톤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공사의 생산량 역시 97년 1,599천톤에서 2012년 1,100천톤으로 감소함

2) 사업별 금융부채¹⁹⁾ 증가액²⁰⁾

〈표 Ⅲ-10〉 대한석탄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단위: 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년간 누계
무연탄생산 판매사업	2,028	-817	192	1,103	101	2,607
금융부채 순증가 합계	2,028	-817	192	1,103	101	2,607

- 대한석탄공사는 무연탄생산 판매 단일사업으로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원인은 위 부채 증가원인과 동일하여 생략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1) 이자 상환능력

- 대한석탄공사는 최근 15년 동안 2000년을 제외하고 모두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이자 보상배율이 모두 음(-)의 값을 나타냄
 - 앞서서도 설명하였듯이, 점차 생산량이 감축되고 지원금이 폐지되면서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매년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외부 차입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자비용 역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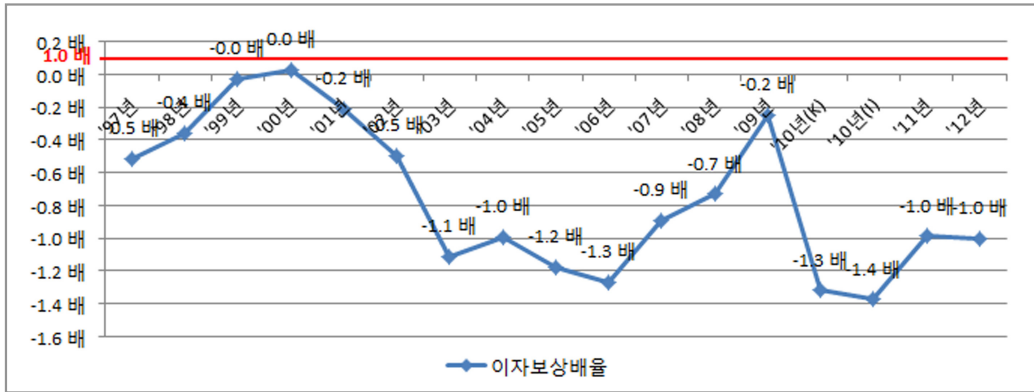
19)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은 기관이 각 사업별 자금유입 및 자금유출 규모를 기준으로 [부록 2]에서와 같은 일정한 가정하에 추정하였으므로 실제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산출되는 금융부채 증가액과 다를 수 있음

20)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은 추정 및 분석 편의상 최근 5개년 모두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반면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금액 검토 시 2011년 및 2012년의 경우 K-IFRS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였음(2010년의 경우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모두 표시). 이에 따라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 및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증감액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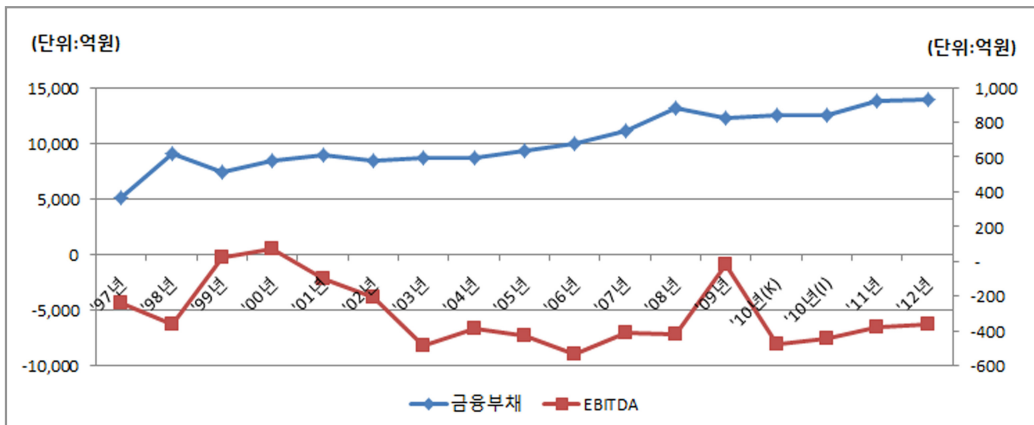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K+I)	2011년	2012년	누계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증감액 (A)	2,028	-817	192	1,263	175	2,841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 (B)	2,028	-817	192	1,103	101	2,607
차이 (A-B)	-	-	-	160	74	234

[그림 Ⅲ-46]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2) 원금 상환능력

[그림 Ⅲ-47]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금융부채 및 EBITDA



- 대한석탄공사는 영업손실 발생으로 인하여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의 분모인 EBITDA가 음(-)의 값으로 분석이 불가능함
- 금융부채와 EBITDA 값을 보여주는 그래프로 대신함
- 금융부채는 최근 1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EBITDA는 1999년과 2000년을 제외하고 모두 음(-)의 값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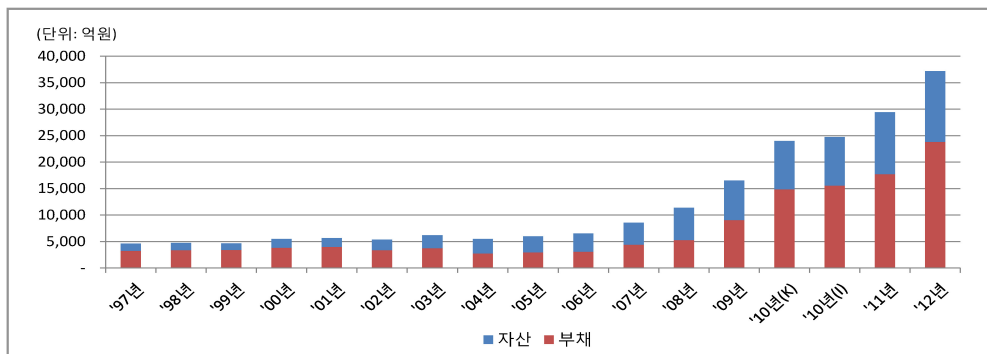
바. 총평

- 대한석탄공사는 자본이 음(-)의 값을 가지는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부채비율은 자산 대비 부채로 분석함
- 2012년 부채가 1조 4,702억원,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17%로 최근 15년 동안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산 대비 부채비율 역시 꾸준히 상승함
 - 2012년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부채가 자산의 2배를 초과
- 민간 대비 높은 인건비, 탄광 심부화로 인한 원가 상승, 생산량 감축 및 정부지원금 축소로 인한 영업손실의 부족분을 외부에서 조달함에 따라 금융부채 증가
 - 2008~2012년 생산량 감축으로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함
 - 현 수익구조상으로는 자체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능력 부족
- 현행 구조로는 부채 발생을 중단시킬 수 없으므로 향후 사업조정이 필요

5. 한국광물자원공사

* 아래 한국광물자원공사 재무자료는 기본적으로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른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기간에는 K-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단, 2010년 도는 비교목적상 K-GAAP 및 K-IFRS에 의한 수치를 모두 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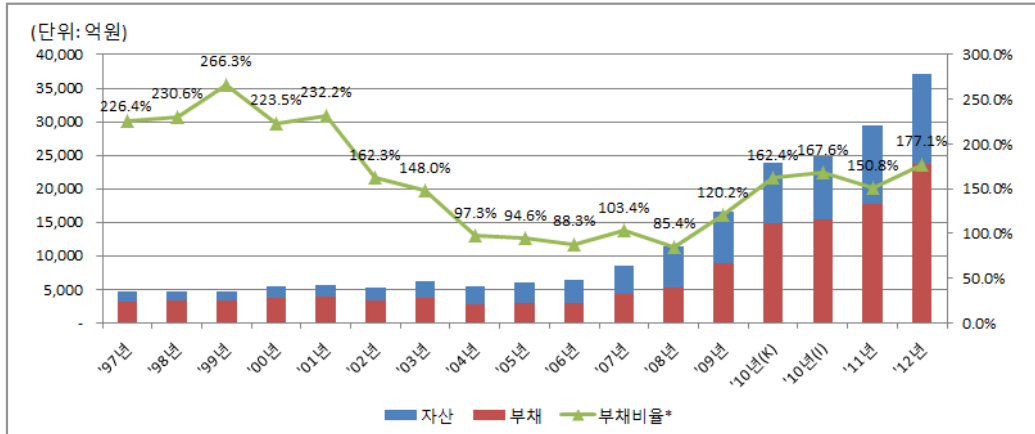
[그림 Ⅲ-48]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7~'12)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산은 1997년 4,622억원에서 2012년 3조 7,188억원으로 약 700% 대폭 증가하였고, 부채 역시 1997년 3,206억원에서 2012년 2조 3,766억원으로 약 640% 증가함
 - 2008년 공사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정자본금이 증액되고 해외투자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그 이후 자산 및 부채가 대폭 증가함
- 부채비율은 1997년 226%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88.3%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177.1%에 이름
- 최근 5년(2008~2012년) 동안 부채가 두드러지게 증가함
 - 1998~2002년 112억원의 부채가 증가하였고, 2003~2007년 1,023억원의 부채가 증가함
 - 2008~2012년 사이 약 2조원의 부채가 증가하였고, 447%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해외광산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를 위한 자원조달로 정부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여 부채가 증가함

가. 부채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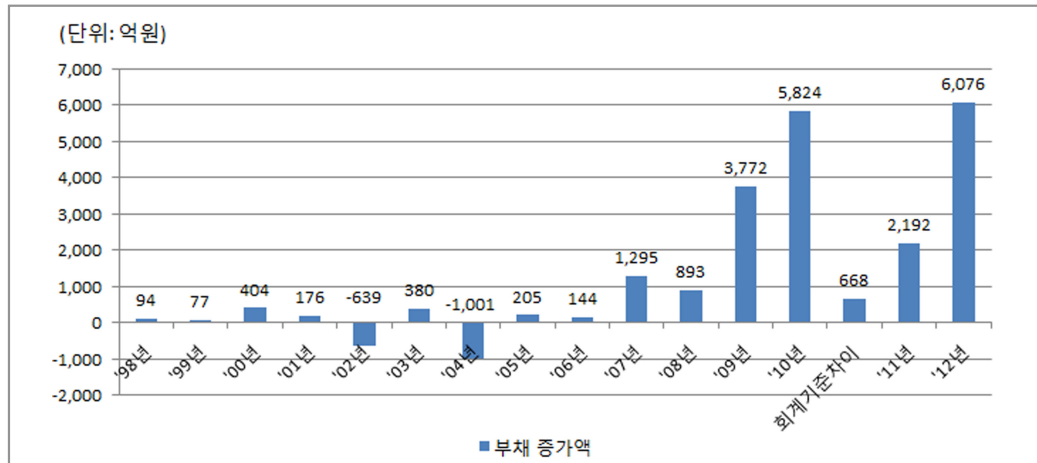
[그림 Ⅲ-49]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 2012년 부채규모는 2조 3,766억원으로, 1997년 3,206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1997~2008년 동안 감소하다가 2009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임
- 1997~2002년 자원개발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기업에 용자해 주는 에특차입금의 증가로 부채가 증가함
- 1999~2006년까지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2007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사업 투자비 확보를 위한 해외 자원개발 펀드 발행으로 부채비율 증가
- 2007~2012년 자산 및 부채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부채비율 역시 상승 추세임
 - 2008년 「공사법」 개정에 따른 법정자본금 증액 및 사명 변경으로 기존 기술지원 및 자금 용자 등 진흥업무에서 자원개발 직접 투자로 기능이 개편되면서 해외투자로 인해 부채 증가
 - 2008년부터 국가 전략광종 자주개발을 목표에 따라 중대형 프로젝트 참여, 생산광구 운영권 확보 등 해외 광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정부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외부차입에 의존하여 투자함으로써 부채 증가

나. 부채의 증가 속도

[그림 Ⅲ-50]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부채 증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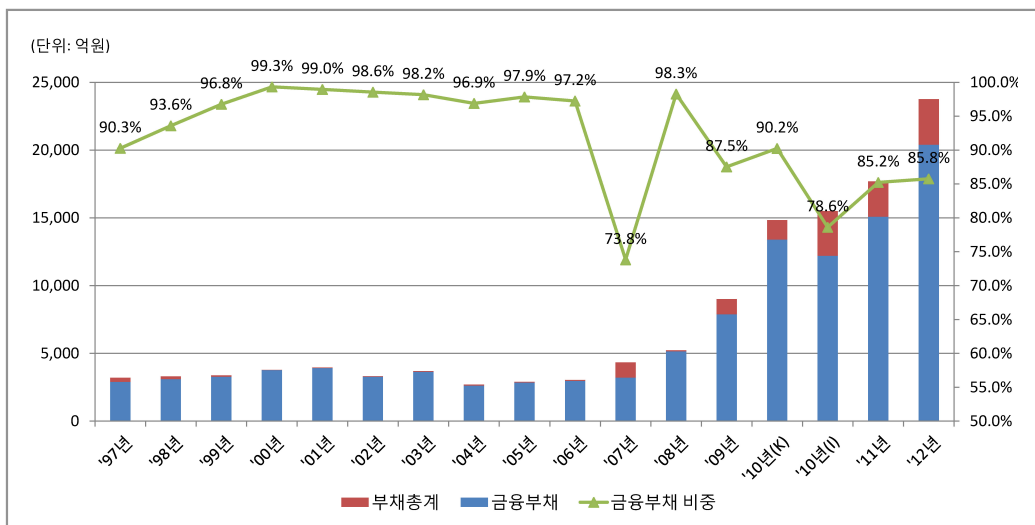
- 2008년 이후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9~2010년 사이 부채 증가율 및 증가 규모가 가장 두드러짐
 - 2008년부터 본격적인 해외 광산투자를 위해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외부차입으로 조달하여 부채 증가
- 2010~2011년 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주춤하다가, 2012년에는 부채 증가 속도가 크게 증가함
 - 2010~2011년 에특차입금 회계처리 방식의 변경으로 부채 증가율이 주춤함

다. 부채의 성격

1) 부채의 구성과 안전성

가)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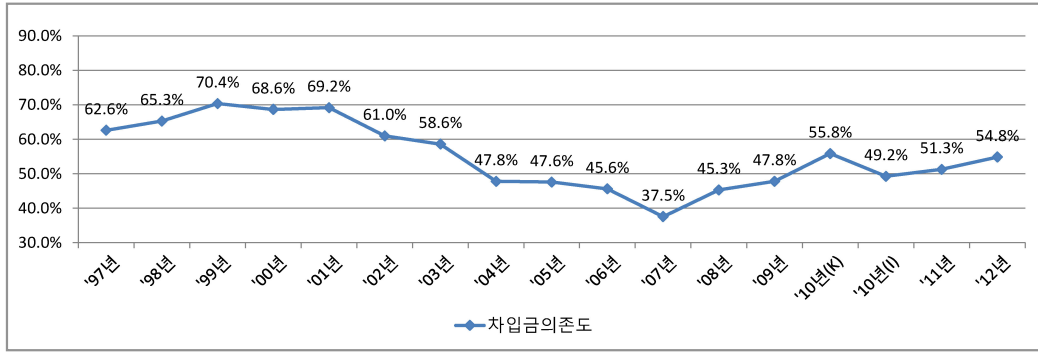
[그림 Ⅲ-51]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부채 구성: 금융부채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1997~2006년 부채의 대부분은 금융부채로 구성
 - 1997년 금융부채는 2,894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90%를 차지했으며, 2006년까지 금융부채 비중이 계속 증가함
- 2007년 전체 부채 중 금융부채 비중이 73.8%로 갑자기 급락하였는데, 이는 기타부채로 분류되는 해외 자원개발 펀드 발행에 기인함
- 2010년 K-IFRS 도입 이후 회계기준 차이로 인해 금융부채 비중이 급격히 하락함
 -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K-GAAP에서는 자산 쪽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차감계정으로 분류하였으나 K-IFRS 적용 이후 부채(정부보조금이연수익)로 분류하면서 기타부채가 급격히 증가

나) 차입금의존도(금융부채/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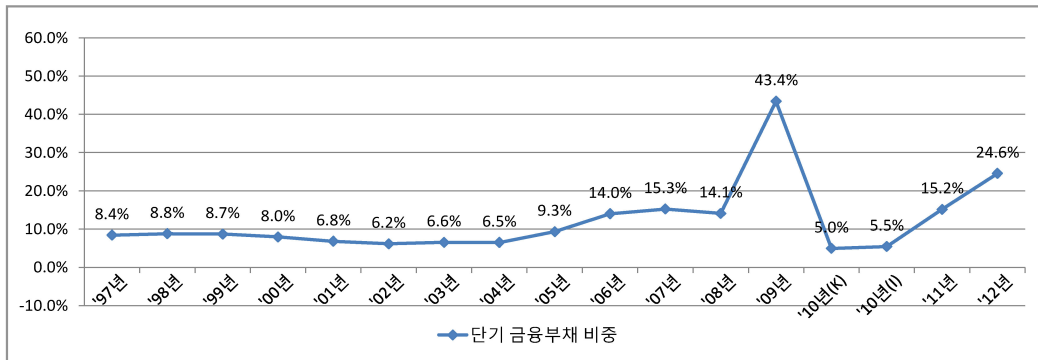
[그림 Ⅲ-52]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차입금의존도는 1999년 70%에서 2007년 37%로, 점차 하락하다가 2008년 이후 다시 상승 추세임
- 2008년부터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부채규모가 증가하면서 차입금의존도 역시 상승함

다) 단기 금융부채 비중

[그림 Ⅲ-53]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단기 금융부채 비중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6~15%로 큰 변화 없음
- 2009년 금융부채 중 단기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43.4%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뒤, 2010년 다시 5%로 대폭 하락함
- 2009년 단기 금융부채 비중의 증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초고금리 추

세에 따라 해외투자자금을 단기자금으로 조달함에 기인함

○ 2010년 단기자금을 장기자금으로 대환함으로써 단기 금융부채 비중이 다시 대폭 감소함

□ 2012년 차입금 및 사채 만기도래에 따른 유동성 대체로 단기 금융부채 비중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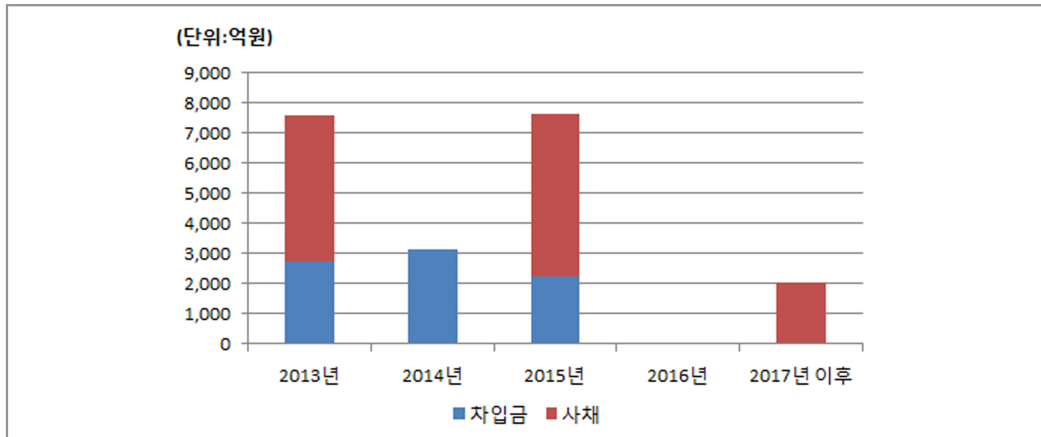
라)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기/장기부채

〈표 Ⅲ-11〉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계
금융부채						
- 차입금	2,764	3,121	2,264	0	60	8,209
- 사 채	4,838	0	5,356	0	2,000	12,194
합계	7,602	3,121	7,620	0	2,060	20,403

[그림 Ⅲ-54]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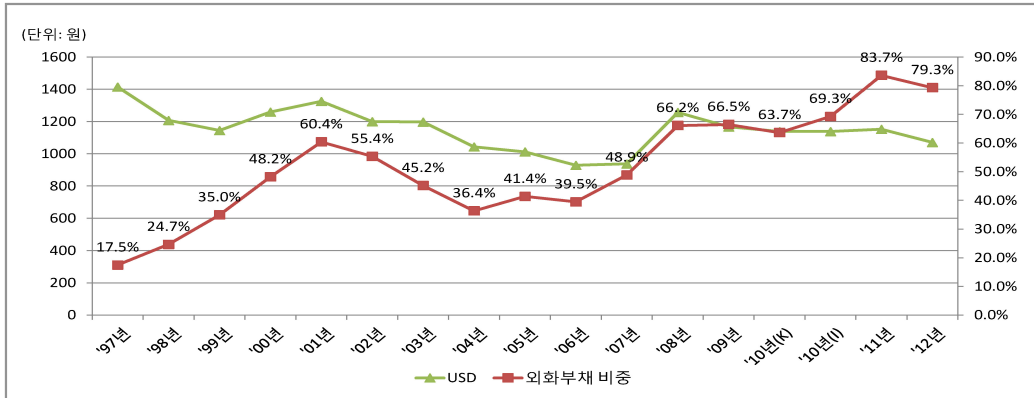
□ 금융부채 만기 도래에 따라 금융성부채의 90%가 2015년까지 상환 예정이며, 99%를 차입을 통해 조달할 예정

○ 2012년 말 상환해야 할 금융부채 중 40%는 차입금으로, 60%는 사채로 구성되어 있음

○ 약 2조원의 상환해야 할 금융부채 중 37%는 2013년에 상환 예정이며, 2015년 이전 까지 90%를 상환 예정임

2) 외화부채 비중

[그림 Ⅲ-55]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외화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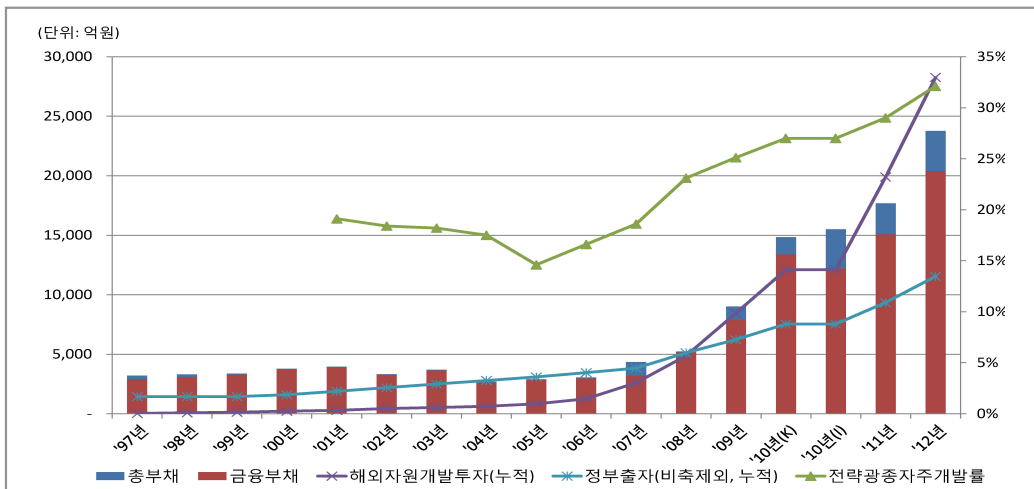


- 2008년부터 해외 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외화부채 비중이 증가
 - 1997년 외화부채 비중 17.5%와 비교했을 때, 2011년 83.7%로 외화부채의 비중이 급증하였음
 - 2012년 환율 하락으로 외화부채 비중이 79.3%로 다소 감소함

라.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1) 부채 발생 주요 원인

[그림 Ⅲ-56]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금융부채 증감액과 주요 지표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 증가 주요 지표는 크게 해외 자원개발투자액과 정부출자금, 전략광종 자주개발률임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 투자사업을 본격화한 2008년부터 부채가 크게 증가함
 - 기존 기술지원 및 자금 융자 등 광업진흥 업무 위주로 수행해 온 대한광업진흥공사가 2008년 「공사법」 개정으로 해외 자원개발을 직접 투자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로 기능을 개편하면서 법정자본금이 증액되고, 자산과 부채가 대폭 증가함
 - 2008년 이후 해외 자원개발 투자액이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총부채 및 금융부채가 같이 증가함을 볼 수 있음
-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국가 전략광종 자주개발률²¹⁾ 목표 달성을 위해 중대형 프로젝트 참여, 생산광구 운영권 확보 등 해외 광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정부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고 있음
- 2007년 이후 해외 신규투자 총 24건 중 20건(83%)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개발 및 탐사단계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다음 단계 진입까지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광산의 특성상 투자비 회수 및 본격적인 수익창출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해외 자원개발 투자액 중 정부출자를 제외한 자금 부족분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워 부채가 증가하고 있음

〈표 Ⅲ-12〉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정부출자액 대비 해외 투자액

(단위: 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해외투자(A)	1,348	2,256	3,576	3,664	7,794	8,368
정부출자(B)	370	1,300	1,107	1,307	1,800	2,200
부족분(A-B)	978	956	2,469	2,357	5,994	6,168

21) 한국기업이 국내외에서 개발 및 생산하여 확보한 물량이 전체 수입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임. 고유가, 원자재난 등 비정상적인 위기 발생 시에 대비하여 자국이 통제가능한 자원확보량을 의미함. 정부의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매 3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략광물의 경우 2019년 42%를 목표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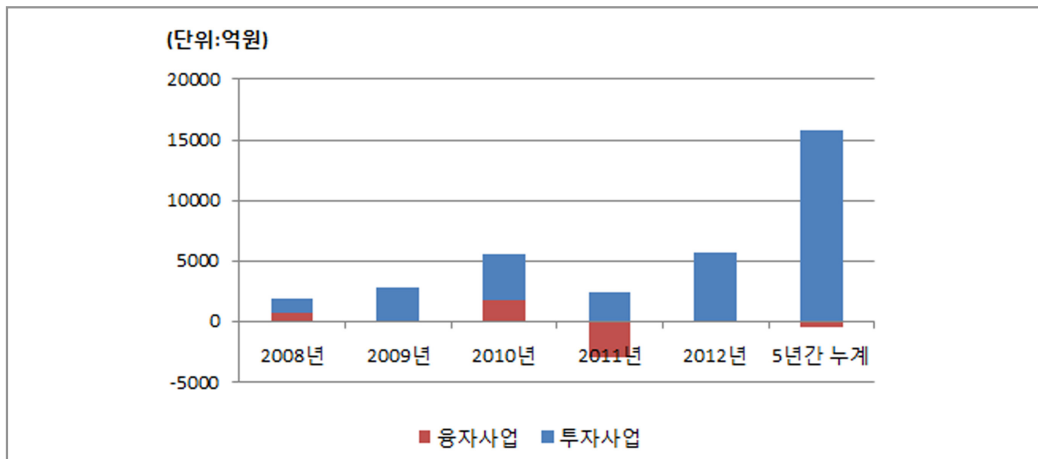
2) 사업별 금융부채²²⁾ 증가액²³⁾

〈표 Ⅲ-13〉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단위: 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년간 누계
투자사업	1,251	2,718	3,730	2,339	5,700	15,738
용자사업	689	21	1,770	-2,952	0	-472
금융부채 순증가 합계액	1,940	2,739	5,500	-613	5,700	15,266

[그림 Ⅲ-57]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22)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은 기관이 각 사업별 자금유입 및 자금유출 규모를 기준으로 [부록 2]에서와 같은 일정한 가정하에 추정하였으므로 실제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산출되는 금융부채 증가액과 다를 수 있음

23)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은 추정 및 분석 편의상 최근 5개년 모두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반면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금액 검토 시 2011년 및 2012년의 경우 K-IFRS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였음(2010년의 경우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모두 표시). 이에 따라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 및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증감액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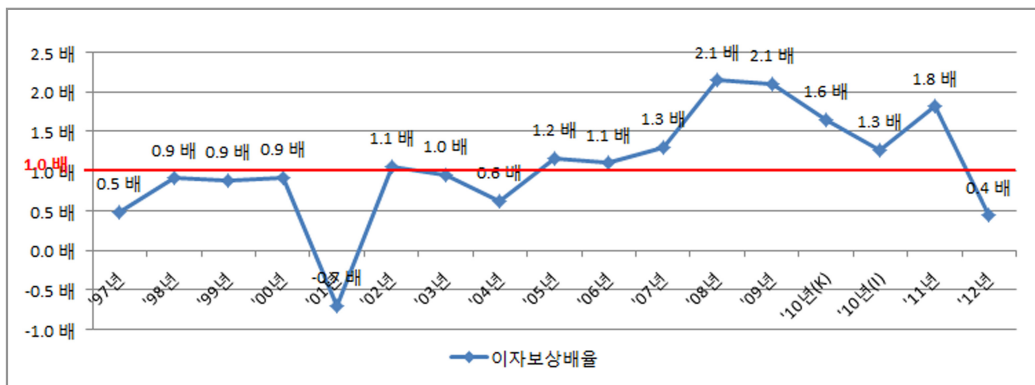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K+I)	2011년	2012년	누계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증감액 (A)	1,940	2,739	4,299	2,895	5,307	17,180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 (B)	1,940	2,739	5,500	-613	5,700	15,266
차이 (A-B)	-	-	-1,201	3,508	-393	1,914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은 크게 투자사업과 용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2008년 해외 직접투자를 본격화하면서 최근 5년 동안 투자사업으로 인한 금융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전략광종의 확보를 위해 6대 전략광물 위주로 약 3조원을 투자하여 2012년 말 현재 17개국 38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진행 중
 -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여 기관의 금융부채가 증가함
-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대출업무 수행하고 있으나, 용자사업으로 인하여 최근 5년간 금융부채 누계가 오히려 감소함
 - 용자사업은 부채 증가요인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움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1) 이자 상환능력

[그림 Ⅲ-58]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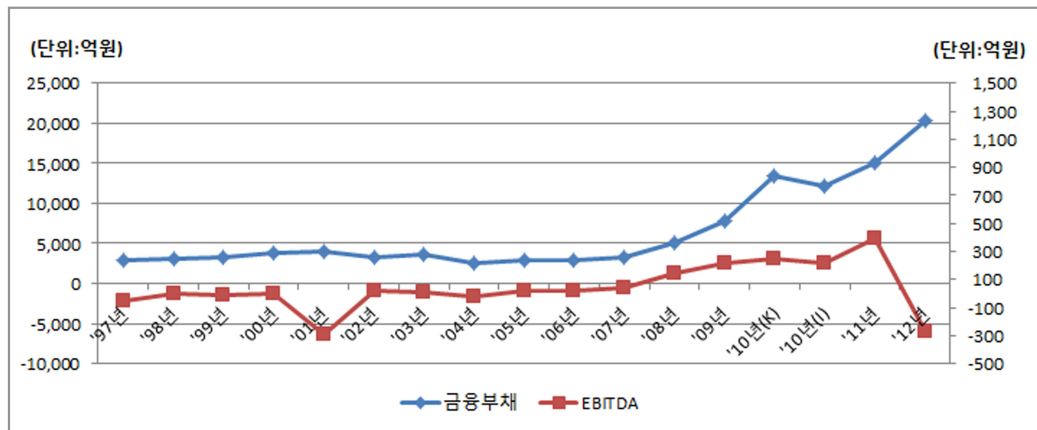


주: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는 이자비용을 영업외비용과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어 이자보상비율을 $(\text{영업이익} + \text{매출원가} \div \text{이자비용}) / (\text{영업외 이자비용} + \text{매출원가} \div \text{이자비용})$ 으로 산정함

- 2005년 이후 이자보상배율이 기준점 1배를 넘는 수준임
- 2010년과 2011년은 영업이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차입금 및 금융비용의 증가로 이자보상배율이 하락함
- 2012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금융부채 증가로 인해 이자비용이 증가하여 이자보상배율이 급격히 하락함
 - 2012년 영업손실은 국제 광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해외투자사업 실적 저조가 주요 원인임

2) 원금 상환능력

[그림 Ⅲ-59]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금융부채 및 EBIT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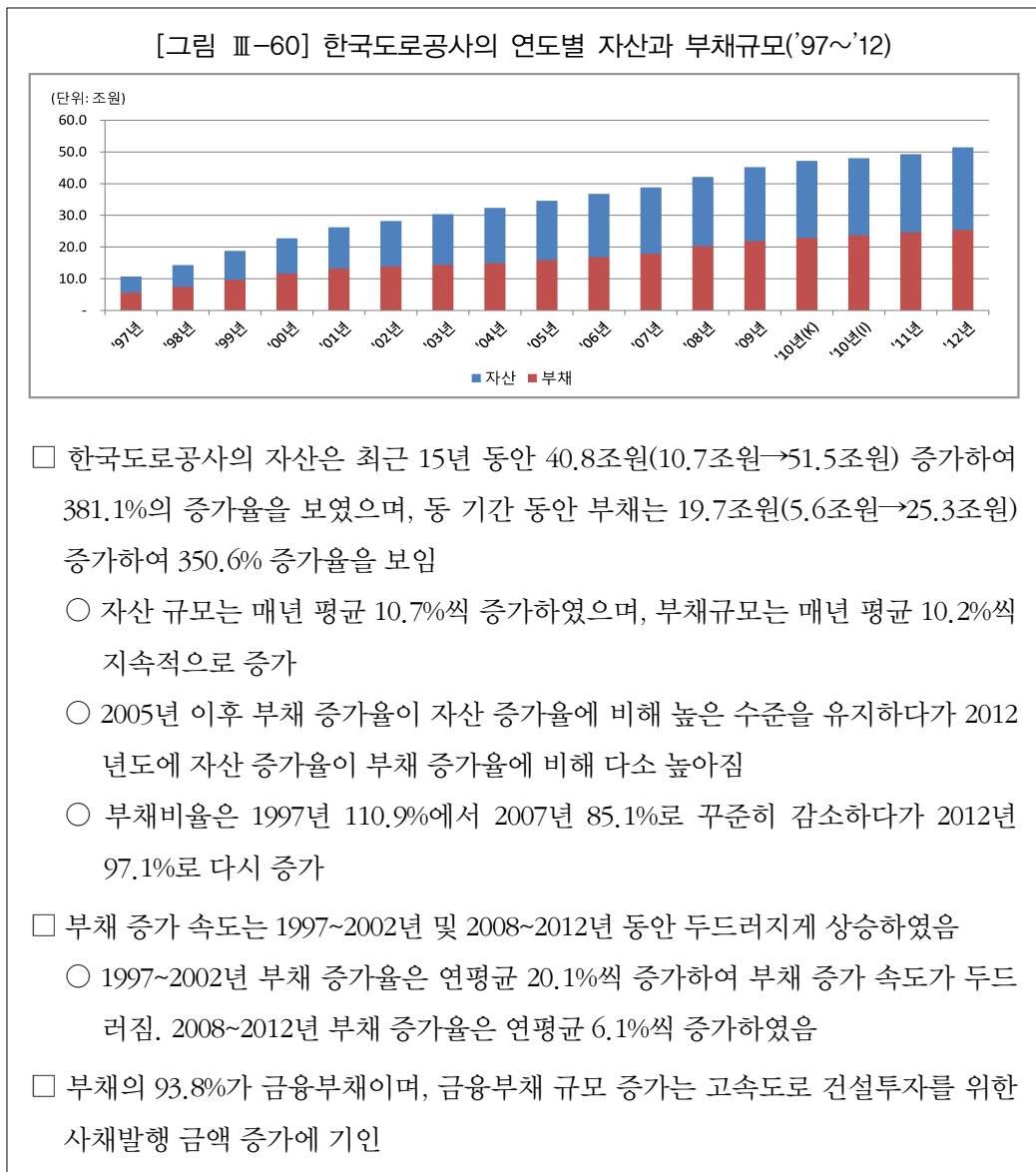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인하여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의 분모인 EBITDA가 상당 기간에 음(-)의 값을 가지므로 분석이 어려움
 - 금융부채와 EBITDA 값을 보여주는 그래프로 대신함
- 금융부채는 최근 1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
- 2012년 광물가격 하락에 따른 영업실적 저조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EBITDA가 음(-)의 값을 가짐

바. 총평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2년 부채가 2조 3,766억원, 부채비율은 177%로 최근 5년(2008~2012년) 동안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함
- 2008년 이후 본격적인 해외투자가 시작되면서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함
 - 2008년 「공사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정자본금 증액(6천억원→2조원) 및 사명 변경(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으로 기존 기술지원 및 자금 용자 등 진흥업무에서 자원개발 직접투자로 기능이 개편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투자액, 정부출자금, 전략광종 자주개발률이 부채 증가 주요 지표임
 - 해외 중대형 프로젝트 참여, 생산 광구 운영권 확보 등 해외 광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정부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외부차입에 의존하고 있어 부채가 증가함
- 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해외 자원개발 투자사업의 규모와 속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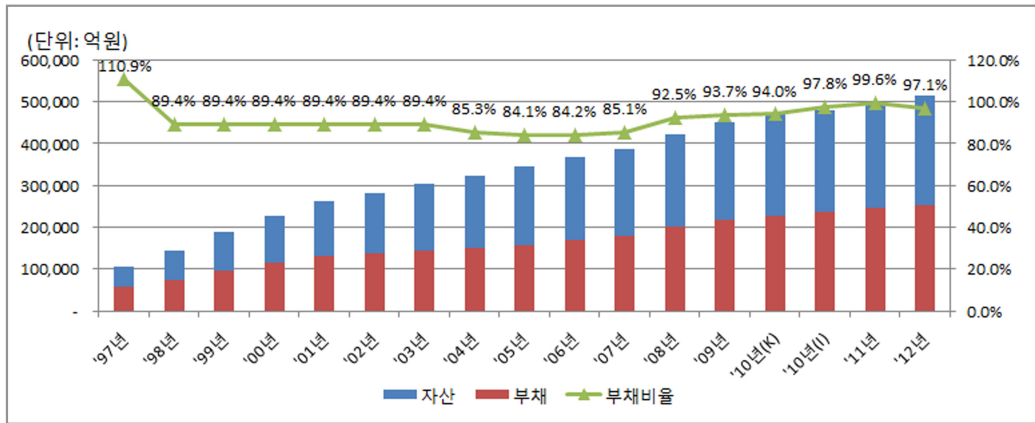
6. 한국도로공사

* 아래 한국도로공사 재무자료는 기본적으로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른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기간에는 K-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단, 2010년도는 비교목적상 K-GAAP 및 K-IFRS에 의한 수치를 모두 표시하였음



가. 부채의 규모

[그림 Ⅲ-61] 한국도로공사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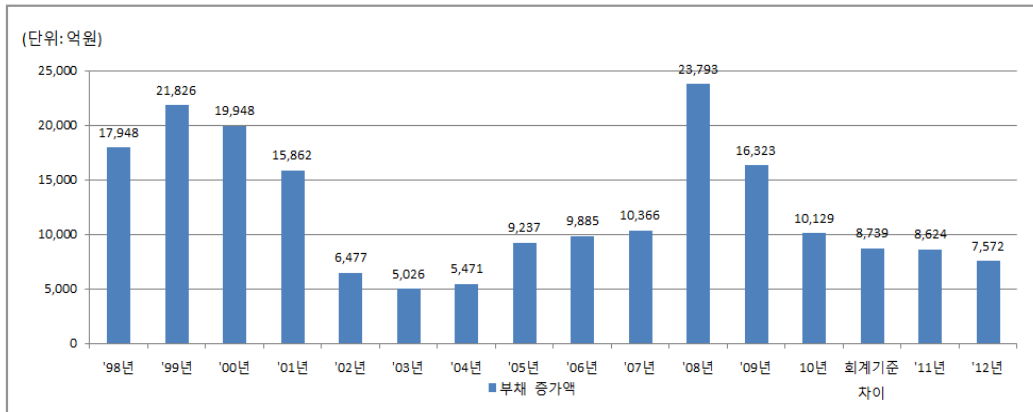


- 한국도로공사 부채는 1997년 5조 6천억원에서 2012년 25조 3천억원으로 350.6% 증가 하였으며, 부채비율은 1997년 110.9%에서 2012년 97.1%로 13.8%p 감소
 - 부채규모는 최근 15년간 매년 평균 10.2%씩 지속적으로 증가
 - 부채비율은 1997년 110.9%에서 2007년 85.1%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2년 97.1%로 다시 증가
 - 부채비율은 2000년대 들어서 2005년 84.1%로 소폭 하락하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년 99.6%로 정점에 달하였음

- 2010년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연결범위 및 부채 측정 방법이 변경 되어 부채비율이 3.8%p 증가하였으며, 부채규모는 9천억원가량 증가하였음

나. 부채의 증가 속도

[그림 Ⅲ-62] 한국도로공사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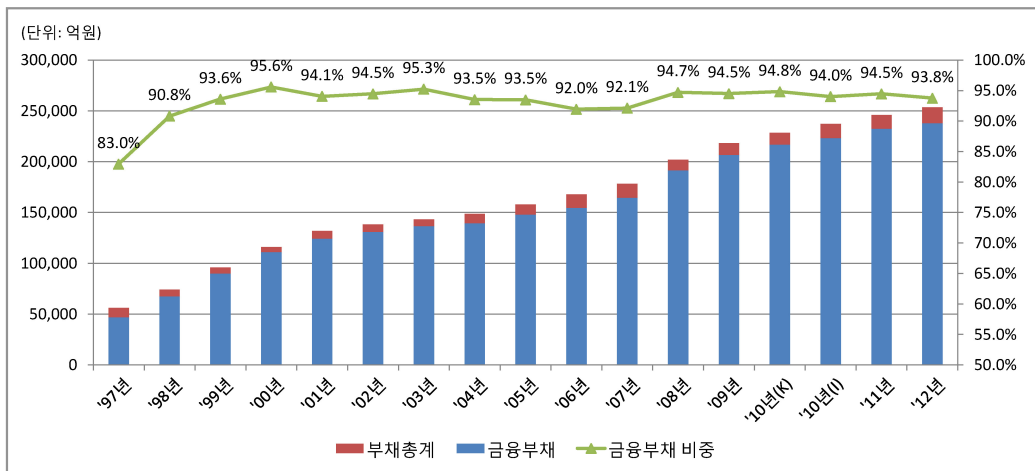
- 최근 15년간 부채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 1997~2002년 부채 증가율은 145.9%로 최근 15년 중 부채 증가 속도가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다음으로 2007~2012년까지 부채 증가율이 42.2%로 높았음
- 2007~2008년 사이 부채 증가율 및 증가규모가 가장 두드러지며, 2008년 이후 부채 증가율이 다소 누그러지다가 2012년에는 부채 증가율이 3.1%로 다소 완화

다. 부채의 성격

1) 부채의 구성과 안전성

가) 금융부채 비중

[그림 Ⅲ-63] 한국도로공사의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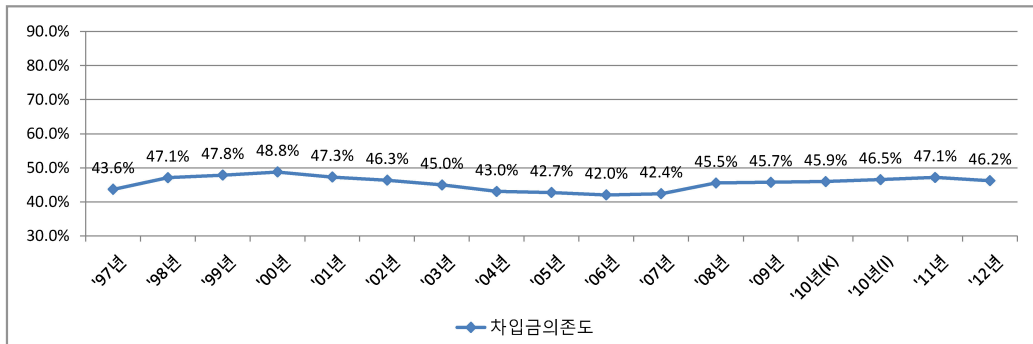


- 한국도로공사의 금융부채는 1997년 4조 6천억원에서 2012년 23조 8천억원으로 409.3% 증가하였으며, 부채의 93.8%가 금융부채로 구성
 - 금융부채가 부채의 평균 9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채 및 차입금으로 구성
 - 금융부채 규모 증가는 고속도로 건설투자를 위한 사채 발행 금액 증가에 기인

- 금융부채 이외의 기타 부채는 1997년 1조원에서 2012년 1조 5천억원으로 64.8% 증가
 - 2012년 비금융부채는 미지급비용 4천억원, 선수금 4천억원, 미지급금 3천억원 및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부채 2천억원 등으로 구성
 - 주된 증가 원인은 사채 발행 증가 따른 미지급 비용이 3천억원 증가,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부채가 2천억원 증가 및 선수금이 1천억원 증가하였기 때문

나) 차입금의존도(금융부채/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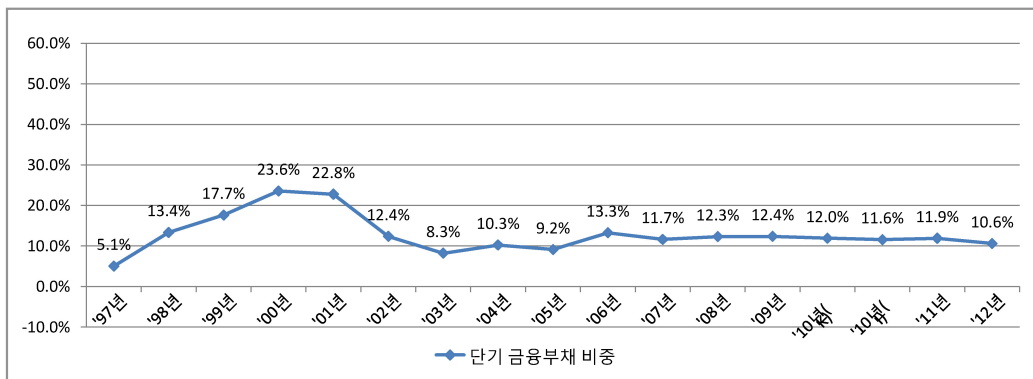
[그림 Ⅲ-64] 한국도로공사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의존도는 1997년 43.6%에서 2012년 46.2%로 소폭 상승
 - 금융부채는 사채 및 차입금으로 구성
 - 도로 건설에 대한 정부 출자비율이 약 54%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연평균 45.5%로 변동성이 크지는 않음

다) 단기 금융부채 비중

[그림 Ⅲ-65] 한국도로공사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 2012년 단기 금융부채 비중은 10.6%로 1997년 5.1%에서 소폭 증가하였으며, 최근 15년간 평균 단기 금융부채 비중은 12.9% 수준임
 - 단기 금융부채는 장기 금융부채의 만기 도래에 따른 유동성이 대체된 것

○ 사채는 짧게는 3년 또는 5년 만기로 발행되기도 하나, 대부분은 10년 만기로 발행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8~9년으로 자금 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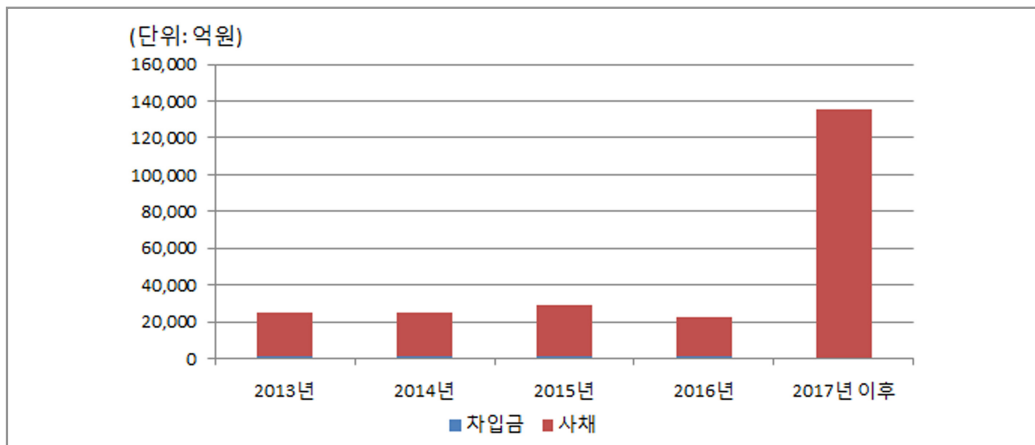
라)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기/장기 부채

〈표 Ⅲ-14〉 한국도로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계
금융부채						
- 차입금	1,213	960	960	940	280	4,353
- 사 채	24,098	24,276	28,221	21,665	135,074	233,334
합계	25,311	25,236	29,181	22,605	135,354	237,687

[그림 Ⅲ-66] 한국도로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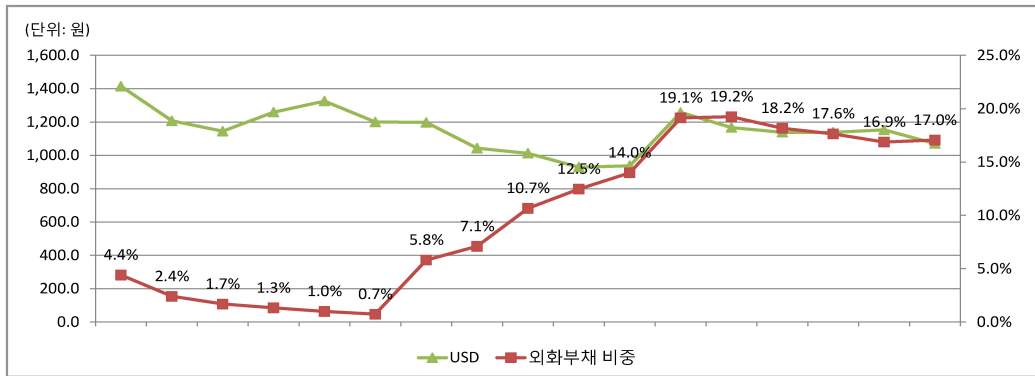


□ 금융부채 만기 도래에 따라 금융부채의 10.6%가 2013년에 상환될 예정이며, 56.9%는 2017년 이후에 상환 예정임

○ 금융부채의 98%는 차환을 통해 조달할 예정

2) 외화부채 비율

[그림 Ⅲ-67] 한국도로공사의 연도별 외화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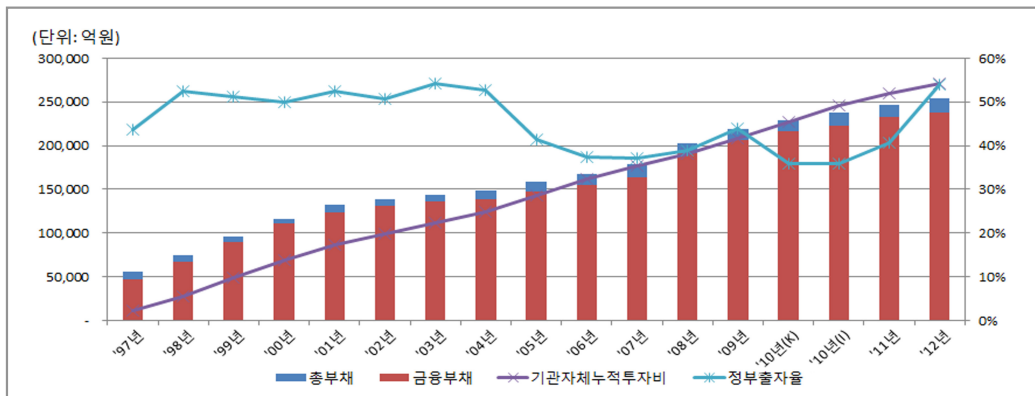


- 2012년 외화 금융부채 비중은 1997년 4.4%에서 12.6%p 증가한 17.0%로 외화 부채의 78.9%가 미국달러화로 구성됨
 - 기관은 저렴한 해외 금리 및 외화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해외사채를 5억달러가량씩 발행하였음
 - 환율이 크게 증가한 2008년 외화부채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 2012년 차환을 목적으로 해외사채를 추가 발행

라.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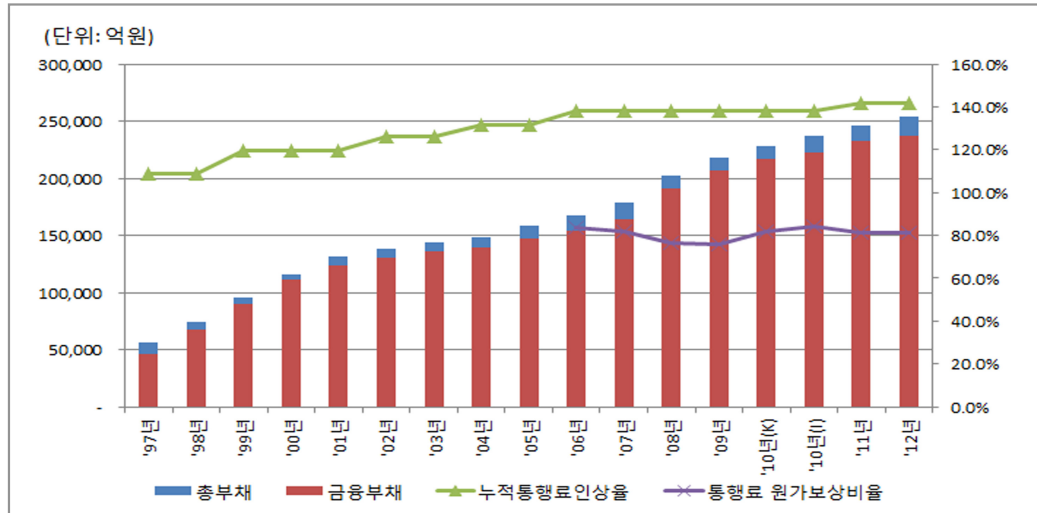
1) 부채 발생 주요 원인

[그림 Ⅲ-68] 한국도로공사의 건설투자비와 금융부채



- 한국도로공사 부채 증가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고속도로 사업 투자비, 통행료 인상률 정체 및 원가보상비율 정체 등이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 수요 증가에 따른 고속도로 투자 확대에 기관의 투자비를 사채 발행 등 외부 조달하였기 때문
- 1997~2002년 부채규모 및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는 도로사업 투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 1990년대 이후 물류비 증가로 고속도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IMF 사태로 경기가 침체되자 경기부양 목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
 - 대전-통영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및 중부내륙고속도로 등이 개통됨
 - 기관은 평균적으로 고속도로 건설 투자비의 50%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으며, 그 외 부족자금에 대해서 자체 조달
- 2008년도 부채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이유는 리만브라더스 사태에 따른 금융위기로 환율 증가에 따라 외화 부채가 증가하였기 때문
 - 미국달러 기준환율이 2007년 말 938원이었으나 2008년 말 1,258원으로 34.0%가량 증가
- 2005~2011년까지는 기관 투자 자금이 6조 7천억원가량 추가 투자됨에 따라 금융부채가 증가함
 - 정부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부양 정책 목적으로 SOC 사업을 확대하도록 함에 따라, 기관은 기존 고속도로 건설비의 50% 부담액의 6조 7천억원가량을 100% 자체 조달하여 추가 투자함

[그림 Ⅲ-69]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및 원가보상비율과 금융부채



□ 도로건설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통행료 인상이나 통행료 원가보상비율은 정체됨에 따라 도로건설 추가 투자는 직접적으로 금융부채의 증가로 귀착됨

2) 사업별 금융부채²⁴⁾ 증가액²⁵⁾

<표 Ⅲ-15> 한국도로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단위: 억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년간 누계
도로사업	27,910	15,763	16,216	10,258	5,875	76,022
부대사업	-762	-728	424	-1,043	-518	-2,627
금융부채 순증가 합계	27,148	15,035	16,640	9,215	5,357	73,395

24)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은 기관이 각 사업별 자금유입 및 자금유출 규모를 기준으로 [부록 2]에서와 같은 일정한 가정하에 추정하였으므로 실제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산출되는 금융부채 증가액과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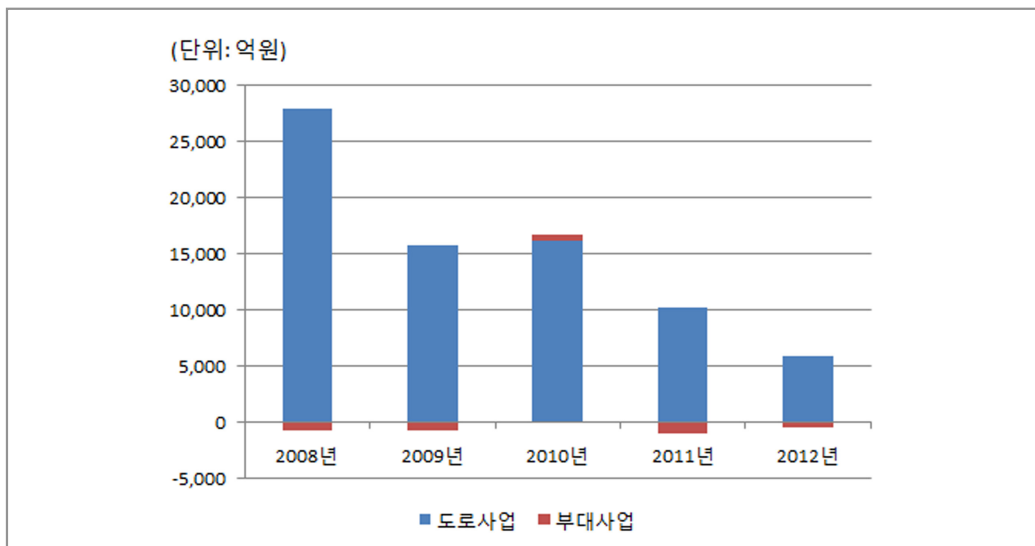
25)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은 추정 및 분석 편의상 최근 5개년 모두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반면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금액 검토 시 2011년 및 2012년의 경우 K-IFRS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였음(2010년의 경우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모두 표시). 이에 따라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 및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증감액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

(단위: 억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K+I)	2011년	2012년	누 계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증감액 (A)	27,148	15,035	16,635	9,214	5,357	73,389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 계 (B)	27,148	15,035	16,640	9,215	5,357	73,395
차이 (A-B)	-	-	- 5	-1	-	-6

- 기관의 사업은 크게 도로사업, 부대사업 및 지원사업으로 구분
- 금융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은 도로사업을 위한 투자자금 조달에 기인함
 - 부대사업은 휴게소 운영수입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며, 지원사업은 실비정산 위탁 사업으로 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최근 5년간 도로사업으로 인해 7조 6천억원의 금융부채가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에 2조 8천억원으로 증가규모가 가장 두드러짐
 - 도로사업으로 인한 금융부채 증가액은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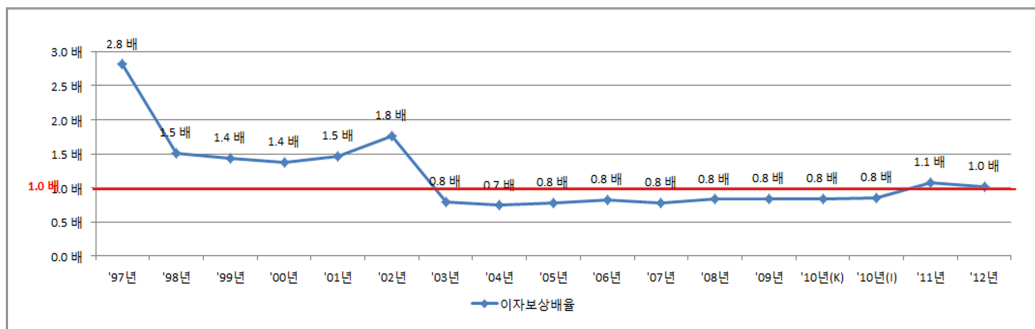
[그림 Ⅲ-70] 한국도로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1) 이자 상환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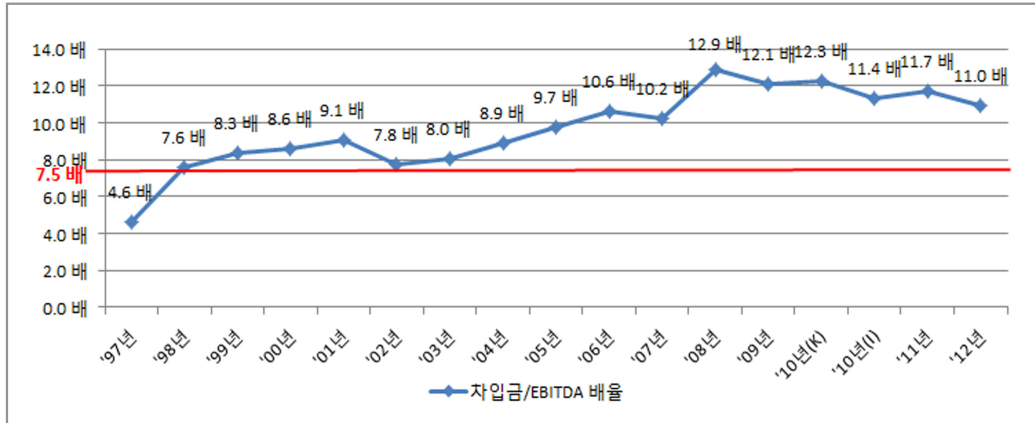
[그림 Ⅲ-71] 한국도로공사의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 이자보상배율은 1997년 2.8배에서 2012년 1.0배로 하락하였으나, 기관 수익구조 특성상 이자보상배율로 기관의 이자 상환능력을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음
 - 기관은 도로사업부문 수익에서 도로사업부문 비용(법인세비용 포함)을 차감한 잔액을 유료도로관리권 상각비로 계상하고 있어, 기관의 주요 사업인 도로사업부문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수익구조임
 - 이자보상배율은 2002년까지 평균 1.7배를 유지하다가 2003년도에 0.8배로 급격히 하락하였음
 - 2011년에 소폭 증가하여 2012년 1.0배를 유지함

2) 원금 상환능력

[그림 Ⅲ-72] 한국도로공사의 연도별 차입금 대 EBITDA 배율



- 2012년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은 11.0배로 1997년 4.6배에 비해 6.4배가 증가함
 - 2008년까지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12.9배로 크게 악화됨
 - 통행료 수입 증가에 따라 EBITDA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그에 비해 차입금 증가 수준이 높아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이 상승

- 2008년 이후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이 다소 하락하여 2012년에 11.0배까지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EBITDA에 비해 차입금이 높은 수준임

바.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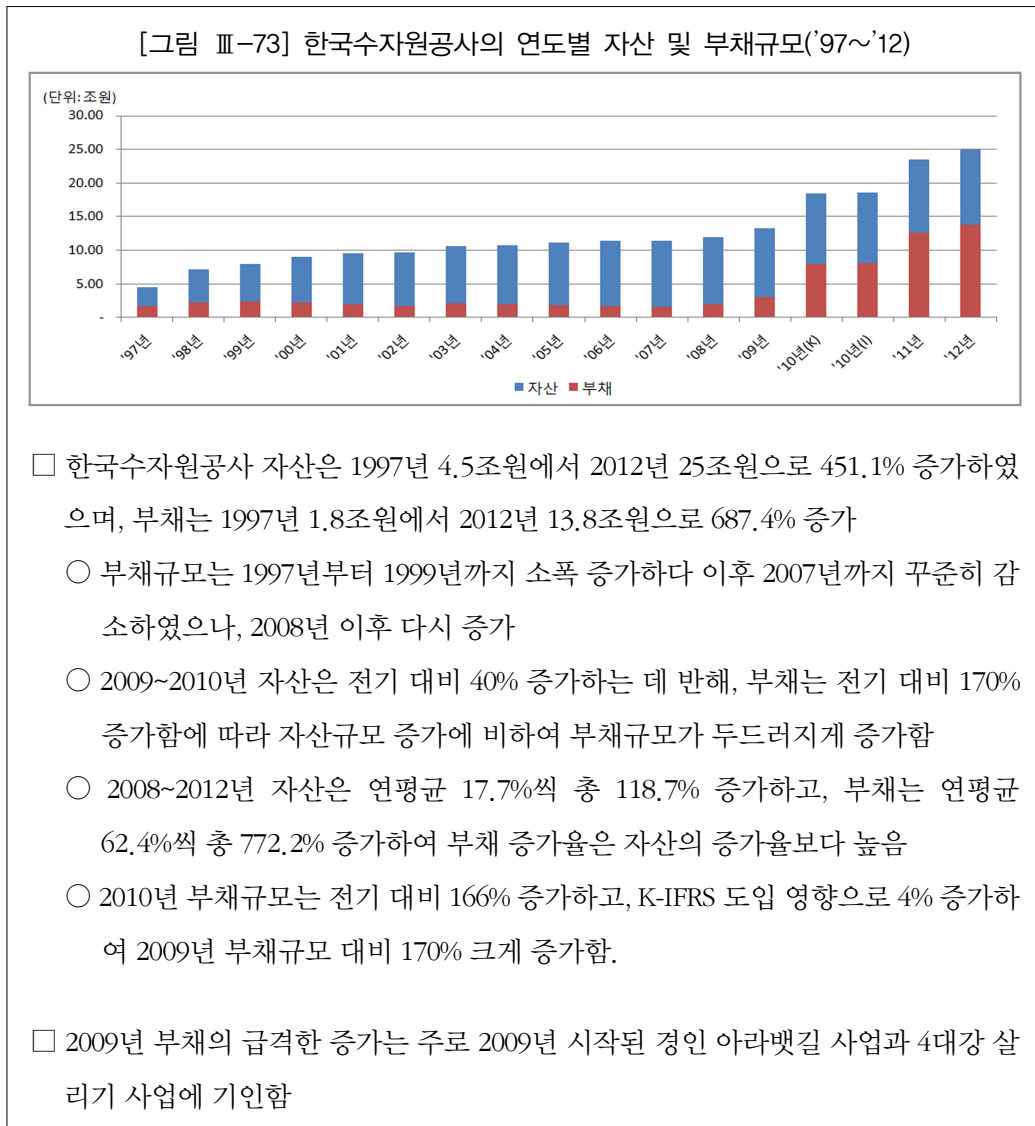
-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2012년 25.3조원으로 매년 평균 10.2%씩 증가하여 최근 15년간 350.6%의 증가율을 보이며, 도로사업의 투자 증가, 원가보상비율 및 통행료 정제 등에 기인함
 - 도로사업 투자 확대는 경기 부양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1997~2002년 및 2008년 리먼사태 이후에 두드러지게 금융부채가 증가하였음
 - 도로사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에 반해, 원가보상비율 및 통행료가 정제됨에 따라

도로사업의 투자가 금융부채로 직접적으로 귀결
- 향후 원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 기관의 부채의 93.8%가 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외화부채는 17.0%를 차지
- 기관은 금융부채를 장기로 조달하고 있으며, 만기 도래에 따라 2013년에 금융부채의 10.6%가 상환될 예정임
- 차입금의존도는 46.2%로 정부의 출자비율의 유지에 따라 변동성이 크지 않으나,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은 2012년 11.0배로 EBITDA에 비해 차입금이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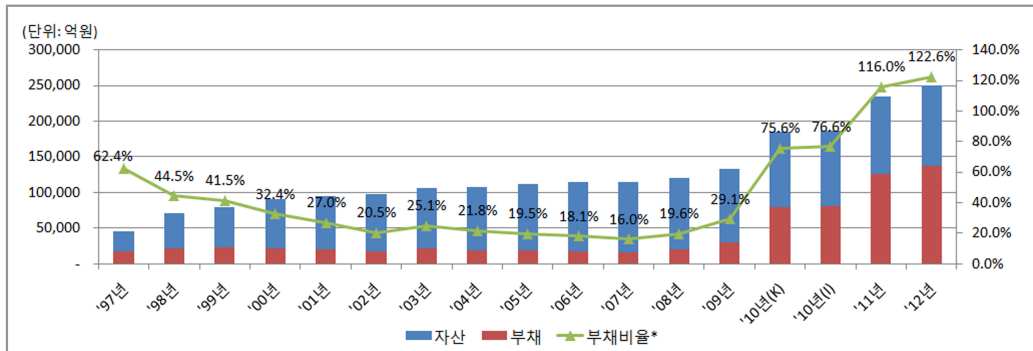
7. 한국수자원공사

* 아래 한국수자원공사 재무자료는 기본적으로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른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기간에는 K-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단, 2010년 도는 비교목적상 K-GAAP 및 K-IFRS에 의한 수치를 모두 표시하였음



가. 부채의 규모

[그림 Ⅲ-74]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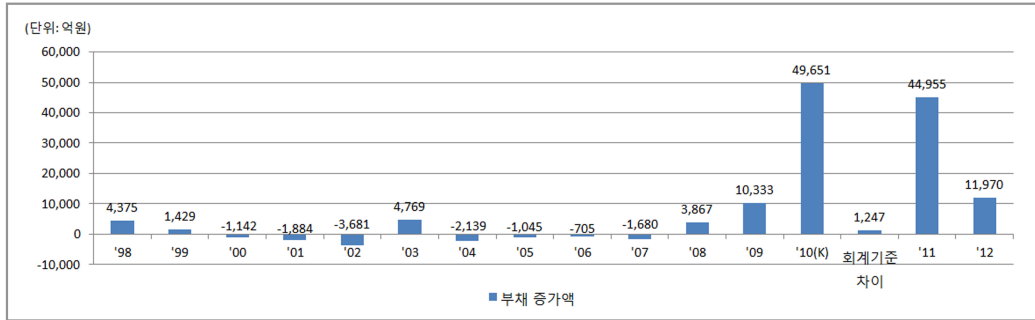


- 2012년 부채규모는 13조 8천억원으로 1997년 1조 8천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1997년 62.4%에서 2003년을 제외하고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 증가 추세로 돌아섬
 - 1997~1999년의 부채규모 증가는 IMF 외환위기에 따른 비정상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것임
 - 꾸준히 감소하던 부채비율이 2003년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정수장 건설비 부담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출자한 금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일시 차입하였기 때문임

- 2007년 이후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9~2010년 사이 부채 증가율 및 증가규모가 가장 크고, 이후에도 2009년 이전 부채 증가규모에 비하여 큼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이 시작되는 2009년부터 투자 사업비 자금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이 크게 증가
 - 2010년 부채규모는 전기 대비 166% 증가하고, K-IFRS 도입 영향으로 4% 증가하여 2009년 부채규모 대비 170%가 증가함. 또한, 2010년 K-IFRS 도입 영향으로 인하여 미지급비용, 퇴직급여부채가 증가하고 토지 재평가에 따른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부채비율은 1%p 증가

나. 부채의 증가 속도

[그림 Ⅲ-75]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 1997~2002년 사이에는 부채 증가액과 부채 증가율 모두 감소함
 - 남강댐과 용담댐 등 대규모 댐건설사업이 2001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투자사업비 감소로 부채규모 감소

- 2003~2007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 현금 출자금 반환을 위한 자금 소요 증가로 인하여 부채 증가율이 상승(2002~2003년)한 것 이외에는 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음
 - 장흥댐, 부항댐, 군위댐, 성덕댐 등 중소규모 댐 추진으로 댐 건설 관련 투자 사업비는 증가한 반면, 시화, 안산, 구미 등 주요 단지조성 사업 마무리에 따른 단지사업 투자비용이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부채규모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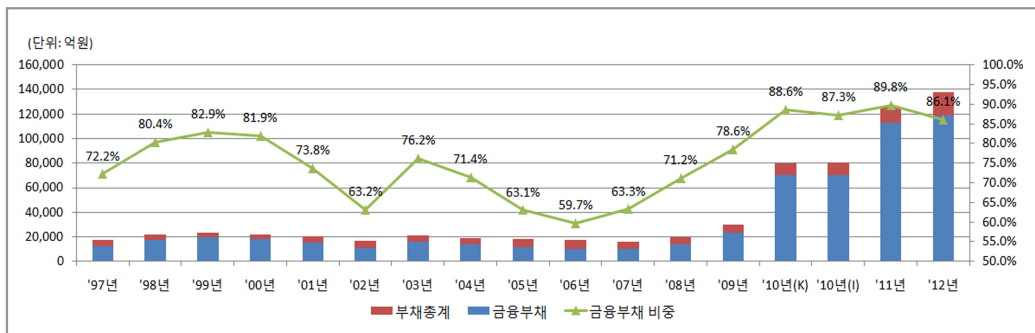
- 2008년 이후 부채 증가액과 부채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9~2010년 사이 부채 증가액 및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지며, 2010년 이후 부채 증가 규모와 증가율이 다시 누그러지는 추세임
 - 2008년 시화 MTV, 시화조력발전소 등 사업추진에 따른 투자사업비가 증가하였고, 2009년 송산그린시티 등 단지 사업 추진 관련 투자사업비가 증가함
 - 2008년 12월 경인 아라뱃길 사업, 2009년 9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됨에 따라 2009~2010년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부채 증가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부채규모는 증가함

다. 부채의 성격

1) 부채의 구성과 안전성

가) 금융부채 비중

[그림 Ⅲ-76]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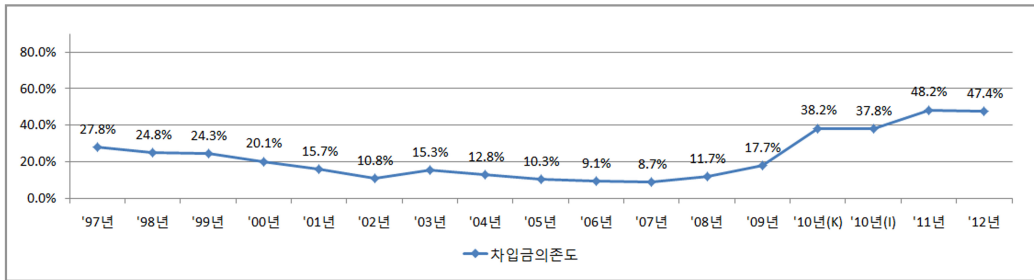


- 한국수자원공사의 금융부채 비중은 60~90% 범위구간에 있으며 평균 76%임
 - 금융부채 증감 추세와 총부채 증감 추세가 비슷하게 움직임
 - 금융부채가 크게 증가한 2009년 이후 금융부채 비중은 평균을 상회하여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금융부채 이외의 기타 부채는 1997년 5천억원에서 2012년 1조 9천억원으로 295% 증가
 - 2012년 말 금융부채 이외의 기타 부채는 선수금 1조원, 기타 장기부채 3천억원, 미지급금 2천억원, 미지급비용 2천억원 등으로 구성
 - 기관은 판매하는 토지 매각 계약금 및 중도금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시화 MTV, 경인 아라뱃길 물류단지 등 분양 활성화로 인하여 2012년도 단지분양 선수금이 이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함

나) 차입금의존도(금융부채/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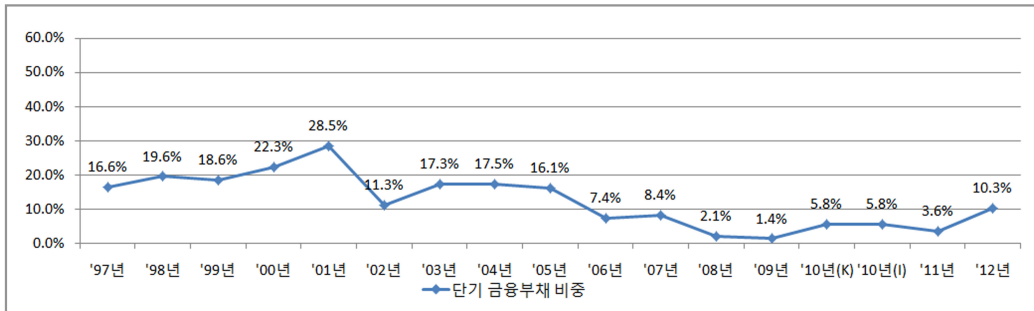
[그림 Ⅲ-77]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 기관의 차입금의존도는 50% 미만으로 차입금이 일시 증가한 2003년을 제외하고 2007년까지 꾸준히 하락하다가 2008년 이후 상승세로 바뀌면서 2009~2010년 급격히 증가
- 2009년 이후 사업비 외부조달에 의한 사채 발행으로 금융부채가 증가하여 차입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다) 단기 금융부채 비중

[그림 Ⅲ-78]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 기관의 단기 금융부채 비중은 1997년 16.6% 수준에서 다소 하락하여 2012년 10.3%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12.5% 수준으로 낮은 편임
- 단기 금융부채는 2009년까지 모두 차입금과 사채, 장기차입금 및 사채의 유동성대체 금액으로 구성되며, 2010년 이후 단기 파생상품부채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 금융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채는 만기가 평균 7년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단기 금융부채 비중이 높지 않은 선에서 유지되고 있어 유동성 위험은 낮음

라)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기/장기 부채

〈표 Ⅲ-16〉 한국수자원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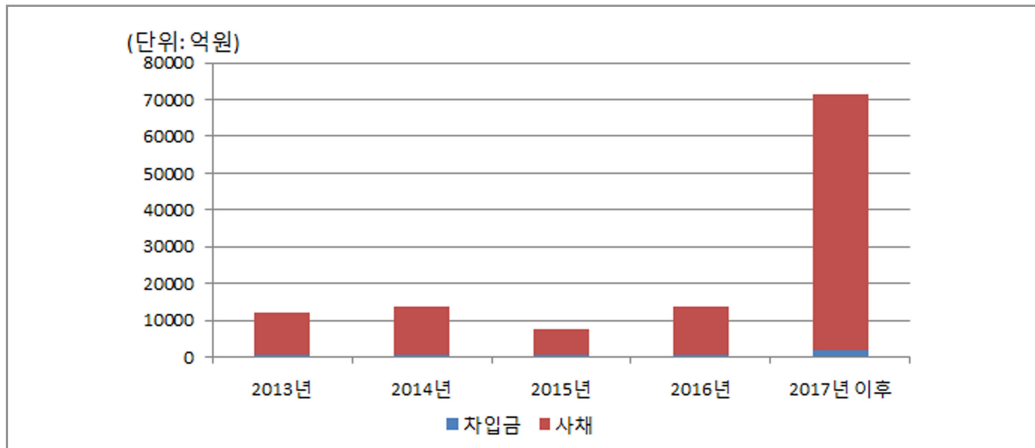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계
금융부채						
- 차입금	450	435	420	422	1,985	3,712
- 사 채	11,781	13,445	7,240	13,100	69,353	114,919
합계	12,231	13,880	7,660	13,522	71,338	118,631

□ 금융부채 만기 도래에 따라 금융부채의 약 60.1%가 2017년 이후에 상환될 예정이며, 11.9조원 중 약 10.3%가 2013년 상환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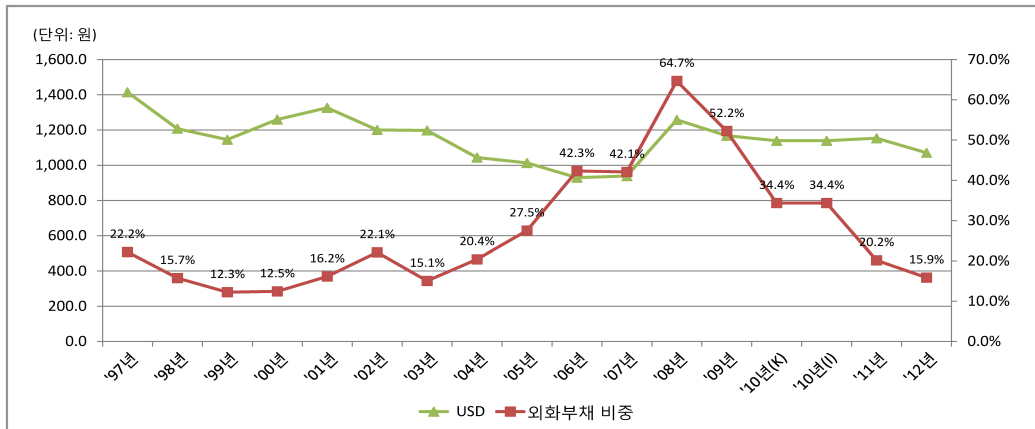
○ 상기 부채 중 7조 1천억원(2012년 말 기준)에 해당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부채는 친수구역 조성사업 개발이익을 통해 상환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관리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차입으로 상환할 계획임

[그림 Ⅲ-79] 한국수자원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2) 외화부채 비중

[그림 Ⅲ-80]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도별 외화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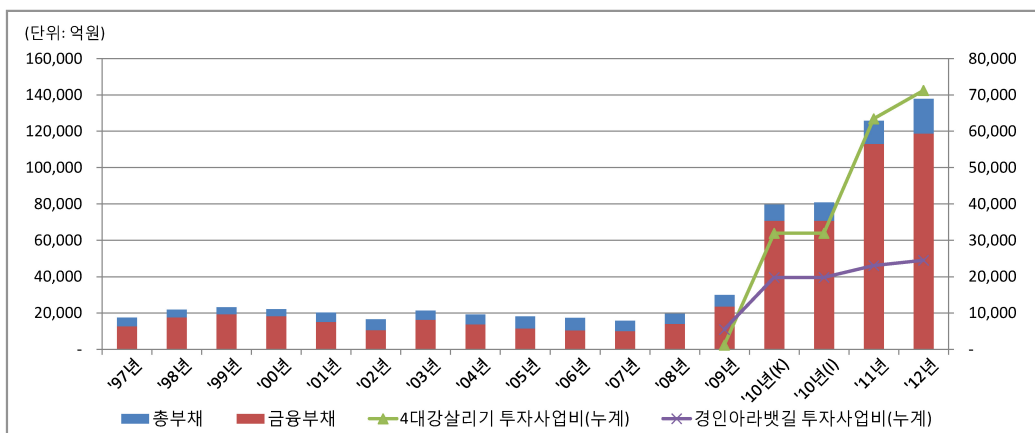


- 기관의 외화부채 비중은 2003년 이후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함
 - 2008년 외화사채가 1건 발행되어 일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율이 크게 증가하여 외화부채 환산평가에 따른 금액 조정 영향도 포함됨
 - 대부분은 미국달러화로 구성되며 일부 EUR, JPY, HKD가 포함됨

라.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1) 부채 발생 주요 원인

[그림 Ⅲ-81]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도별 금융부채 누계액과 주요 지표



- 기관의 부채는 200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주로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투자사업비에 기인함
 -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2008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사업추진이 확정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공공사업으로 결정되어 2009년 경인운하 사업이 기관의 재정사업으로 정부 방침이 결정됨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9~2014년으로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 시 발생하는 금융비용(이자비용)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음

- 경인 아라뱃길 사업
 -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투자사업비는 2009년 5천억원에서 2010년 1조 4천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점차 감소되어 2012년의 투자사업비는 4천억원임

- 4대강 살리기 사업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투자사업비는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7조 1천억원이 발생되었으며 2010년, 2011년은 각각 3조 1천억원, 3조 2천억원으로 투자사업비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투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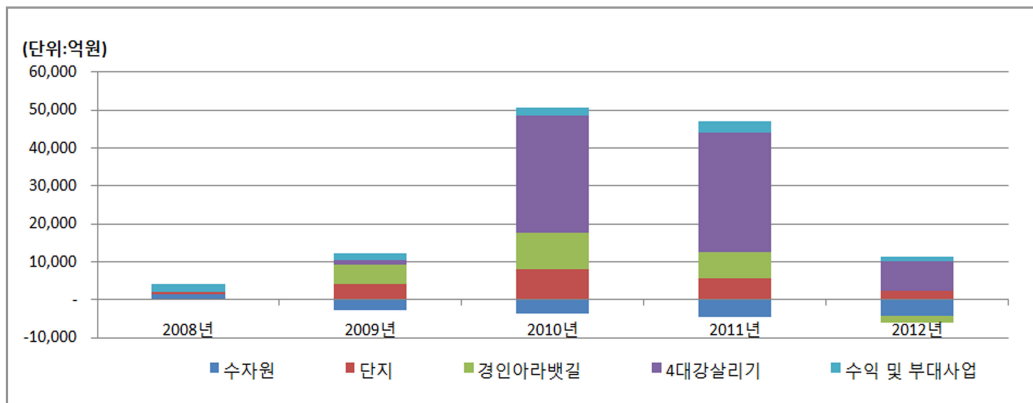
2) 사업별 금융부채²⁶⁾ 증가액²⁷⁾

〈표 Ⅲ-17〉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순증가액

(단위: 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년간 누계
수자원	1,306	-2,655	-3,688	-4,639	-4,423	-14,099
단지	839	4,080	7,966	5,461	2,190	20,536
경인 아라뱃길	0	5,266	9,783	7,123	-1,796	20,376
4대강 살리기	0	1,175	30,723	31,456	8,011	71,365
수익 및 부대사업	1,854	1,746	2,216	2,984	971	9,771
금융부채 순증가 합계	3,999	9,612	47,000	42,385	4,953	107,949

[그림 Ⅲ-82]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26)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은 기관이 각 사업별 자금유입 및 자금유출 규모를 기준으로 [부록 2]에서와 같은 일정한 가정하에 추정하였으므로 실제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산출되는 금융부채 증가액과 다를 수 있음

27)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은 추정 및 분석 편의상 최근 5개년 모두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반면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금액 검토 시 2011년 및 2012년의 경우 K-IFRS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였음(2010년의 경우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모두 표시). 이에 따라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 및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증감액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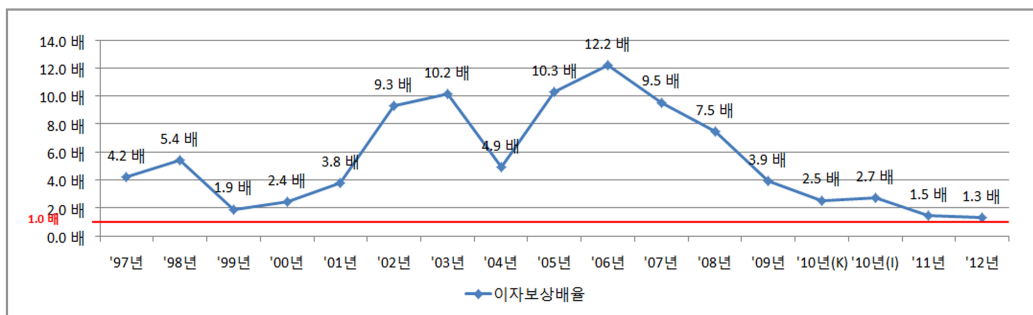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K+I)	2011년	2012년	누계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증감액(A)	3,994	9,574	47,016	42,404	5,674	108,662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계(B)	3,999	9,612	47,000	42,385	4,953	107,949
차이(A-B)	-5	-38	16	19	721	713

- 기관의 사업은 크게 수자원, 단지, 경인 아라뱃길, 4대강 살리기, 수익 및 부대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수자원사업은 수자원과 수도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금유입이 자금유출보다 많은 사업임. 수도사업은 2005년 이후 대규모 광역 상수도 건설사업이 점점 마무리되면서 전체 투자비는 감소하였으나, 기존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도 시설 대체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단지사업은 2000년대 들어 기존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체 투자비는 감소추세였으나, 2009년 이후 시화멀티테크, 송산그린시티, 구미확장단지 등 신규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금융부채가 크게 증가함
 - 2009년 이후 금융부채 증가의 대부분은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것임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10년 금융부채 순증가액의 65%, 2011년 74%를 차지하며,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합하면 금융부채 순증가액의 85% 이상을 차지함
 - 수익 및 부대사업은 신재생사업, 해외사업, 골재사업,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개발 투자비가 증가하고 있음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1) 이자 상환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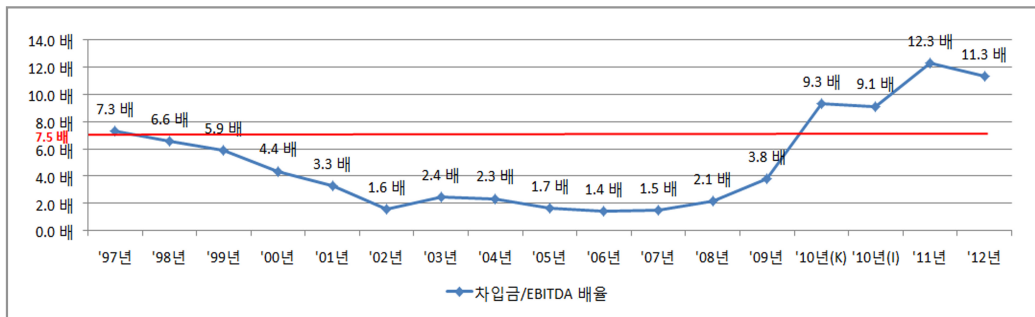
[그림 Ⅲ-83]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 기관의 이자보상배율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1.9배에서 10.2배에 이르기까지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04년 4.9배로 급격히 하락하고 2006년 최고점 이후 2012년 현재 1.3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함
 - 2003~2004년 이자비용은 증가하였으나 수력발전 및 단지분양사업 매출이익의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이자보상배율이 5.3배 감소함
 - 2008~2009년 이자비용은 33%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오히려 30% 감소하여 이자보상배율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9년 발전사업 매출은 감소하고 유무형 자산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 등의 원가는 증가하였기 때문임
 - 모든 연도별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자보상배율이 기준 1.0배보다 큼

2) 원금상환능력

[그림 Ⅲ-84]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도별 차입금 대 EBITDA 배율



- 기관의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은 2007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2년 약 11.3배로서 비교기준점 7.5배를 넘어서고 있음
 - 기관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설비투자 증가로 감가상각비 또한 증가하므로 EBITDA 자체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09년 이후 사업 투자 등으로 인해 부채 부담이 급증하면서 차입금 증가가 EBITDA 증가를 상회하면서 동 배율이 상승하게 됨

바.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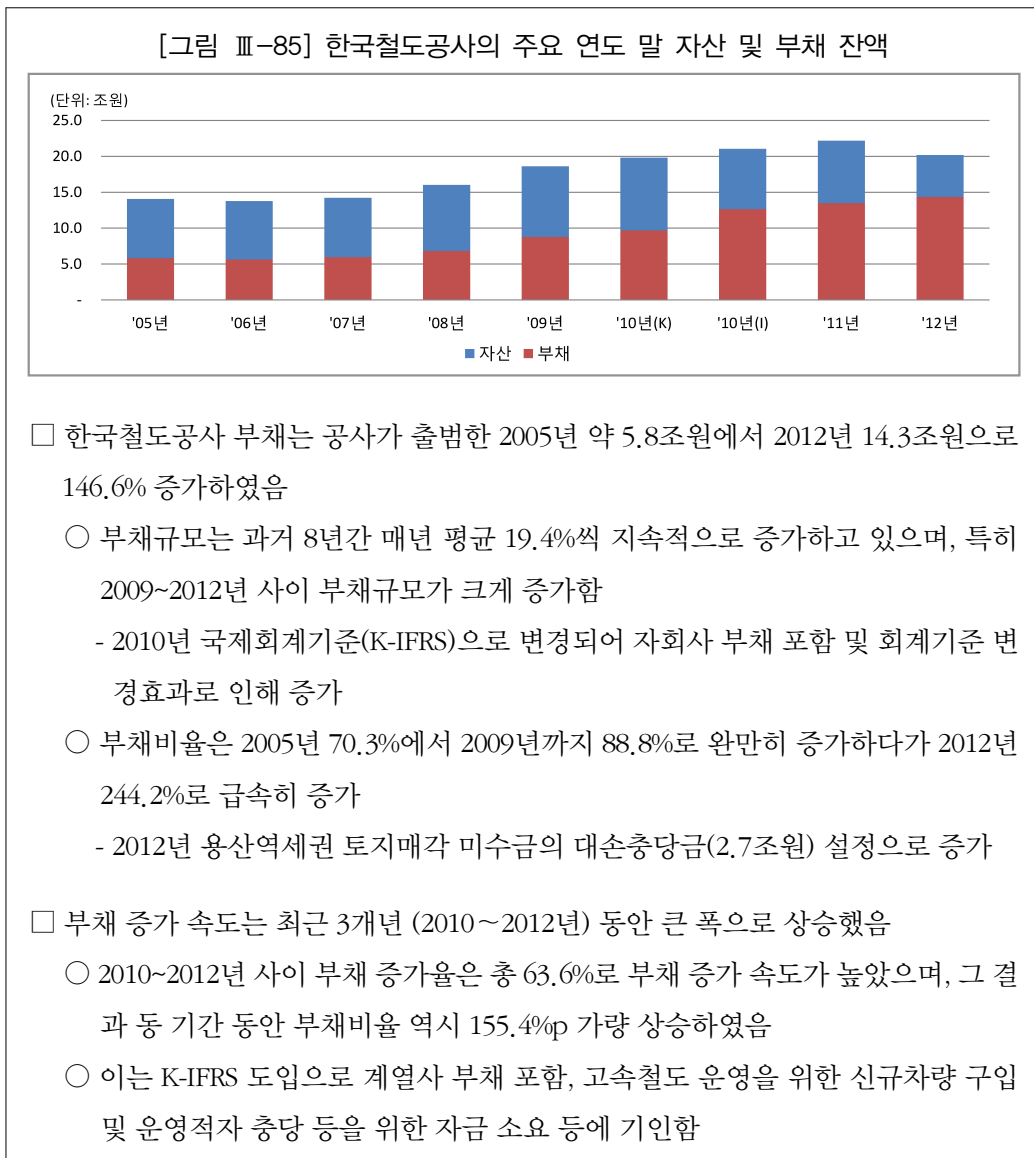
- 한국수자원공사 부채는 1997년 1조 8천억원에서 2012년 13조 8천억원으로 687.4%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1997년 62.4%에서 2012년 122.6%로 60.2%p 증가
 - 부채규모와 부채비율 모두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9~2010년간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함
 - 이는 주로 2009년 시작된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기인함

-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이자비용을 상회하여 이자상환은 가능하나, 차입금 상환을 위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친수구역조성사업, 단지사업, 경인 아라뱃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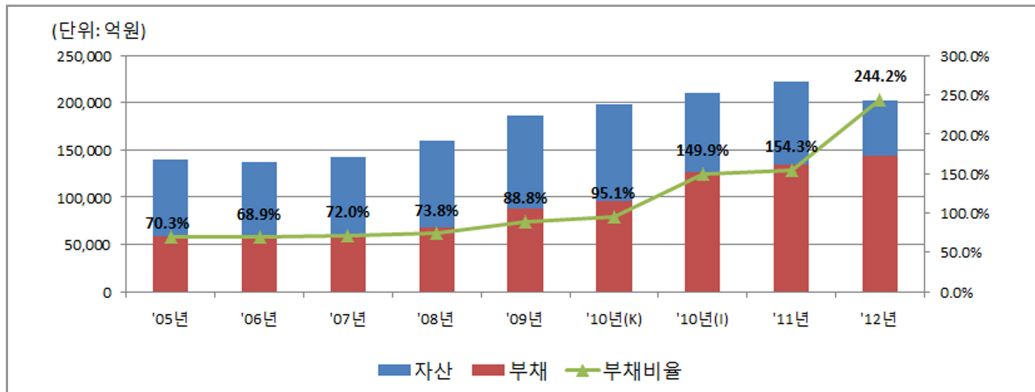
8. 한국철도공사

* 아래 한국철도공사 재무자료는 기본적으로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른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기간에는 K-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단, 2010년도는 비교목적상 K-GAAP 및 K-IFRS에 의한 수치를 모두 표시하였음.



가. 부채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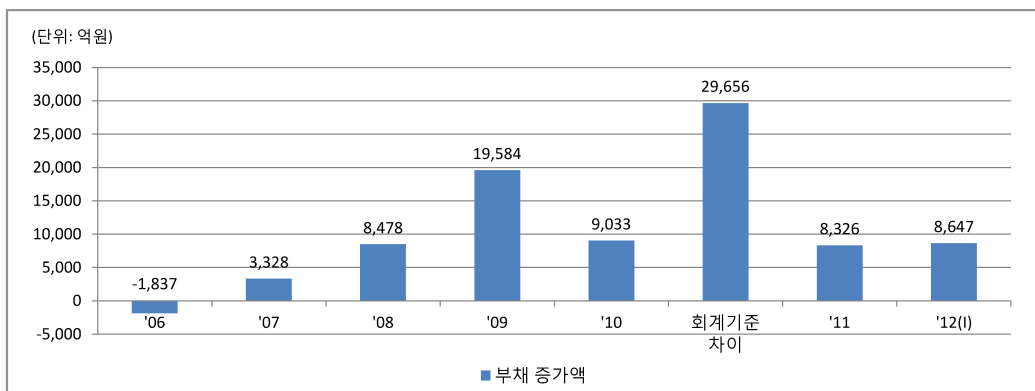
[그림 Ⅲ-86] 한국철도공사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 2012년 부채규모는 14조 3천억원으로 2005년 5조 8천억원에서 8.5조가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2005년 70.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244.2%로 증가
-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의 급속한 부채비율 증가는 회계기준 변경효과 및 그에 따른 연결 범위 변경, 용산 미수금 대손충당금 설정, 신규차량 구입 및 적자노선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충당 등으로 인한 결과임

나. 부채의 증가 속도

[그림 Ⅲ-87] 한국철도공사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 2005~2007년 사이에는 철도공사 출범 시 정부로부터 인수받은 운영부채 및 차입부채 원리금 상환 등의 부채 증가요인이 있었음
 - 2005년 공사 출범당시 철도청으로부터 약 4조 5천억원의 운영 부채를 인수받음
 - 2006년 일부 원리금 상환으로 차입부채 3천억원 감소

- 2007~2009년에는 공항철도 지분인수 및 정부의 경영개선 지원금 축소, 용산토지매각 미지급 법인세 발생 등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함
 - 2005년부터 정부로부터 매년 보조받아오던 경영개선 지원금이 2008년 3천억원 축소 되었고 영업 손실로 인한 운영자금 총당 등으로 추가 차입 9천억원이 발생하였음
 - 2009년 공항철도 지분인수(88.8%) 대금으로 1조 2천억원의 자금유출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용산 토지매각이 이루어지면서 미지급 법인세 4천억원이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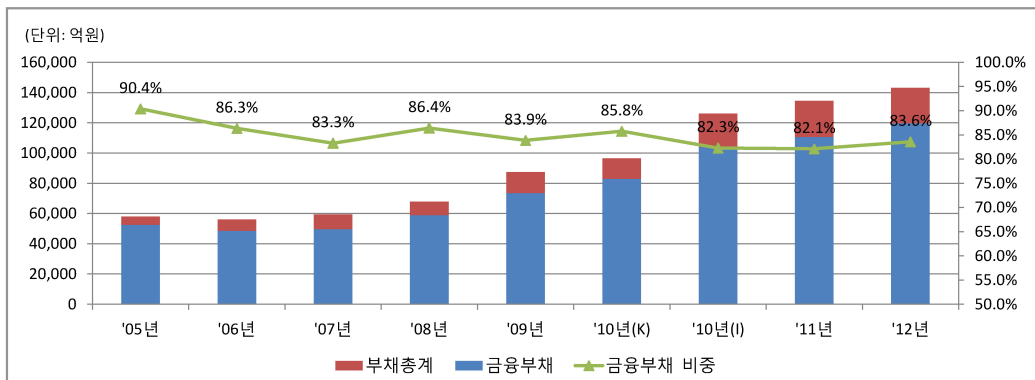
- 2009~2012년 사이에는 부채 총액 5조 6천억원이 증가하였음
 - 2010년 K-GAAP에서 K-IFRS로의 회계기준 전환으로 5천억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연결기준 적용에 따라 계열사 부채 2조 5천억원이 합산되었음
 -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영업 손실로 인한 운영자금 총당 및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 2조 1천억원을 추가 차입하였음
 - 그밖에 용산 랜드마크빌딩 매입(2011년) 자금으로 4천억원의 부채 증가와 미지급 법인세, 손해배상 총당금 등 기타부채 797억원이 증가하였음

다. 부채의 성격

1) 부채의 구성과 안전성

가)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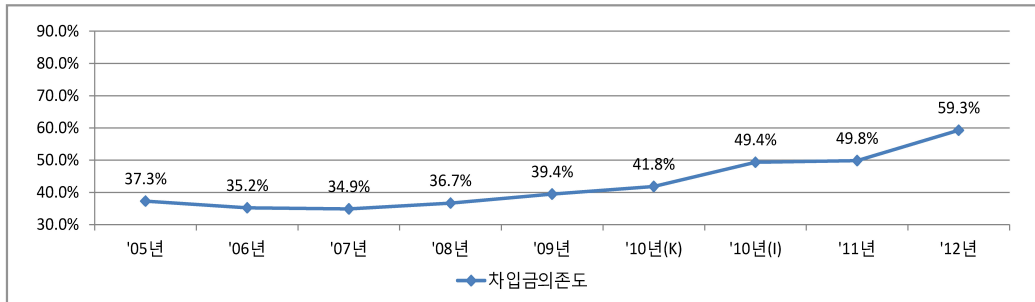
[그림 Ⅲ-88] 한국철도공사의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비중



- 금융부채 비중은 2005년 공사 출범 시의 90.4%에 비해 완만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2005~2012년 총부채는 8조 5천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금융부채는 6조 7천억원으로 전체의 78.8%가량을 차지함
 - 전반적인 금융부채의 증가 속도는 다소 주춤한 반면 비금융성 부채의 비중이 증가하여 금융부채 비중이 감소

나) 차입금의존도(금융부채/자산)

[그림 Ⅲ-89] 한국철도공사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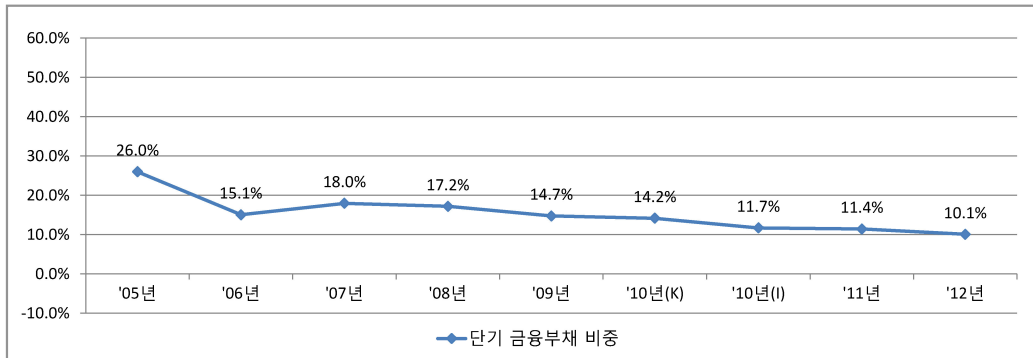


- 차입금의존도는 2009년 이전 30%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 증가 폭이 확대되는 추세임
 - 2010년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계열사²⁸⁾들의 자산 및 부채가 포함되었고,
 - 2012년 용산역세권 토지매각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설정(2조 7천억원)으로 자산총액이 감소하여 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함
 - 그밖에 고속철도 수요 증가로 인해 차량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 및 적자노선 운영, PSO 미보상액 충당 등을 위한 사채발행 증가 역시 차입금의존도의 상승으로 귀결됨

28)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코레일공항철도

다) 단기 금융부채 비중

[그림 Ⅲ-90] 한국철도공사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 단기 금융부채 비중은 2005년 26.0% 수준에서 200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2년 10.1%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금융부채 중 차입금은 장기차입금으로만 이뤄져 있으며 금융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채는 금액 가중평균 만기 5.0년 수준인 중·장기성 사채로 주로 구성되어 있음
- 2012년 현재 단기 금융부채는 만기가 도래해 발생하는 유동성 대체로 인한 부채 및 자회사의 단기 차입금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라)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기/장기 부채

〈표 Ⅲ-18〉 한국철도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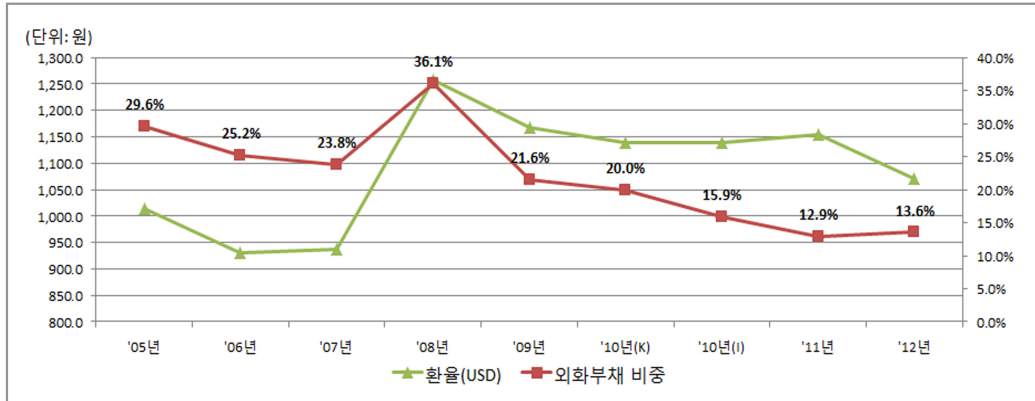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계
금융부채						
- 단기차입금	93	30	0	0	0	123
- 장기차입금	1,797	1,098	1,008	987	22,125	27,015
- 사채	10,127	12,128	11,842	12,300	46,219	92,616
합계	12,016	13,256	12,850	13,287	68,344	119,754

- 금융부채 만기 도래에 따라 금융부채의 약 57.1%가 2017년 이후에 상환될 예정이며, 총금융부채 중 약 10.0%가 2013년 상환될 예정임²⁹⁾

29) 연도별 차입금 및 사채 상환금액은 현재가치할인차입금이 고려되지 않은 금액임

2) 외화부채 비중

[그림 Ⅲ-91] 한국철도공사의 연도별 외화 금융부채 비중



- 외화부채비율은 2005년 29.6%에서 2008년 36.1%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여 2012년 13.6% 수준임
- 2008년 외환 위기로 인해 5년 만기 5,000만달러의 해외채를 발행함에 따라 외화부채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 2차례에 걸쳐 해외채를 추가로 발행하였음
- 2008년 조달 금리를 절감하기 위해 차입선 다변화를 통해 해외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외화 금융부채 비중이 증가
- 2010년과 2011년에 국내 금융시장의 외화 유동성 개선으로 국내에서 총 2억 8천만 달러의 외화 채권을 발행
- 외화부채의 약 80%는 미국달러화, 나머지 20%는 스위스프랑화 부채로 구성

라.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1) 부채 발생 주요 원인

- 철도공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 2005년 창립된 이후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적자가 발생. 2005년 이후 적자 폭이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 감소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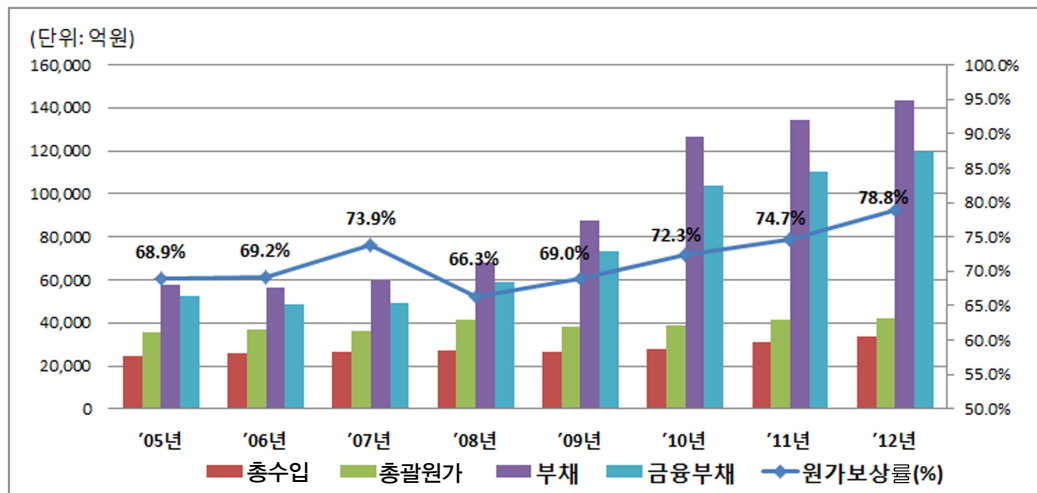
〈표 Ⅲ-19〉 한국철도공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위: 억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매출액	34,029	35,302	35,703	36,314	35,288	45,447	46,318	48,153
영업이익	-5,373	-5,337	-6,414	-7,374	-6,861	-4,481	-3,640	-2,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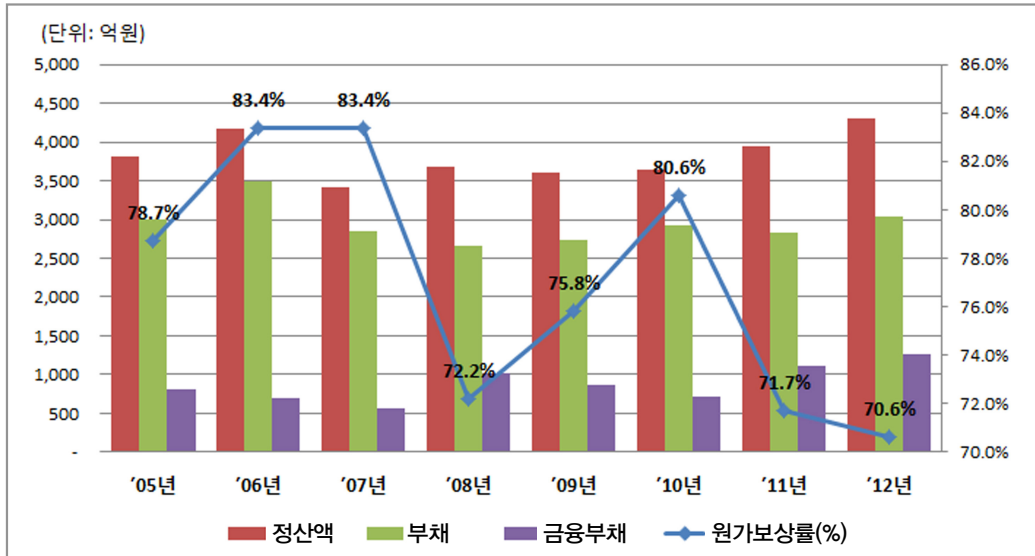
- 영업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철도공사의 수익구조에 있음
- 적자노선 운영으로 인한 낮은 수익성이 부채 누적의 주요한 원인
 -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노선이 적자
 - 비용 측면에서는 인건비와 선로사용료의 비율이 매우 높음
 - 철도요금 총괄원가에서 인건비는 영업비용의 33.6%, 선로사용료는 24.3%를 차지함(2012년 기준)

[그림 Ⅲ-92] 한국철도공사의 총수입 대비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 철도운임이 철도운영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운영적자가 누적되고 있음
- 2005년 이후 물가는 27.0% 상승하였으나, 동 기간 여객열차운임은 17.2%, 광역철도운임은 21.3%, 물류수송운임은 12.5% 상승
 - 2005~2012년 철도요금의 평균 원가보상률은 71.7%이고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2012년 기준 78.8% 수준임

[그림 Ⅲ-93] 한국철도공사의 PSO 보상률 현황



□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손실을 보상해주고 있으나, PSO 비용 정산액과 정부의 보상액 간에 차이가 발생. 정부의 PSO 보상³⁰⁾이 정산액 대비 부족하여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 매년 실제 정산액과 보상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5~2012년간 총미보 상액은 7,064억원으로 8년간 평균 PSO 보상률은 77.1%에 그침

○ 2010년부터 PSO 보상률은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이며 2012년 70.6%로 하락

□ 철도공사는 인건비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 철도요금 원가 산정에 있어서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2008년에는 인건비가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8%였으며 점차 감소하여 2012년에는 33.6%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영업비용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임

○ 임금은 2009년과 2010년 동결되었으며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4.1%, 2.5%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음

30)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제33조에 근거하여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의 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상(벽지노선 손실보상, 공공운임 감면보상, 특수목적사업비 보상)

- 알리오 공시 기준 기관의 현원은 2008년 3만 900여 명에서 2012년 말 2만 8,700여 명으로 감소함

〈표 Ⅲ-20〉 철도요금 원가의 영업비용과 인건비

(단위: 억원,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영업비용	19,774	19,194	19,539	20,231	20,839
인건비	7,875	7,109	6,942	7,006	6,993
인건비/영업비용 비중	39.8	37.0	35.5	34.6	33.6

자료: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철도요금 원가정보 공개

- 수송량 증대를 위한 신규 철도차량 투자로 인해 부채가 증가
- 철도망 확충에 따른 수송력 증대를 위하여 신규 철도차량 구입 및 개량비로 2005년 공사전환 이후 2조 5천억원 투자

〈표 Ⅲ-21〉 한국철도공사의 주요 부채증감지표

(단위: 조원)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철도차량 구입비	0.1	0.2	0.1	0.2	0.5	0.5	0.4	0.5
인천공항철도 인수	-	-	-	-	1.2	-	-	-
회계기준 변경 및 종속회사 부채	-	-	-	-	-	-	3.2	0.1

- 정부의 인천공항철도 합리화 대책에 따라 2009년 공항철도 지분(88%)을 인수함에 따라 1조 2천억원 증가
- K-IFRS로의 회계기준 변경³¹⁾으로 인해 2010년 3조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2011~2012년 계열사 부채(2천억원) 반영으로 총 3조 2천억원의 부채가 증가함

31) 보험수리적가정을 적용한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및 연결재무제표 등

〈표 Ⅲ-22〉 한국철도공사의 K-IFRS 전환효과 및 계열사부채

(단위: 억원)

구 분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K-IFRS 전환효과 (‘10년)	경영평가성과급 및 연차휴가수당	4,766	3,027	-	
	퇴직급여충당부채		669	-	
	기타(마일리지 등)		1,070	-	
	계열사 부채 합산	24,890	24,890	-	
	소계	29,656	29,656	-	
계열사 부채	계열사부채 증가액	2,207	-	1,604	603
합 계		31,863	29,656	1,604	603

주: 2011년 K-IFRS 전환효과 및 계열사 부채는 2010년 개시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2) 사업별 금융부채³²⁾ 증가액³³⁾

〈표 Ⅲ-23〉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별 부채 증가액

(단위: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년간 누계
운송사업	9,478	4,485	9,684	7,049	10,120	40,816
수탁사업	688	-583	435	-458	460	542
인천공항 철도인수	0	12,057	562	354	101	13,074
다원사업	-971	-1,276	-1,283	-1,764	-1,471	-6,765
금융부채 순증가 합계	9,195	14,683	9,399	5,180	9,210	47,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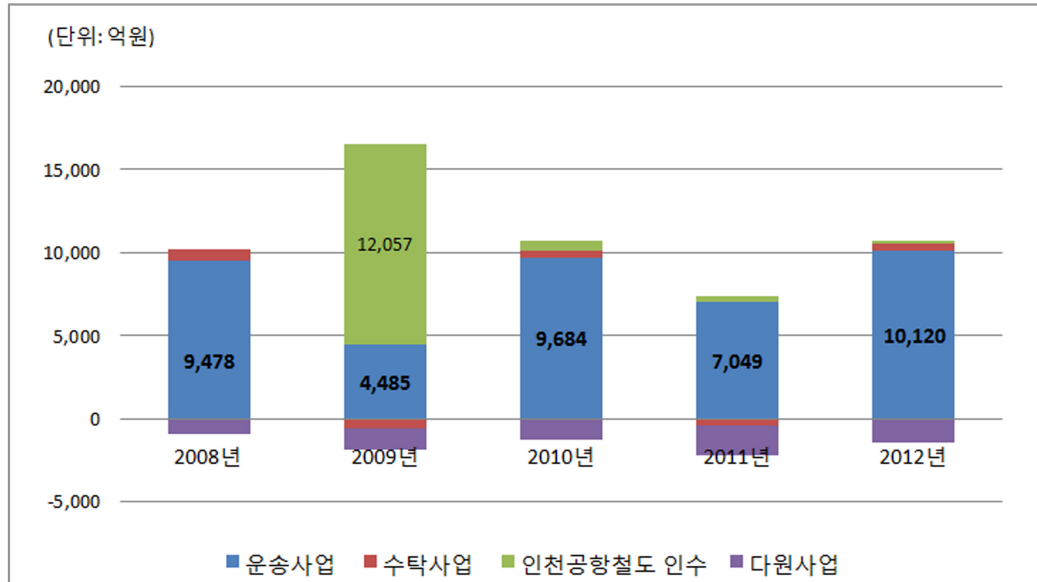
32)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은 기관이 각 사업별 자금유입 및 자금유출 규모를 기준으로 [부록 2]에서와 같은 일정한 가정하에 추정하였으므로 실제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산출되는 금융부채 증가액과 다를 수 있음

33)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은 추정 및 분석 편의상 최근 5개년 모두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반면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금액 검토시 2011년 및 2012년의 경우 K-IFRS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였음(2010년의 경우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모두 표시). 이에 따라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 및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증감액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 2010년 코레일공항철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말 부채총계는 약 2조 2천억원임

(단위: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누계
재무제표상금융부채 증감액(A)	9,195	14,683	30,472	6,625	9,185	70,159
사업별금융부채 증감액 계(B)	9,195	14,683	9,399	5,180	9,210	47,667
차이(A-B)	0	0	21,073	1,445	-25	22,492

[그림 Ⅲ-94]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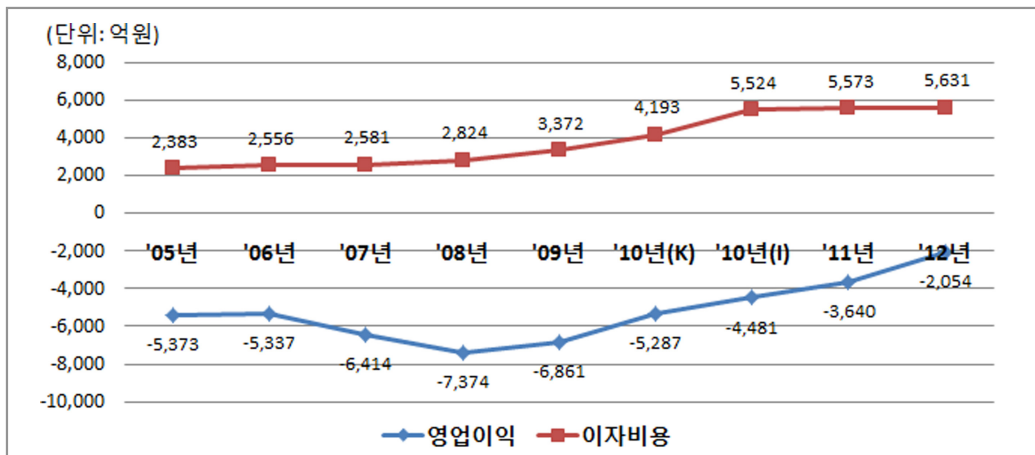


- 공사의 사업 중 부채 발생에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사업은 운송사업으로서 매년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음
 - 2008년부터 매해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운송사업에서만 1조원이 넘는 자금 순차입이 이뤄졌음
- 인천공항철도 인수 역시 한국철도공사의 부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음
 - 정부의 인천공항철도 합리화 대책에 의거 2009년 공항철도 지분(88%)을 인수함에 따라 1조 2천억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지분 인수 이후에도 이자비용으로 500억 원대의 자금유출이 발생
- 수익 및 부대사업의 일환인 다원사업에서는 매년 2009년부터 매년 천억원대의 자금 유입이 발생하고 있음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1) 이자 상환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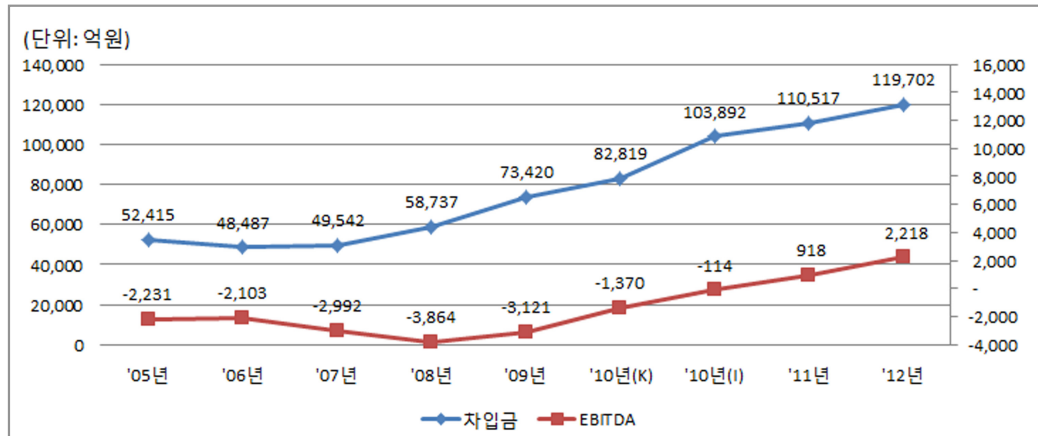
[그림 Ⅲ-95] 한국철도공사의 연도별 영업이익 및 이자비용



- 공사의 이자보상배율은 공사 출범 이래 줄곧 음수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까지 악화되었으나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음
- 영업이익은 줄곧 음수(손실)를 기록하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음
- 차입부채규모의 증가로 인해 2007년 이후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2008년 이후 영업적자 폭이 감소되면서 이자보상배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됨
- 최근 3년간 이자비용은 5천억원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영업손실은 최근 5년간 6천억원대에서 2천억원대로 줄어 이자보상배율이 증가하였음

2) 원금 상환능력

[그림 Ⅲ-96] 한국철도공사의 연도별 차입금 대 EBITDA 배율



-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은 2011년 이후 최초로 양(+)으로 전환되었음
 - 차입부채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EBITDA 역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음
 - 2005년에서 2010년까지는 EBITDA 배율이 음(-)이었으므로 분석상 유의미한 수치가 아님
 - 2011년 120.4배에서 2012년 54배로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이 대폭 개선되어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로서 차입금 상환 및 EBITDA 증대가 필요함

바. 총평

- 한국철도공사는 영업 손실의 누적효과로 인해 부채가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2010년 이후 계열사 부채의 포함으로 인해 총부채규모가 증가함
 - 부채의 규모는 14조 3천억원, 금융부채는 11조 9천억원에 달해 부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며 구조적 영업환경 개선으로 영업이익을 통한 부채의 상환이 요구됨
 - 누적부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차입처 다변화 및 최적 자본구

조(Optimal capital structure) 재설계 등을 통한 자금조달비용 최소화로 추가적인 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함

- 낮은 원가·PSO보상률은 운영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정부와 운영주체 간 수익 구조 및 이해관계 조정을 통하여 근본적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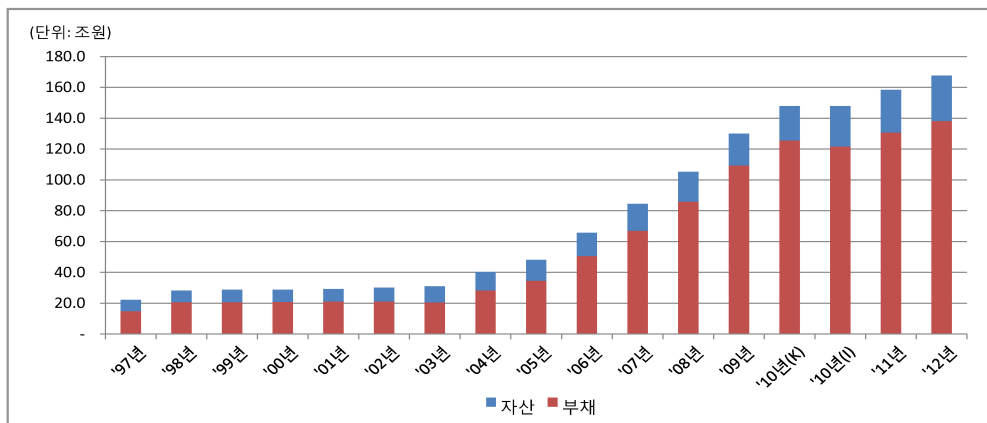
- 기관 재무구조의 취약점은 지속적 영업손실로 인한 부채 상환능력 부족에 있음
 - 이자보상배율은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배율로 인하여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
 - EBITDA지수가 최근 들어 양수로 전환된 것은 사업지속성에 최소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나 철도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커 상대적으로 타 기관과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EBITDA지수가 양수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영업이익 발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야 함
 - EBITDA지수 개선을 위해 운영비용 최소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 향후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후처리와 수서발 고속철도운영 자회사 설립에 따른 기관의 재무 여건 추이를 고려해야 함

- 부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경영 효율화 필요
 - 공사는 인력 효율화를 통해 인건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추어갈 필요
 - 적자노선 중 일부는 폐지·축소를 검토하고 남은 노선에 대해서는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검토할 필요

9. 한국토지주택공사

* 아래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자료는 기본적으로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른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기간에는 K-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단, 2010년도는 비교목적상 K-GAAP 및 K-IFRS에 의한 수치를 모두 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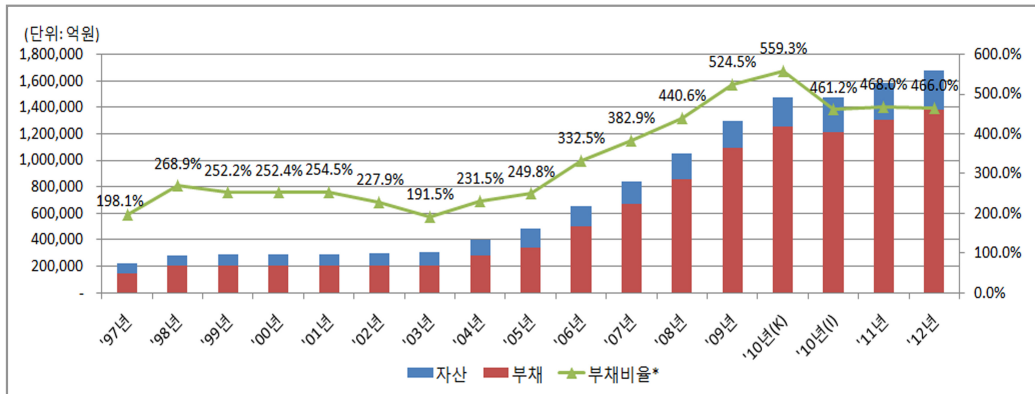
[그림 Ⅲ-9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7~'12)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은 1997년 22.2조원에서 2012년 167.8조원으로 657.0%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997년 14.7조원에서 2012년 138.1조원으로 838.3% 증가
 - 부채규모는 과거 15년간 연평균 17.2%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3~2007년간 부채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함
 - 특히 2005~2006년 자산과 부채 증가율이 가장 큼
- 부채 증가 속도는 2003~2007년 동안 두드러지게 상승하였음
 - 2003~2007년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27.4%씩 총 220.3% 증가하여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높았음
- 이는 임대주택의 대규모 건설 및 운영, 세종시 이전 및 혁신도시 관련으로 인하여 부채규모 증가 속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추진으로 인하여 꾸준히 부채규모가 증가함

가. 부채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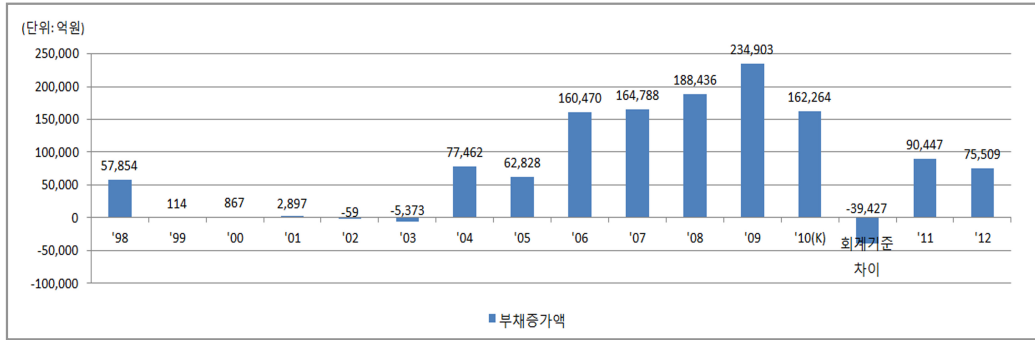
[그림 Ⅲ-98]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 2012년 부채규모는 138조 1천억원으로 1997년 14조 7천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1997년 198.1%에서 2012년 466%로 267.9%p 증가
-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 소폭 감소되어 이후 비슷하게 유지되는 수준이며, 특히 2005~2006년 사이 부채 증가율이 가장 큼
 - 세종·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시작되면서 2005년 이후 자금조달을 위해 차입금 및 사채발행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2009년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인하여 여전히 부채 규모 증가 추세
 - 2010년 부채비율은 전기 대비 34.8%p 증가하고 K-IFRS 도입 영향으로 98.1%p 감소하여 2009년 부채비율 대비 총 63.3%p 감소함. 2010년 K-IFRS 도입 영향으로 토지 판매 수익인식기준을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변경하고 임대주택 토지를 공정 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부채규모는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

나. 부채의 증가 속도

[그림 Ⅲ-99]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 1997~2002년 사이에는 1998년을 제외하고는 부채 증가 속도가 완만하고 1998년 이후 부채 증가액과 부채 증가율 모두 감소함
 - 1997~1998년 부채 증가는 IMF 외환위기에 따른 비정상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후 부채 증가액 및 부채 증가율이 크게 감소함

- 2003~2007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2006년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사업,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세종·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시작되면서 부채가 크게 증가
 -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건설비의 70% 이상을 기금융자금, 회사채 발행 등 차입금으로 조달하여 부채가 증가하는 반면, 오랜 기간에 걸쳐 투자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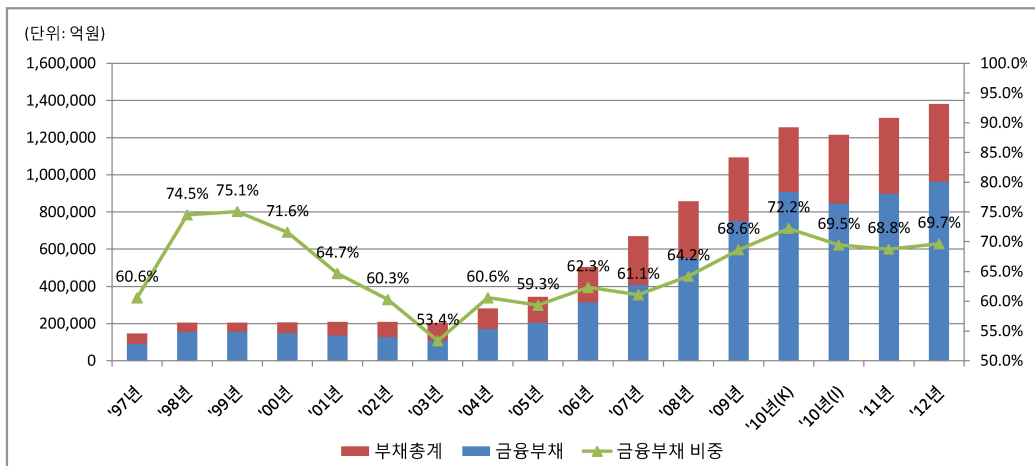
- 2008년 이후 부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부채규모 증가액은 2009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2009년 부채 증가액이 가장 두드러지며, 2010년 이후 부채 증가규모와 증가율이 다시 누그러지는 추세임
 -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 2009년 시작되면서 수입 없이 지출만 발생하고 이에 대한 투자사업비를 차입금 92%, 분양선수금 등 8%로 조달하여 사업비를 자체 조달함에 따라 차입금 증가로 부채가 크게 증가

다. 부채의 성격

1) 부채의 구성과 안전성

가)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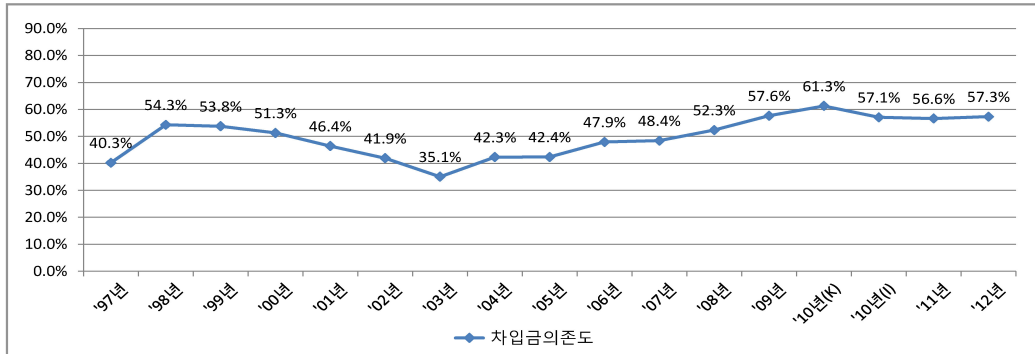
[그림 Ⅲ-10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비중



- 기관의 금융부채 비중은 1999~2003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후 소폭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 기관의 금융부채 비중은 50~75% 범위구간에 있으며 평균 66%로 부채총계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높지 않은 편임
- 금융부채 이외의 기타 부채는 1997년 5조 8천억원에서 2012년 41조 9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2년 임대보증금 및 보조금 19조 4천억원, 선수금 9조 3천억원, 원가충당부채 7조 5천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토지·주택판매대금의 분양선수금, 준공지구 추가공사비에 대한 원가충당부채가 크게 증가함

나) 차입금의존도(금융부채/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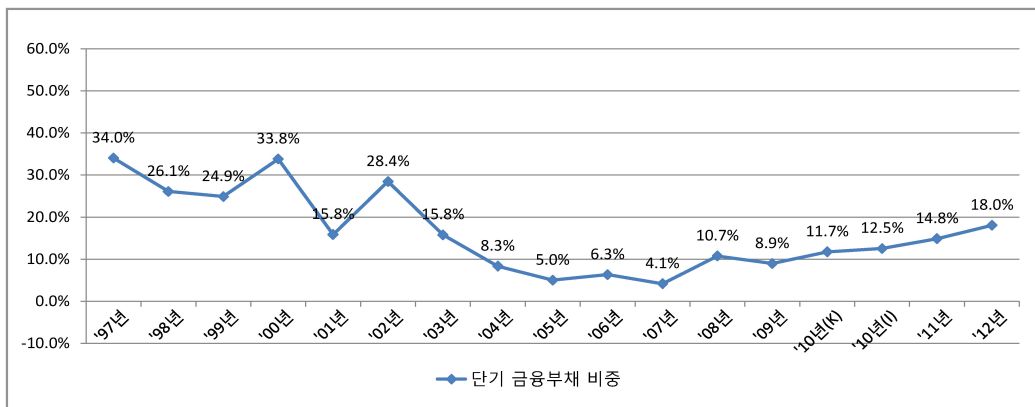
[그림 Ⅲ-10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 기관의 차입금의존도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03년 이후 증가 추세로 돌아선 뒤 2010년 K-IFRS 도입 이후 소폭 감소한 후 57%를 유지하고 있음
- 차입금의존도는 평균 50%이며, 2008년 이후 50%를 상회하고 있음
- 2010년 K-IFRS 적용에 의해 자산 장부가액이 증가(임대주택 토지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면서 차입금의존도가 낮아짐

다) 단기 금융부채 비중

[그림 Ⅲ-10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 기관의 단기 금융부채 비중은 1997년 34%에서 다소 하락하여 2012년 18% 수준이며, 2003년 이후 20%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기관의 단기 금융부채 비중은 감소, 증가를 반복하다가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2009년 보금자리 사업과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사채발행 증가 추세와 동일
-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차입금과 토지주택채권은 40년 만기이며, 대부분은 10년 이내 만기 수준으로 차입 및 사채가 발행되고 있음

라)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기/장기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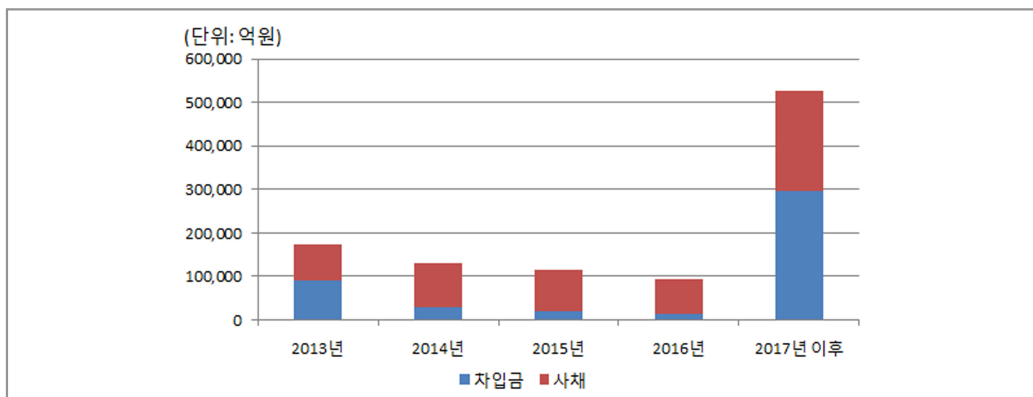
〈표 Ⅲ-2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계
금융부채						
- 차입금	90,037	29,974	19,121	14,469	295,615	449,216
- 사 채	83,966	99,255	97,296	78,194	231,144	589,855
합계	174,003	129,229	116,417	92,663	526,759	1,039,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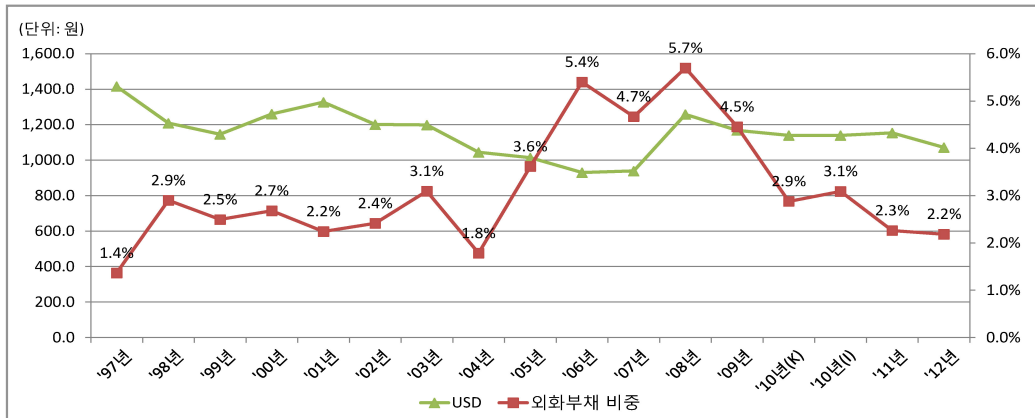
- 금융부채 만기 도래에 따라 금융부채의 약 50.7%가 2017년 이후에 상환될 예정이며, 103조 9천억원 중 약 16.7%가 2013년 상환될 예정임
- 차입금 및 사채는 자회사 지분, 지역난방시설, 사옥 등 처분이 가능한 자산 매각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상환할 계획임
- 상환계획 합계 금액 103조 9천억원과 재무제표의 금융부채 금액 96조 2천억원과의 차이는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차입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인한 영향임

[그림 Ⅲ-10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2) 외화부채 비중

[그림 Ⅲ-10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외화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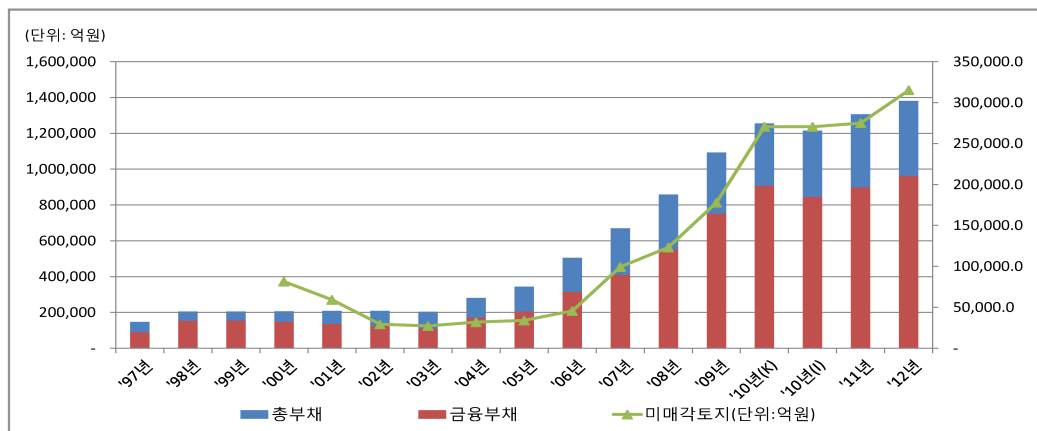


- 기관의 외화부채 비율은 2008년 최고점을 기록하고 이후 2~3%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외화부채 비율은 6% 미만으로 외화부채 분석이 유의하지 않음
- 2008년은 환율이 크게 증가하여 외화부채 환산평가에 따른 금액 조정 영향도 포함됨
- 대부분은 미국달러화로 구성되며 일부 캐나다달러가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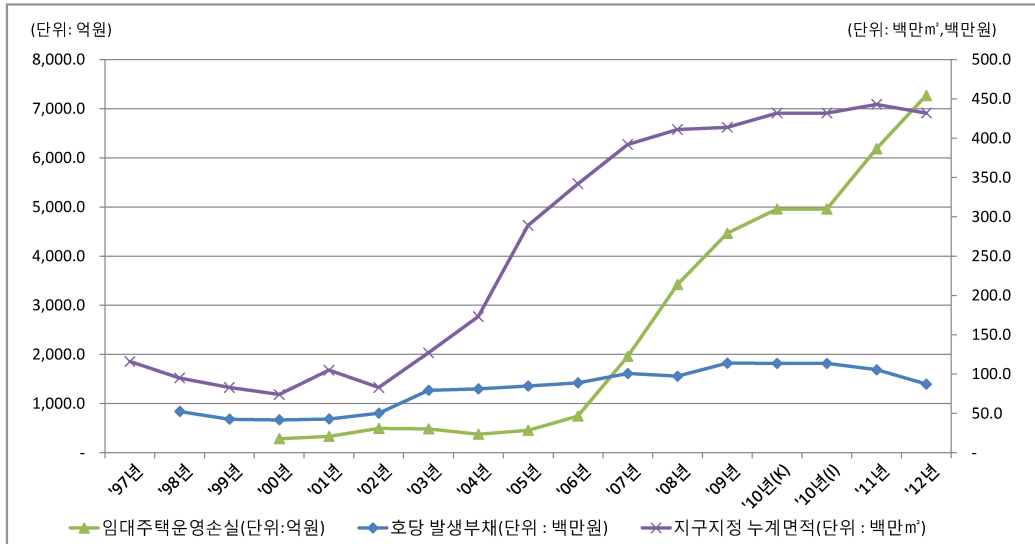
라.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1) 부채 발생 주요 원인

[그림 Ⅲ-105]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금융부채 누계액과 주요 지표(1)



[그림 Ⅲ-10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금융부채 누계액과 주요 지표(2)



□ 기관의 부채 증가를 설명하는 주요 지표는 미매각 토지, 임대주택운영손실, 임대주택 호당 발생부채, 지구지정 누계면적임

□ 미매각토지

- 2006년까지 연평균 5조원 미만 수준으로 유지되었던 미매각 토지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2년 말 미매각 토지가 31조 5천억원으로 기투입한 사업비 회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금융부채 증가

□ 임대주택 운영손실 및 호당 발생부채

- 임대주택운영손실은 임대기간 동안 임대수익과 운영비용 차이에 의한 손실임
 -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시중 임대료 대비 국민임대주택 60%, 영구임대주택 32% 수준) 책정으로 임대수익은 적은 반면, 운영물량 증가에 따른 운영비용은 누증되어 금융부채 증가
- 임대주택 호당 발생부채는 꾸준히 증가, 또는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섬
 - 2000년 임대주택 보유물량은 22만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62만 9천 호에 이르고 있음

□ 지정지구 누계면적

○ 신도시, 택지개발, 보금자리주택, 산업단지 등 사업지구 지정물량

- 국민임대 100만호, 신도시, 세종·혁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지정지구의 물량급증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금융부채 증가

2) 사업별 금융부채³⁴⁾ 증가액³⁵⁾

〈표 Ⅲ-25〉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순증가액

(단위: 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년간 누계
보금자리	13,505	18,693	39,905	42,880	34,663	149,646
산업단지 등	-6,620	1,070	14,714	9,975	8,865	28,004
주택임대	41,543	46,685	622	12,510	38,027	139,387
세종시·혁신도시	19,960	6,489	13,001	237	-12,135	27,552
신도시·택지	29,285	64,626	50,371	-3,692	2,511	143,101
기타	44,127	61,685	-24,223	-8,373	-7,586	65,630
금융부채 순증가합계	141,800	199,248	94,390	53,537	64,345	553,320

주: 위 자료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상세한 구분회계 작업이 완료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 기관의 사업은 크게 보금자리, 산업단지, 주택임대, 세종시·혁신도시, 신도시·택지, 기타로 분류할 수 있음

34)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은 기관이 각 사업별 자금유입 및 자금유출 규모를 기준으로 [부록 2]에서와 같은 일정한 가정하에 추정하였으므로 실제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산출되는 금융부채 증가액과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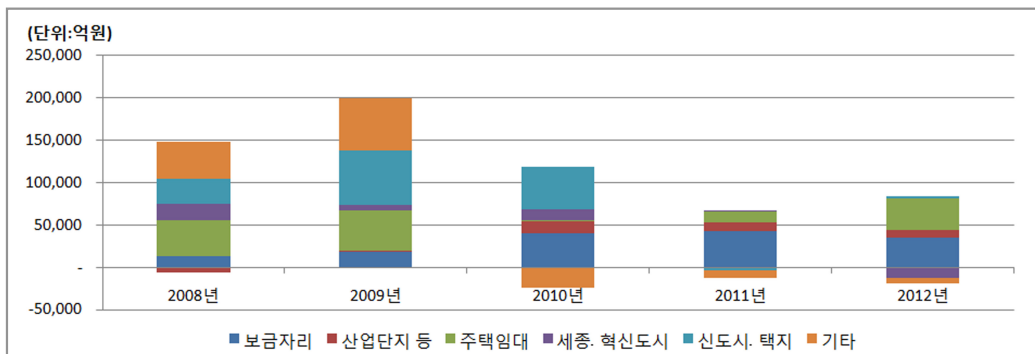
35)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은 추정 및 분석 편의상 최근 5개년 모두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반면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금액 검토 시 2011년 및 2012년의 경우 K-IFRS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였음(2010년의 경우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모두 표시). 이에 따라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 및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증감액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

(단위: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K+I)	2011년	2012년	누계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증감액(A)	141,800	199,248	94,391	53,537	64,346	553,322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 계(B)	141,800	199,248	94,390	53,537	64,345	553,320
차이(A-B)	0	0	1	0	1	2

-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2009년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8년까지 총 150만호를 공급하도록 함
- 산업단지 등에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주택임대사업은 준공 및 건설 중인 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방안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하는 사업임
- 세종시·혁신도시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됨
- 신도시·택지사업 중 제1기 신도시(5개)사업은 완료되었고, 제2기 신도시(12개)의 고덕 국제화, 인천 김단은 아직 분양 시작 전으로 사업이 진행 중임
- 기타사업은 재개발, 주거지역, 미군기지 이전, 종전 부동산, 기관용지, 주거환경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 Ⅲ-10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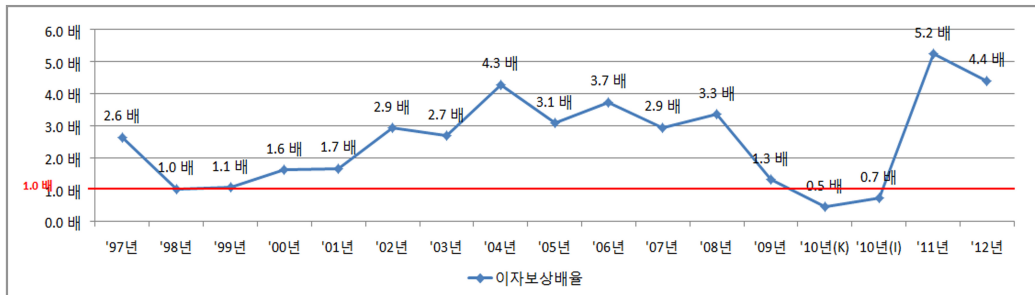


- 금융부채 순증가액은 2009~2010년은 신도시·택지사업, 2011년은 보금자리사업, 2012년은 주택임대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주택임대사업은 소요재원의 21%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으며, 그 외 부족자금과 2009년 시작된 보금자리사업 투자비를 자체(외부) 조달하게 되어 차입금 및 사채 발행 증가로 2009년 이후 금융부채규모가 크게 증가
 - 세종시·혁신도시사업은 2008년 금융부채 순증감액이 가장 크고, 2012년 현재 기 공급 착수된 지구에서 대금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금 유입이 자금 유출을 상회함
 - 신도시·택지 사업은 특히 2009년 금융부채 순차입액이 크게 증가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1) 이자 상환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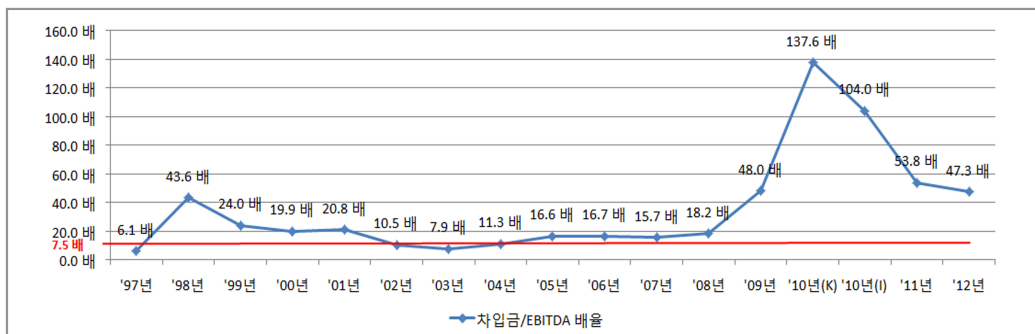
[그림 Ⅲ-108]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 기관의 이자보상배율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는 1.0배에서 4.3배에 이르기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증감을 반복하다 2010년 최저점 이후, 2011년 급격히 증가함
- 2010년 K-IFRS가 도입되면서 이자비용 차입원가 자본화 금액이 이자비용에서 제외되어 전기 대비 이자비용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동 기간 이익률이 높은 수도권 토지의 매출 해약이 급증하여 영업이익이 약 1조원 감소하게 되어 이자보상배율이 급격히 악화됨
- 2010년 이후 금융부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이 감소한 것은 자본화 이자비용이 제외되었기 때문임
- 전반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은 2010년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임

2) 원금 상환능력

[그림 Ⅲ-109]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도별 차입금 대 EBITDA 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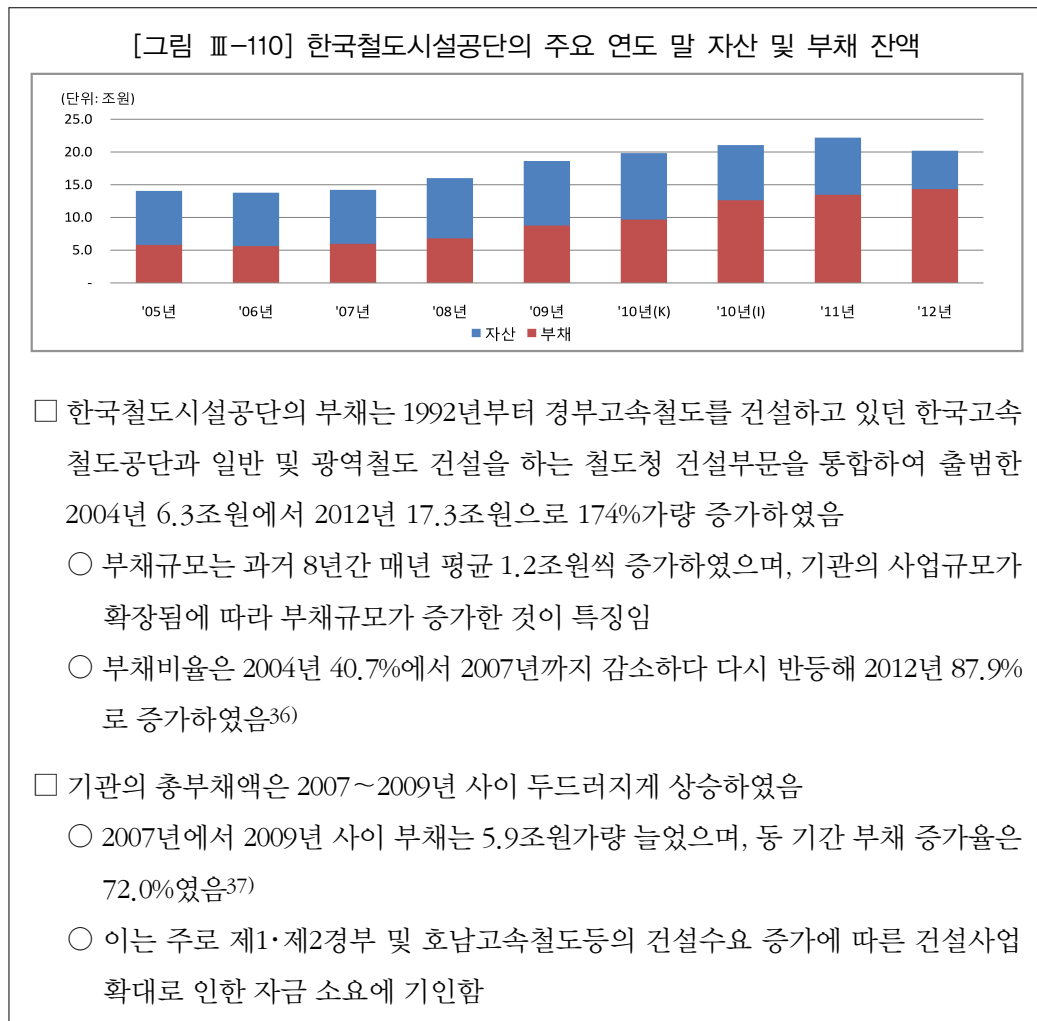
- 기관의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은 2008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0년 137.6배로 정점이며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비교기준점 7.5배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2009년 보금자리 사업과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사채발행이 급격히 증가하여 부채 부담이 급증하면서 금융부채가 EBITDA를 상회하여 동 배율이 상승하게 됨
 -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업이익을 통한 차입금 상환능력은 다소 떨어짐

바. 총평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는 1997년 14조 7천억원에서 2012년 138조 1천억원으로 838%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1997년 198%에서 2012년 466%로 268%p 증가
 - 부채 증가 속도는 2003~2007년 동안 두드러지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2기 신도시, 세종시 이전 및 혁신도시 관련으로 인하여 부채규모 증가 속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하여 꾸준히 부채규모가 증가함
- 차입금의존도는 평균 50%이며, 2008년 이후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외화부채비율은 6% 미만으로 외화부채 분석이 유의하지 않음
-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이자비용을 상회하여 이자상환은 가능하나, 차입금 상환을 위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 주요 부채 유발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10. 한국철도시설공단

* 아래 한국철도시설공단 재무자료는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른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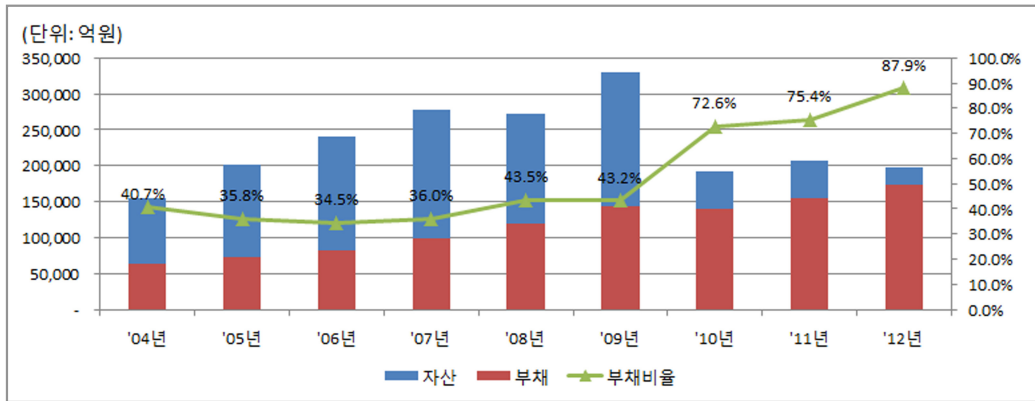


36) 개정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교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출연금을 기본자산으로 하는 특례 폐지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분류한 정부출연금과 선수금으로 분류한 공사부담금을 취득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계정 재분류함에 따라 자산 약 20조원, 부채 약 3조원, 자본 약 20조원이 감소되었으므로 소급적용 시 실질적 부채비율 증가효과는 9년간 8.5% 수준

37) 위에서 언급한 2010년 회계정책 변경으로 유동부채 중 선수금 항목 2.8조원이 차감되어 해당기간 실 부채 증가액은 3.1조원에 그쳤으며 부채 증가율은 35.8%임

가. 부채의 규모

[그림 Ⅲ-111]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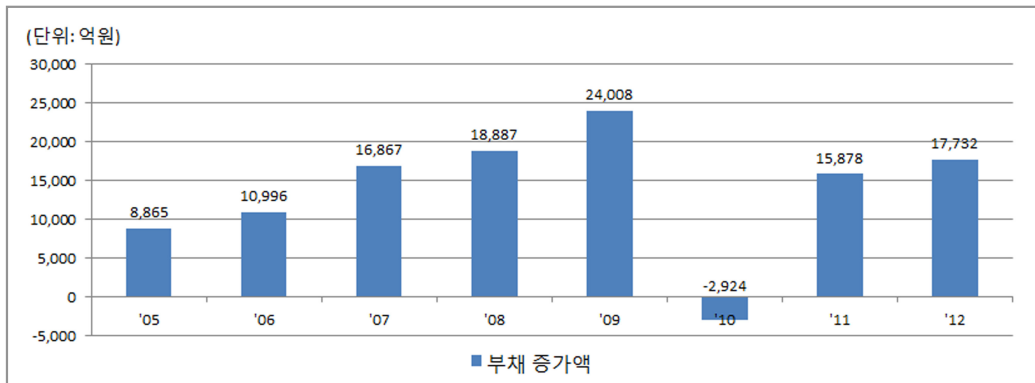


- 2012년 부채규모는 17조 3천억원으로 2004년 6조 3천억원에 비해 11조원가량 증가하였으며, 자산 대비 부채비율³⁸⁾은 2004년 40.7%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가 2010년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함
 - 자산 대비 부채비율 상승은 고속철도 신규 투자비 및 이자비용을 채권발행으로 조달함에 따라 금융부채의 증가와 선수수탁사업비 등 비금융부채가 증가한 결과임
 - 2004년 이전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에서 출연금 재원으로 건설중인 자산을 2008년, 2010년 및 2012년 완공 후 준공자산의 국가 이관으로 자산이 감소하여 부채비율 변동 폭이 크게 증가하였음
 - 준공자산의 국가 이관으로 인한 자산 감소효과: 2008년 4조 9,718억원, 2010년 213억원, 2012년 2조 6,097억원
 - 2011년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한 전기 소급효과로 2009년과 2010년 사이의 자산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부채비율의 변동이 심한 특징이 발생
 - 기본자산 및 유동부채로 분류되었던 공사부담금(정부출연금 및 선수금)을 정부보조금 및 공사부담금의 과목으로 하여 취득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계정 재분류함에 따라 자산이 감소

38)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무자본금 기관이므로 별도 자산부채비율(=부채/자산)을 산정함

나. 부채의 증가 속도

[그림 Ⅲ-112]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 2005~2007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신인 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이관된 부채 5조 5천억원 및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채권조달로 부채가 증가하였음
 -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투자비(전체 건설사업비의 65%) 및 건설부채의 이자비용 추가조달을 위한 채권발행으로 금융부채 증가
 - 2007년 일반철도 경의선(용산~문산) 조기 개통을 위한 선투자를 위해 1,550억원의 채권발행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수탁사업 수행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선수금 등의 비금융부채가 증가함

- 2008년에서 2012년 역시 전 기간과 유사하게 고속철도 신규 투자비 등의 채권발행으로 인한 금융부채 증가 및 수탁사업 수행으로 인한 비금융부채 증가로 부채가 증가함
 - 고속철도 신규 투자 확대(경부2단계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비의 50%, 수도권고속철도 사업비의 60%) 및 이자비용 추가조달을 위한 채권발행으로 금융부채 증가
 - 일반철도 경의선(용산~문산) 조기 개통을 위한 선투자 채권발행(2008년 950억원, 2009년 500억원)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수탁사업 수행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선수금 등의 비금융부채가 증가하여 총부채가 증가

- 2010년 부채증가율이 음수를 기록한 것은 공단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비금융성 부채인 선수금 명목으로 분류해온 지자체 수탁사업비를 자산의 차감형식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공단 출범 당시부터 소급적용했을 때의 실질적 부채 증가 및 부채 증가율은 다음과 같음

〈표 Ⅲ-26〉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회계정책 소급적용 시 부채 증가효과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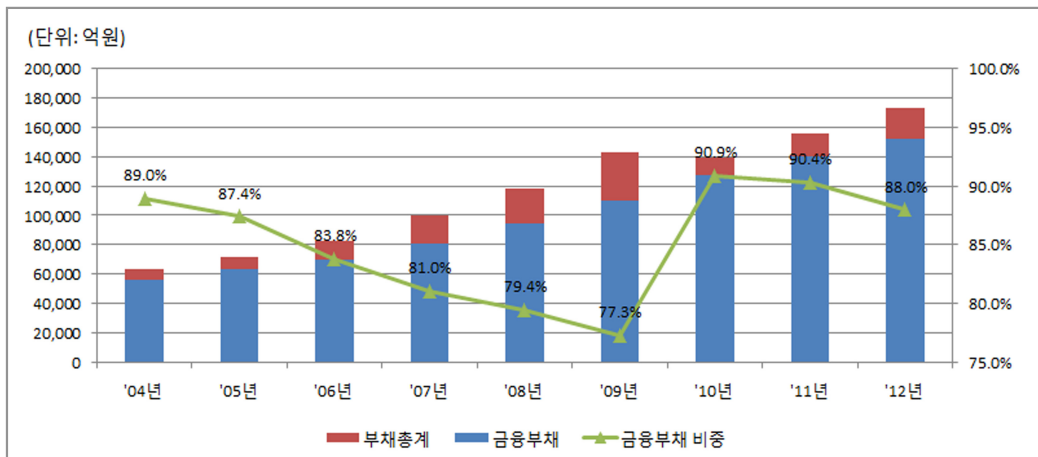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부채 증가액	8,865	2,813	12,493	13,902	17,321	21,305	15,878	17,732
부채 증가율	14.0	3.9	16.7	15.9	17.1	18.0	11.4	11.4

다. 부채의 성격

1) 부채의 구성과 안전성

가)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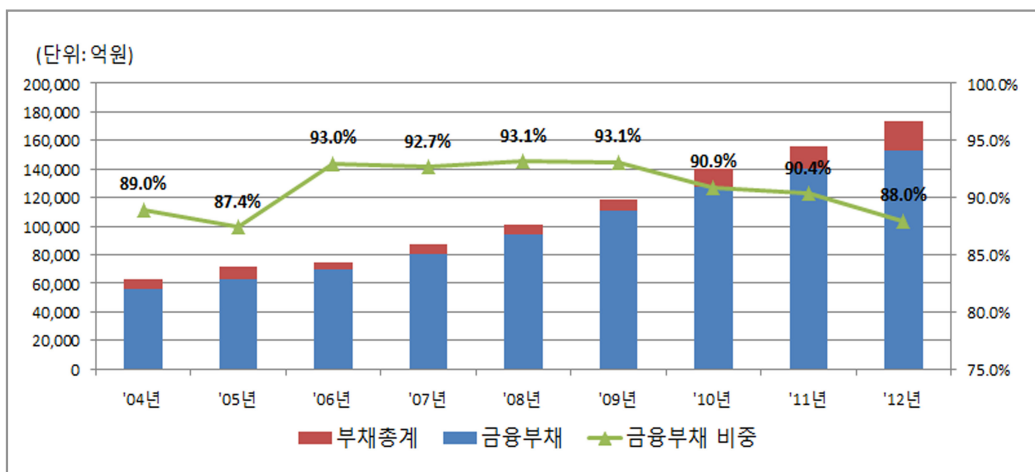
[그림 Ⅲ-113]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부채구성 내역 - 금융부채 비중



- 기관의 금융부채 비중은 2004년 공단 출범 시의 89.0%에서 2009년까지 감소했으나 2009년 급격히 상승한 뒤 다시 완만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2010년의 금융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공단 회계정책 변화로 인하여 3조 6천억 원가량의 비금융성부채(선수금)중 2조 8천억원이 일시에 줄면서 발생한 결과로서 실질적 금융부채 비중은 2006년 이래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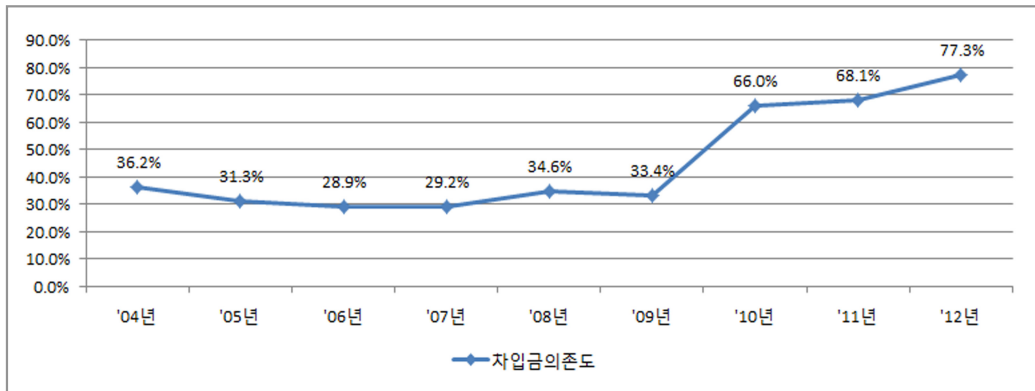
[그림 Ⅲ-114]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회계정책 변경효과를 2004년까지 소급적용 시 금융부채 비중



- 기관의 실질적 금융부채 비중은 2004년 공단출범 시의 89.0%에서 2008년까지 상승했으나 2009년부터 완만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수탁사업 수행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선수금 등의 비금융 부채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금융부채 비중이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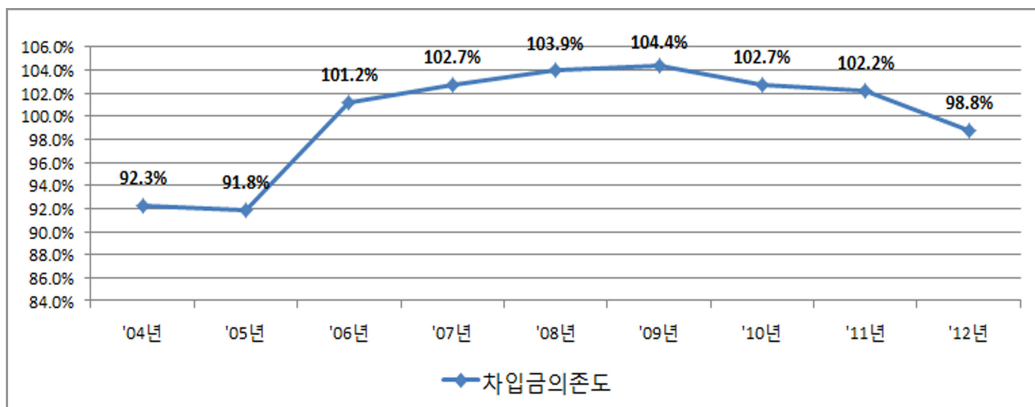
나) 차입금의존도(=금융부채/자산)

[그림 Ⅲ-115]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 알리오 공시상 기관의 차입금의존도³⁹⁾는 200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 77.3%에 달하고 있음
- 고속철도 신규 투자비 및 이자비용을 채권발행으로 조달함에 따라 금융부채가 증가하였음
- 정부출연금에 대한 계정과목 재분류를 소급적용 시 2004년부터 자산이 줄게 되어 차입금의존도는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Ⅲ-116]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회계기준 소급적용 시 차입금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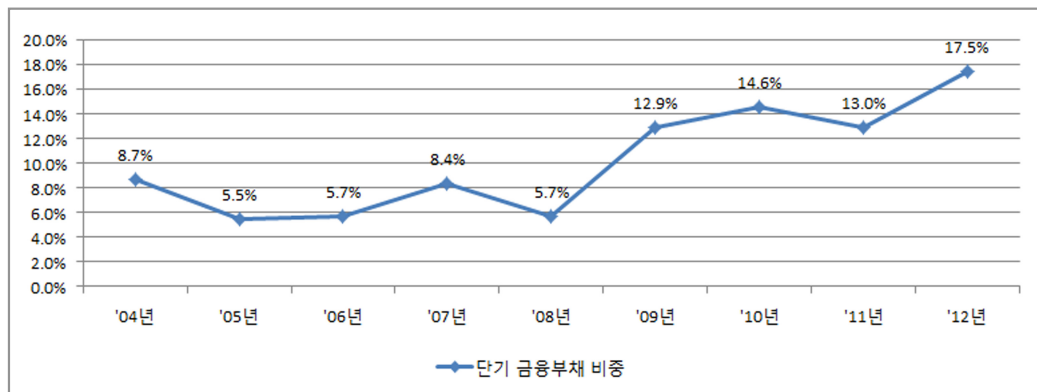


39) 차입금의존도는 금융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자산 취득/유지에 소요되는 재원 중 얼마만큼을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로 충당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기관의 차입금의존도는 2009년 104.4%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0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건설이 완료된 자산을 국가에 이관하는 무자본 기관의 특성상 모든 사업을 부채 조달을 통해 운영할 시 차입금의존도는 100%를 기록하게 됨

다) 단기 금융부채 비중

[그림 Ⅲ-117]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 기관의 단기 금융부채 비중은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4년 8.7%에서 2012년 17.5%로 증가함
- 신규 투자 및 차환발행 등의 채권발행규모 증가에 따라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부채의 규모가 증가하여 단기 금융부채 비중이 증가함
- 기관의 금융부채 중 장기차입금인 교특용자금(1조 221억원)에 대한 2013년도 내 전액 조기상환에 대해 정부부처 협의 완료('12년 6~8월) 및 2013년 세입예산 반영('12년 9월)이 확정됨에 따라 2012년 결산 시 유동성 장기부채로 분류되어 단기 금융부채 비중이 증가함
- 금융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채는 2012년 말 금액 가중평균 만기 6.4년 수준의 중·장기성 사채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라)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기/장기 부채

〈표 Ⅲ-27〉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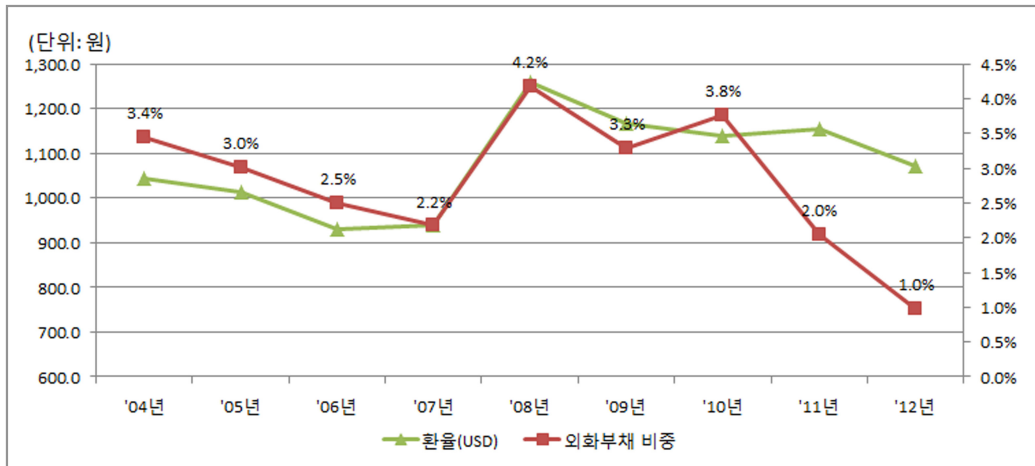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계
금융부채	0	0	0	0	0	0
- 차입금	10,220	0	0	0	0	10,220
- 사 채	16,400	13,600	14,100	15,000	83,200	142,300
합계	26,620	13,600	14,100	15,000	83,200	152,520

□ 금융부채 만기 도래에 따라 금융부채의 약 54.6%인 8조 3천억원이 2017년 이후에 상환될 예정이며, 총 15조 3천억원 중 약 17.5%가 2013년 상환될 예정임⁴⁰⁾

2) 외화부채 비중

[그림 Ⅲ-118]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외화부채 비중



□ 기관의 외화부채 비율은 2004년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다 2008년 증가한 뒤 다시 감소하는 추세임

40) 연도별 차입금 및 사채 상환금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고려되지 않은 금액임

- 공단은 2003년에 2차례에 걸쳐 발행한 10년 만기의 변동금리⁴¹⁾ 해외부채를 꾸준히 상환하였으며, 2009년에 1억달러의 해외사채를 발행하여 2012년 8월 전액 상환하였음
- 환율이 크게 상승한 2008년부터 외화부채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외화부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국내 금융시장의 외화 유동성 개선으로 국내에서 외화 채권을 발행하였으나 2011년 들어 모두 상환함

라.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1) 부채 발생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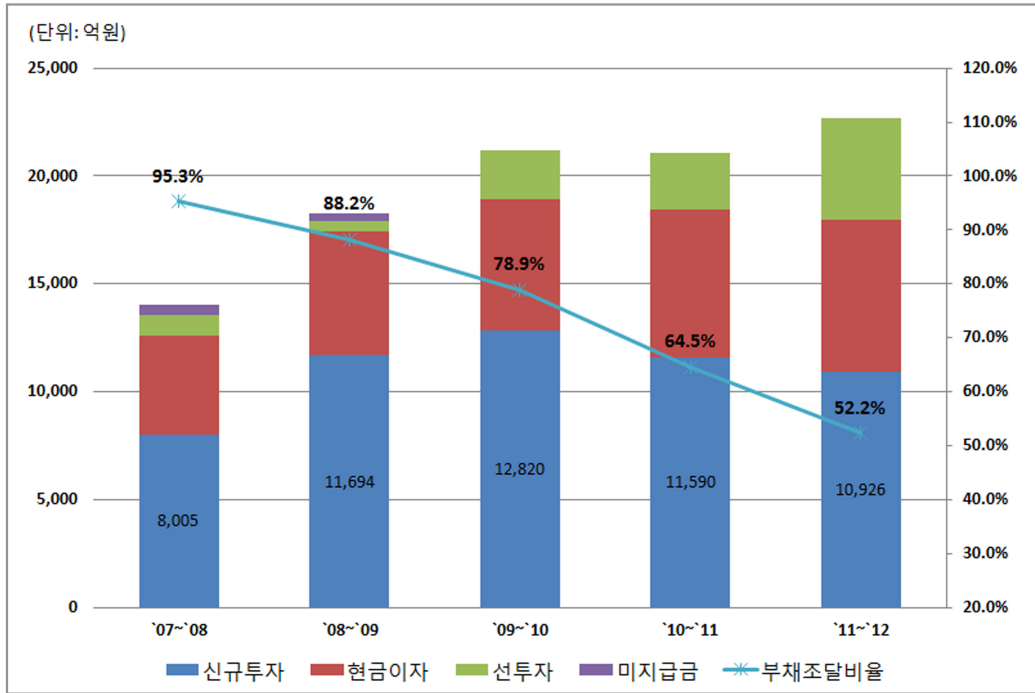
〈표 Ⅲ-28〉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 발생 주요 원인

(단위: 억원)

연도	부채 증가액	지출 소요액	지출소요 내역				비고
			신규 투자	현금 이자	선 투자	미 지급금	
'07~'08	13,340	14,004	8,005	4,616	950	433	- 고속철도 신규 투자비 및 이자비용 채권 발행(경부) - 경의선(용산~문산) 조기개통을 위한 선투자
'08~'09	16,093	18,240	11,694	5,715	500	331	- 고속철도 신규 투자비 및 이자비용 채권 발행(경부, 호남) - 경의선(용산~문산) 조기 개통을 위한 선투자
'09~'10	16,725	21,198	12,820	6,098	2,280	-	- 고속철도 신규 투자비 및 이자비용 채권 발행(경부, 호남)
'10~'11	13,607	21,094	11,590	6,880	2,624	-	- 고속철도 신규 투자비 및 이자비용 채권 발행(경부, 호남, 수도권)
'11~'12	11,856	22,695	10,926	7,072	4,697	-	- 고속철도 신규 투자비 및 이자비용 채권 발행 (호남, 수도권)

41) 2003년 9월 발행 해외채 금리: 6개월 Libor+0.925%, 2003년 11월 발행 해외채 금리: 6개월 Libor+0.8%

[그림 Ⅲ-119]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 발생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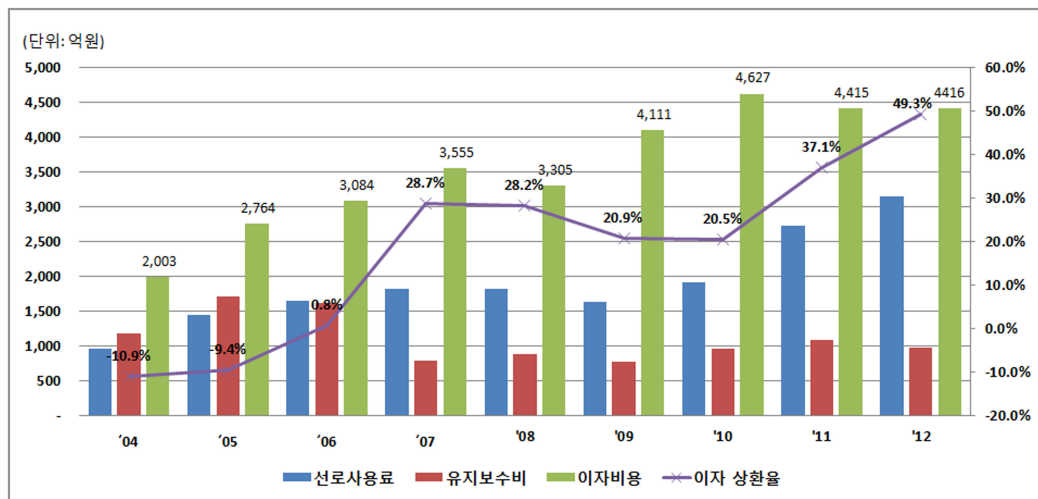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매년 1조원대의 추가 부채가 발생했으며 신규 투자, 현금이자, 선투자 등의 순으로 자금지출이 소요되었음
 - 2007~2008년에는 경부고속철도건설 및 경의선 선투자 등을 위해 1조 4천억원의 지출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 1조 3천억원가량이 부채를 통해 조달되었음
 - 2008~2009년에는 경부호남고속철도건설 및 경의선 선투자를 위해 1.6조원의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함
 - 2009~2012년에는 고속철도 신규 투자 및 이자비용 지급을 위해 각각 1조원대의 부채를 발행하였으며 이 규모는 매해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총지출소요 대비 부채 발생액(부채조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8년 95.3%에서 2012년 52.2%로 감소한 상태임

〈표 Ⅲ-29〉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선로사용료를 통한 이자 상환능력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선로사용료 (A)	960	1,453	1,655	1,824	1,822	1,644	1,915	2,729	3,155
유지보수비 (B)	1,178	1,712	1,630	802	889	786	966	1,089	980
부채상환재원 (C=A-B)	-218	-259	25	1,022	933	858	949	1,640	2,175
이자비용 (D)	2003	2,764	3,084	3,555	3,305	4,111	4,627	4,415	4,416
이자상환율 (C/D)	N/A	N/A	0.8%	28.7%	28.2%	20.9%	20.5%	37.1%	49.3%
이자상환 부족분 (D-C)	-2,221	-3,023	-3,059	-2,533	-2,372	-3,248	-3,678	-2,775	-2,241

[그림 Ⅲ-120]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선로사용료를 통한 이자 상환능력 추이



- 철도시설공단의 주 수입원인 고속철도 선로사용료가 건설사업을 위해 발행한 부채의 이자비용에 못 미쳐 지속적으로 부채가 누적되었음
 - 2004년 KTX 개통 이후 철도공사가 납부하는 선로사용료는 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부채 이자비용의 22%에 불과하여 이자지급을 위한 추가 차입으로 부채가 증가
 - 2010년 이후로 이자 상환율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100% 미만으로 추가 차입을 해야 하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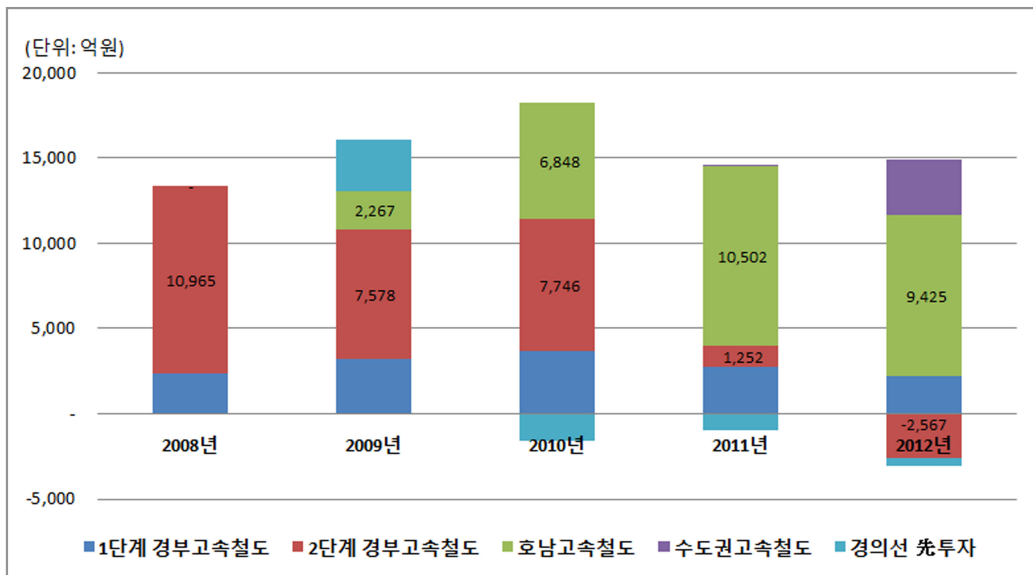
2) 사업별 금융부채⁴²⁾ 증가액

〈표 Ⅲ-30〉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단위: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5년간 누계
1단계 경부고속철도	2,372	3,248	3,678	2,775	2,241	14,314
2단계 경부고속철도	10,965	7,578	7,746	1,252	△2,567	24,974
호남고속철도	0	2,267	6,848	10,502	9,425	29,042
수도권고속철도	0	0	0	26	3,256	3,282
경의선 선(先)투자	0	3,000	△1,550	△950	△500	0
금융부채 순증가 합계	13,337	16,093	16,722	13,605	11,855	71,612

[그림 Ⅲ-121]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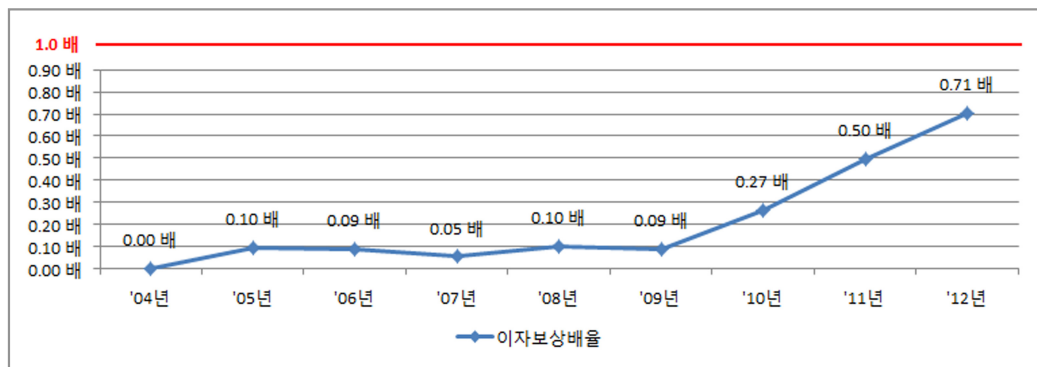
42)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은 기관이 각 사업별 자금유입 및 자금유출 규모를 기준으로 [부록 2]에서와 같은 일정한 가정하에 추정하였으므로 실제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산출되는 금융부채 증가액과 다를 수 있음

- 고속철도 건설의 사업비로 매년 채권을 조달하여 부채가 증가하였음
 - 공단은 경부선·호남선 등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비 중 50~65%를 채권발행으로 자체 조달하였음⁴³⁾
 - 선로사용료를 통한 투자비 회수 미흡에 따른 이자비용 추가부담으로 금융부채가 증가함
 - 2009년까지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인한 부채 증가가 컸으나 2009년 이후에는 호남고속철도로 인한 부채 증가가 컸음
 - 2009년 발생한 경의선 선투자관련 부채는 2012년까지 모두 상환되었음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1) 이자 상환능력

[그림 Ⅲ-122]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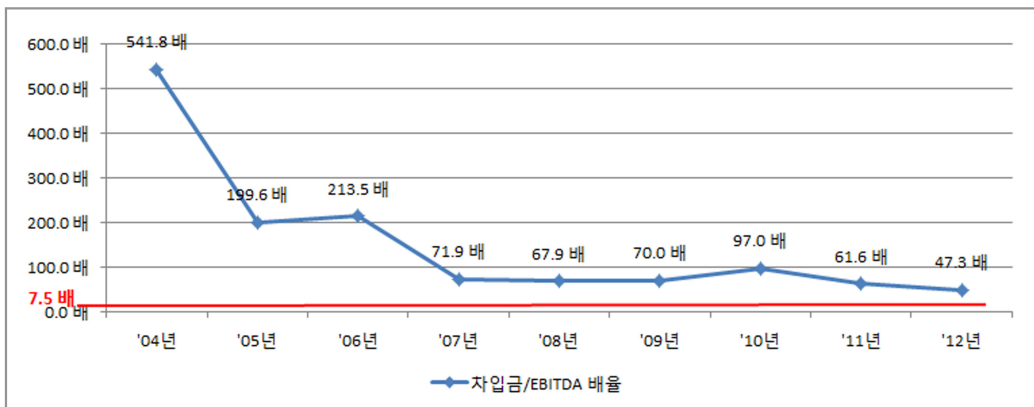
- 철도시설공단의 이자보상배율은 공단 출범 직후부터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영업이익 증가 및 이자비용 증가 억제 등으로 이자보상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43) 고속철도 기본계획에 따른 철도시설공단의 재원 분담율: 경부1단계고속철도(65%), 경부2단계·호남고속철도(50%), 수도권고속철도(60%)

- 이자보상배율은 1배 이상을 달성해야 이자비용 충당을 위한 추가차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관의 이자보상배율은 2012년 현재 1 미만임

2) 원금 상환능력

[그림 Ⅲ-123]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차입금 대 EBITDA 배율



- 기관의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은 2004년 541.8배에서 2012년 47.3배로 급감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고속철도 신규 투자비 및 이자비용 등 금융부채가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0년부터 차입금 대 EBITDA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바.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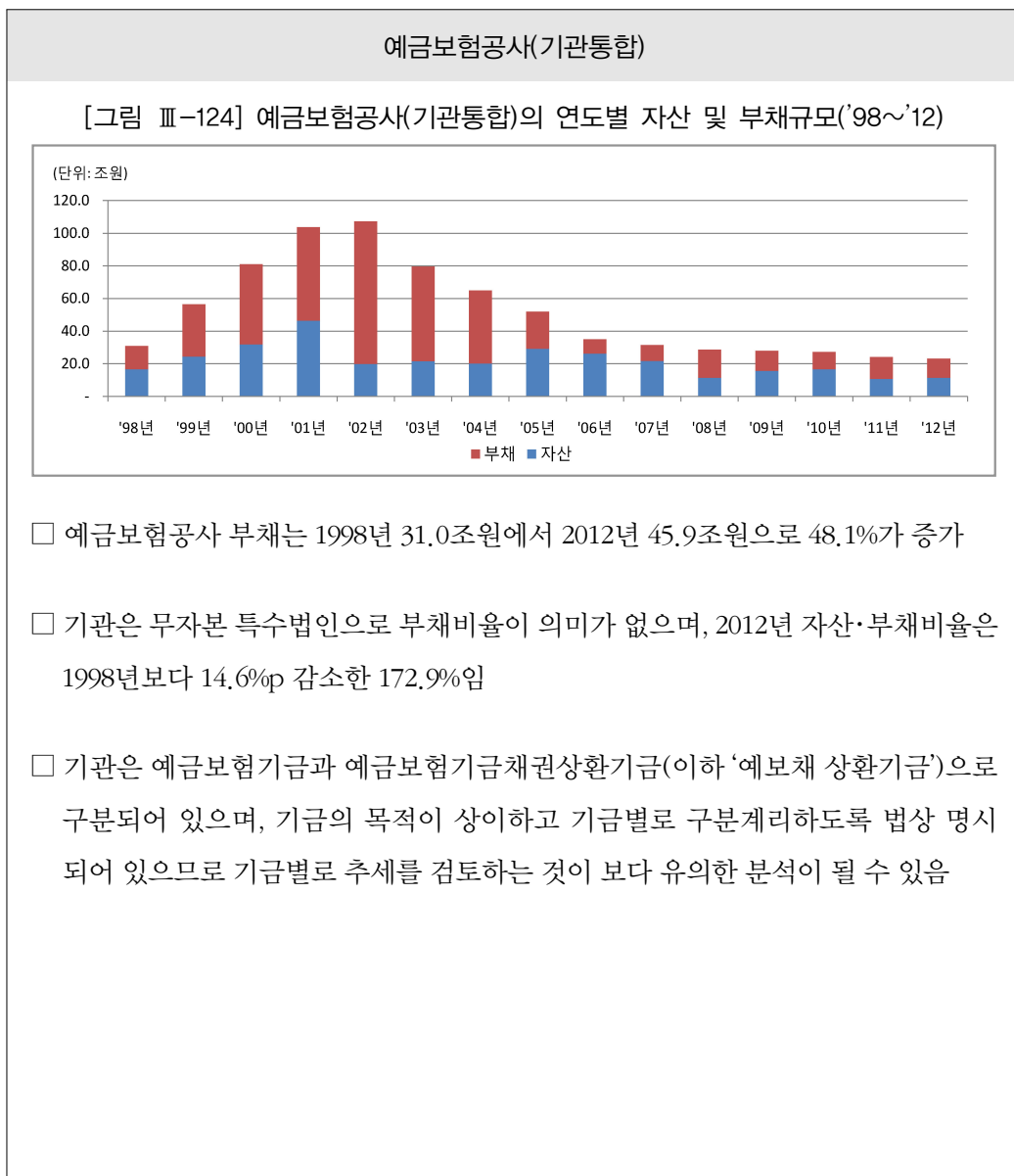
- 무자본 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의 부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띠고 있으나 투자회수가 느린 기관의 특성상 사업비의 증가로 인한 부채의 증가는 즉각적인 위험을 내포하진 않음
- 부채의 규모는 17조 3천억원, 금융부채는 15조 3천억원에 달해 규모가 상당하므로 부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자본비용의 절감 노력 여하에 따라 향후 부채규모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음

- 철도산업 확대에 의해 부채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부채관리 노력을 동반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요구됨

- 기관의 재무구조상 취약점은 선로사용료에 국한된 취약한 수익구조에 있으며 이에 편중된 수익구조로 인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 많지 않음
 - 이자보상배율은 최근 3년간 급속도로 증가하여 1배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여전히 이자부담으로 인한 추가차입이 발생하고 있음
 -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선로사용료를 통한 추가 운영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이자상환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임
 -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을 본 원금 상환능력 또한 47.3배에 달해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영업이익 개선 및 효율적 기관운영을 통해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을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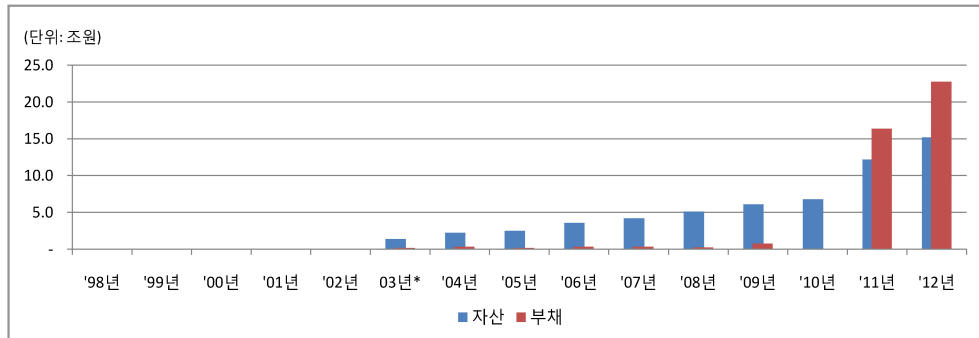
11.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는 2012년까지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09년부터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

[그림 Ⅲ-125] 예금보험기금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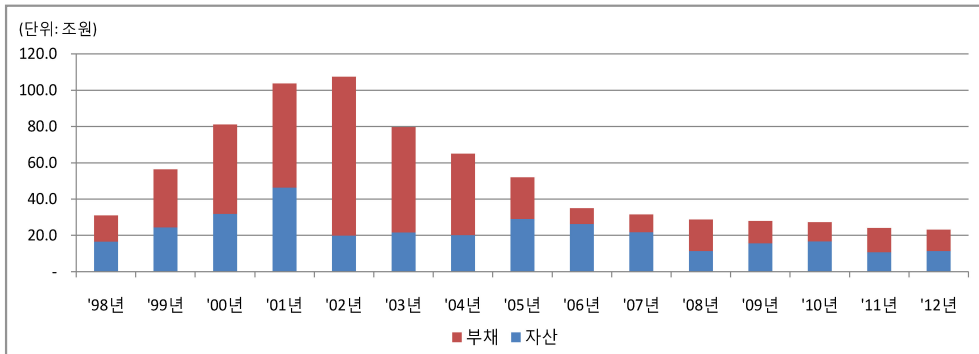
- 예금보험기금 부채는 1998년 39억원에서 2012년 22.7조원으로 대폭 증가
 - 예금보험기금은 예금보험기금과 공사 고유계정으로 통합되어 있음
 - 2002년까지 예금보험기금 부채는 공사 고유계정(공사회계)에서 발생한 부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 초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함
 - 2002년까지 적립된 구 예보기금은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예보채상환기금으로 이관됨

- 부채 증가속도는 최근 5년(2008~2012년)동안 두드러지게 상승함
 - 예금보험기금은 2011년 이후 2개 연도에 걸쳐 대규모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진행함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부채가 크게 증가
 - 2012년 부채금액은 2007년 0.3조원보다 6,884.6% 증가한 22.7조원

- 기관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부채비율이 의미가 없으며, 2012년 자산·부채비율은 1998년보다 49.6%p 증가한 149.6%p임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그림 Ⅲ-12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98~'12)



- 예보채상환기금 부채는 1998년 31.0조원에서 2012년 23.2조원으로 25.3% 감소
 - 평균 부채 증가율은 1.5%로, 1998~2002년 급격히 증가한 부채를 최근 10년 (2003~20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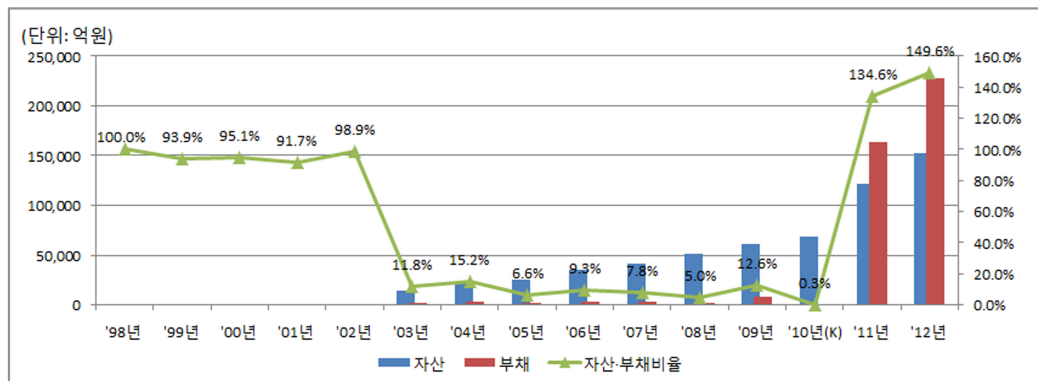
- 부채 증가 속도는 1998~2002년 동안 두드러지게 상승하였으며, 2003~2007년 동안 두드러지게 하락하였음
 - 1997년 외환위기에 따라 금융구조조정 추진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적자금 마련을 위해 예보채가 발행되어 2002년 부채가 107.3조원으로 증가
 - 2007년까지 대부분 예보채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2007년 부채가 31.5조원으로 감소
 -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금, 부보금융기관 특별기여금 수입, 재정 출연을 통해 상환
 -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5.6조원을 추가 상환하여 2012년 말 현재 부채 잔액은 23.2조원임

- 기관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부채비율이 의미가 없으며, 2012년 자산·부채비율은 1998년보다 16.6p 감소한 204.1%임

가. 부채의 규모

1) 예금보험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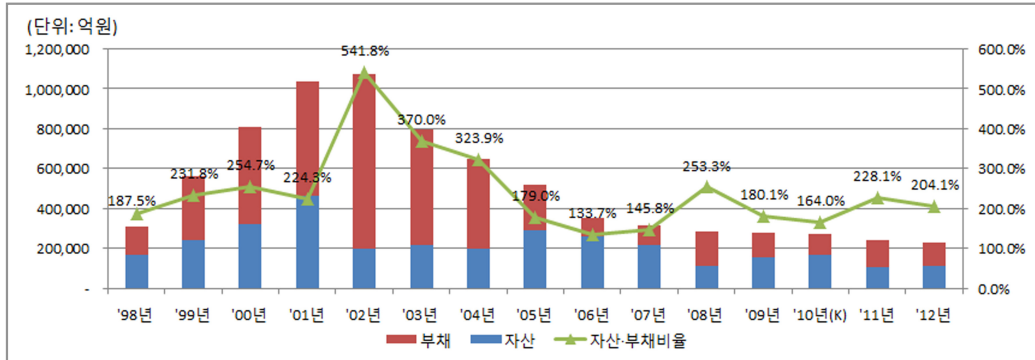
[그림 Ⅲ-127]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 2011년 이후 2개 연도에 걸쳐 대규모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진행함에 따라 2012년 부채 금액은 22조 7천억원으로 크게 증가
- 1998~2002년까지는 공사 고유계정(공사회계)에서 발생하는 비금융부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부채 금액은 87억원 수준으로 미미함
 - 2002년까지 적립된 예보기금은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예보채 상환기금으로 이관
- 2003~2007년까지는 평균부채금액이 3천억원 수준으로 예금보험기금이 운영되기는 했으나, 자산·부채 비율이 평균 10.1%로 안정적이었음
- 2008~2012년에는 대규모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라 2011년도 급격하게 부채가 증가하면서 자산·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였음

2) 예보채상환기금

[그림 Ⅲ-128]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구조조정 추진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예보채를 발행하여 2002년 107조 3천억원까지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2007년까지 대부분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31조 5천억원으로 부채 감소
 - 예보채상환기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구조조정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원된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 2003년 기존 예보기금과 분리하여 관리
 - 정부는 2002년 말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부채 82조 4천억원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취득한 자산의 회수대금 16조 7천억원, 부보금융기관의 특별기여금 20조원, 재정출연 45조 7천억원으로 25년간 상환하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2002년에 마련
 -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회수자금, 특별기여금, 재정출연 등으로 2007년까지 51조 2천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재특용자 18조 6천억원은 상환면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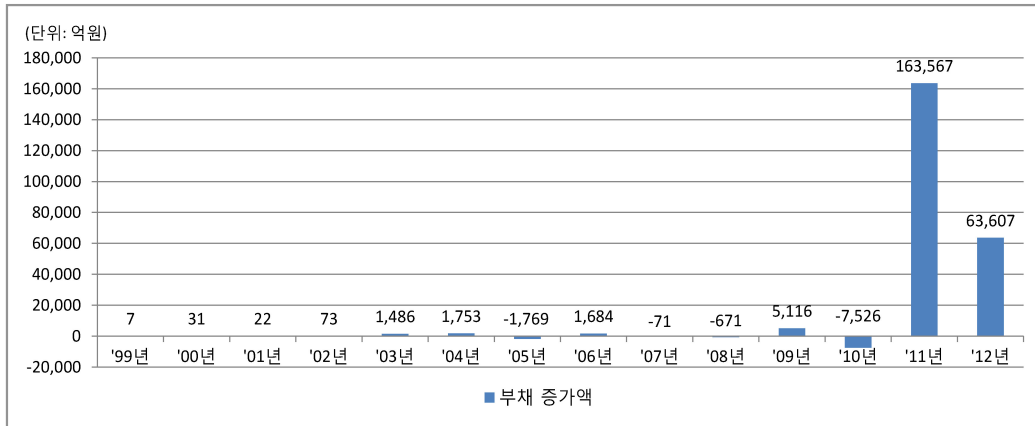
-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5조 6천억원을 추가 상환하여 2012년 말 현재 부채 잔액은 23조 2천억원으로 감소함

- 자산·부채 비율은 1998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100%를 초과하였으며, 2002년 이후 사채의 상환으로 개선되어 2012년 자산·부채 비율이 204.1%로 하락

나. 부채의 증가 속도

1) 예금보험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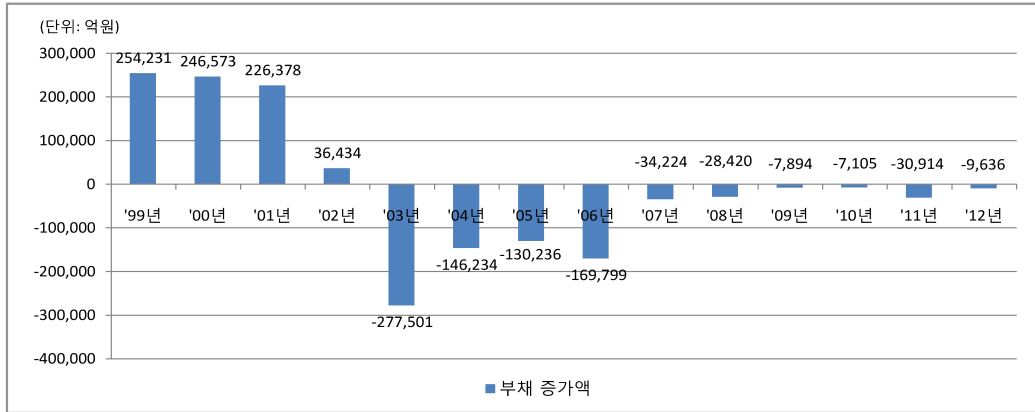
[그림 Ⅲ-129] 예금보험기금 연도별 부채 증감액



- 2008~2012년 부채가 증가한 원인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위한 예보채 발행에 따라 2012년 예금보험기금 부채가 22조 7천억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
- 2011년 이후 발생한 상호저축은행 부실 정리를 목적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신설하였으며, 24개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24조 9천억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음

2) 예보채상환기금

[그림 Ⅲ-130] 예보채상환기금 연도별 부채 증감액



- 1998~2002년간 부채가 증가한 원인은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예보채를 발행했기 때문
 - 2002년 정부가 수립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2027년까지 상환이 완료될 예정
- 2003~2007년간 부채 감소의 주요 원인은 2007년까지 대부분 만기가 도래한 예보채를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금, 부보금융기관 특별 기여금 수입, 재정출연을 통해 2007년까지 51조 2천억원을 상환했기 때문임
 - 또한, 상환대책에 따라 재특용자 18조 6천억원은 상환 면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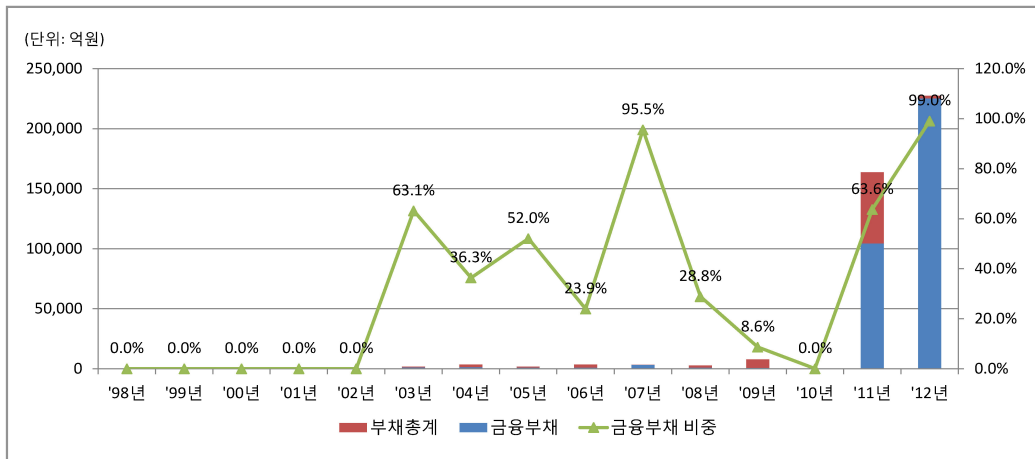
다. 부채의 성격

1) 부채의 구성과 안전성

가) 금융부채 비중

① 예금보험기금

[그림 Ⅲ-131] 예금보험기금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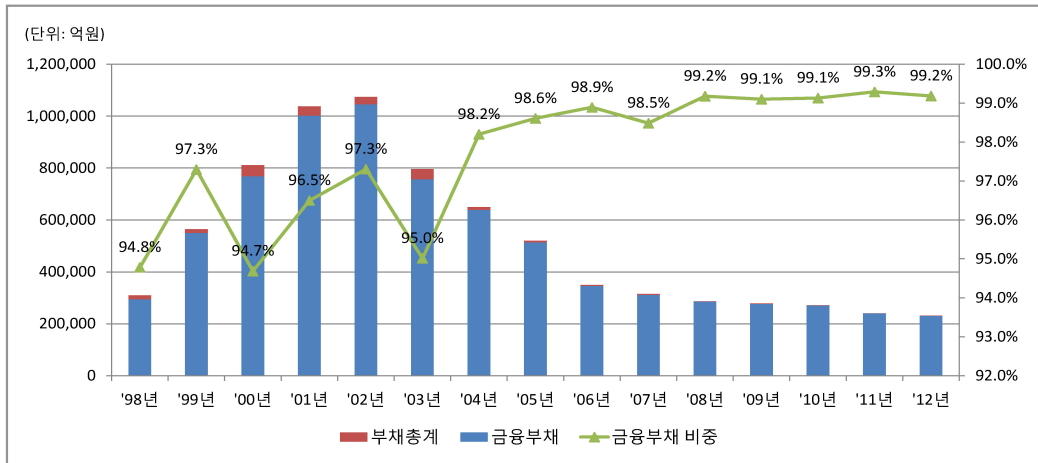
□ 예금보험기금의 2012년 금융부채는 22조 5천억원으로 2011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부채의 99.0%는 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음

□ 2012년 금융부채 비중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11년 부실 상호저축은행 관련한 비금융부채인 지급준비금 비중이 2012년에 비해 높았기 때문

○ 금융부채는 사채 및 장·단기 차입금으로 구성됨

② 예보채상환기금

[그림 Ⅲ-132] 예보채상환기금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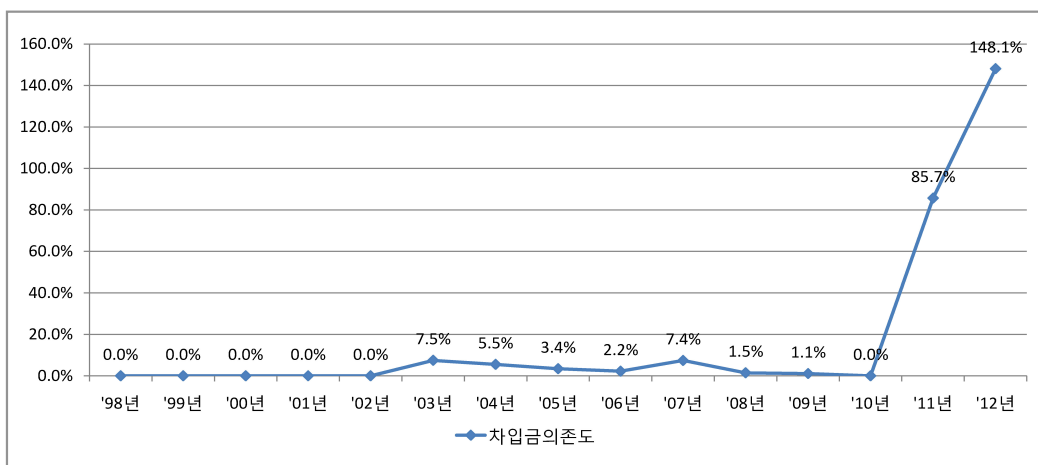


□ 예보채상환기금의 2012년 금융부채는 23조원으로 200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부채의 99.2%는 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음

나) 차입금의존도(금융부채/자산)

① 예금보험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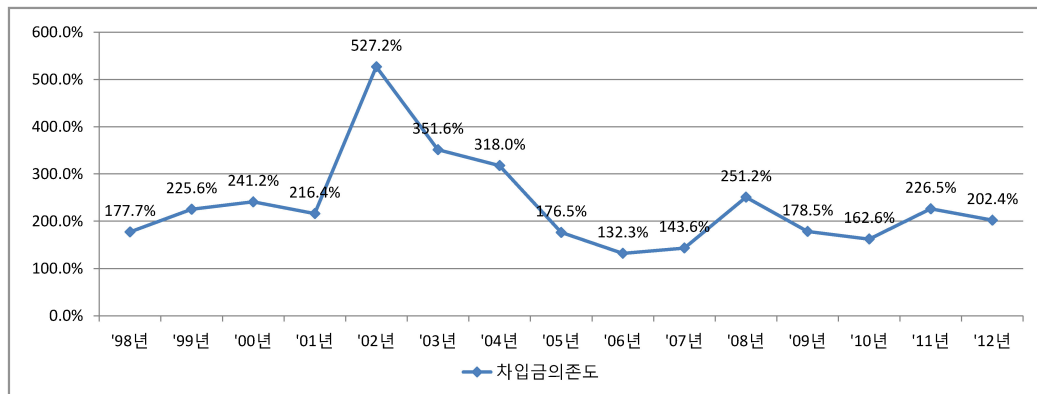
[그림 Ⅲ-133] 예금보험기금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의존도는 2010년까지 평균 2.2% 수준으로 미미했으나, 2011년 부보금융기관 단기차입 및 예보채 발행에 따라 2012년에는 148.1%까지 급격히 증가
- 2011년 이전에는 신탁계정 단기 차입금 등으로, 2010년중 신탁계정 신탁 중앙회로 이전되면서 차입금의존도가 0%까지 낮아졌음
- 2011년 이후 상호저축은행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라 부보금융기관 차입금 및 예보채권 발행액이 증가함에 따라 차입금의존도가 크게 증가

② 예보채상환기금

[그림 Ⅲ-134] 예보채상환기금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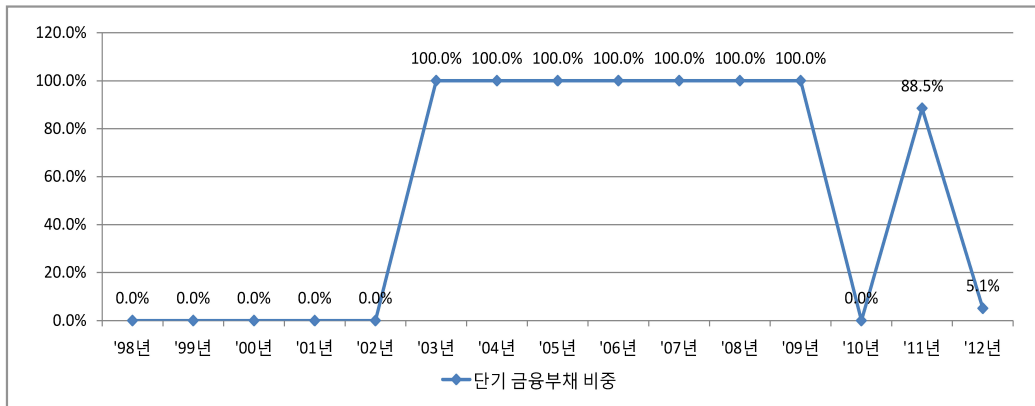


- 차입금의존도는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구조조정으로 증가하다가 2003년도 이후 상환 대책에 따른 사채 상환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2002년 이전 발행된 예보채의 상환에 따라 2007년 차입금의존도는 143.6%로 하락함
- 2002년, 2008년 및 2011년은 금융위기로 인한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의 감소로 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하였음

다) 단기 금융부채 비중

① 예금보험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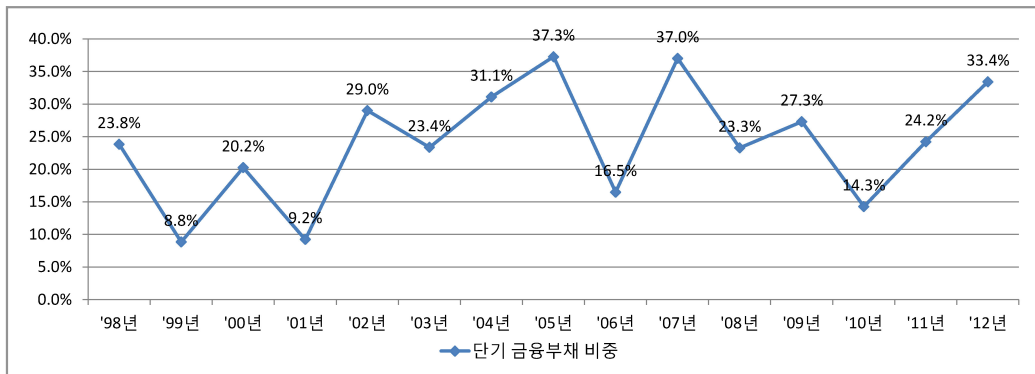
[그림 Ⅲ-135] 예금보험기금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 단기 금융부채 비중은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2012년은 5.1%임
 - 2009년까지 금융부채의 100%가 단기 금융부채로 구성되었으나, 기존 차입금의 신협계정으로의 이전에 따라 2010년 단기 금융부채가 소멸됨
 - 2011년은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부보금융기관에 단기 차입하여 단기 금융부채 비율이 88.5%로 상승하였으나, 2012년 예보채로 차환함에 따라 단기 금융부채 비중이 하락

② 예보채상환기금

[그림 Ⅲ-136] 예보채상환기금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 유동 금융부채 비중은 변동성이 높은 편으로, 장기 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에 영향을 받음

□ 장기 사채의 만기 도래에 따라 2012년 단기 금융부채 비중은 33.4%로 증가

라) 금융부채상환계획: 단기/장기 부채

① 예금보험기금

<표 Ⅲ-31> 예금보험기금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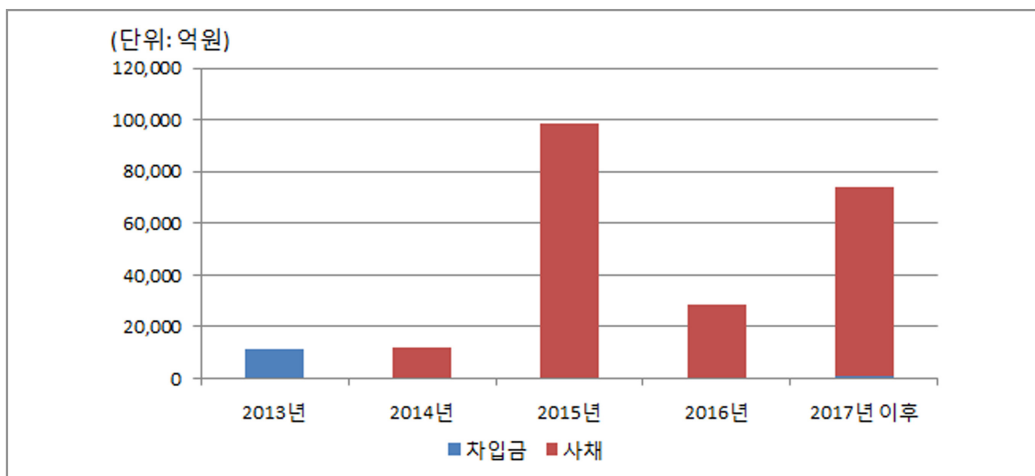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계
금융부채						
- 차입금	11,506	0	0	0	1,000	12,506
- 사 채	0	12,000	98,800	28,700	72,900	212,400
합계	11,506	12,000	98,800	28,700	73,900	224,906

□ 금융부채의 만기 도래에 따라 금융부채의 5.1%가 2013년 중 상환될 예정

○ 금융부채의 62.6%를 예금보험료 등 자체수익으로, 37.4%를 자산매각으로 상환자금을 조달할 예정임

-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취득한 자산의 매각대금, 부보금융기관 예금보험료를 통해 특별계정 운영기한(2026년) 내에 상환완료할 예정이며, 상환재원의 수입시기와 부채만기의 불일치에 따라 일부 상환자금이 차환발행을 통해 마련될 수 있으나 차환발행에 따른 부채도 특별계정 운영기한 내에 상환을 완료할 예정

[그림 Ⅲ-137] 예금보험기금 금융부채 상환계획



② 예보채상환기금

<표 Ⅲ-32> 예보채상환기금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계
금융부채						
- 차입금	1,071	0	0	0	0	1,071
- 사 채	75,700	50,100	46,900	21,700	33,800	228,200
합계	76,771	50,100	46,900	21,700	33,800	229,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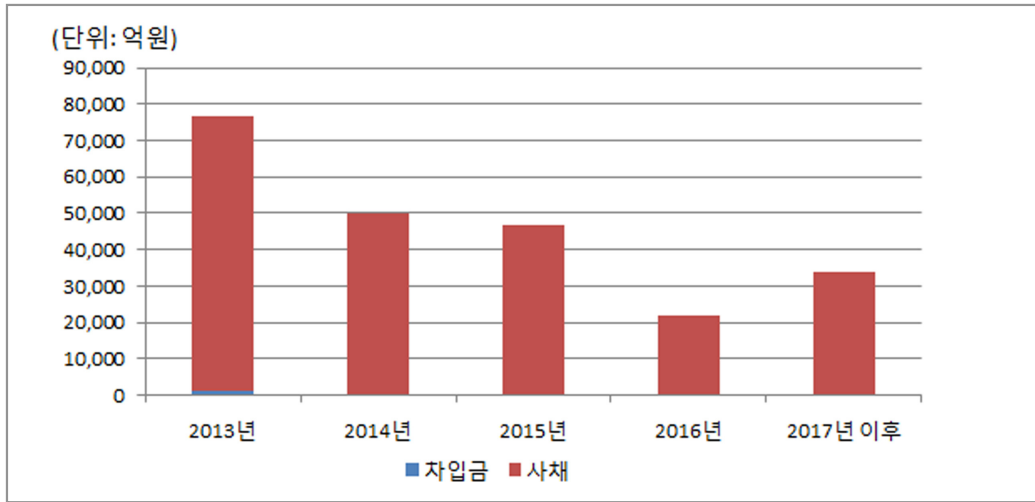
□ 금융부채의 만기 도래에 따라 금융부채의 33.5%가 2013년 중 상환될 예정

○ 금융부채의 62.1%를 자산매각으로, 37.9%를 특별기여금 등 자체수익으로 상환자금을 조달할 예정임

-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취득한 자산의 매각대금, 부보금융기관 특별기여금을 통해 2027년까지 상환 완료할 예정이며, 상환재원의 수입시기와 부

채 만기의 불일치에 따라 일부 상환자금이 차환발행을 통해 마련될 수 있으나 차환발행에 따른 부채도 상환대책에 따라 2027년까지 상환을 완료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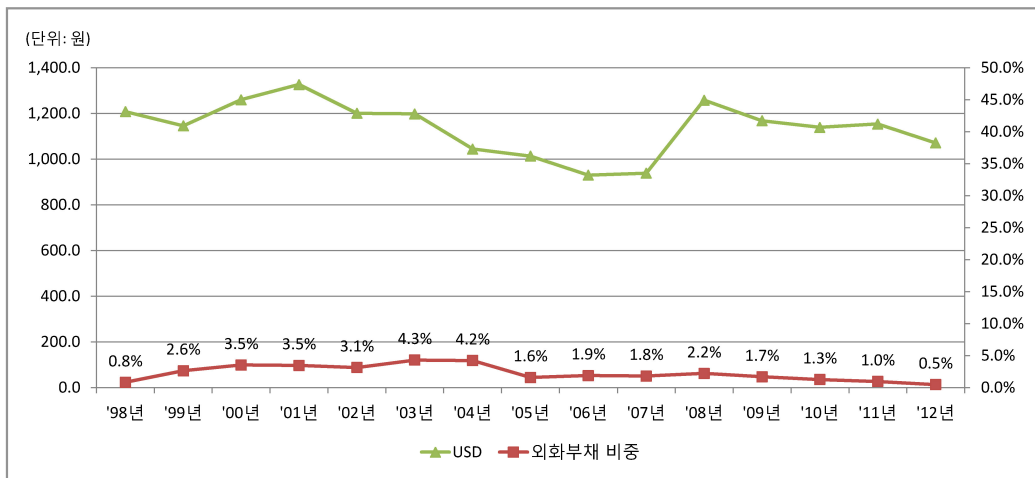
[그림 Ⅲ-138] 예보채상환기금 금융부채 상환계획



2) 외화부채비율

□ 외화부채는 외환 위기로 인한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예보채 상환기금에서만 발생

[그림 Ⅲ-139] 예보채 상환기금 연도별 외화 금융부채 비중



- 예보채상환기금의 외화부채는 금융부채의 0.5%로 미미한 수준임
 - 1999년도에 조달함에 따라 외화부채 비중이 다소 증가하다가 2004년부터 균등분할 상환되기 시작하면서 외화부채 비중은 감소
 - 외환부채는 2013년 8월 중 상환완료됨
 - 2008년은 리먼사태로 인한 환율 상승에 따라 외화차입금 평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소폭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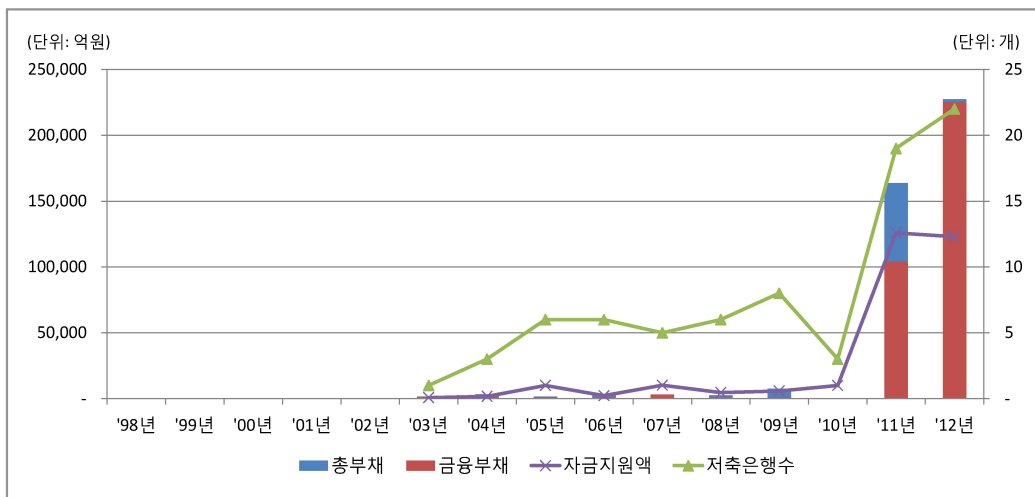
라. 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1) 부채 발생 주요 원인

- 금융부채 증가 원인은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을 위한 기금 조성과 상관관계가 높음

① 예금보험기금

[그림 Ⅲ-140] 예금보험기금의 구조조정대상 저축은행 지원과 금융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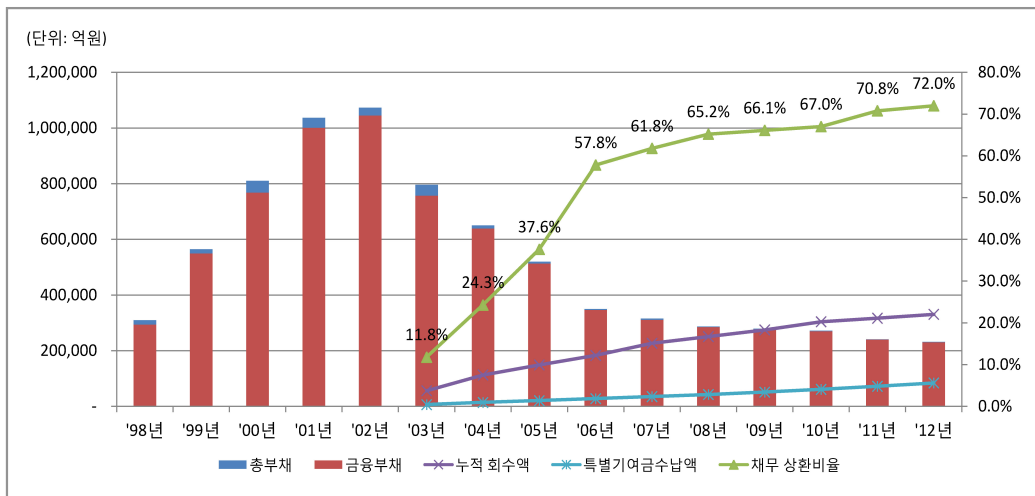
- 예금보험기금의 금융부채 증가 원인은 구조조정대상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에 따른 것임
 - 금융부채 증가액은 연도별 자금 지원액 및 지원대상 부실저축은행 수와 비례함
 - 2011년 12조 6천억원 및 2012년 12조 3천억원씩 부실저축은행에 자금을 지원하였

으며, 이에 따라 부채 증가액 또한 비슷한 규모로 증가

- 지원대상 부실 저축은행 수 또한 2011년도에 16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추가로 8개 기관에 대해 구조조정함

② 예보채상환기금

[그림 Ⅲ-141] 예보채상환기금의 상환기금 회수와 금융부채



- 예보채의 금융부채 감소 원인은 특별기여금 및 보유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으로 만기 도래 채권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

- 금융부채 변동은 누적 특별기여금 수납액 및 누적 회수율과 반비례하며, 이에 따라 채무상환비율이 증가

2) 사업별 금융부채 발생액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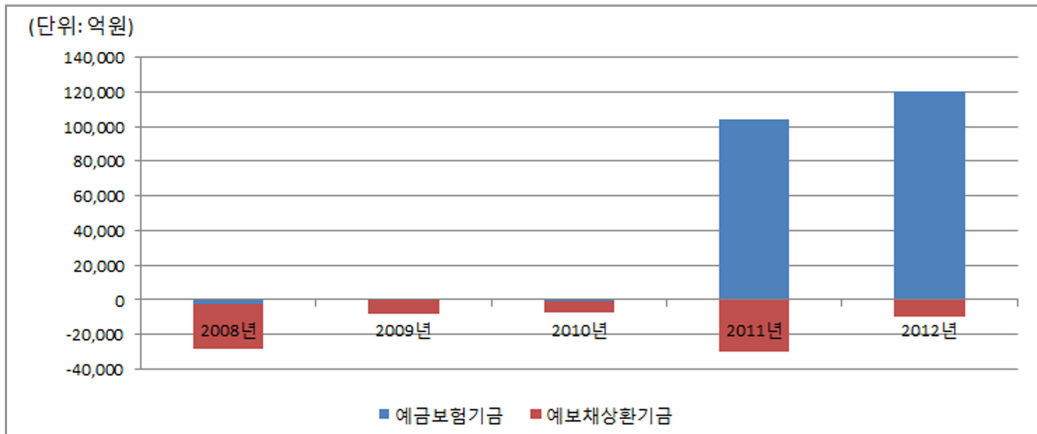
〈표 Ⅲ-33〉 예금보험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단위: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년간 누계
예금보험기금	-2,364	-80	-664	104,210	120,921	222,023
예보채상환기금	-26,003	-8,046	-6,959	-30,266	-9,810	-81,084
금융부채 순증가 합계	-28,367	-8,126	-7,623	73,944	111,111	140,939

- 기관의 사업은 기금별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기금별 부채 발생액과 사업별 부채 발생액은 일치함
- 2008~2010년까지 예보채상환기금의 사채 상황에 따른 금융부채 감소에 따라 기관 부채가 감소한 반면, 2011~2012년은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특별계정 조성을 위한 사채 발행에 따라 금융부채가 크게 증가함

[그림 Ⅲ-142] 예금보험공사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44)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은 추정 및 분석 편의상 최근 5개년 모두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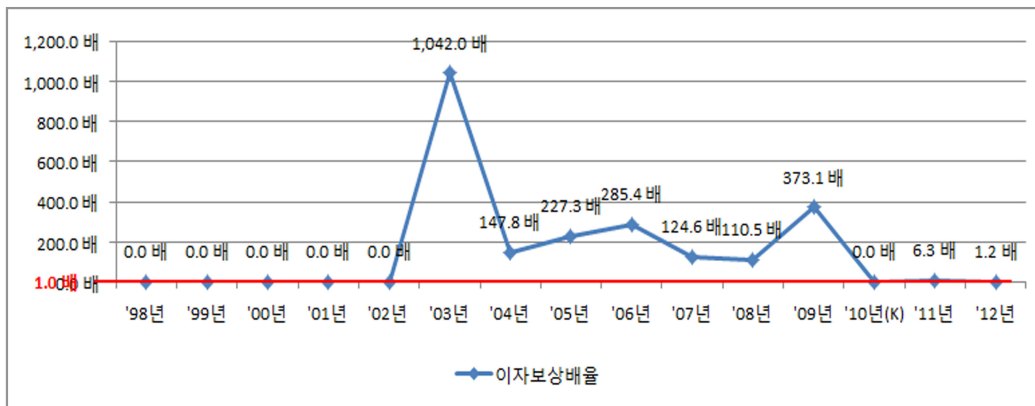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누 계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증감액 (A)	-28,367	-8,126	-7,623	73,944	111,111	140,939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 계 (B)	-28,367	-8,126	-7,623	73,944	111,111	140,939
차이 (A-B)	-	-	-	-	-	-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 예보채 상환기금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산출되므로 영업이익 및 EBITDA가 산출되지 않음

1) 이자 상환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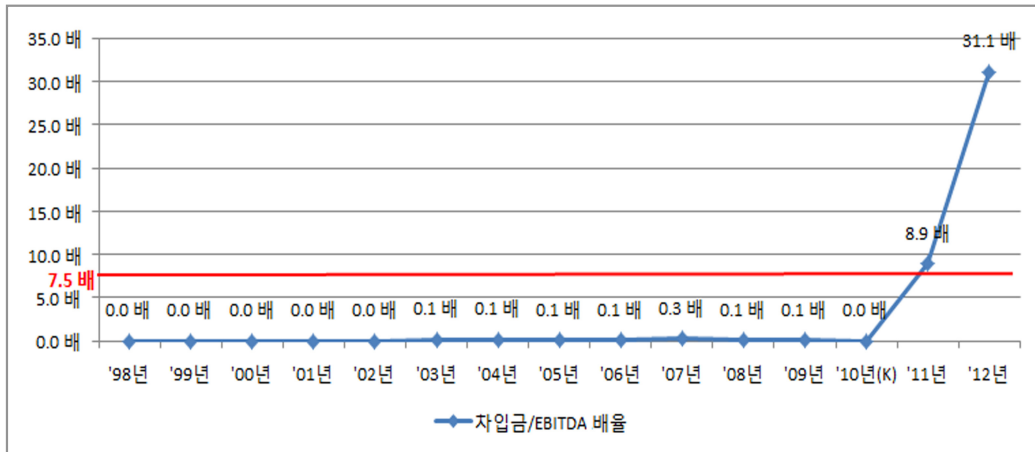
[그림 Ⅲ-143] 예금보험기금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 금융업 종사 기관으로 사채 발행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기관 특성상 이자보상배율로 부채의 상환능력을 분석하는 것은 유의하지 않음
- 기관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단기 차입금 및 예보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금융부채 이자비용이 급증하면서 2011년부터 이자보상배율이 하락함

2) 원금 상환능력

[그림 Ⅲ-144] 예금보험기금 연도별 차입금 대 EBITDA 배율



주: 상환기금은 2009년부터 국가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EBITDA가 산출되지 않아, 차입금 대 EBITDA 배율은 상환기금을 제외한 예금보험기금만 산출

- 기관은 금융업 종사기관으로 사채 발행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기관 특성상 입금·EBITDA 배율로 부채의 상환능력을 분석하는 것은 유의하지 않음
 - 2011년 이후 상호저축은행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라 차입금이 급증함에 따라 차입금·EBITDA 배율이 크게 상승함

바. 총평

- 예금보험기금 및 예보채상환기금은 「예보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등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원조달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의 상환을 위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부실의 발생시기에 따라 기금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 2003년 이전 발생한 부실은 예보채상환기금으로 관리되며, 예보기금은 2003년 이후 부실에 대해 관리
-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 초 기금이 개설되었으며, 2011년 부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부채규모가 두드러지기 시작하여 2012년 말 부채가 22조 7천억원으로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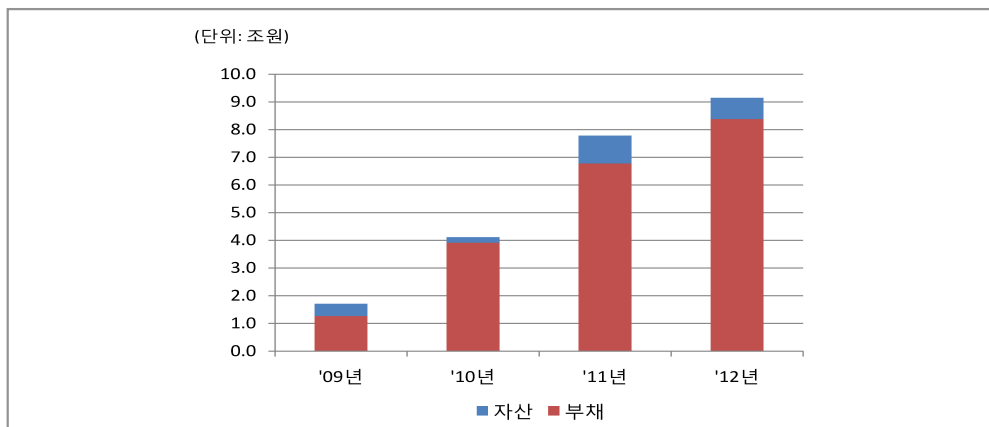
계 증가하였음

- 예보채 상환기금은 2002년 공적자금 상환을 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만기 도래 채권에 대해 상환하고 있으며, 2027년 상환 완료될 것으로 예상
-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은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금융업의 특성상 금융부채 및 차입금의 존도 등 부채 관련 재무 비율이 높기는 하나, 이를 재무위험의 기준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움
- 금융부채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취득한 자산의 매각대금, 부보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등으로 상환되고 있음

12.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은 2012년까지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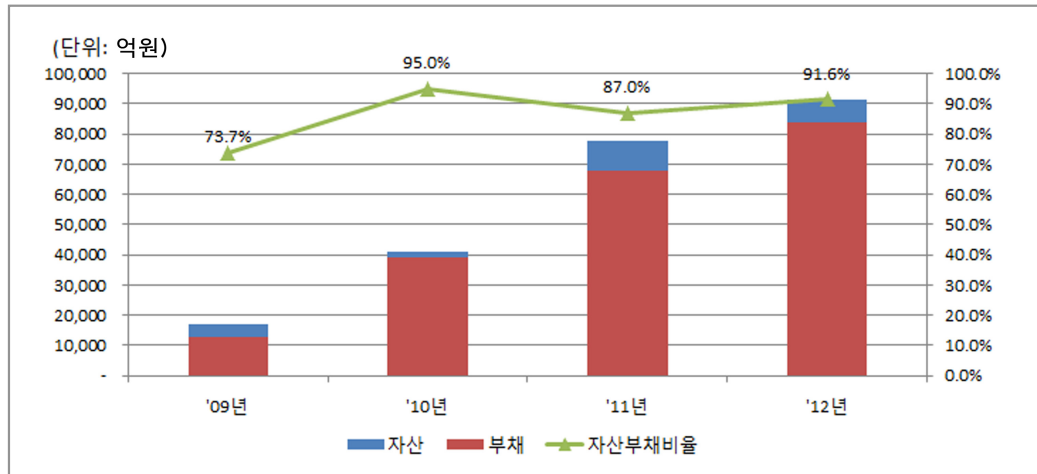
[그림 Ⅲ-145] 한국장학재단의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09~'12)



-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도에 설립된 기관
- 한국장학재단의 2012년 자산은 9.1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부채는 8.4조원으로 증가
 - 2012년 자산·부채 비율은 91.6%로 자산과 부채규모가 유사한 수준
- 기관은 금융업 종사기관으로 특성상 대출 증가에 따라 재단채를 발행하므로 부채 증가가 불가피함
 - 재단채를 발행하여 대출업무를 실행하는 금융업 종사기관으로 대출 증가에 따라 사채 증가가 수반됨
- 부채 증가액은 학자금 대출재원 마련을 위해 연평균 2.4조원씩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부터 기존 대출 상환이 발생함에 따라 순부채 증가액은 다소 감소
 - 평균 부채 증가율은 102.5%로 설립 이후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가. 부채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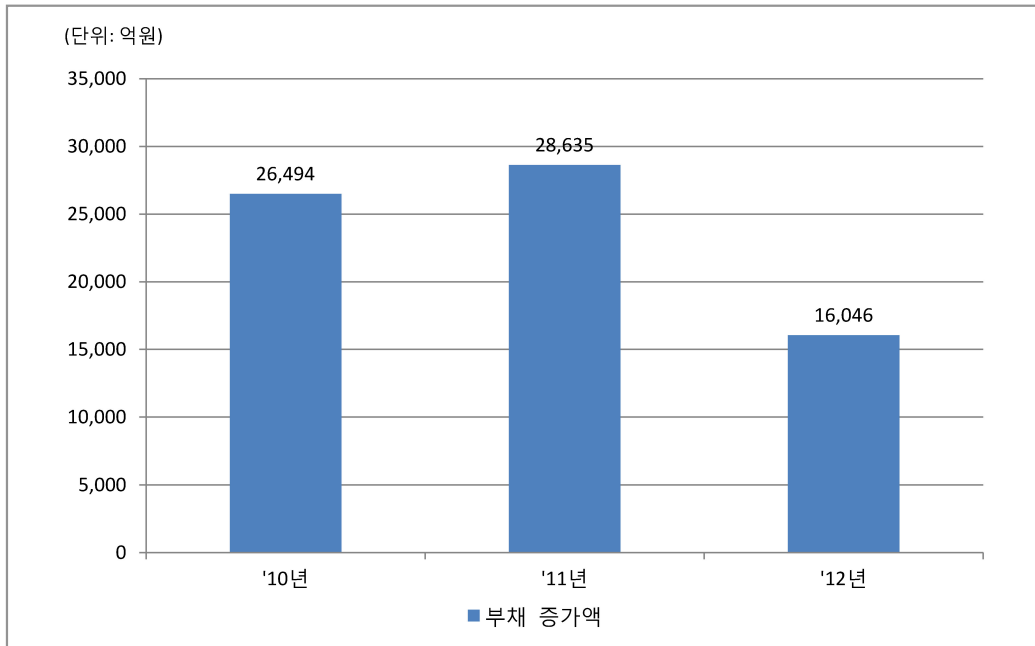
[그림 Ⅲ-146] 한국장학재단의 연도별 자산과 부채규모



- 2012년 부채규모는 8조 4천억원으로 2009년 1조 3천억원 대비 566% 증가함
- 기관 특성상 대출 증가에 따라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부채비율은 의미가 없으며, 2012년 자산·부채 비율은 91.6%로 자산과 부채규모가 유사한 수준
 - 재단채를 발행하여 대출업무를 실행하는 금융업 종사기관으로 대출 증가에 따라 사채 증가가 수반됨
 - 최근 4년간 평균 자산·부채비율은 86.8% 수준

나. 부채의 증가 속도

[그림 Ⅲ-147] 한국장학재단의 연도별 부채 증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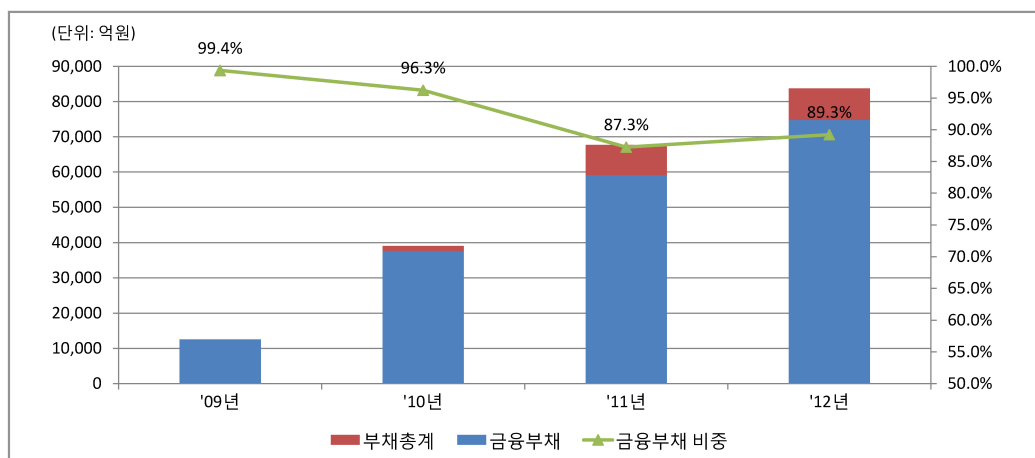
- 부채 증가액은 학자금 대출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신규 발행에 따라 연평균 2조 4천억 원씩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부터 기존 대출 상환이 발생함에 따라 순부채 증가액은 다소 감소
- 평균 부채 증가율은 102.5%로 설립 이후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다. 부채의 성격

1) 부채의 구성과 안전성

가) 금융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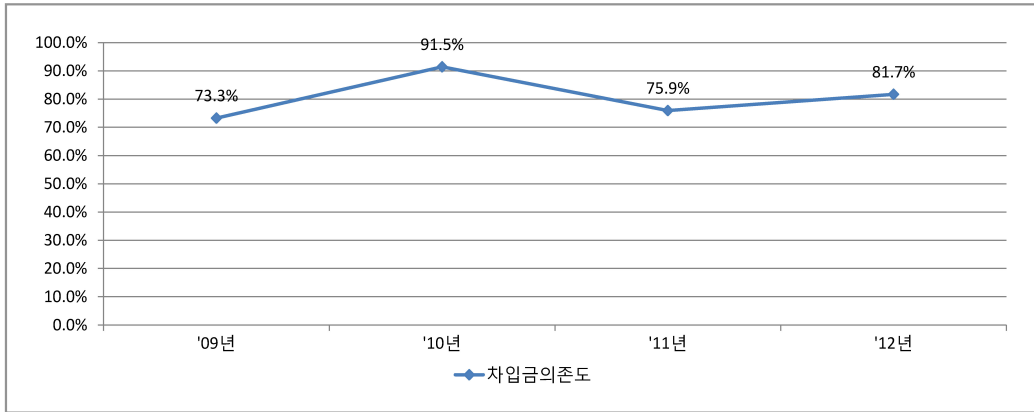
[그림 Ⅲ-148] 한국장학재단의 연도별 부채구성: 금융부채



- 금융부채는 2009년 1조 3천억원에서 2012년 7조 5천억원으로 498% 증가하였으며, 부채의 89.3%가 금융부채로 구성
 - 금융부채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부채의 93.0% 수준이며, 모두 사채로 구성되어 있음
- 기타 부채는 2009년 79억원에서 2012년 9,003억원으로 증가
 - 2012년 기타부채는 수탁사업 보조금 5천억원, 학자금신용보증충당부채 3천억원 등으로 구성

나) 차입금의존도(금융부채/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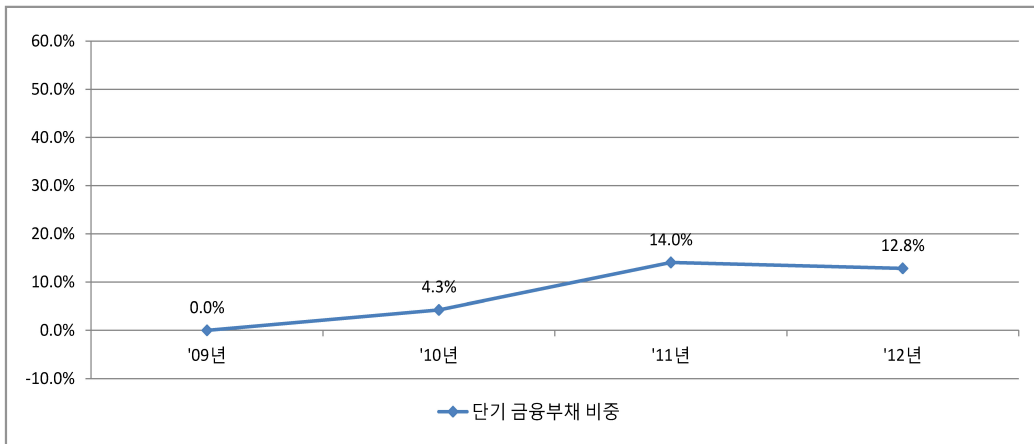
[그림 Ⅲ-149] 한국장학재단의 연도별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의존도는 2009년 73.3%에서 2012년 81.7%로 8.4%p 증가
 - 평균 금융부채 의존도는 80.6%로, 학자금대출이 본격적으로 실행된 2010년도에 91.5%로 가장 높았음
 - 채권발행을 통한 대출재원 마련으로 차입금의존도가 높음

다) 단기 금융부채 비중

[그림 Ⅲ-150] 한국장학재단의 연도별 단기 금융부채 비중



- 2012년 단기 금융부채 비중은 12.8%로 2011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12년 소폭 감소
 - 단기 금융부채는 장기사채의 만기 도래에 따라 유동성 대체된 사채임
 - 재단채는 2~20년 만기로 발행되며, 조달금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만기를 결정 및 발행하고 있음
 - 2012년 사채에 따르면 발행사채의 30%가 5년 만기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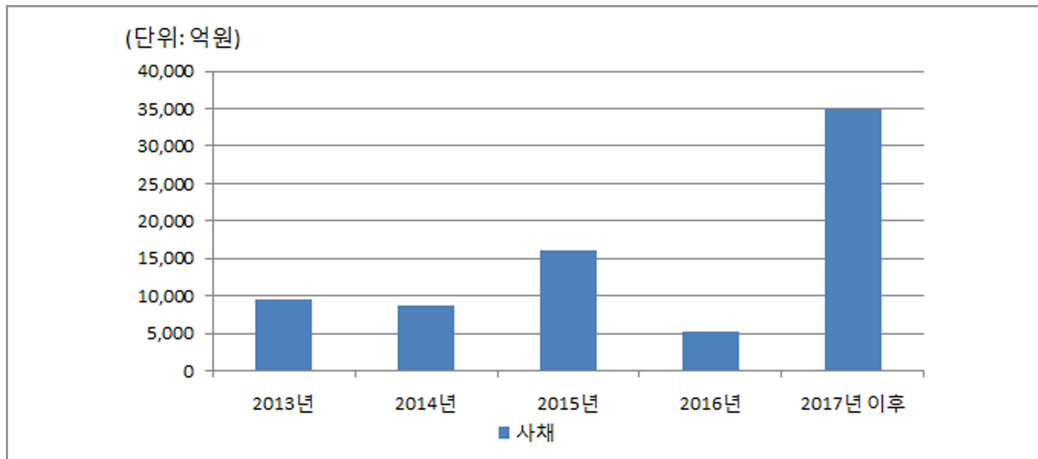
라)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기/장기 부채

〈표 Ⅲ-34〉 한국장학재단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계
금융부채						
- 사 채	9,600	8,600	16,000	5,300	35,000	74,500
합 계	9,600	8,600	16,000	5,300	35,000	74,500

[그림 Ⅲ-151] 한국장학재단의 금융부채 상환계획



- 금융부채의 만기 도래에 따라 금융부채의 12.9%가 2013년 중 상환될 예정이며, 47%가 2017년 이후에 상환될 예정
 - 금융부채 7조 5천억원 모두 향후 자체수익을 통해 상환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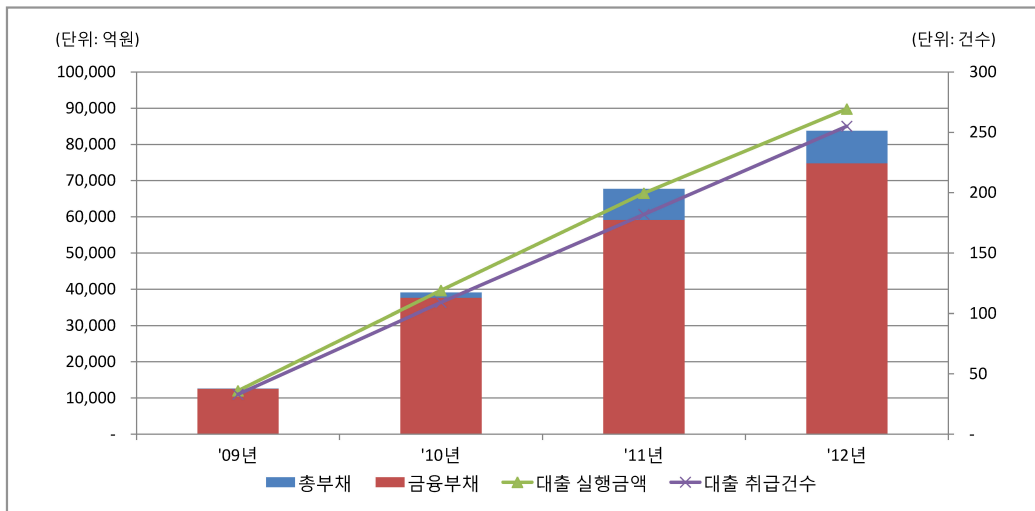
2) 외화부채 구분

□ 기관 외화부채는 발생하지 않음

라. 부채(금융부채)의 발생원인 분석

1) 부채 발생 주요 원인

[그림 Ⅲ-152]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실행과 금융부채



□ 금융부채 증가원인은 대출 실행 누계액 및 누적 대출 취급건수 증가에 기인함

- 대출 실행금액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관은 재단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이 본격화된 2010년에 대출 신규 실행금액과 금융부채액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함
- 2011년부터 대출 일부가 상환되기 시작하여 대출 실행액에 비해 금융부채 증가액이 낮은 수준으로 증가함

2) 사업별 금융부채⁴⁵⁾ 발생액⁴⁶⁾

〈표 Ⅲ-35〉 한국장학재단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단위: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년간 누계
일반학자금 대출	-	12,500	16,900	12,000	3,500	44,900
든든학자금 대출	-	0	8,200	9,300	12,100	29,600
금융부채 순증가 합계	-	12,500	25,100	21,300	15,600	74,500

- 기관은 국가장학금사업 및 학자금 대출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사업으로 인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부채가 7조 5천억원 발생함
- 국가장학금사업은 국가 지원금을 각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만 수행하므로 금융부채를 발생시키지 아니함
 - 학자금 대출사업은 대출조건에 따라 든든학자금 대출사업 및 일반학자금 대출사업으로 구분됨
 - 일반학자금 대출은 2009년부터 취급한 대출상품이며 최대 10년 거치·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타 금융기관과 유사한 일반적인 대출상품
 - 든든학자금 대출은 2010년부터 취급하였으며 취급대상은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고, 원금 및 이자가 취업시점까지 유예되는 상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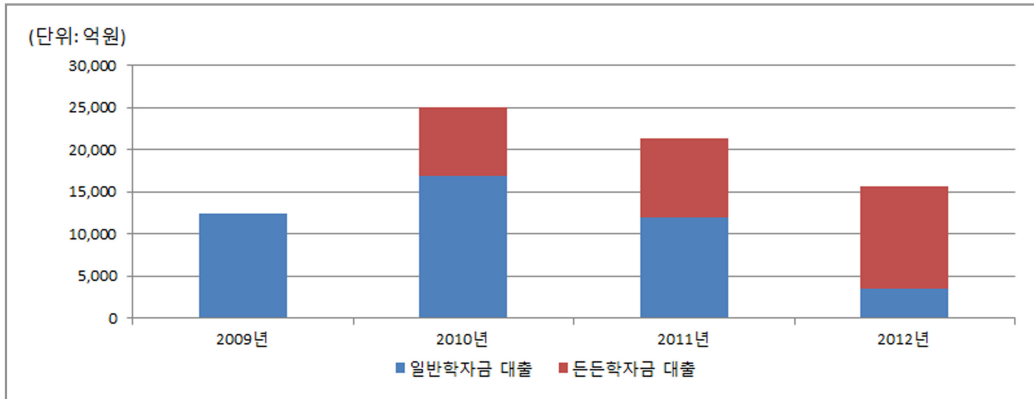
45)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은 기관이 각 사업별 자금유입 및 자금유출 규모를 기준으로 [부록 2]에서와 같은 일정한 가정하에 추정하였으므로 실제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산출되는 금융부채 증가액과 다를 수 있음

46)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은 금융부채 원금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증감액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인식한' 평가액이 고려되어 있음. 이에 따라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 및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증감액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

(단위: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누 계
재무제표상 금융부채 증감액 (A)	-	12,500	25,111	21,494	15,646	46,384
사업별 금융부채 증감액 계 (B)	-	12,500	25,100	21,300	15,600	46,133
차이 (A-B)			11	194	46	205

[그림 Ⅲ-153] 한국장학재단의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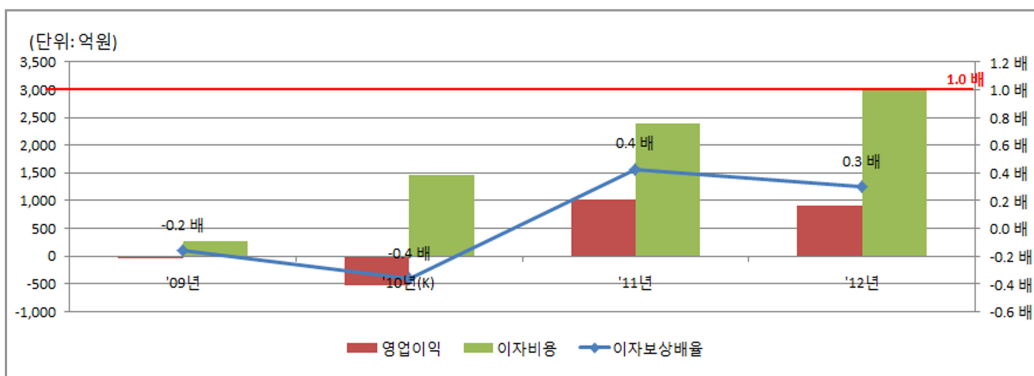


- 영업 개시 이후 금융부채 순증가 원인은 일반학자금 대출 4조 5천억원 및 돈돈학자금 대출 3조원 증가에 기인하며, 2010년 돈돈학자금 취급 개시 이후 금융부채 증가액 중 돈돈학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2012년 금융부채 순증가액 1조 6천억원 중 77.6%인 1조 2천억원이 돈돈학자금 대출 실행에 따른 부채 증가액임

마. 부채의 상환능력 분석

1) 이자 상환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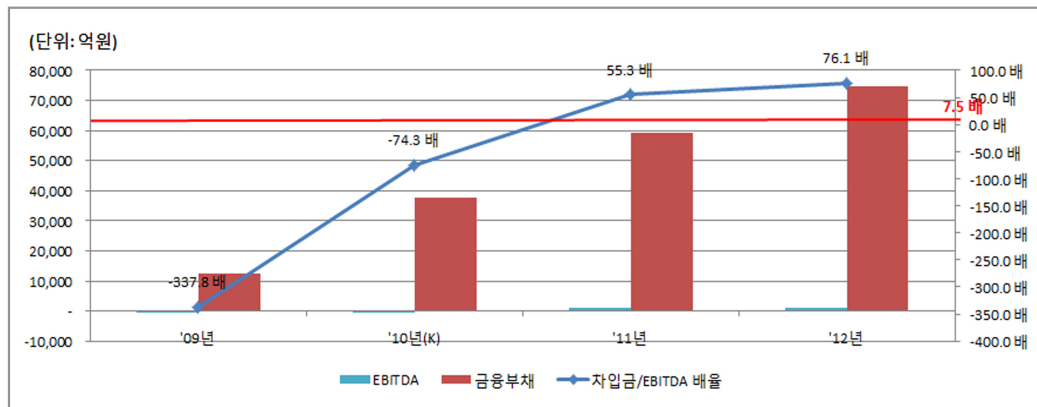
[그림 Ⅲ-154] 한국장학재단의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 기관은 금융업 종사기관으로 사채 발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므로 업종 특성상 이자보상배율로 부채의 상환능력을 분석하는 것은 유의하지 않음
- 기관은 대출 실행을 목적으로 재단채를 발행하여 대출과 사채의 규모가 거의 1:1로 일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수익과 비용이 거의 일치하므로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임
- 2011년부터 이자보상배율이 양수가 나온 이유는 든든학자금 대출에 대한 미수이자를 정부출연금으로 수령한 데 따른 효과임

2) 원금 상환능력

[그림 Ⅲ-155] 한국장학재단의 연도별 차입금 대 EBITDA 배율



- 기관은 금융업 종사기관으로 사채 발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므로 업종 특성상 차입금·EBITDA 배율로 부채의 상환능력을 분석하는 것은 유의하지 않음
- 차입금의 증가에 따라 차입금·EBITDA 배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의한 의미는 없음
- 기관의 대출 실행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부채의 증가는 불가피하나, 영업손익 인식 구조상 EBITDA가 발생하기 어려움

바. 총평

-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설립기관으로 최근 4년간 부채가 8조 4천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자산부채비율은 91.6%로 자산과 부채규모가 유사한 수준임
- 금융부채가 7조 5천억원 증가한 주요 원인은 학자금 대출 취급액과 취급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였기 때문이며, 사업별로는 일반학자금 대출이 4조 5천억원, 든든학자금 대출이 3조원 증가한 것에 기인함
 - 2010년 이후 든든학자금 대출의 금융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든든학자금 대출은 원금 및 이자가 취업시점까지 유예되는 상품으로, 자산 건전성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대출 실행을 위해 사채를 조달하는 금융업 종사 기관으로 2012년 금융부채 비중은 89.3%이며, 차입금의존도가 81.7%로 높은 편임

IV. 시사점 및 제언

1. 부채감축을 위한 공공기관과 정부의 역할

- 공공기관 부채의 배경은 공공요금 사업과 비공공요금 사업으로 분류하여 설명 가능
 - 공공요금 사업: 낮은 공공요금과 공공기관의 높은 원가에 기인하나 책임 비중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움
 - ▶ 향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원가정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
 - 비공공요금 사업: 사업이 기관의 책임하에 자발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정부 요청에 의해 타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밝히는 것 역시 매우 어려움
 - 향후 이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사업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별 구분회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역할: 방만경영 해소
 - 공공요금 사업: 원가절감에 더욱 노력할 필요(높은 원가는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서 경영평가를 통한 원가절감 압력은 있으나 기관이 원가 절감할 유인은 없는 구조)
 - 재료비 비중이 높은 기관: 가스, 한전
 -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관: 코레일, 수자원, 도로공사
- 총괄원가 방식: 공공요금 원가가 상승하면 이를 맞추도록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
총괄원가 = 적정원가(인건비+재료비+판관비+기타 경비 등) + 적정투자보수
- 비공공요금사업: 과잉투자와 방만한 사업비 방지를 위해 의사결정과 모니터링 시스템 효율화
 - 조직과 예산이 확대되는 편익이 있어 공공기관의 과잉투자 유인 상존

- **방만경영**은 부채의 모든 원인에 숨어 있는 요인으로서 민간기업 대비 경쟁과 효율화 노력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
 - 특히 공공요금 사업의 방만경영은 그대로 원가를 상승시켜 부채로 남거나 요금을 인상시켜 직접적인 국민부담으로 귀착

□ **정부의 역할**

- 공공요금 사업: 공공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보상률 검증 기능을 강화하여 적정한 요금수준 유지
 - 원가보상률('12): 전기 88.4%, 가스 86.3%, 수도 82.6%, 도로 81.0%, 철도 78.8%
- 정부정책 사업: 필요한 사업일 경우 그 재원을 공공기관의 부채에 의존하기보다는 공공기관 자체수입이나 재정투입을 통해 수행

〈표 IV-1〉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유형 \ 역할	공공요금 사업	비공공요금 사업
정부	적정한 공공요금 수준 유지	공공기관 부채에 의한 재원조달 지양
공공기관	재료비와 기타경비 효율화	과잉투자 방지를 위한 의사결정시스템 투명화 방만한 사업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방만경영 해소	

2. 공공기관 부채대책

□ **부채정보 공개**

- 의미 있는 부채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사업별 구분회계가 정착될 필요
- 향후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 절차 필요

□ **공공요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가검증**

- 향후 공공요금 사업의 원가를 검증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원가를 절감토록 하는 유인동기를 마련할 필요

- 철저한 구분회계를 통해 사업별 영업 및 부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

○ 이상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

□ 주요 부채 유발사업에 대한 **사업조정 필요**

○ 현행 사업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정도로는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사업조정 검토가 필요

<p><u>사업조정 검토대상 사업*</u></p> <p>보금자리사업, 임대주택, 혁신도시(이상 LH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석유, 가스, 광물자원공사), 무연탄생산판매사업(석탄공사) 단지사업, 4대강 살리기, 경인 아라뱃길(이상 수자원공사), 도로사업(도로공사), 철도운송사업(코레일)</p>

* 사업조정: 사업추진방식의 근본변경, 사업규모 대폭축소, 마켓테스트 등을 통한 사업중단 등을 포함

○ 향후 사업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

□ **부채관리체계 강화**

○ 부채 모니터링과 관리 강화: 공공기관 부채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관별 위험도를 파악하여 이를 자구노력 등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할 필요

- 기관별 부채위험도에 따라 부채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이에 따라 각 기관이 중장기 재무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그 이행을 기관장에 대한 인사와 경영평가에 연계할 필요

○ **주무부처 책임 강화:** 소관 공공기관 부채의 위험도를 주무부처의 평가에 포함시키는 등 주무부처의 역할을 강화

○ 전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청)의 부채를 종합 관리하는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

- 공공기관의 부채를 정부 채무와 같은 차원에서 파악하고 해결하는 노력 필요

부록 1.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 및 과거 추이 분석

1.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규모

〈부표 1〉 공공기관 전체 부채규모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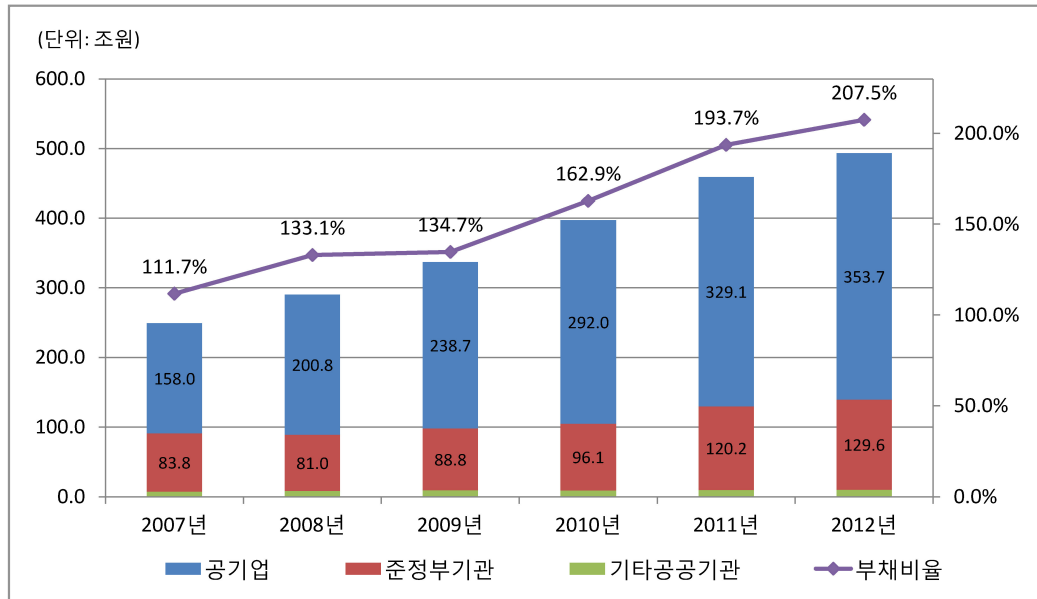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채(a)	2,492,061	2,899,966	3,368,054	3,969,747	4,589,976	4,933,812
자본(b)	2,230,660	2,179,083	2,499,572	2,437,287	2,369,323	2,378,025
자산(a+b)	4,722,722	5,079,049	5,867,626	6,407,034	6,959,299	7,311,837
부채비율(=a/b)	111.7	133.1	134.7	162.9	193.7	207.5
GDP대비 부채비중	25.6	28.3	31.6	33.8	37.2	38.8

- 공공기관 부채는 2007년 249.2조원에서 2012년 493.4조원으로 5년간 244.2조원 증가(연평균 48.9조원 증가)함
 - 공공기관의 자산은 2007년 472.3조원에서 2012년 731.2조원으로 5년간 258.9조원 증가(연평균 51.8조원 증가)하였으나 자산의 증가보다 부채의 증가규모가 더 큼
 - 이는 공공기관의 재무적인 체질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임
 -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2007년 111.7%에서 2012년 207.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2012년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위험수준인 200%를 넘은 상황임

- 공공기관 부채(2012년 기준)를 기관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이 353.7조원(72%), 준정부기관은 129.6조원(26%),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이 10.2조원(2%)을 차지하고 있음
 - 공기업의 부채는 2007년 158.0조원에서 2012년 353.7조원으로 5년간 195.6조원 증가(연평균 39.1조원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함
 - 준정부기관 부채는 5년간 45.8조원 증가(연평균 9.2조원 증가)하고, 기타공공기관

은 5년간 2.8조원 증가(연평균 0.6조원 증가)함

[부도 1] 공공기관 전체(유형별)의 연도 말 부채규모



□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도 2008년 28.3%에서 2012년 38.8%로 늘었으며 4년간 10.5% 증가함

○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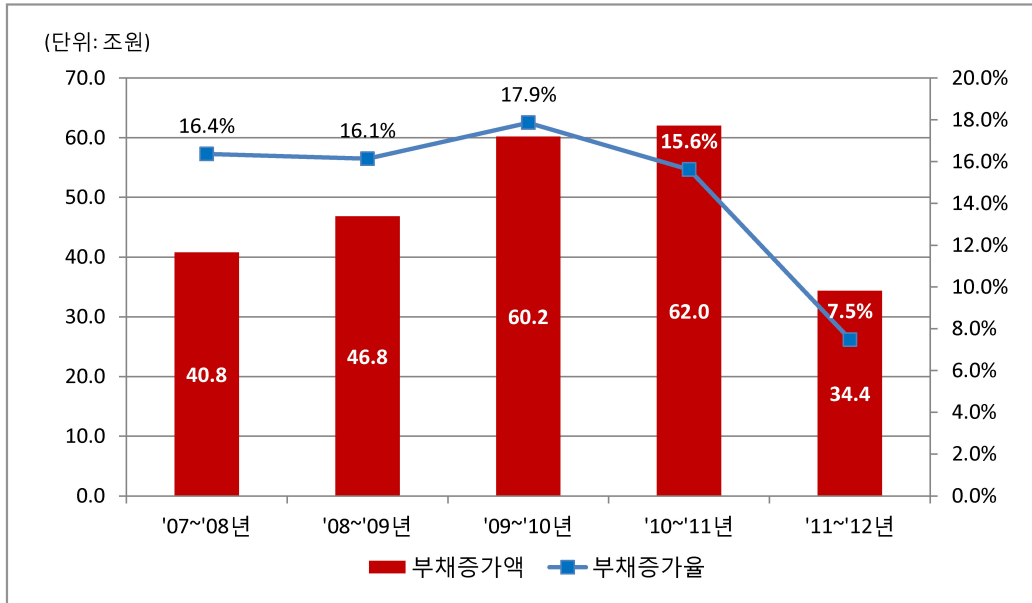
2.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 증가 속도

□ 부채의 증가 속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상승하다가 2012년 이후 다소 완화되는 추세임

○ 부채 증가액은 2008년 40.8조원에서 2011년 62.0조원으로 매년 상승하다가 2012년 34.4조원으로 증가폭이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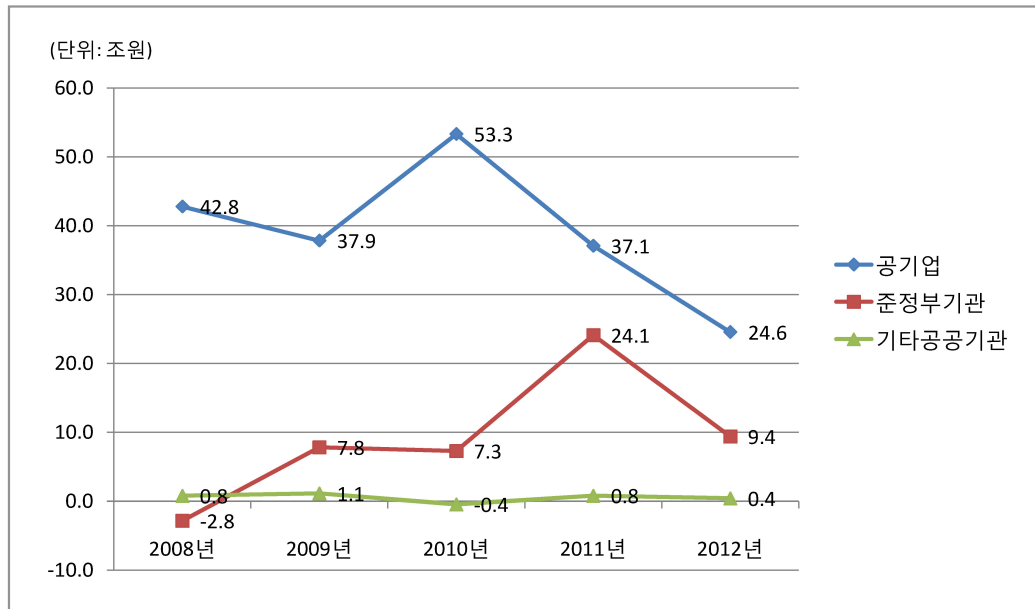
○ 부채 증가율은 2008년 16.4%에서 2010년 17.9%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어 2012년은 전년 대비 7.5% 상승함

[부도 2]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 증가액



- 공공기관 유형별로 부채의 증가 속도를 살펴보면 공기업의 부채는 2010년 증가액(53.3조원)이 가장 많으며, 준정부기관은 2011년 증가액(24.1조원)이 가장 큼
- 공기업 부채의 증가 추이는 2009년(37.9조원)에서 2010년(53.3조원)까지 커지다가 2011년(37.1조원)과 2012년(24.6조원)에는 증가 속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
 - 공기업의 경우 2010년에 회계기준 변경(K-GAAP → IFRS)에 따른 부채 증가효과가 19.2조원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를 제외한 순수한 2010년 부채 증가액은 34.2조원임
-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4년간 49조원 증가하였으며 그 중 2011년에 24.1조원(49%)가 증가함
 - 준정부기관 중 예금보험공사의 2011년 부채 증가액은 13.3조원이며 이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차입 등으로 인한 것임

[부도 3]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증가액 추이



- 전체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제외)의 부채가 전체 부채의 대부분(97%)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부채 증가액은 특히 몇몇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공기업 부채의 5년간 증가액(195.6조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71.2조원), 한국전력공사(56.4조원), 한국가스공사(23.5조원), 한국석유공사(14.3조원), 한국수자원공사(12.2조원), 한국철도공사(8.4조원), 한국도로공사(7.5조원) 등 7개 기관의 부채 증가액(193.5조원)이 전체 공기업 부채 증가액의 98.9%를 차지함
 - 준정부기관 부채의 5년간 증가액(45.8조원) 중 예금보험공사(14.0조원), 한국장학재단(8.4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7.4조원) 등 3개 기관의 부채 증가액(29.7조원)이 전체 준정부기관 부채 증가액의 65.0%를 차지함

부록 2. 기관 사업 구분 및 사업별 자금 추정 근거

1. 한국가스공사

- 공사의 사업구분은 1단계로 요금규제 - 비규제사업으로 구분
 - 요금규제사업은 천연가스 공급에 직결된 사업으로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의거, 관련된 비용과 적정이윤을 요금으로 보전 받는 사업이며, 비규제사업은 공사의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비용 및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
- 2단계 구분은 요금규제사업을 국내와 해외로, 비규제사업을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고, 해외 비규제사업은 자원개발과 중하류사업으로 세분
 - 요금 규제사업을 국내와 해외로 구분 시, 국내는 천연가스 공급사업으로 해외는 도입계약과 연계되어 투자된 자원개발사업으로 구분 가능
 - 국내 천연가스 공급사업은 천연가스 도입·생산·공급·판매 및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생산·공급설비의 건설 등을 포함
 - 도입연계 자원개발사업(해외가스전 지분투자)은 천연가스 장기 도입계약과 연계하여 프로젝트의 지분에 투자한 사업으로 비용은 요금으로 보전받고, 수익은 요금할인에 활용
 - 비규제사업을 국내와 해외로 구분 시, 국내는 천연가스 공급사업 이외의 사업이며, 해외는 자원개발(상류)사업과 해외 중하류 사업으로 구분 가능
 - 석유·가스 관련 사업은 Value-Chain으로 구분 가능한데, 크게 상류(Upstream)사업과 하류(Downstream)사업으로 구분
 - 상류사업은 석유·가스의 탐사·개발·생산 단계의 사업을, 하류사업은 수송·정제 판매와 관련된 사업이 해당

□ 요금규제사업 중 국내천연가스 공급사업의 자금유입·유출의 산출 근거

- 자금유입: 요금규제 - 국내천연가스 공급사업은 공사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미수금이 매출로 인식되나 현금의 실질유입이 아니므로 자금유입에서 차감
- 자금유출: 시설투자는 천연가스 저장·생산·공급설비 투자비 지출(Capex)을, 기타는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대부분의 비용을 포함하되, 이자비용과 자원개발비, 외환차익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반영, 또한 손익계산서상에는 없지만 자금유출이 있는 운전자금과 배당금 지출을 포함하여 산정
 - * 2012년까지는 비규제사업의 비중이 크지 않아 인건비를 비규제 구분 없이 총괄원가에서 인정받아서, 수익-비용 모두 규제-국내사업으로 배분
 - * 공사의 상각비는 크게 저장·공급설비에서 발생하는 상각비와 수송선 리스 상각비로 구분되고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으로 비용에서 제외하나, 수송선 리스 상각비는 리스부채 원리금 상환과 직결되므로 자금유출에 포함

□ 요금 규제사업 중 도입연계 자원개발사업의 자금유입·유출의 산출 근거

- 자금유입: 도입연계 자원개발사업의 자금유입은 생산중인 사업(KOGAS, KOLNG)의 배당금 수익
- 자금유출: 시설투자는 도입연계 자원개발사업의 지분투자비(Capex)를 반영하고, 기타는 자원개발비와 이자비용, 외환차익이 해당, 자원개발비는 당해연도 투자비(Capex) 비중으로 안분, 이자비용과 외환차익은 투자 누계 비중으로 배분하여 반영
 - * 2012년까지 해외사업 투자비는 거의 외부 차입(외화)으로 조달

□ 비규제사업 중 자원개발사업의 자금유입·유출의 산출 근거

- 자금유입: 비규제 자원개발사업은 직접투자사업인 미얀마 A-1/A-3(2013년 생산개시) 제외하고는 연결·지분법 적용대상으로 배당으로 자금유입이 가능하나, 현재 생산중인 사업은 투자 소요가 많아 투자비 재투자에 활용되고 있어 현재 유입은 없음
- 자금유출: 시설투자는 비규제 자원개발사업의 투자비(Capex) 중 수익 발생으로 재투자한 금액을 제한 순(純)투자비를 반영하고, 기타는 자원개발비와 이자비용, 외

환차익이 해당, 자원개발비는 당해 연도 투자비(Capex) 비중으로 안분, 이자비용과 외환차익은 투자 누계 비중으로 배분하여 반영

- 비규제사업 중 중하류사업의 자금유입·유출의 산출 근거
 - 자금유입: 비규제 중하류사업의 자금유입은 투자사업을 통한 배당수익과 기술 전문용역에 따른 용역수익이 해당
 - 자금유출: 시설투자는 해외 중하류사업의 지분투자비(Capex)를 반영하고, 기타는 자원개발비와 이자비용, 외환차익이 해당, 자원개발비는 당해연도 투자비(Capex) 비중으로 안분, 이자비용과 외환차익은 투자 누계 비중으로 배분하여 반영

2. 한국석유공사

◆ 대외적으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결산서 기준으로 추정 자금유입 및 자금유출 금액 산출

- 석유개발 및 비축사업
 - 자금유입
 - 사업별 매출액과 정부출자 금액으로 산정(당해연도 순현금 증감 포함)
 - 자금유출
 - 투자비 : 해외 자회사 M&A 등 각 사업별 투자비를 현금흐름 기준으로 추정하여 산정
 - * 연도별 투자비 주요 내역(해외 자회사 M&A 기준)
 - (2008년) Ankor 898백만달러, (2009년) Savia Peru 646백만달러, Harvest 2,716백만달러, (2010년) DANA 2,996백만달러, (2011년) Eagle Ford 1,550백만달러 등
 - 총비용 : 사업별 추정 가능한 비용 기준으로 산정
 - * (국내 석유개발사업) 국내 매출원가 기준, (해외 석유개발사업) 결산서상 계산 가능한 비용 산출하여 추정 등

- 자금순차입
 - 공사 사업 성격상 금융부채의 순증감은 국내외 석유개발사업에 국한됨
- 민간용자사업
 - 민간의 석유개발사업 투자 장려를 위한 정부 용자사업 대행으로 실질적인 공사 현금흐름과는 무관
 - * 장부상 해당연도 순증감 금액만 표기(2010년 IFRS 도입 이후 공사부채에서 제외됨)
- 환율효과
 - IFRS 도입 시점부터 미국달러를 기능통화로 사용하고 있어 기말 환율에 따른 재무상태표 계정 환율차이 발생

3.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공사
 - 국내 전력사업의 경우, 자금유입 및 유출 금액에 대한 검증된 수치의 부재로 인하여 기관 전체의 금융부채 순증가액에서 해외사업의 금융부채 순증가액을 차감하여 국내 전력사업의 금융부채 순증가액을 산정함
 - 해외사업의 경우, 자금유입은 '결산상 수익 - 자금미수반 수익(진행률 수익 인식) + 선수금 입금 + 배당금 수익'으로 계산하고, 자금유출은 '결산상 비용(인건비 등) + 해외 투자비'로 계산하여 금융부채 순증가액을 산정하였음
- 한국수력원자력
 - 자금유입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
 - 시설투자는 원전건설, 원전연료, 방폐물처분시설투자, 발전시설 보강 등으로 구성
 - 기타는 시설투자 외 경상경비 관련 자금유출임
 - 해외사업 관련 자금유입은 해외사업 관련 발생손익이며, 자금유출은 발생비용임

□ 한국중부발전

- 알리오(수입·지출 현황)에서 차입금 조달과 차입금 상환을 제외함
 - 자금유입 = 알리오 수입 현황 - 차입금 조달
 - 자금유출 = 알리오 지출 현황 - 차입금 상환
- 자금 순차입은 금융부채 순증감액과 일치시킴
- 국내 자금 유입(유출)
 - = 전체 자금 유입(유출) - 해외 자금 유입(유출)
 - 해외자금 유입: 배당 및 용역 수익
 - 해외자금 유출: 해외 출자
 - 해외자금 순차입 = 해외자금 유출 - 해외자금 유입
- 기타 유출 = 전체 자금 유출 - 시설투자(해외투자)
 - 자본예산 집행실적으로 국내 시설투자(유출) 및 해외 투자(유출) 구분

□ 한국남부발전

- 사업별 자금유입: 각 사업별 자금유출액과 사업별 자금순차입액의 합계액
- 사업별 자금유출
 - 시설투자: 자본예산 집행실적 중 발전건설, 설비보강 합계액
 - 기 타: A+B
 - A: 자본예산 집행실적 중 정보통신설비, 업무설비, 무형자산, 투자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의 합계액
 - B: 손익예산 집행실적 총액
- 사업별 자금순차입
 - 자금차입은 특정 차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차입금 중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음
 - 따라서 자금순차입 총액 중 해외사업의 자금유출 금액과 동액을 자금 순차입 금액으로 먼저 기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국내사업 자금 순차입액으로 기재함

□ 한국동서발전

- 자금유입: 매출액, 전기이월금, 기타 영업외수익 등 입력

- 자금유출: 재료비, 경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차기이월
 - 사업별 구분: 전기판매업/ 해외사업 두가지로 분류, 해외사업부분은 사업예산 실적
으로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기판매업으로 구분계산함
 - 기본적으로 알리오에 공시한 수입지출내역과 연도별로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였
으며, 알리오 수입지출내역에서 차입금 유입과 차입금 상환은 제외하고 작성함
 - 자금유출부분의 시설투자금액은 연도별 투자비 집행실적을 기재함
- 한국남동발전
- 자금순차입액(=자금유출-자금유입): 금융부채 순증가액과 일치
 - 자금유출-시설투자: 투자비 실적기준
 - 자금유출-기타: 현금흐름표(CF)상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한국서부발전
- 국내사업
 - 자금유입: 매출액(전기판매수익, 기타전기매출, 열공급사업수익)
 - 자금유출
 - ㄱ. 시설투자: 발전소 건설, 설비보강, 업무설비, 통신설비 및 국내사업 지분 투자비
 - ㄴ. 기타: 재료비, 인건비, 경비
 - 해외사업
 - 자금유입: 해외사업 배당수익 및 기타 수익
 - 자금유출
 - ㄱ. 시설투자: 해외사업 출자금
 - ㄴ. 기타: 해외사업 관련 자문수수료 등 경비

4. 대한석탄공사

- 별도 기준의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 자금유입은 무연탄 판매대금, 정부출자금, 산재보험료 등 국고보조금 및 임대료 등 기타수입(자산판매대금 및 에특회계·강원도회계 수입 등)과 제예금(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감소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자금유출은 자재비, 각종 경비, 산재보험료, 외주용역비 등 매출원가성 비용과 철도임 등 판매비성 비용을 포함하는 사업비, 인건비(퇴직금지급액 포함), 이자비용 및 본사의 운영경비를 포함하는 일반관리비와 제예금(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액, 기타지출(에특회계 및 강원도회계 지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5. 한국광물자원공사

	유입	유출
투자사업	출자 및 자본보조	국내외 자원개발 투자
용자사업	용자금 회수	자원개발 지원 용자

6. 한국도로공사

기관은 도로사업, 부대사업 및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구분하였으며, 사업별로 구분회계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아래 가정에 따라 사업별 금융부채 순증감액을 산출함

- 도로사업
 - 자금유입: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정부출자금 등
 - 자금유출
 - 시설투자: 고속도로건설 및 개량 관리사업 투자비 등

- 기 타: 유지관리비, 고속도로건설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

□ 부대사업

○ 자금유입: 고속도로 휴게시설(휴게소, 주유소) 임대료 수입, 수탁사업 수입 등

○ 자금유출

- 시설투자: 휴게시설 투자 및 개량사업비 등

- 기 타: 휴게시설 유지관리비, 수탁사업 비용 등

□ 지원사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수탁 대행사업으로 실비 정산(유입-유출 동일)

- 고속도로 조사설계, 민자노선 용지매수 대행, 지자체 수탁, 국책연구과제 수행

7. 한국수자원공사

□ 자금유입

○ 수자원, 단지사업

- 댐·수도사업수익, 분양대금, 현금출자금 등 현금유입액의 사업별 합계액

○ 정책사업

- 경인 아라뱃길: 분양대금, 현금출자, 정부대행사업 등 현금유입액

- 4대강 살리기: 2010~2012년까지 정부의 금융비용 국고보조금 및 정부대행사업의 현금유입액

○ 수익 및 부대사업: 고유사업, 정책사업외 부대사업(신재생, 지방상하수도, 골재, 수탁사업 등)의 매출, 현금출자 등 현금유입액

□ 자금유출

○ 수자원, 단지사업

- 시설투자: 댐·수도시설 건설, 개대체 및 단지사업의 단지조성에 투입된 현금유출액의 사업별 합계액

- 기타: 각 사업별 운영에 소요된 현금유출액의 사업별 합계액
- 정책사업
 - 시설투자: 4대강, 경인 아라뱃길 건설에 투입된 현금유출액
 - 기타: 4대강, 경인 아라뱃길 운영관리비 및 4대강 금융비용
- 수익 및 부대사업
 - 시설투자: 고유사업, 정책사업외 부대사업(신재생, 지방상하수도, 골재, 수탁사업 등)의 건설 및 개대체에 소요된 현금유출액
 - 기타: 부대사업의 운영에 소요된 현금유출액
- 공통비 배분
 - 특정사업으로 귀속이 불투명한 공통사업비(현금유입액과 유출액간 차액)는 아래 배부기준에 의해 산출하여 배분
 - * 공통사업비 배부기준
 - = (영업외수익 등 유입금액 -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 유출금액) × (인원 비율 + 사업실적금액비율) ÷ 2)

8. 한국철도공사

- 사업유형 구분은 공사의 주요기능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함
 - 운송사업: 철도여객·화물운송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송사업
 - 수탁사업: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다원사업: 역세권 및 공사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사업
- 사업비 규모는 연간 사업비 지출예산을 기준으로 작성(영업외사업은 기타비용 및 금융비용)
- 사업손익은 2012년 경영성적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단, 영업외사업은 결산서 기준으로 작성)

- 수입재원은 연간사업비에 대한 수입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9. 한국토지주택공사

- (2009년 이전) 구분회계시스템 구축 이전으로, 통합 당시 양 공사의 관리회계(주요사업에 대한 현금흐름)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
- (2010년도 이후) 「LH공사법」에 의거 구분회계제도 법제화에 따라 2011년도 결산부터 사업유형별 재무제표를 공시 중에 있으며, 작성방법에 의거 구분 재무제표상 자금순차입액을 기입
- 공통비 금액 산출
 - (2009년 이전) 사업유형별 금융부채 산정기준과 동일
 - (2010년도 이후) 구분단위별 금융부채는 직접 귀속되는 차입금, 사채 및 사내차입금으로 구성
 - 일반차입금(일반사채 등)은 각 구분단위별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사내차입금을 개별산출
 - 사내차입금 = 자산 - 고유부채(기금 등) - 자본

10.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별 자금유입 및 자금유출 구분 근거
 - 경부고속철도 1단계는 2004년 이후 건설 완료되어 투자비가 회수되는 단계로서 자금유입은 철도공사로부터 받는 선로사용료이며 자금유출은 경부1단계 부채의 이자비용과 선로유지보수비용으로 구성
 - 따라서 선로사용료(자금유입)를 초과하는 유지보수비와 이자비용(자금유출)을 조달하기 위해 자금을 순차입(채권발행)하는 구조

- 경부2단계, 호남·수도권 고속철도는 2012년 말 현재 건설 중으로 자금유입은 건설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출연금이며 자금유출은 총건설사업비와 건설 관련 이자비용임
 - 매칭투자비 형태로 건설비와 관련 이자비용을 채권발행하여 조달
 - 따라서 정부출연금을 초과하는 시설투자분은 공단이 채권발행한 순부채 증가액임

11. 예금보험공사

-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예보기금, 상환기금과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공사회계를 구분회계하고 있음. 또한 기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제24조의3 제2항)에 따라 금융권별로 구분회계하고 있음

12.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대출채권 발행 시 용도별 구분하여 발행하고 있음
- 기관은 설립 법률에 따라 계정별로 구분회계 처리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회계의 구분처리)

공공기관 부채의 성격과 원인 분석

2013년 12월 24일 인쇄

2013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허 경 선 외

발행인 옥 동 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 판 및
인 쇄 경성문화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ISBN 978-89-8191-700-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